한국한문교육학회
2016년 동계 학술대회

대학교육과 한문교육

일시 : 2017년 2월 4일(토) 09:30~18:00
장소 : 공주대학교 사범대학관 3층 대회의실
주최 : 한국한문교육학회 · 공주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주관 :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한문교육과
후원 : (재)국제교류진흥회

한국한문교육학회
2016년 동계 학술대회

대학교육과 한문교육

일시 : 2017년 2월 4일(토) 09:30~18:00
장소 : 공주대학교 사범대학관 3층 대회의실
주최 : 한국한문교육학회 · 공주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주관 :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한문교육과
후원 : (재)국제교류진흥회

오 전 일 정

개회식 (09:30~09:40)

사회 : 김병철(군포고등학교)

개회사 진재교(한국한문교육학회 회장)

자유주제발표 (09:40~11:00)

사회 : 김병철(군포고등학교)

제1주제발표(09:40~10:00) 배기표(신장중학교)

한문교과 교육과정 재구성 현장 사례

제2주제발표(10:00~10:20) 안세현(강원대학교)

한문 교육에서의 인성 교육 -인성 요소의 설정과 교수·학습 방법을 중심으로-

제3주제발표(10:20~10:40) 장재익(수완고등학교)

漢文文體 '箴'의 교재화 방안

제4주제발표(10:40~11:00) 김 경(전남대학교)

18~19세기 散文에 나타난 月 담론과 인식의 일국면

휴식 (11:00~11:10)

종합토론 (11:10~12:00)

좌장 : 김미선(청주대학교)

김충겸(신한중학교), 류준경(성신여자대학교), 김종민(성균관대학교), 김홍백(성균관대학교)

중식 (12:00~13:00)

오 후 일 정

기획주제 “대학교육과 한문교육” 발표 (13:00~15:40)

사회 : 이현일(성균관대학교)

기조강연(13:00~13:20) 진재교(한국한문교육학회 회장)
대학교육과 한문교육

제1주제발표(13:20~13:40) 송혁기(고려대학교)
인문고전으로서의 한문교육 -대학 교양교육의 맥락에서-

제2주제발표(13:40~14:00) 김영주(성균관대학교)
대학 전공 교육으로서의 한문교육 -反省과 미래적 진행 방향에 대한 試探-

제3주제발표(14:00~14:20) 김성중(계명대학교)
표준화된 ‘대학한문입문’(가제) 교재 편찬 방향과 구성

휴식 (14:20~14:40)

제4주제발표(14:40~15:00) 백광호(전주대학교)
‘C-STAR’! 디지털 시대의 古典 敎育 方法 -大學의 漢文 講座를 중심으로-

제5주제발표(15:00~15:20) 안순태(서울대학교)
대학교양한문과 인성교육 -서울대 독서세미나『논어』강좌의 예를 중심으로-

제6주제발표(15:20~15:40) 조혁상(홍익대학교)
대학교 교양한문강의에 대한 소고 -홍익대학교 교양한문(초급) 강의를 중심으로-

휴식 (15:40~16:00)

종합토론 (16:00~17:30)

좌장 : 한연석(공주대학교)

김우정(단국대학교), 김창호(원광대학교), 이동재(공주대학교)
허 철(교원대학교), 백승호(한남대학교), 임미정(연세대학교)

한국한문교육학회 연구윤리교육 (17:30~17:45)

총회 및 폐회식 (17:45~18:00)

목 차

오전 자유주제 발표

한문교과 교육과정 재구성 현장 사례 1
배기표(신장중학교)

한문 교육에서의 인성 교육 -인성 요소의 설정과 교수・학습 방법을 중심으로- 21
안세현(강원대학교)

漢文文體 '箴'의 교재화 방안 41
장재익(수완고등학교)

18~19세기 散文에 나타난 月 담론과 인식의 일국면
김 경(전남대학교) 65

오후 기획주제 "대학교육과 한문교육" 발표

기조강연: 대학교육과 한문교육 87
진재교(한국한문교육학회 회장)

인문고전으로서의 한문교육 -대학 교양교육의 맥락에서- 93
송혁기(고려대학교)

대학 전공 교육으로서의 한문교육 -反省과 미래적 진행 방향에 대한 試探- 105
김영주(성균관대학교)

표준화된 '대학한문입문'(가제) 교재 편찬 방향과 구성 119
김성중(계명대학교)

'C-STAR'! 디지털 시대의 古典 敎育 方法 -大學의 漢文 講座를 중심으로- 127
백광호(전주대학교)

대학교양한문과 인성교육 -서울대 독서세미나『논어』강좌의 예를 중심으로- 139
안순태(서울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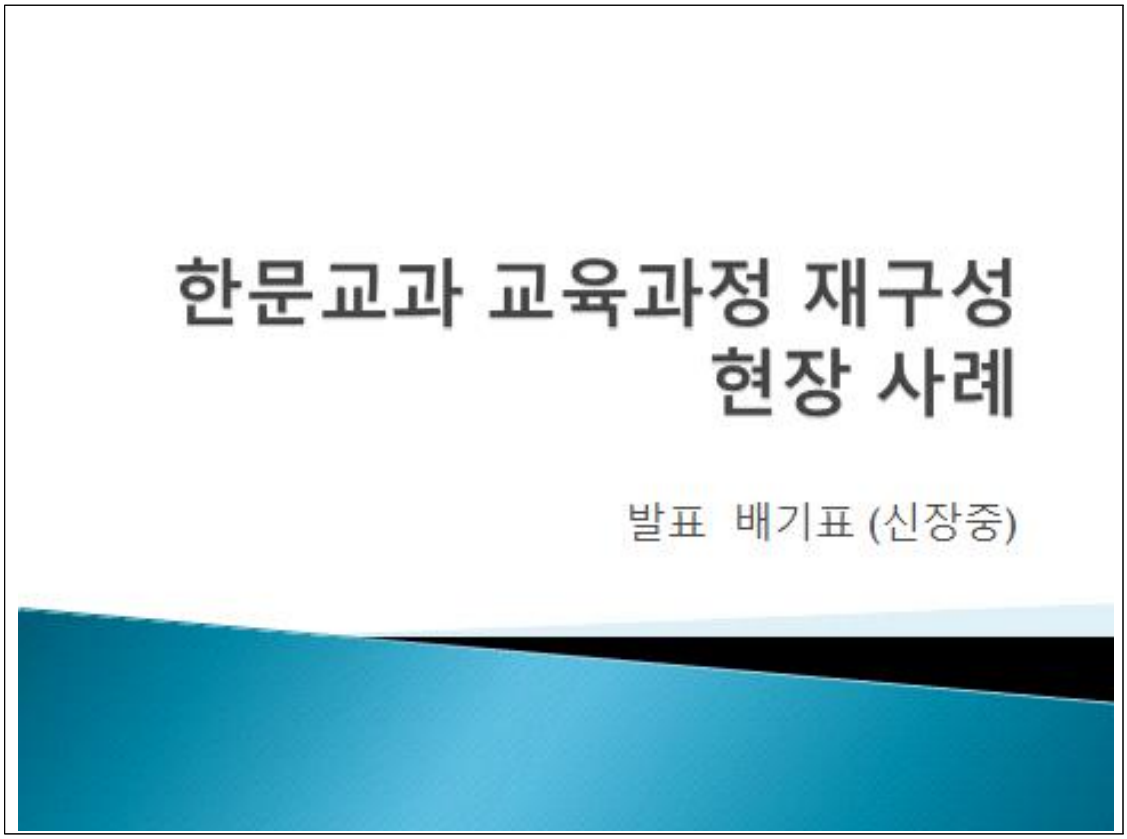
대학교 교양한문강의에 대한 소고 -홍익대학교 교양한문(초급) 강의를 중심으로- 159
조혁상(성균관대학교)

한문교과 교육과정 재구성 현장 사례

배기표(신장중학교)

【목차】

1. 들어가며
2. 수업 운영 개괄
3. '내가 만드는 한문책' 학생 활동 예시
4. 본 수업 운영 사례의 의의와 한계
5. 나오며



목차

- 1. 들어가며
- 2. 수업 운영 개괄
- 3. '내가 만드는 한문책' 학생 활동 예시
- 4. 본 수업 운영 사례의 의의와 한계
- 5. 나오며

1. 들어가며

가. 개요

- 본고는 발표자가 2013년부터 4년간 중학교에서 운영해 온 한문과 교육과정 재구성 사례를 학생들의 활동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
- 이를 통하여 현재 혁신학교의 확대와 자유학기제의 실시 등으로 학교 현장에서 요청되는 국가 수준 교육과정의 지역, 학교(학년) 수준의 교육과정 재구성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고자 함.

나. 교육과정 재구성에 대한 고민의 시작

- 1) 근무 학교의 혁신 예비 학교 지정
- 2) 한문 교과서 집필 참여 및 경기도교육청 중학교 창의지성 교재(철학) 개발 위원 참여
- 3) 무엇보다 2012년 2학기 복직 후 수업 시간 교실에서 느낀 당혹감과 좌절감, 변화의 필요성 절감

- => 이전의 교과서 중심의 강의식 교육 과정 운영 방식에서 변화하여 일명 '내가 만드는 한문책'이라는 '학습자 중심'의 인문적, 예술적 부분을 중점에 둔 방식으로 수업을 전환함.
- '내가 만드는 한문책'은 학생들이 매 수업 시간에 교사를 통해 제시되는 텍스트를 토론, 글쓰기, 마인드 맵 등 다양한 교육 활동을 통하여 배우고, 한문 교과에서 배워야 할 한자, 어휘, 언어생활, 한문의 독해, 인성과 문화 등의 핵심 내용들을 익히며, 백지 노트에 자신의 한문책을 만들어가는 방식.

다. 이론적 배경

- 1) 국가수준 교육 과정
- 2) 혁신학교, 자유학기제
- 3) 배움 중심 수업
- 4) 발도로프 교육

2. 수업사례 개괄

가. 수업의 목표와 중점

- 1) 수업의 목표는 국가수준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함.
- 중학교 '한문'은 중학교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900자를 중심으로 한문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익혀 한문 독해와 언어생활에 활용하며, 한문 자료를 이해하고 향유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둔다. 그리고 한문 기록에 담긴 선인들의 삶과 지혜를 이해하여 건전한 가치관과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하고, 전통문화를 이해하고 계승·발전시키며, 한자문화권의 문화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익혀 한자문화권 내에서의 상호 이해와 교류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유의한다.
- 특히, 한문과가 학교 교육의 정규 교과로는 중학교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학습자가 쉽고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유의한다. (2015 한문과 교육과정 목표 (중학교))

- 2) 중점
- 가) 연결하기 – 학생의 삶, 흥미, 호기심, 자발성
- 나) 인문학과 예술적 부분을 결합(창의성)
- 다) 민주시민 역량 교육- 공공성,시민의식
- 라) 지역, 학교, 학년 교육과정과 유기적 결합
- 마) 배움 중심-배움을 포기하는 학생이 없도록
- 바) 일 년 교육과정 전반에 걸친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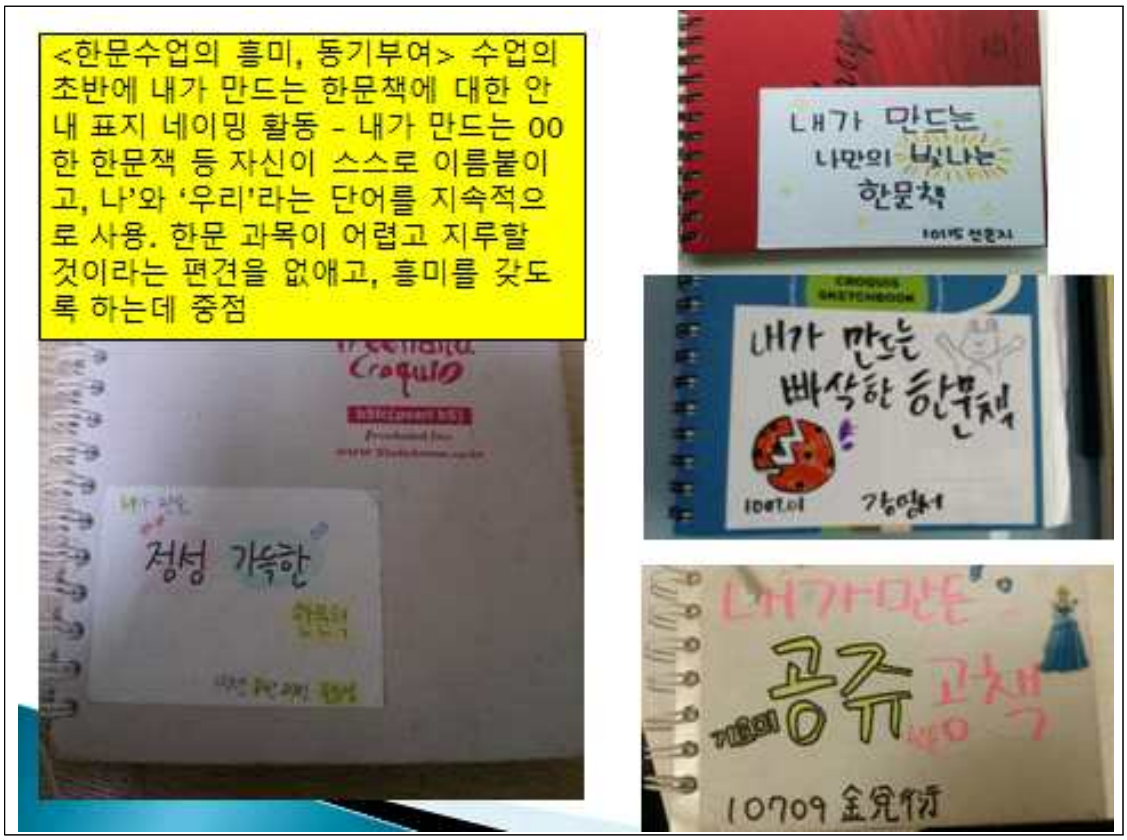
나. 교육과정의 계획과 진행과 평가

- 1) 교육과정의 계획
- 가) 매년 학기 시작 전 학교, 학년 교육과정의 협의를 통하여 한문 교과 계획을 수립
- – 예) 2016년도 학년 협의회를 거쳐 1학년 교육과정의 중점은 '배려' (2학기 자유학기제 실시)/ 2학년 교육 과정의 중점은 '경청과 소통'으로 핵심 목표를 설정함. 한문과는 전년도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올해의 학년 핵심 목표를 반영하여 교육 과정을 계획함.
- 나) 본교 학생들의 특성과 수준을 분석하여, 학습할 텍스트 내용을 선정하여 한문의 이해/ 한문의 활용의 영역을 잘 안배하여 수업을 디자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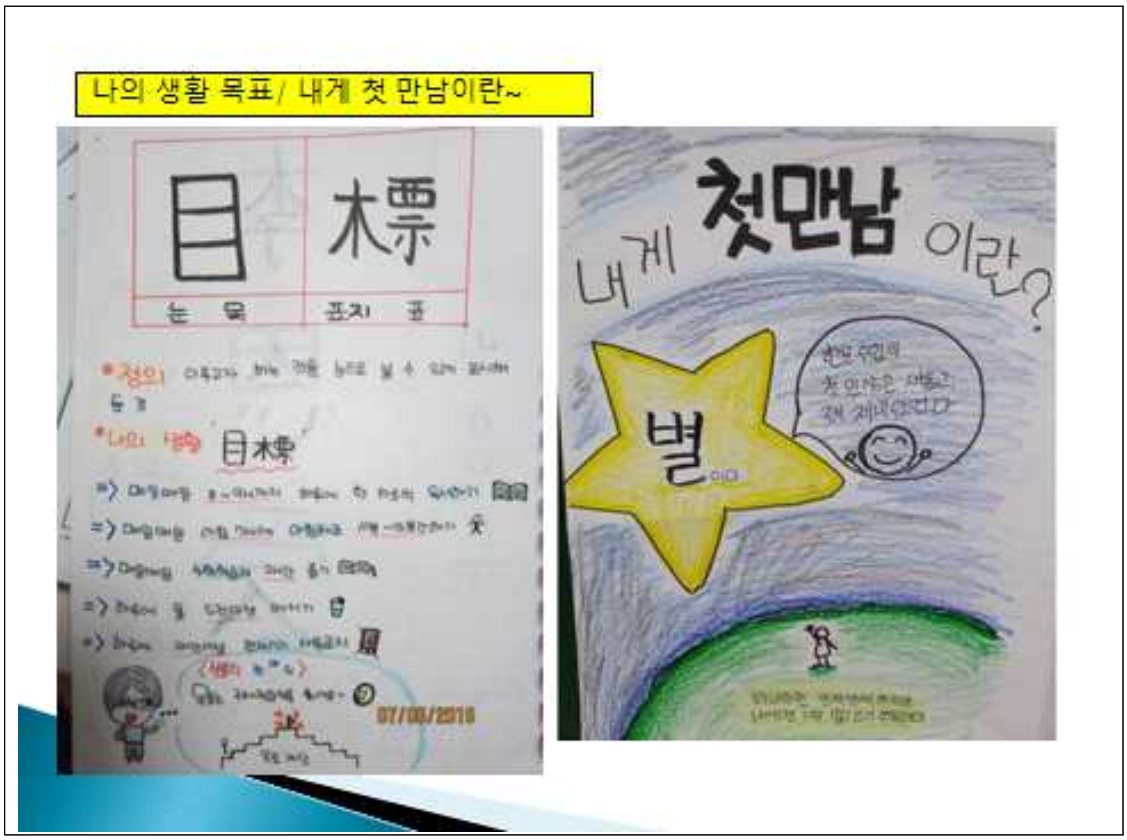
- 2) 수업의 진행 – '3. 학생 활동의 예' 참조
- 들어가기(주제관련 읽기,영상 자료) -> 텍스트 문제 해결 (개별활동/ 모둠활동) -> 텍스트 내용 익히기 (개별활동/ 모둠활동) -> 배움의 내용과 자신을 연결한 정리 (글쓰기, 마인드 맵 등)
- * 텍스트는 각 출판사의 교과서와 교과서 이외의 내용에서 선정.
- 3) 수업의 평가
- – 수행평가 60% => '내가 만드는 한문책'
- * '내가 만드는 한문책'을 매학기 별도의 온라인 공간에 올려 자신의 활동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 이후 학생들의 참고 자료로 활용됨.
- – 지필평가 40% => 수업 시간의 활동과 연계된 논술형 평가 문항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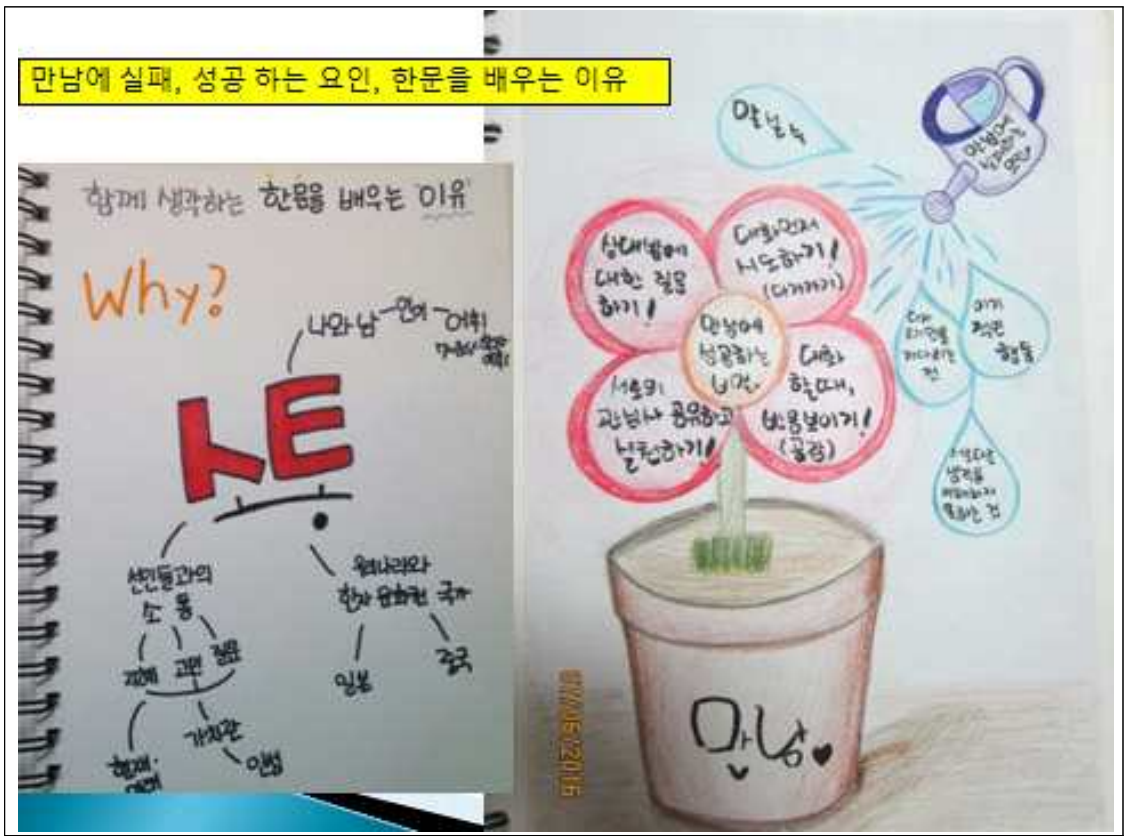
3. 학생활동의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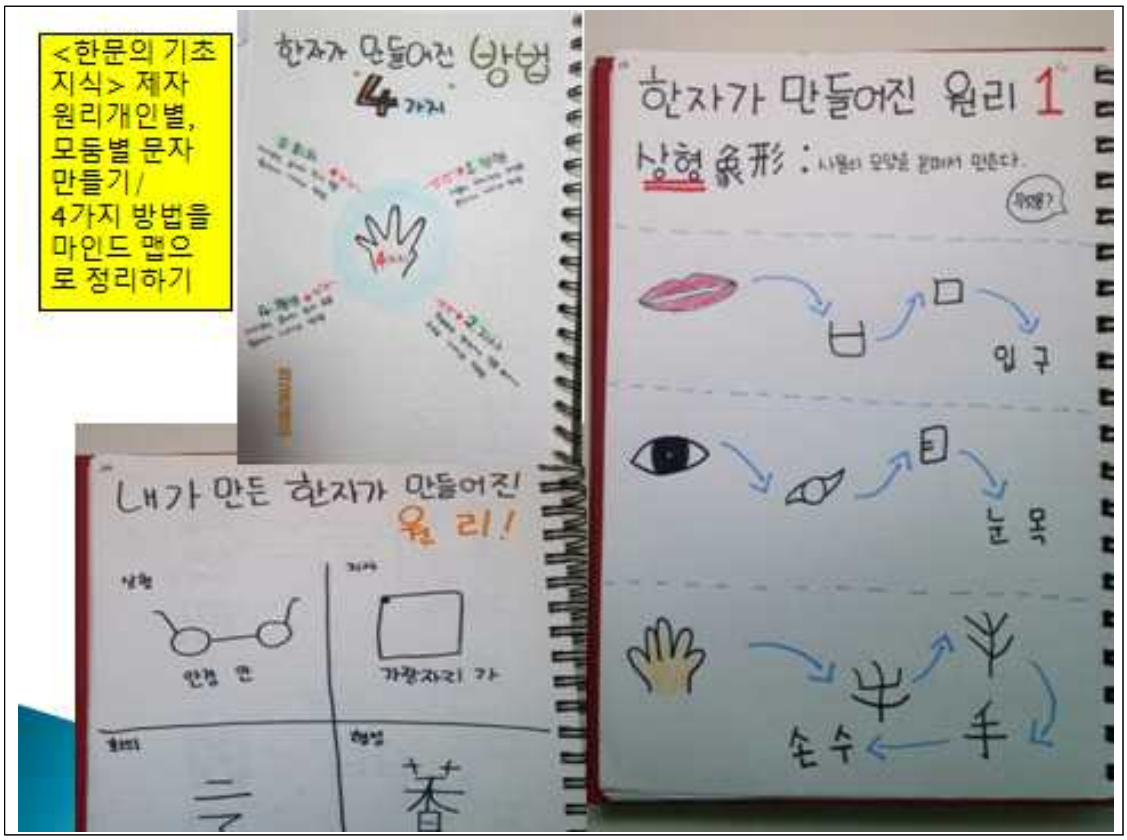
- 한문 지식, 한자와 어휘
- 성어
- 한문 단문 – 속담, 격언
- 한문 산문
- 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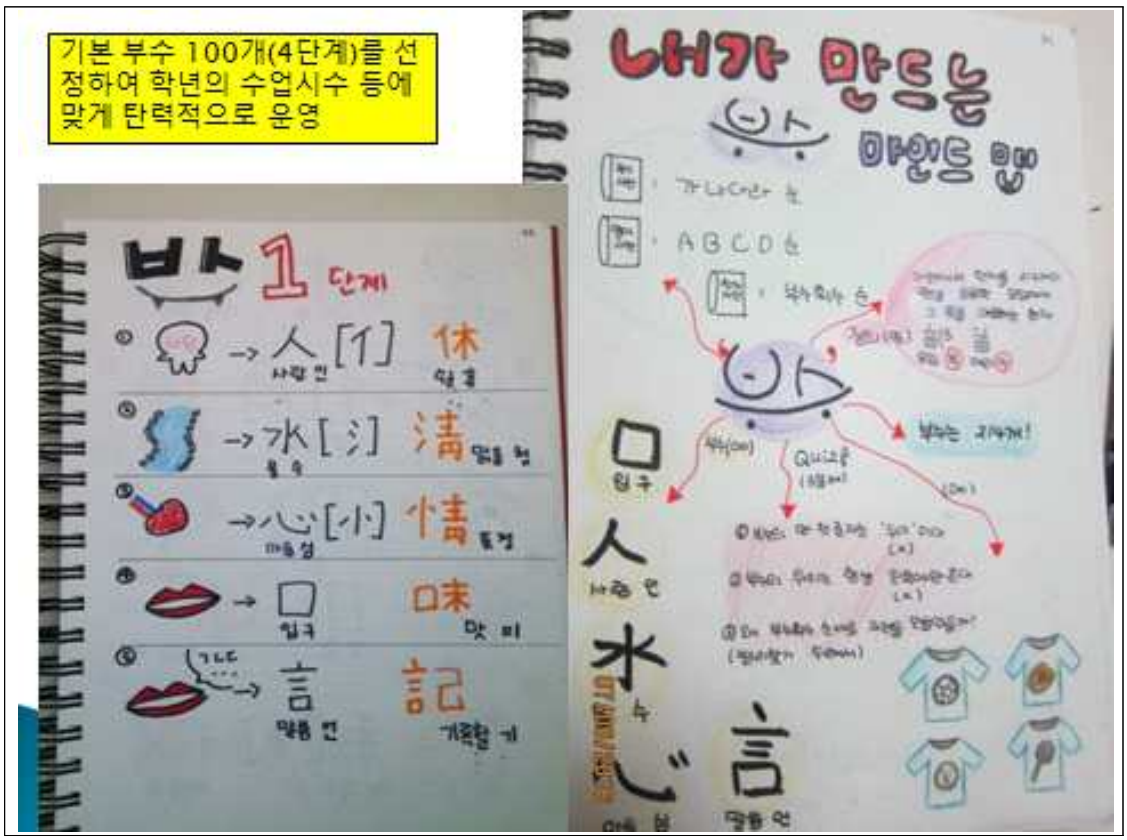

<한문수업의 흥미, 동기부여> 수업의 초반에 내가 만드는 한문책에 대한 안내 표지 네이밍 활동 - 내가 만드는 00한 한문책 등 자신이 스스로 이름붙이고, 나'와 '우리'라는 단어를 지속적으로 사용. 한문 과목이 어렵고 지루할 것이라는 편견을 없애고, 흥미를 갖도록 하는데 중점
내가 만드는 나만의 빛나는 한문책
내가 만드는 빠삭한 한문책
정성 가득한
10709 金兒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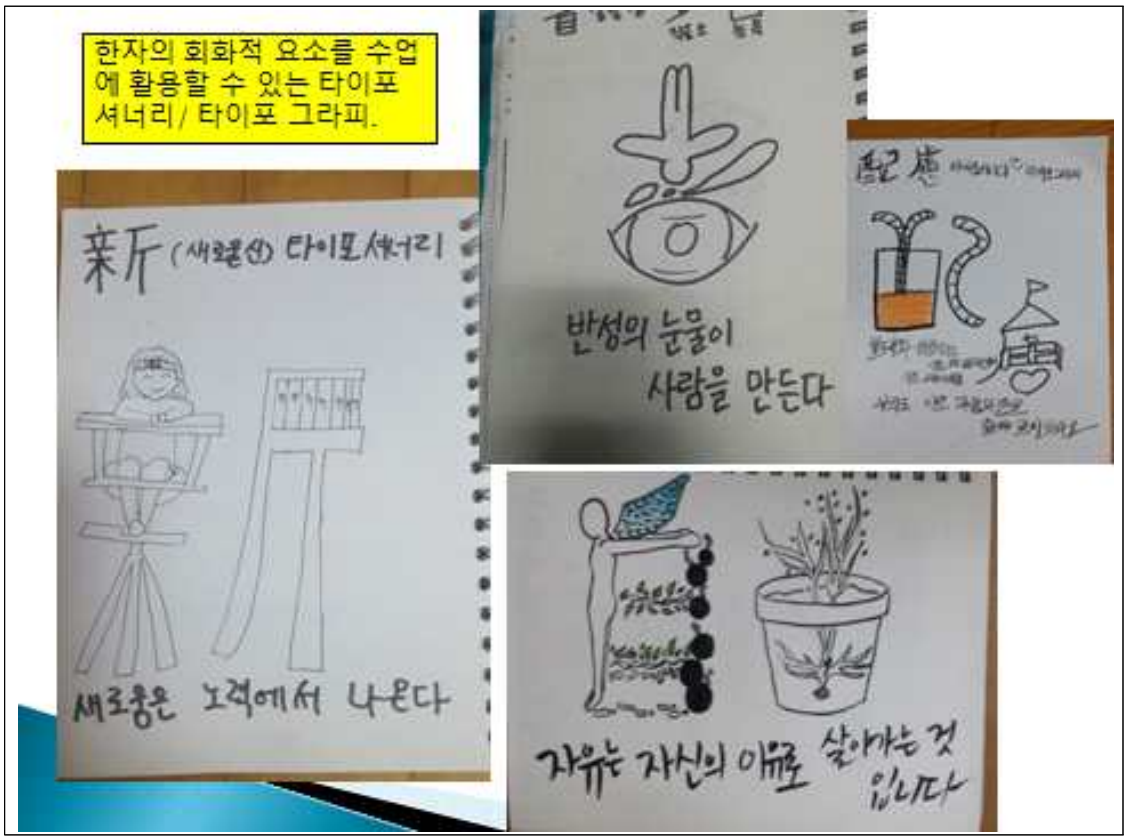
성명쓰기
辛 신
恩 은
智 지
뜻 : 은혜가운데 지혜롭게 자라라.
馬 말 마
粹 순수할 수
彬 빛날 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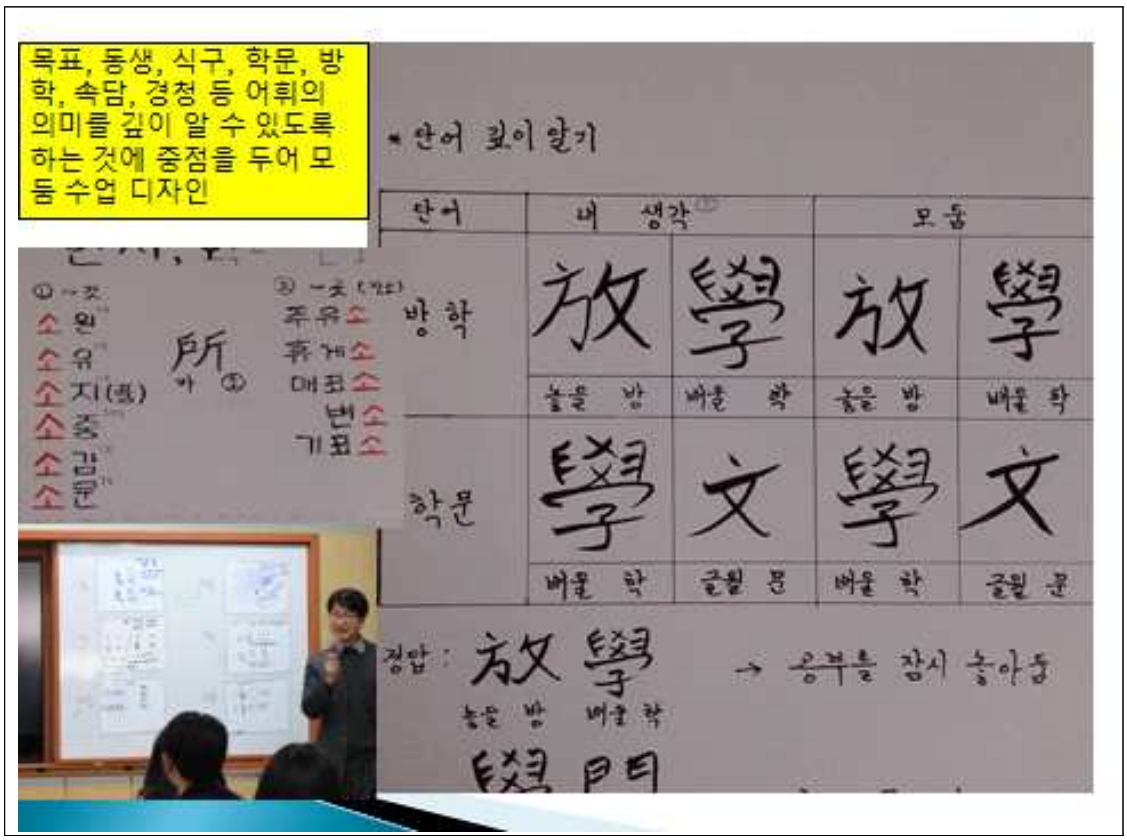

나의 생활 목표/ 내게 첫 만남이란~
目 標
눈 목 표지 표
내게 첫만남 이란?
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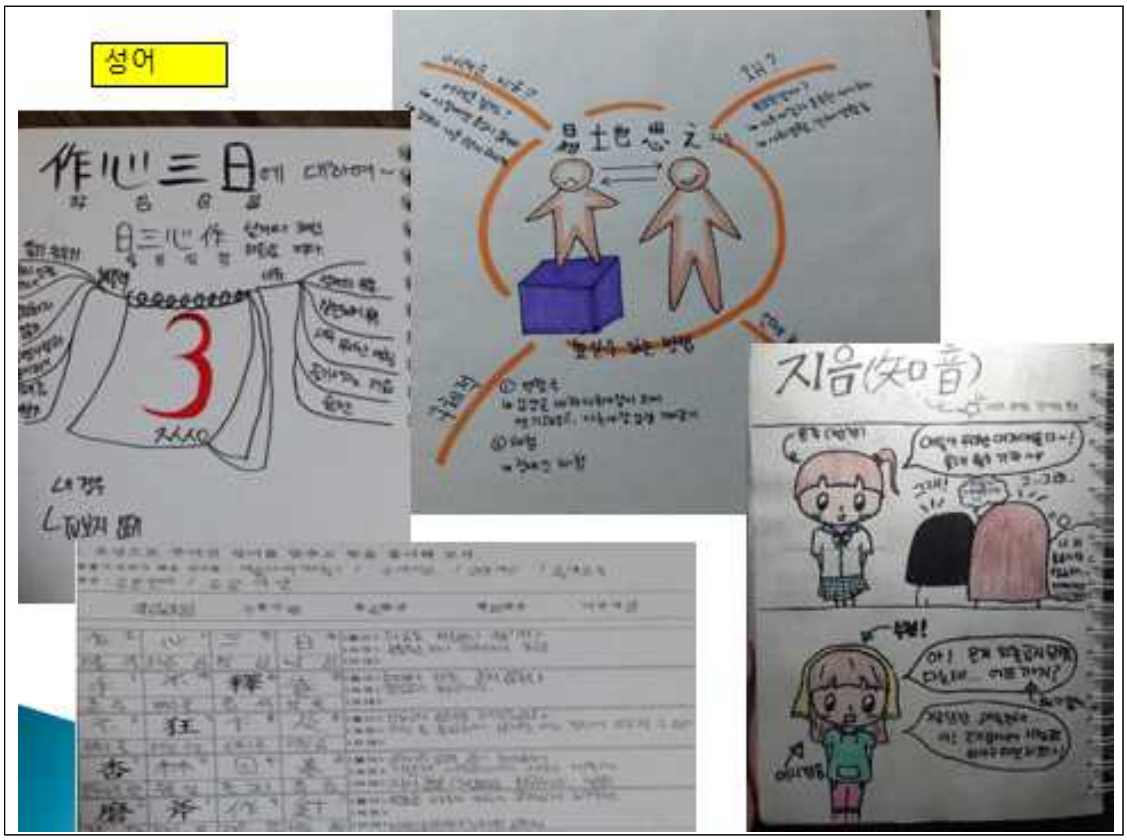

만남에 실패, 성공 하는 요인, 한문을 배우는 이유
함께 생각하는 한문을 배우는 이유
Why?
나와 남
선인들과의 소통
우리나라와 한자 문화권 국가
일본
중국
만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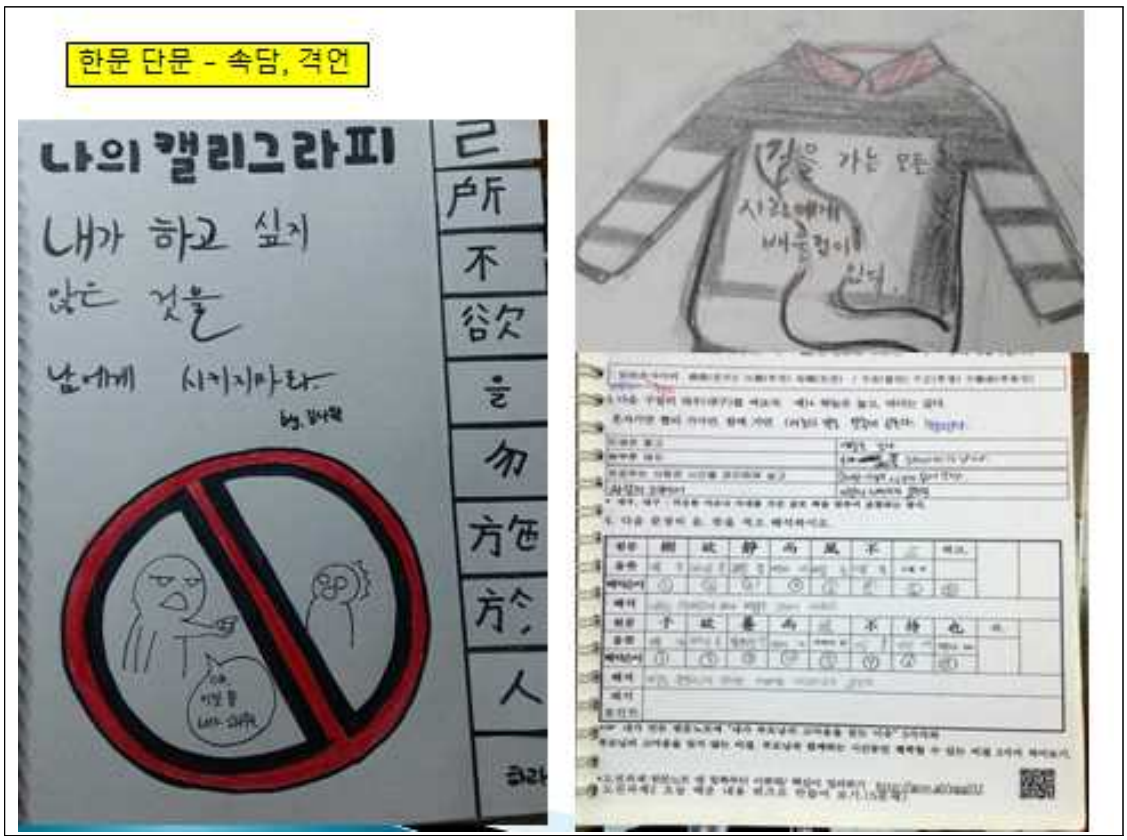

<한문의 기초 지식> 제자 원리개인별, 모둠별 문자 만들기/ 4가지 방법을 마인드 맵으로 정리하기
한자가 만들어진 방법
4가지
한자가 만들어진 원리 1
상형 象形 : 사물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다.
입구
눈목
손수
내가 만든 한자가 만들어진 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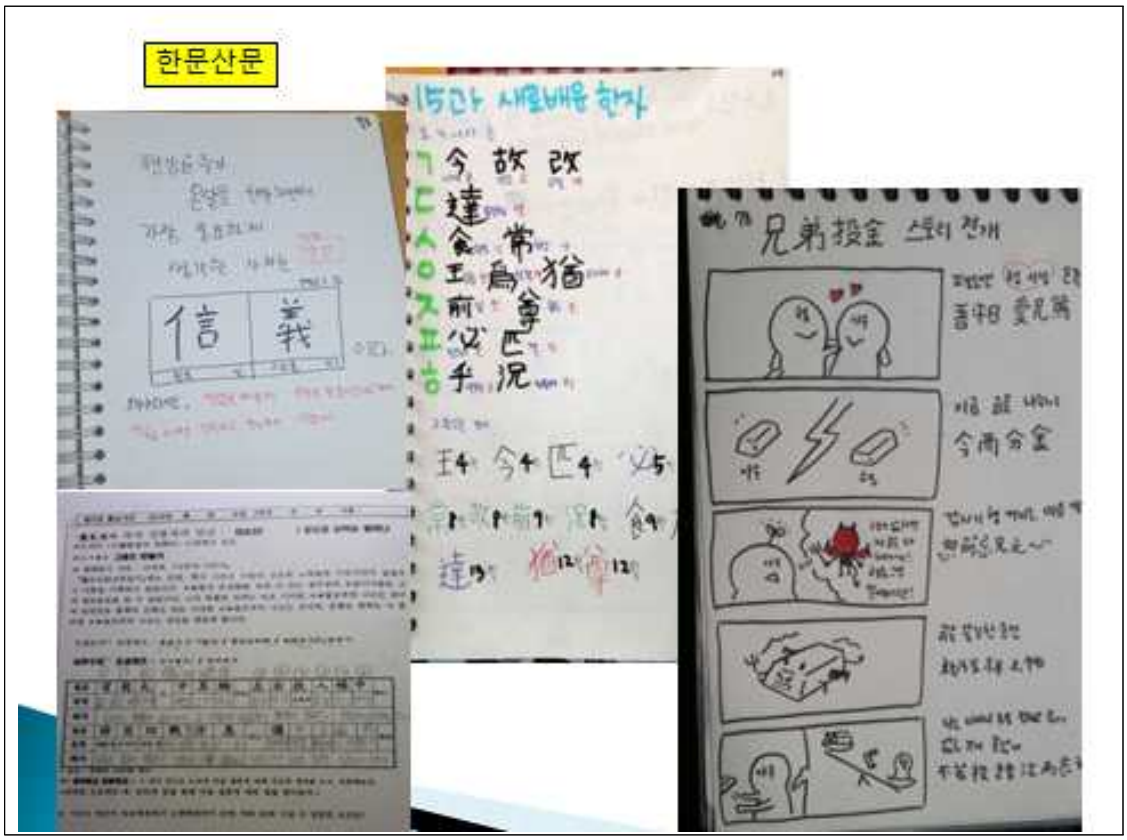

기본 부수 100개(4단계)를 선정하여 학년의 수업시수 등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
반 1 단계
사람 인
休
물 수
淸
마음 심
情
입구
味
맛 미
말씀 언
記
기록할 기
내가 만드는 한자 마인드 맵
ABCD
입구
사람 인
水
물 수
言
말씀 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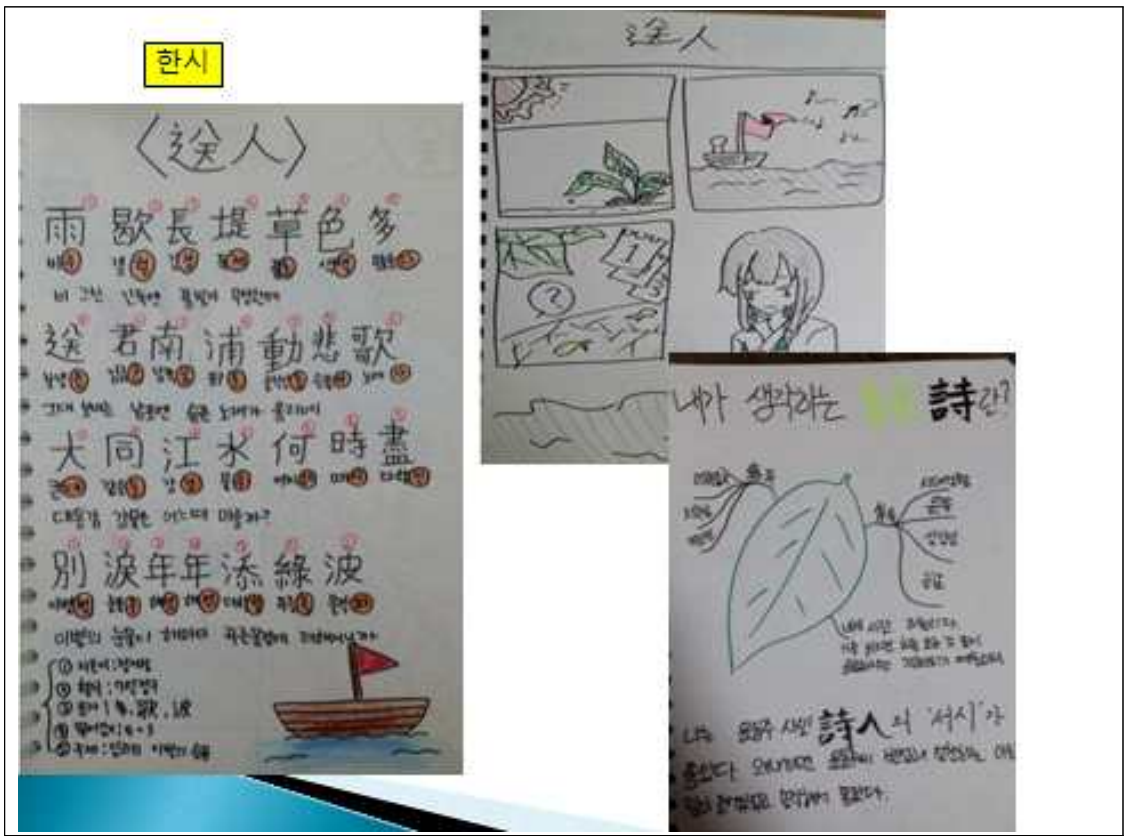

한자의 회화적 요소를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타이포 셔너리 / 타이포 그라피.
新 (새로울신) 타이포셔너리
새로움은 노력에서 나온다
반성의 눈물이 사람을 만든다
자유는 자신의 이유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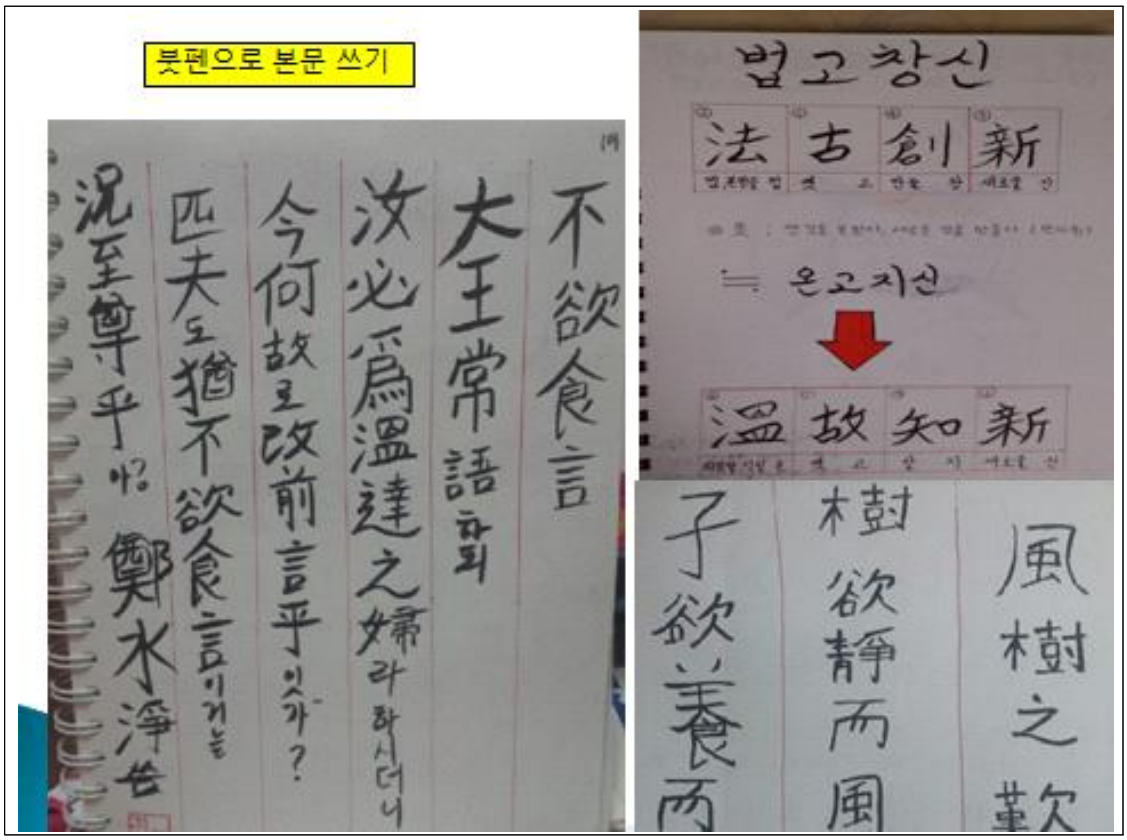

목표, 동생, 식구, 학문, 방학, 속담, 경청 등 어휘의 의미를 깊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 모둠 수업 디자인
* 단어 깊이 알기
단어
내 생각
모둠
방학
학문
놓을 방
배울 학
글월 문
정답 : 放 學
→ 공부를 잠시 놓아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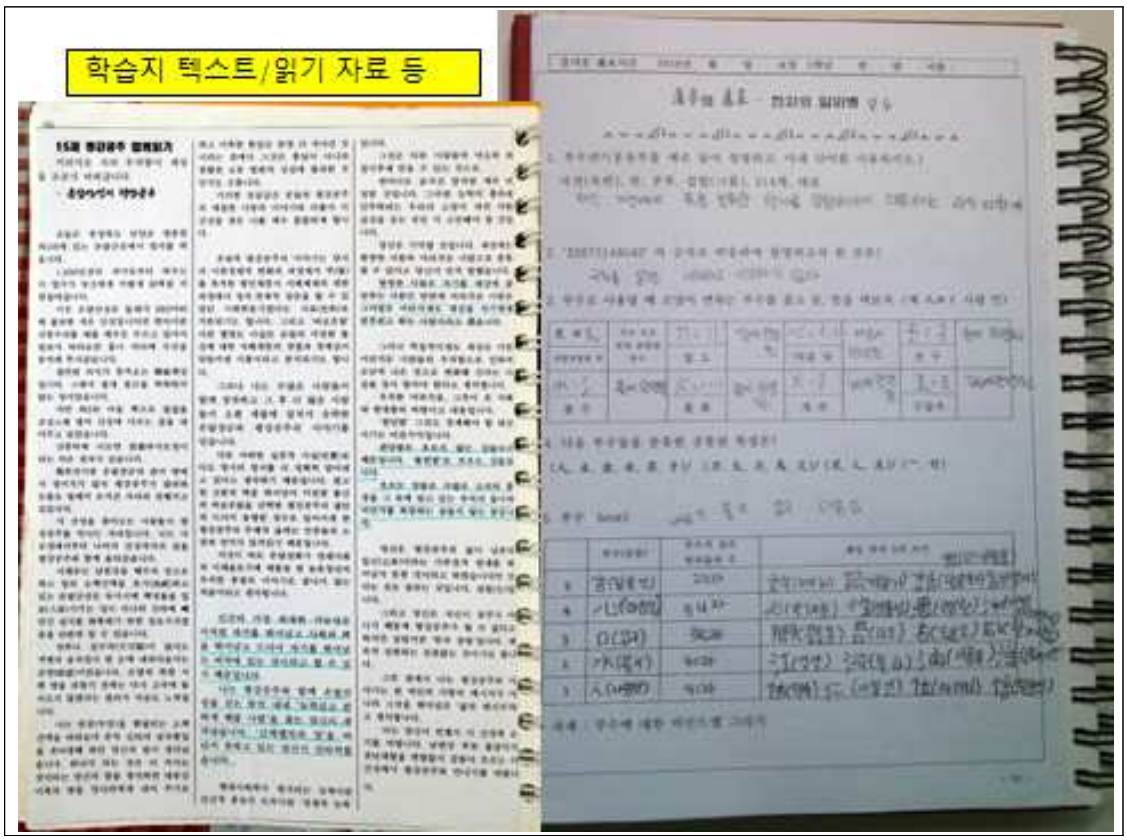

성어
作心三日
易地思之
지음(知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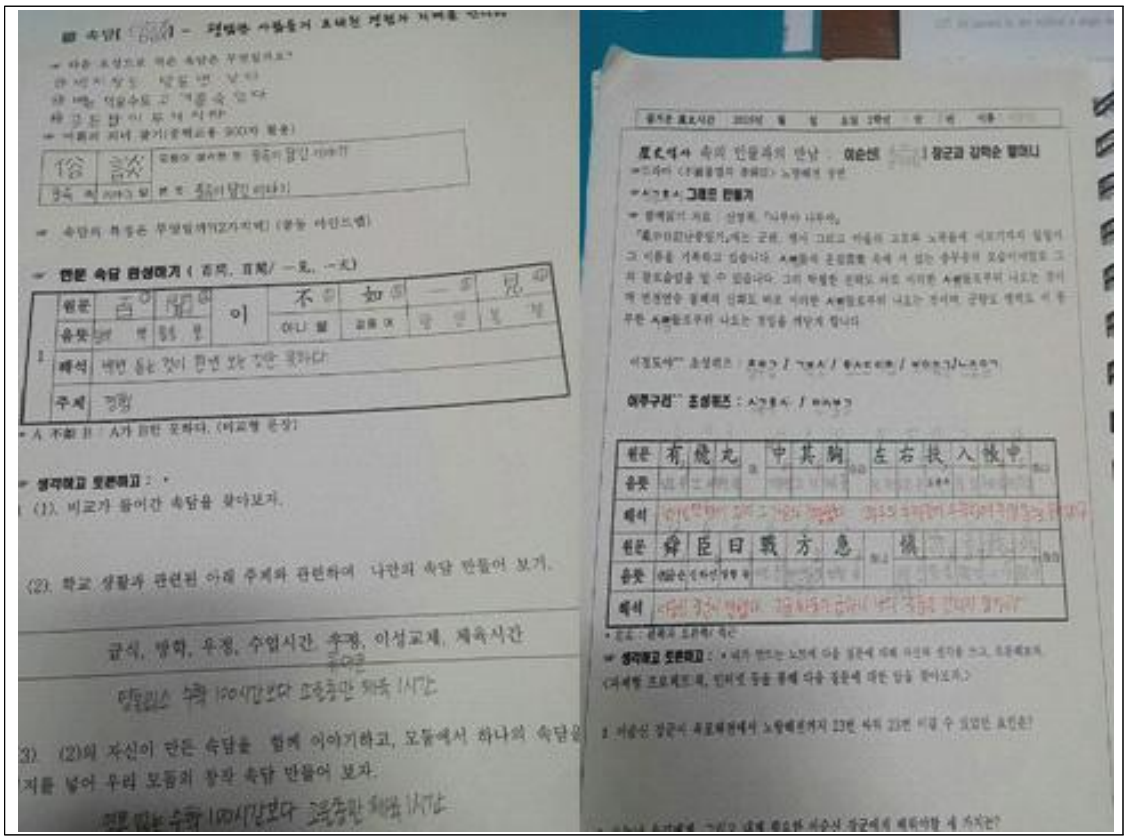

한문 단문 - 속담, 격언
나의 캘리그라피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남에게 시키지마라
己所不欲勿施於人


한문산문
信
義
今 故 改
達
食 常
王 烏 猫
前 爭
必 匹
乎 況
兄弟投金 스토리 전개


한시
〈送人〉
雨歇長堤草色多
送君南浦動悲歌
大同江水何時盡
別淚年年添綠波
送人
내가 생각하는 詩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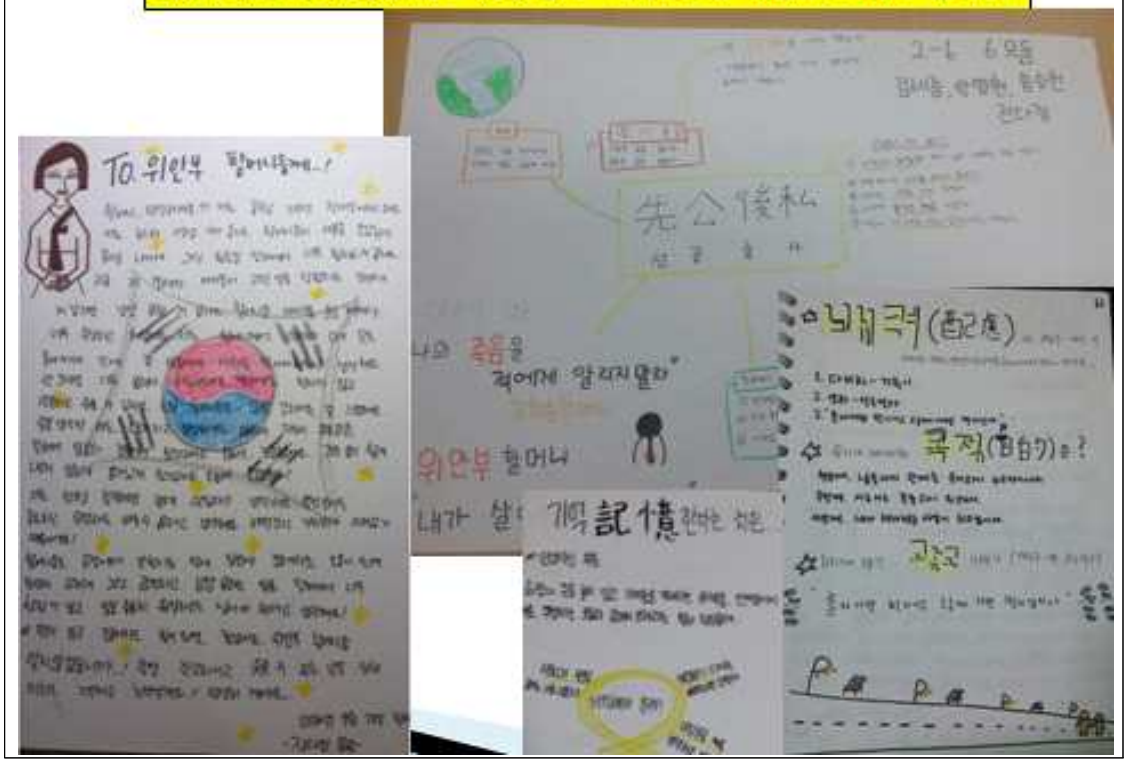

붓펜으로 본문 쓰기
법고창신
法 古 創 新
온고지신
溫 故 知 新


학습지 텍스트/읽기 자료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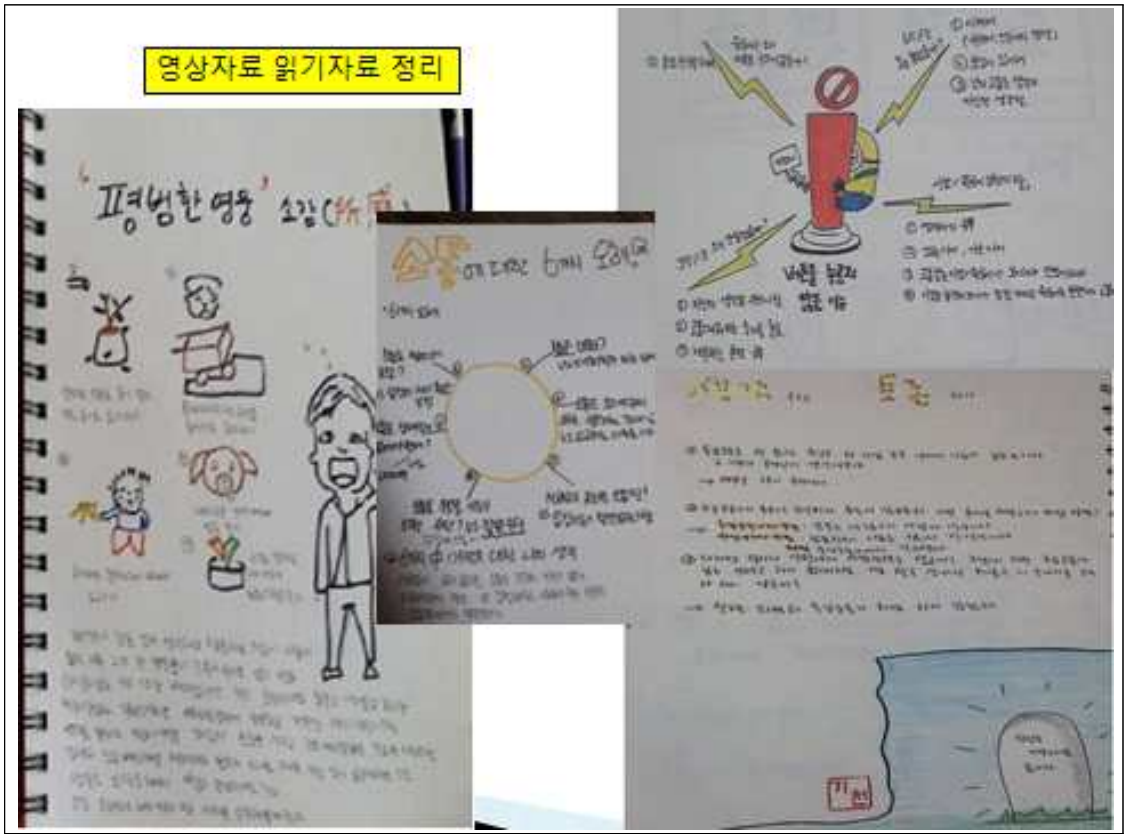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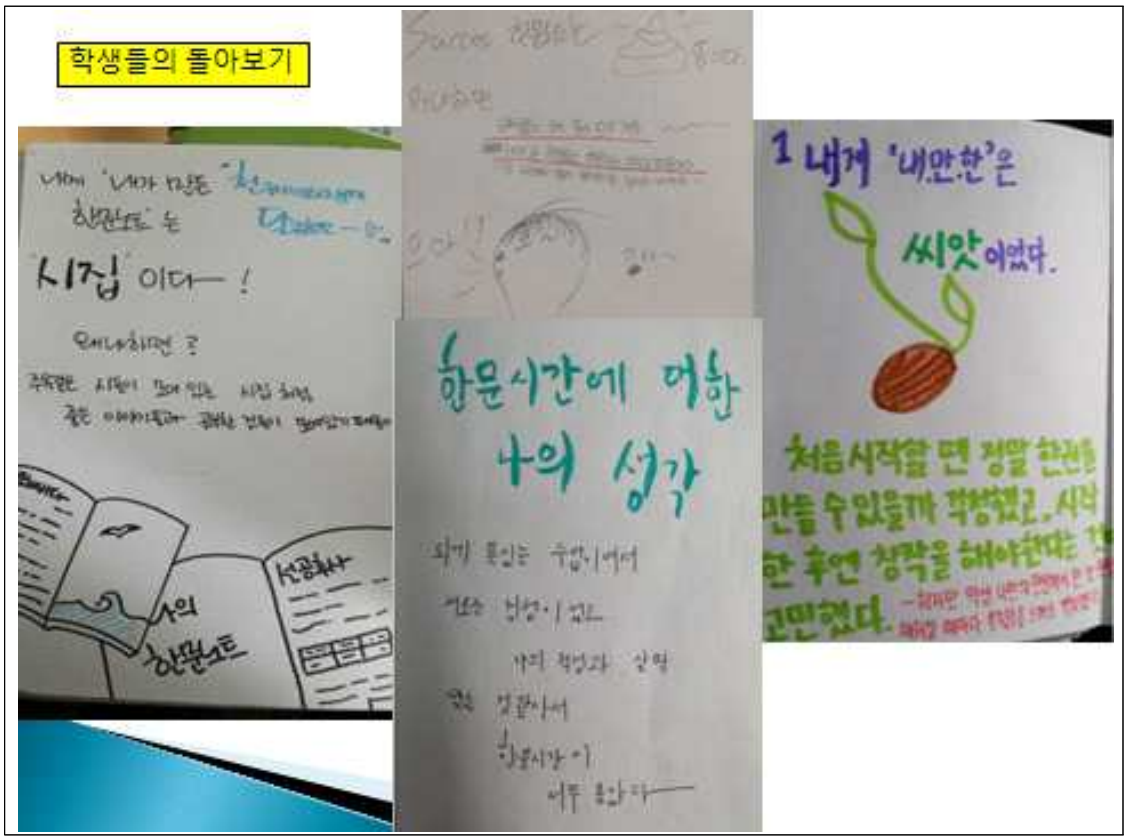
지역과 연결하기 - 춘하추동
나의 四季
春夏秋冬
나의 四季
春夏秋冬
나의 가을
가을, 단풍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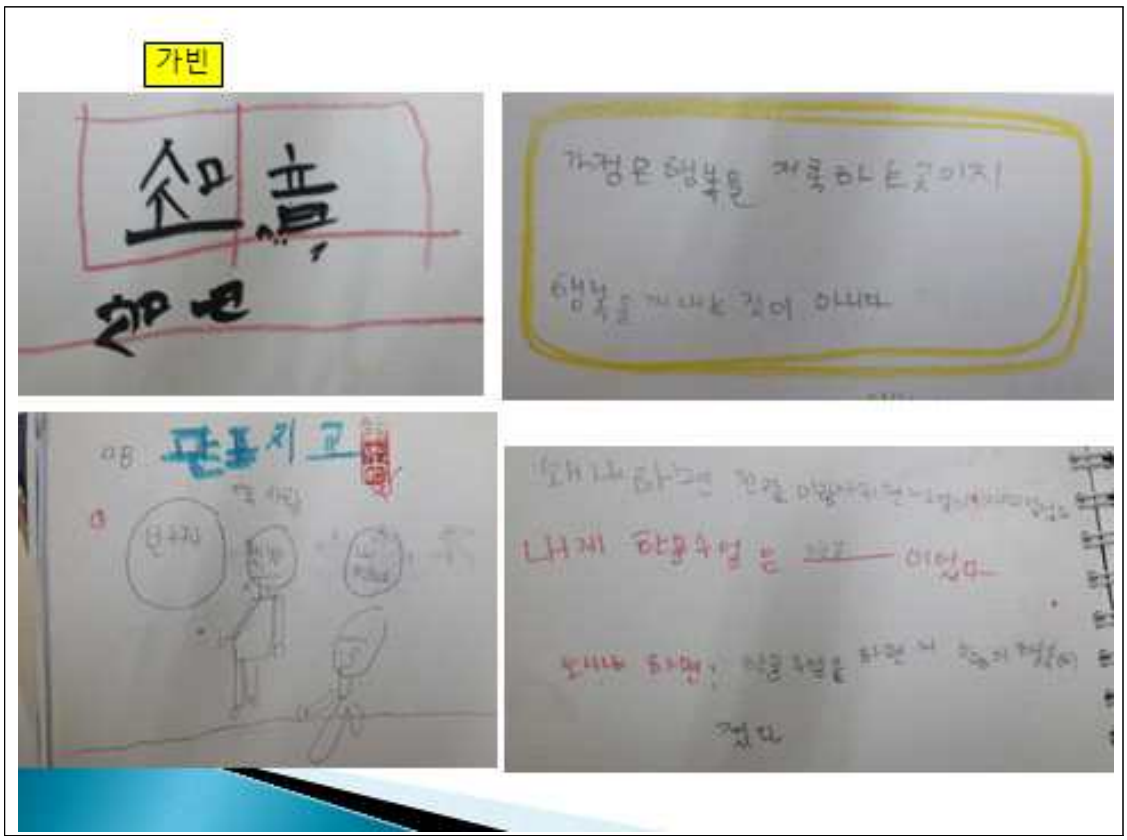
학교/학년 교육과정 재구성과 연계 - 배려 존중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영상자료 읽기자료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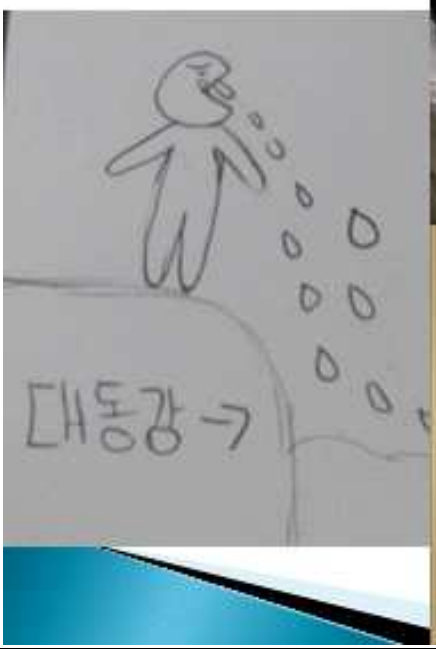

학생들의 돌아보기
시집 이다 !
한문시간에 대한
나의 생각
1 내게 '내만한'은
씨앗이었다.


가빈

4. 본 수업 운영 사례의 의의와 한계

- 의의
- 1. 자발성, 자율성, 토론, 글쓰기, 예술 인문학과 연결, 흥미 = 학생들의 말에서 느끼는 변화
- 2. 학교 교육과정과 연결, 자유학기제와 연결
- 3. 서로 배우며 성장하는 아이들 - 자료의 축적
- 4. 학생들 개개인에 맞는 배움
- 5. 1년 동안의 지속적인 활동
- 한계
- 1. 중학교에서 만 적용
- 2. 혁신학교라는 특수성 - 학생 인원수가 적고 모둠 수업 분위기 갖춰짐
- 3. 학습량과 관련된 부분

참고 사진



5. 나오며

- 학생들이 제작한 UCC를 함께 보는 것으로 미흡한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 http://cafe.naver.com/dongam2013/3735

‘한문교과 교육과정 재구성 현장 사례’ 토론문

김충겸(신한중학교)

본 학회가 아닌 다른 자리에서 배기표 선생님(이하 발표자)의 프레젠테이션 자료 중 표본 한 부를 순식간에 대강 훑어보며 감탄한 적이 있었지만, 이 번 기회를 통해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발표자의 더 나은 수업을 향한 열정과 노력을 절감할 수 있었다.

특히 교육과정 재구성이 정책적 화두로 떠오른 시점보다 이전, 또는 그 시점과 동시에 기획하고 운영에 착수했다는 점에서, 전통적 강의식 수업에서 벗어나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고민과 노력을 했는지 따라가기 바쁜 후학으로서는 짐작하기가 어렵다.

이 수업 방식의 특징은 국가수준 교육 과정을 충실히 이행하면서도 포트폴리오 작성을 통해 기존 수업의 틀에서 벗어나고자 하였으며, 학년 핵심 목표를 설정하여 그 목표에 적합한 내용을 재구성함으로써 과정의 일관성을 꾀하고 있다. 또한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이미 활용하고 있거나 새로운 기법 등을 적절히 활용하여 학생들의 흥미와 집중력을 높이고자 하였다.

한편 경륜과 실력이 부족한 토론자여서인지 프레젠테이션 자료 중 궁금한 점과, 발표자가 언급한 이 수업의 한계점과 관련하여 발표자의 의견을 듣고 싶은 사항이 있어 몇 가지를 제시해보고자 한다.

1. 슬라이드 27번 ‘지역과 연결하기-춘하추동’은 어느 지역의 어느 요소를 연계한 것인지 궁금하다. 토론자가 예상하기로는 학생들의 생활 터전의 사계절을 의미하는 것 같지만, 발표자의 설명을 부탁드린다.

2. 슬라이드 28번 ‘학교/학년 교육과정 재구성과 연계’는 다른 과목과의 융합 수업을 통한 교육과정 재구성을 제시한 것 같다. 토론자는 이 수업을 계획할 때 팀티칭을 활용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발표자는 이 부분의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였는지 좀더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싶다.

3. 현재 중학교에서는 자유학기제를 전면 시행하고 있으며, 경기도는 더 나아가 자유학년제로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학생들은 당장 평가가 없다는 점에 안도하며 학교생활을 즐겁게 하고 있지만, 한문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학습량이 감소하는 것은 경계해야 할 사항이다. 특히 한문과에서의 학습량 감소에 대한 발표자의 대안이나 의견이 궁금하다.

4. 토론자의 근무 학교는 혁신 공감 학교이자 남자중학교이며, 1학년 학급당 학생수가 31명이 될 예정이다. 모둠 수업으로 개별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해 보았지만, 스스로 부끄럽게도 진행 과정과 결과물 모두 기대만큼 성과를 내기가 어려웠다. 더구나 토론자는 학생들의 기본적인 읽고 쓰는 능력을 중시하여 전통적인 과제 부여의 형식을 빌어 학생들을 괴롭히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배움 중심의 수업을 정착해 가고 있는 발표자의 조언을 구한다.

발표문을 살펴보면서 자신이 고수하던 수업 방식을 과감히 바꾸려는 시도와 그 실천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다. 수업을 진행할 때 학교 현장의 교육과정을 고려하고, 수업의 변화를 요구할 때 그 요구에 맞는 사항들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은 교사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학생 중심, 배움 중심의 수업을 위해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우선 하고자 하는 의지를 다지고 저질러보는 것이 필요한 것 같다.

한문 교육에서의 인성 교육

-인성 요소의 설정과 교수·학습 방법을 중심으로-

안세현(강원대학교)

【목차】

1. 서론
2. 한문 교육에서 인성 교육의 방향
3. 한문 교육에서 인성 교육의 실제
4. 결론

1. 서론

○ 연구 배경

-<2009 개정 교육 과정> 이후 인성 교육은 창의성 교육과 함께 우리 교육계의 중요한 화두가 되었음.

-2014년 1월에는 세계에서 유례없는 <인성교육진흥법>(법률 제130004호)이 제정되었으며, 이 법이 2015년 7월부터 시행되면서 교육부는 초·중등 교육에서의 인성교육 강화 방안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음.

-<2015 개정 교육 과정> 총론에서 개정 교육과정 구성의 중점을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이라 밝히고 있듯이,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인성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음.

-특히 <2015 개정 한문과 교육 과정>에서는 한문교과의 중요한 역량의 하나로 '인성 역량'을 설정하였으며, 내용 체계의 핵심 개념의 하나로 '한문과 인성'을 설정하였음.

-최근 한문과의 교과 정체성과 관련하여 한문교육학계에서 인성 교육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 선행 연구 검토

-전근대 한자문화권에서의 교육은 인성 교육을 바탕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문 교육

에서도 한문 고전을 활용한 인성교육에 대한 연구가 일찍부터 진행되었음.

-『四字小學』,『童蒙先習』,『明心寶鑑』 등의 초학자를 위한 교재로부터『논어』,『맹자』 등의 유가 경전에 보이는 仁, 義, 孝, 敬, 信 등의 유교적 도덕 가치에 주목을 하였음.

-특히 2013년에는 한국한문교육학회 주최로 '한문 교육과 창의 · 인성 교육'이란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한문 교육에서의 창의성 교육과 인성 교육의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였음. (정재철(2013), 한은수(2013), 강민구(2013), 김왕규(2013), 김병철(2013) 등) 다만 논의의 초점이 '인성'보다는 '창의성'에 맞추어졌으며, 더욱이 '창의성'과 '인성'이 하나의 범주에서 논의될 수 있는 것인지, '교육' 현장에서 '창의성'과 '인성'을 함께 교수 · 학습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임.

○ 문제 제기

-'인성'의 개념과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인성 교육'에 관한 근본적인 탐구가 부족하며, 인성 교육을 유교의 수양론 중심으로 전개하여 논의의 협소함과 복고성을 벗어나기 어려움.

-교수·학습 방법에 있어서도 유교의 덕목과 수양론을 지식적으로 이해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으며,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판단하고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 방안에 대한 탐색에 소홀하였음.

-이에 인성 교육과 관련된 교육학계와 윤리교육학계 등의 논의를 참고하면서, 한문 교육에서의 인성 교육의 방향을 정립하고, 인성 요소를 새롭게 선정하며, 교수·학습 방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특히 <2015 개정 교육 과정> 총론에서 설정한 '인재상'과 '핵심 역량'을 고려하여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요구되는 인성 요소를 추출하고, 한문 교육에서 인성 교육 방향을 설정해야 함.

-아울러 도덕과·사회과 등과 변별되는 한문과만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수·학습 방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는데, 문학·문화 교육적 접근이 핵심이 되어야 함.

2. 한문 교육에서 인성 교육의 방향

1) 2015 개정 한문과 교육 과정에서의 인성 교육

○ 2015 교육과정 총론의 '핵심역량'

-교과 교육을 포함한 학교 교육 전 과정을 통해 중점적으로 기르고자 하는 핵심역량을 6가지 제시하였는데, 이 중에서 아래의 3가지가 인성 역량과 관련됨.

· 자아정체성과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삶과 진로에 필요한 기초 능력과 자질을 갖추어 자기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기관리 역량**

· 인간에 대한 공감적 이해와 문화적 감수성을 바탕으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향유하는 **심미적 감성 역량**

· 지역·국가·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가치와 태도를 가지고 공동체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체 역량**

○ 2015 개정 한문과 교육 과정의 ‘인성 역량’

- 한문과의 중요한 역량으로 의사소통 능력, 정보처리 능력, 창의적 사고 능력, 심미적 감성과 함께 ‘인성 역량’을 설정함.

> 인성 역량은 한문 기록에 담긴 **선인들의 삶과 지혜를 이해**하여 **자신의 삶에 필요한 기초적 능력과 자질을 지속적으로 계발·관리**함으로써, 변화하는 사회에 유연하게 적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다. 또한 한문 기록에 담긴 **전통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고 창조적으로 계승·발전**시키며, **한자문화권의 문화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익혀 한자문화권 내에서의 상호 이해와 교류 증진**에 기여하려는 태도를 수용·실천함으로써, **공동체의 문제 해결 및 발전을 위해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능력**이다.

- 내용 체계상의 핵심 개념인 ‘한문과 인성’과 ‘한문과 문화’를 ‘인성 역량’으로 통합하여 제시하였는데, ‘인성 역량’ 내에 ‘문화’ 영역을 통합·수용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2015 개정 한문과 교육 과정의 ‘한문과 인성’

- 설정 배경

> 한문 기록 속에는 **현대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예컨대 인간의 존엄성 상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무시, 물질 만능주의와 극단적 이기주의의 만연 등에 대해 **해답을 찾을 수 있는 자료들**이 많다. 따라서 **현재적 의미에서 가치가 있고 실천 가능한 내용을 정선하여 학습함으로써 건전한 가치관과 바람직한 인성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한다.

- 내용 체계

영역	핵심 개념	일반화된 지식	내용 요소	기능
한문의 활용	한문과 인성	한문 기록에는 창의적으로 사고하고 건전한 가치관과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선인들의 지혜와 사상이 담겨 있다.	선인들의 지혜와 사상	읽기 풀이하기 이해와 공감하기 조사하기 토의·토론하기 적용하기

- 성취기준

> [9한04-01] 한문 기록에 담긴 선인들의 지혜, 사상 등을 이해하고, **현재적 의미에서 가치가 있는 것을 내면화**하여 건전한 가치관과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한다.

- 학습 요소 : 선인들의 지혜와 사상에 대한 이해와 공감, 현재적 의미와 가치 발견, 생활 적용, 가치관 정립, 인성 함양

○ ‘한문과 인성’ 분석

- ‘한문과 인성’ 영역의 내용 요소와 성취기준에 대해서는 김왕규(2016)에 의해 자세히 분석됨.

- 2009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의 대영역 ‘문화’의 중영역 가운데 하나인 ‘한자 문화’를

‘한문과 인성’, ‘한문과 문화’라는 핵심 개념으로 설정하고, 소영역의 하나인 ‘전통문화의 이해와 계승’을 ‘선인들의 지혜와 사상’,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이라는 내용 요소로 구분함.

- 핵심은 ‘현재적 의미에서 가치 있는’ 인성 요소를 설정하고, 이를 ‘내면화하여 건전한 가치관과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을 개발하는 것임.

2) 교육학계와 윤리교육학계의 인성 교육

◦ 교육학계

- 교육학계에서는 2000년대에 들어 인성 교육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여 <2009 개정 교육 과정>부터 ‘인성 교육’을 교육 과정의 중요한 목표로 반영하였음.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보고서(이명준 외(2011: 25~29면))에서는 조셉슨 연구소(Josephson Institute)의 6가지 덕목인 ‘존중, 책임, 진실성, 정의, 배려, 시민성’을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인성 교육의 위한 덕목으로 ‘존중, 배려, 책임, 신뢰성, 정의(공정성), 시민성’ 등의 6가지를 제시하였음. 6가지 덕목 중에서 시민성을 제외한 5가지에 동양적 의미를 제시해 두었음.(존중-仁 · 禮 · 敬, 배려-仁 · 慈, 책임-誠, 신뢰성-信, 정의·공정성)-義)

- 이명준 외(2011)에서는 전국의 초 · 중 · 고등학교 학생, 학부모, 교사를 학교급, 지역별 학교 수에 따른 비례할당(약3%)하여 표집한 결과를 토대로, 도덕과, 국어과, 사회과, 실과 및 기술 · 가정, 음악 · 미술 · 체육 등의 교과에서의 인성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한문과는 여기에 들지 못하였음. 이는 학생, 학부모, 교사들에게 한문과가 인성 교육에서 중요한 교과로 인식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시사해줌.

- 현주(2012)의 「학교 인성 교육의 의의와 과제」(한국교육개발원 현안보고서)에서는 인성의 구성 요소를 개인적 특성(예절, 성실, 바른생활 습관, 정직)과 사회적 특성(타인배려, 준법, 애국, 독립심, 용기, 관용, 열린 마음, 우정, 정의, 생명존중)으로 분류하고, 학교에서는 개인적 덕목을 강조하였음. 또한 현주 외(2014: 3면)에서는 한국교육개발원 인성검사지 기본 구성을 ‘자기 존중(자기존중, 자기효능)’, ‘성실(인내, 근면성)’, ‘배려 · 소통(타인이해 및 공감, 친절성,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능력)’, ‘(사회적) 책임(책임성, 협동심, 규칙이행)’, ‘예의(효도, 공경)’, ‘자기조절(자기통제, 신중성)’, ‘정직 · 용기(정직성, 솔직성, 용감성)’, ‘지혜(개방성, 판단 및 의사결정능력, 안목)’, ‘정의(공정, 공평, 인권존중)’, ‘시민성(애국심, 타문화이해, 세계시민의식)’의 10개의 인성 덕목을 설정하였음.

- 김영래 외(2015: 36면)는 현주 외(2014)의 논의를 참고하면서 우리나라의 인성 교육을 위한 ‘핵심 가치 덕목’과 ‘핵심 역량’을 다음과 같이 재구성하였음.

기본 카테고리	주요 덕목	하위 요소(역량)
자기 존중 (자기애/자기에 대한 의무)	1. 정직·진실성	자기인식, 자기긍정, 자기표현
	2. 용기	긍정적 사고, 자존감
	3. 성실	근면성, 완전성

기본 카테고리	주요 덕목	하위 요소(역량)
	4. 통합성	자기통제, 자주성, 자율성, 자아정체성
	5. 지혜	자아성찰, 판단력, 의사결정능력
타인 존중 (타인 사랑/타인에 대한 의무)	6. 배려·박애	연민, 공감, 소통, 관용, 개방성, 봉사
	7. 책임·신뢰성	의무감, 교제능력
	8. 공정·정의	비판적 사고, 정의감
	9. 시민성	공동체 의식, 준법성
	10. 예의	

◦ 윤리교육학계

- 2014년 <인성교육진흥법> 제정과 맞물려 인성 교육에 대한 논의를 집중적으로 전개하였으며, 2015년에 한국윤리학회가 한국철학상담학회와 공동으로 '인성교육의 정체성과 방향성'이란 주제로 인성교육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음.

-<2015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에서 도덕과가 '학교 인성교육의 핵심 교과'로 자임하면서, '성실 · 배려 · 정의 · 책임이라는 네 개의 핵심 가치를 내면화함으로써 인성의 기본 요소를 갖추게 함과 동시에 도덕적인 삶을 자율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자율성과 책임성을 길러주는' 것을 목표로 하였음.

- 네 가지의 인성 요소 선정과 관련하여 '성실'은 유교, '배려'는 불교에서 강조해 온 핵심 가치를 수용한 것이며, 이러한 유교 · 불교 전통에 기반한 핵심 가치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시민사회의 핵심 가치인 '정의' 및 '책임'과 연계시키고자 한다고 하였음.

- 중학교 도덕의 내용 체계

영역	핵심 가치	일반화된 지식	내용 요소
자신과의 관계	성실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도덕을 공부함으로써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고, 바람직한 **자아정체성을 형성**해야 한다.	○ 왜 도덕적으로 살아야 하는가? (도덕적인 삶) ○ 도덕적으로 행동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도덕적 행동) ○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하는가?(자아정체성) ○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삶의 목적) ○ 행복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행복한 삶)
타인과의 관계	배려	가정·이웃·학교 및 온라인 공간에서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가 필요하고,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 **합리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 가정에서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가정윤리) ○ 참된 우정이란 무엇인가? (우정) ○ 성(性)의 도덕적 의미는 무엇인가?(성윤리) ○ 이웃에 대한 바람직한 자세는 무엇인가? (이웃생활) ○ 정보화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가? (정보통신윤리) ○ 평화적 갈등 해결은 어떻게 가능한가? (평화적 갈등 해결) ○ 폭력의 문제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폭력의 문제)
사회 · 공동체와	정의	인간의 존엄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보편도덕에 근거하**	○ 인권의 도덕적 의미는 무엇인가? (인간존중) ○ 다문화 사회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영역	핵심가치	일반화된 지식	내용 요소
의 관계		여 보장하고, 한 국가공동체의 도덕적 시민으로 사회 정의 및 평화통일 실현에 기여하며, 세계 시민으로서 지구 공동체의 도덕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문화 다양성) ○세계 시민으로서 도덕적 과제는 무엇인가? (세계 시민 윤리) ○ 국가 구성원으로서 바람직한 자세는 무엇인가? (도덕적 시민) ○ 정의란 무엇인가? (사회 정의) ○ 북한을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볼 것인가? (북한 이해) ○ 우리에게 통일의 의미는 무엇인가? (통일윤리의식)
자연·초월과의 관계	책임	환경친화적 삶과 과학 기술의 윤리적 사용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지향하고, 윤리적 성찰을 통해 삶과 죽음의 의미와 마음의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	○ 자연과 인간의 바람직한 관계는 무엇인가? (자연관) ○ 과학 기술과 도덕의 관계는 무엇인가? (과학과 윤리) ○ 삶과 죽음의 의미는 무엇인가? (삶의 소중함) ○ 마음의 평화는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마음의 평화)

- 중학교 도덕의 교수 · 학습 및 평가 방법

영역	교수 · 학습 방법	평가 방법
자신과의 관계	○ 인간의 도덕적 행위가 요구되는 역사 또는 사회적 사례의 이야기를 통해 도덕 규범의 의미와 필요성 찾기	○성찰적 글쓰기 평가 방식
타인과의 관계	○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갈등 해결 방법 성찰과 탐구(객관적으로 바라보기→해결 방법 모색하기→해결 해보기)	○서술형 평가, 포트폴리오 평가
사회·공동체와의 관계	○ 재화의 분배와 관련된 상황에서 정의로운 분배에 관한 역할놀이	○참가자 평가 및 관찰자 평가
자연·초월과의 관계	○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한 대립적인 입장 파악하기, 환경친화적 소비 생활에 관해 조사하기	○단계별 평가 -근거 찾기 단계 : 논리성 평가 -자기 입장 전개하기 : 유창성과 융통성 평가

3) 한문 교육에서 인성 교육의 방향

○ 인성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인성'의 개념을 어떻게 규정하느냐 하는 문제이며, 인성의 개념에 관한 이해에 따라 인성 교육의 방향과 교수·학습 방법이 달라짐. 다시 말해, 인성을 인간의 본성으로 볼 것인지, 개개의 인간이 지닌 성격으로 볼 것인지, 품격을 갖춘 인격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인성 교육'의 방향 설정도 다를 수밖에 없음.

○ 그런데 인성을 인간이 타고난 본성으로서 변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거나 시·공간을 초월한 실체로 규정하는 순간, 교육을 통한 인성의 함양이라는 인성교육의 존재 자체가 무의미해짐. 인성의 개념은 시대와 공간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으며, 인성의 개념 규정 역시 일정한 시·공간적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음.

○ 그간 한문교육학계에서는 주로 전통적인 유교 교육이 지니고 있는 인성교육적 요소를

당연시하면서 이를 한문 교육에서의 인성 교육으로 연결시켰음. 물론 한문 자료의 대부분이 유교를 사상적 기반으로 하는 문인지식인들이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이는 당연한 결과일 수 있음. 그러나 유교적 덕목에만 치중한다면 편향성과 복고성을 벗어나기 어려우며, 한문과만이 지니고 있는 교과의 특수성을 찾기도 어려움. 자칫하면 <생활과 윤리>의 '유교윤리', <윤리와 사상>의 '한국유교' 등의 범주를 벗어나기 어려움.

○ 이에 동양과 서양에서의 인성 개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21세기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데에 적합한 '인성 요소'를 추출하고, 이를 고려하여 한문 교육에서의 인성 교육 방향을 정립할 필요가 있음.

○ 기존의 유교적 인성 교육에 편향된 시각을 탈피하여 불가·도가의 인성 이해와 인성 교육 방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나아가 현대의 생태학적 교육관, 페미니즘적 교육관 등도 적극적으로 참고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도덕과·사회과와 변별되는 한문과만의 특성을 고려하여 인성 교육의 제재를 발굴하고 교수·학습 방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는데, 문학·문화 교육적 접근이 중요하다고 생각됨.

○ 한문 교육에서의 인성 교육은 인성 교육에의 역할 증대를 통해 한문과의 위상을 제고시키는 데에 일정정도 기여할 수 있으나, 한문 교육에서 인성 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을 적절하게 설정하고 그 한계점 또한 명확하게 인식해야 함. 곧 한문 교육에서 '인성'은 여러 내용 체계 중 일부일 뿐이며, 도덕과와 같이 '학교 인성 교육의 핵심 교과'는 아님. 한문 교육에서 인성 교육을 과도하게 강조하고 확장할 경우, '한문 교육=유교 교육'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어 오히려 한문 교과의 위상에 해를 끼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임.

3. 한문 교육에서 인성 교육의 실제

1) 인성 요소의 설정

◦ 기존 논의

- 한은수(2013: 56면)는 이명준 외(2011)가 제시한 6가지 덕목을 한자·한자어(한자 성어 포함) 교육 내용에 적용하였음.

- 강민구(2013: 97~101면)는 2007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및 고등학교『한문』교과서 소재 인성 관련 내용을 3가지로 분류하였는데, 타인존중의식과 자아존중의식의 비중이 높으며, 타인존중의식에서는 '孝慈/友愛', '友情'이, 자아존중의식에서는 '修身/省察', '學問(努力)', '言行'의 비중이 높게 나타남.

하위요인	인성 덕목(주제)
민주시민의식	義理/節槪(正義感)
타인존중의식	孝慈/友愛, 友情, 配慮/寬容, 信義/正直,
자아존중의식	自信感/自尊, 修身/省察, 學問(努力), 言行, 勤儉

- 김왕규(2013: 144면)는 이동환 외(1997)를 참고하여 한문과 교재, 특히 교과서의 제재를 통해 구현해 낼 수 있는 인성 의미 자질을 설정하였음. (仁·義·禮·智, 孝, 克己, 自反, 正

己, 養德, 友愛, 家族 · 家庭, 夫婦, 交友, 師弟, 交際, 忠恕, 人生, 公人, 廉潔, 愛民, 憂國, 節義, 愛物, 配慮, 協同, 寬容, 信義, 公正, 共同體, 多文化, 利他心, 人類愛, 人間 尊重, 爲己之學, 自我, 省察, 道德的 主體 등)

- 백광호(2013: 358~360면)는 이명준 외(2011)를 근거로 하여 2009 개정 중학교 한문 교과서에서의 인성 교육 관련 소재를 분석하였음. (존중(仁 · 禮 · 敬)-交友, 師弟 / 배려(仁 · 慈)-配慮, 忠恕 / 책임(誠)-孝, 友愛, 家庭敎育 / 신뢰성(信)-言行 / 정의 · 공정성(義)-도덕주체로서의 心性 / 시민성-爲己之學, 愛人)

◦ 인성 요소의 설정

- 한문 교육에서의 인성 요소 설정 시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의 '핵심 역량', 2015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의 '인성역량', '한문과 인성'의 성취기준을 1차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아울러 중등학교 교육 현장을 고려하여 한문 교과서에 수록될 만한 자료의 범위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음. 다만 현행 교과서에 수록된 제재에 한정해서는 안 되며, 인성 교육과 관련된 제재를 새롭게 발굴할 필요가 있음. 일례로 燕行錄, 海槎錄, 漂海錄 등에 타국 문화와 관련된 기록 등은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인식 측면에서 고려해 봄직함.

- 총론의 핵심역량에서 '자기관리 역량(자아정체성, 자신감)' 및 '공동체 역량(지역·국가·세계 공동체의 구성원)', 한문과 인성역량에서 '자신의 삶을 지속적으로 계발·관리 능력' 및 '공동체의 문제 해결 및 발전 능력' 등이 관련됨. '한문과 인성'의 설정배경과 성취기준에서는 '현재적 의미에서 가치가 있고 실천 가능한 것', 예를 들어 '인간의 존엄성 상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무시, 물질 만능주의와 극단적 이기주의의 만연 등에 대해 해답을 찾을 수 있는 자료들'과 관련됨.

- 한문 교육에서의 인성 요소 설정(안)

기본 범주	주요 덕목	내 용
자신과의 관계	자존, 자성, 정직	– 자아 정체성 형성과 행복한 삶을 위한 목표 설정
타인과의 관계	배려, 포용, 신의	–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 타인과의 합리적인 의사소통
공동체와의 관계	정의, 공정, 책임	– 지역과 국가 구성원으로서의 책무와 정의 실천
자연과의 관계	생명 존중, 자연 친화	– 생명 존중, 자연과 인간의 바람직한 관계 설정

2) 교수·학습 방법의 사례

◦ 기존 논의

- 2015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에서 '한문과 인성'의 교수 · 학습 방법으로 '명언·명구 속에서 핵심 사상 찾기, 영상 매체를 활용한 토의·토론하기, 명언·명구 암송하기, 自警文 만들기, 성찰 일지 쓰기' 등을 제시하였음.

- 김병철(2013)은 한문과 인성 교육의 실태를 자세히 검토하고, 교육학계의 인성 교육 성과를 토대로 한문과에서 인성 교육 방법을 탐색한 바 있음. 김은정(2014)은 2010~2014년에 걸쳐 학교 현장에 적용된 한문고전을 활용한 인성교육의 다양한 방법을 소개하였음. 김은경(2016)

은 2015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구체적인 교수·학습 방법의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한 바 있음.

◦ 교수·학습의 방향

- 인성 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인성 요소'를 지식적으로 이해하는 것보다는 이를 '내면화'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수·학습 방법을 개발하는 것임. '내면화'에는 '공감과 각성'의 과정이 요구되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의지와 훈련'의 과정이 필요함.
- '내면화'와 '실천'의 측면에서 2015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자경문 만들기'나 '성찰 일지 쓰기' 등은 적절한 교수·학습 방법이라 할 수 있으나, '자기 성찰'의 측면에 치중됨.
- 한문 교육에서의 인성 교육 방법에 '문학'과 '문화'의 요소가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된 필요가 있으며, 이렇게 될 때 도덕과·사회과 등과 변별되는 한문과만의 특성이 드러날 수 있음.
- 문학 작품을 심미적으로 향유하는 과정에서 정서적으로 공감하면서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에 대한 각성을 불러일으키며, 전통 시대의 한자문화권이 지니고 있었던 다양한 문화를 접하고 생활에 되살림으로써 인문적 삶을 가능케 함. 특히 한시와 한문 산문은 내용과 형식면에서 매우 다채롭기 때문에 인성 교육에서도 활용이 가능함.

◦ 사례 1 : 인성 요소의 추출과 그 필요성 찾기

- 역사적 사례를 제시하고 그 이야기 속에서 인성 요소를 추출하여 그 의미와 필요성을 찾아보는 것임. 인성 요소를 사전에 제시하여 역사적 이야기에 적용시키게 유도하는 것이 효과적임. 수업은 모둠별로 진행하는데, 1차적으로 모둠 내에서 토론을 통해 인성 요소를 추출하고 그 이유를 정리하며, 2차적으로 모둠별 토론을 통해 인성 요소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하게 하고 그것의 필요성에 공감하게 함.
- 일례로 蔡濟恭이 지은 「萬德傳」(『樊巖集』 卷55)을 읽고 김만덕의 삶 속에서 인성 요소를 추출해 봄. 「만덕전」의 전반부 이야기를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음. 김만덕은 조선후기 제주도에 살았던 여성으로 본래 양민이었으나 어려서 부모를 잃고 생계가 막막하여 기생들에게 의탁하여 살았음. 조금 성장하자 관에서는 만덕을 기생 명부에 등록시켜 일을 시켰으나, 만덕은 절대 스스로를 기생으로 여기지 않았음. 스무 살이 되었을 때 일련의 사정을 관에 하소연하여 기생 명부에서 이름을 삭제하고 다시 양민으로 돌아감. 만덕은 장사에 특장이 있어서 10년 간 많은 재산을 모았음. 정조 19년(1795) 제주도에서 대기근이 발생하였는데, 구호미를 실은 배가 적기에 도착을 못하는 상황이었음. 이때 만덕은 자신의 재산을 내어 곡식을 사서 친족을 살리고 나머지는 관에 기부하여 굶주린 자들을 살렸음.
- 「만덕전」의 전반부는 크게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음. 하나는 만덕이 어릴 적 기생에 의탁하여 불우하게 살다가 성인이 되어 다시 양민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며, 다른 하나는 제주도의 대기근 때 재산을 기부하여 굶주린 사람들을 살린 것임. 전자는 역경에 좌절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개척한 것이고, 후자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한 것임.

◦ 사례 2 : 자전문학과 자전적 글쓰기(齋號·堂號 짓기와 기문 쓰기)

- 전근대 한자문화권에서 自傳文學은 自傳, 自撰墓誌銘, 自祭文, 自撰年譜, 自挽詩 등과 같이 여러 가지 양식으로 나타남. 자전문학의 작가들은 글쓰기 과정에서 자신의 행적을 검토하여 중요하고 의미 있는 사건을 발굴하고, 이것이 자기 정체성에 미친 영향을 점검하는 동시에 이를 바탕으로 미래의 삶을 구상함.

- 또한 자전문학을 작성하는 일련의 과정은 사회 속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자기 존재를 긍정하는 과정이기도 함. 사회 내에 자신의 정체성을 위치지운 사람은 사회적 행동 규범을 알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암. 이러한 사람은 누구보다도 윤리적인 인간이며, 저절로 사회적 공동체로 화합해 들어감. (안세현(2014))

- 이런 점에서 전근대 한자문화권의 자전문학을 심미적으로 감상하고 자전적 글쓰기를 직접 해보는 것은 인성 교육적 가치를 지님. 본고에서는 자신의 생활공간에 직접 이름을 붙이고 기문을 붙인 사례에 주목함. 서울 경복궁에 있는 勤政殿과 慶會樓로부터 경주 안강에 있는 李彦迪(1491-1553)의 獨樂堂에 이르기까지, 선인들은 모든 건물에 이름을 짓고 이를 현판에 크게 써서 건물 중앙에 걸었고, 기문을 지어 건물을 짓게 된 내력이나 이름의 의미를 밝혔음. 선인들은 자신의 생활공간에 이름을 붙여 인생의 지향을 담아내고 그 공간에 적극적인 의미를 부여하였으며, 그 이름을 돌아보며 이름에 담긴 의미를 음미하고 그것을 실천하였음. 이것이 바로 顧名思義의 정신임.

- 그러나 이러한 전통은 근대 이후에 단절되었으며, 오늘날 도시 생활 속에서 집이나 방은 주거 공간 이상의 의미가 없음.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동호수로 기억될 뿐임. 아파트 단지의 礎石 따위에 공사 기간, 준공일, 건설 회사, 건설비용 등이 적혀 있어서 건물의 내력을 조금이나마 알 뿐임. 때문에 우리는 자기 공간에 대한 애정이 거의 없으며 경제적 가치로 환원된 집착이 있을 뿐임.(안세현(2015: 266~267면))

- 일례로 정약용은 '茶山'이란 호가 많이 알려져 있는데, '다산'은 정약용이 강진 유배시절 '草堂'에 붙인 이름임. 그전에는 '與猶堂'이란 당호를 사용하였음. 정약용은 1800년(정조 24) 자신의 천주교 연루 문제가 정치적 반대파에 의해 거론되자, 정조에게 사직의 뜻을 표하고 고향인 馬峴里(지금의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로 돌아왔는데, 이때 자기 방의 이름을 '與猶堂'이라 하고,「與猶堂記」를 지었음. '與猶'라는 말은 '살얼음 낀 겨울 시내를 건너듯', '사방에서 노려보는 사람들 사이를 걸어가듯'이란 의미를 지님. 곧 '여유'라는 이름에는 극도로 불안한 정약용의 정치적 입지가 반영되어 있는데, 정약용 자신이 젊은 시절 말과 행동을 지나치게 단호하게 하고 전혀 타협할 줄 몰랐던 무모함을 다음과 같이 반성한 것임.

- 자신이 생활하는 방이나 학교의 교실에 이름을 붙이고 그 이름을 짓게 된 이유를 글로 써 봄으로써, 자기 공간에 애착이 생기고 자기 삶의 의미를 찾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임. 자기 방에 이름 짓기는 개별 활동으로, 교실에 이름 짓기는 모둠별 활동으로 전개하는

것이 효과적임.

◦사례 3 : 역사적 인물에 평가와 토론(역할 놀이 학습 또는 가상인터뷰하기)

-『宋名臣言行錄』에는 역사서를 읽는 자세를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음. “무릇 역사서를 읽을 때에는 자신이 그 상황 속에 있는 것처럼 하여야 한다. 일의 利害와 시대의 禍亂을 보고 책을 덮고는 내가 만약 이런 일을 만났다면 마땅히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하고 스스로 생각해 보아야 한다.(大抵看史, 見治則以爲治, 見亂則以爲亂, 見一事則止知一事, 何取? 觀史, 須如身在其中, 見事之利害 · 時之禍亂, 必掩卷自思, 使我遇此等事, 當如何處之. 如此觀史, 學問亦可以進, 智識亦可以高, 方爲有益.)”

-일례로 백이는 중국 殷나라 때 孤竹君의 아들인데, 주나라 무왕이 은나라 정벌 길에 나서자 길을 막고 충고하기를, “아버지가 죽었는데 장사도 지내지 않고 전쟁을 하는 것을 孝라고 하겠습니까? 신하로서 임금을 시해하는 것을 仁이라고 하겠습니까?” 라 하였음. 주나라 무왕이 은나라를 멸망시키고 천하를 차지하자, 의리상 주나라의 녹봉을 먹을 수 없다 하여 아우 叔齊와 함께 首陽山으로 들어가 고사리만 캐먹다가 굶어죽었음.(『史記』「伯夷列傳」)

-전통적으로 백이는 節義之士로 칭송을 받았고 주나라 무왕은 하나라 禹, 은나라 湯과 함께 王道政治를 펼쳤던 聖君으로 칭송을 받았음. 공자는 백이를 두고 옛날의 현인으로 “求仁而得仁”(『論語』「述而」)라 하였고, 맹자는 백이를 “聖之淸者”(『孟子』「萬章下」)라 하였음.

-무왕이 은나라의 폭군 紂를 정벌한 사건은 많은 논란거리를 낳았음. 백이는 무왕이 주를 정벌하는 것을 반대했으나, 太公望은 무왕을 도와 주를 정벌하였음. 무왕·태공망과 백이는 양립할 수 없는 관계인데, 이들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가 논란이 됨. 백이의 입장에서 보면 신하인 武가 임금인 紂를 정벌하는 것이 군신의 의리 상 옳지 않음. 그렇다고 폭군 주가 백성들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을 그대로 보고 있는 것이 과연 正義인가. 맹자는 폭군 紂가 이미 仁義를 해쳤으므로 임금이 아닌 일개 匹夫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무가 주를 정벌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함.(『맹자』「梁惠王 下」) 맹자의 입장에서 보면 무왕과 태공망은 정의를 실천한 것임.

-조선후기에 백이, 무왕 그리고 태공망에 대한 평가를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일어났음.(백진우(2011: 160~174면)) 吳載純은 백이는 常道를 행한 인물이고 무왕은 權道를 행한 인물로서 각자 자신의 뜻을 펼쳤다고 하였고(「伯夷論」,『醇庵集』卷9), 朴趾源은 백이와 무왕의 행적에는 차이가 있지만 근본적인 의리는 동일하다고 하였음.(「伯夷論上」,『燕巖集』卷3) 朴齊家는 백이와 태공망의 행적은 달랐으나 그 의리는 같았다고 하였고(「伯夷太公不相悖論」,『貞蕤閣集』卷1), 尹愭는 백이와 태공망은 행적도 달랐고 의리도 달랐기 때문에 같은 반열에 두고 논할 수 없다고 하였음.(「伯夷太公不相悖論」,『無名子集』文藁 冊1)

-사마천의 「백이열전」을 읽고 백이, 무왕과 태공망의 입장이 되어서 ‘正義’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해 봄. 이때 학생들이 각 인물을 맡는 역할 놀이 학습 방법이나 가상인터뷰 방식으로 토론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임.

◦사례 4 : 생태학적 자연관과 영물시 감상

- 자연 파괴와 환경 오염이 심각한 오늘날 자연을 단지 물질적 가치로만 환산하는 우리의 태도를 되돌아볼 시점이며, 이런 점에서 선조들의 자연관과 이를 바탕으로 지어진 문학 작품을 통해 자연과의 공존을 배울 수 있음.

- 일례로 樓亭詩文을 들 수 있음. 선조들은 경관이 수려한 곳에 누대나 정자를 세워 자연의 아름다움을 감상하고 이를 시나 산문으로 남겼음. 강릉의 鏡浦臺는 관동팔경에서도 으뜸으로 쳤음. 경포대에서 바라보는 경포호는 지금 둘레가 10리(4km)정도인데, 본래는 이보다 2~3배나 컸음. 근대에 들어 농지를 확장하고 경제 개발을 위해 호수를 매립하면서 그 크기가 심하게 줄어들었음. 이 때문에 본래 호수에 인접해 있었던 海雲亭이나 湖海亭 같은 정자들이 지금은 호수에서 꽤 멀리 떨어져 있게 되었음.

- 고려 말 安軸은 「鏡浦新亭記」에서 성리학적 자연관을 단적으로 엿볼 수 있음. “이 세상의 모든 사물은 형상이 있고 거기에 이치가 깃들어 있으니, 크게는 산과 강에서부터 작게는 주먹만한 돌이나 한 치 정도의 나무도 모두 그러하다. 유람하는 사람은 이 경물을 보고 흥을 기탁하여서 이를 통해 즐거움으로 삼으니, 이것이 누대나 정자를 짓게 된 이유이다. 무릇 기이한 형상은 밖으로 드러나 있어서 눈으로 완상하는 것이요, 오묘한 이치는 은미하게 감추어져 있어서 마음으로 터득하는 것이다. 눈으로 기이한 형상을 완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이나 지혜로운 이나 똑같이 한쪽 면만을 보는 것이다. 그러나 마음으로 오묘한 이치를 깨닫는 것은 오직 군자만이 그렇게 하여 그 전부를 즐긴다.” (安軸, 「鏡浦新亭記」, 『謹齋集』 卷1, 叢刊 2, 467면. “天下之物, 凡有形者皆有理, 大而山水, 小而至於拳石寸木, 莫不皆然. 人之遊者, 覽是物而寓興, 因以爲樂焉, 此樓臺亭榭所由作也. 夫形之奇者, 在乎顯而目所翫, 理之妙者, 隱乎微而心所得, 目翫奇形者, 愚智皆同而見其偏, 心得妙理者, 君子爲然而樂其全. 孔子曰, 仁者樂山, 智者樂水, 此非謂翫其奇而見其偏, 蓋得其妙而樂其全也.)

- 안축은 눈에 보이는 외형적 모습만을 즐긴 것이 아니라, 거기에 깃들어 있는 내재적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였음. 이는 곧 산수 경물의 관람을 통해(觀物), 거기에 내재되어 있는 이치를 찾아내고(察理), 이를 다시 자신의 심성 수양(反己)으로 연결시키려는 성리학적 자연관의 전형적인 태도임.

- 한편 事物의 吟詠을 통해 작가의 정서를 표출한 詠物詩도 주목해 볼만함. 영물시에는 자연적으로 나무와 꽃, 새와 짐승 같은 동식물에서부터 文具와 器物 등 일상 속의 사물, 심지어 미물이라 할 수 있는 벌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자연물들이 창작의 소재로 활용함. 시인은 영물시 창작을 통해 사물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기도 하고, 또는 사물의 특징이나 본질을 상징적인 수법을 동원하여 자연물을 묘사함으로써 자신의 감정을 우회적으로 드러냄.(김재욱(2009: 1면))

- 牧隱 李穡의 영물시 「野花」(『牧隱詩藁』 卷23)을 예로 들어 보면, “간 곳마다 핀 들꽃 이름은 알 수 없지만 / 초동목수들의 시야는 환히 빛나고말고. / 어찌 반드시 상림원 꽃들만 부귀할쏜가. / 하늘의 마음 쓰는 것이 절로 균평하구려.(野花隨處不知名 蕘叟樵童眼界明 豈必上林爲富貴 天公用意自均平)”

- 이색은 野花와 上林園의 꽃들을 공평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이름이 있건 없건 꽃으로 세상에 존재하는 것으로만 보면 들꽃이 모란이나 국화 같은 꽃들과 다른 점이 없기 때

문임. 들꽃은 들꽃대로 모란, 국화와 같은 꽃들은 그들대로 고유한 가치를 지닌 채로 세상에 존재한다고 인정하게 되는 것임.(김재욱(2009: 30면))

- 이처럼 자연물과 관련된 한시와 산문을 감상함으로써, 자연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지니게 되고 자연과 인간의 바람직한 관계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됨.

4. 결론

○ 본고는 중등학교 한문 교육 현장에 인성 교육의 방향을 정립하고 교수·학습 방법의 사례를 제공하기 위해 기록된 것임. 아울러 2015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에 따른 중・고등학교 한문 교과서 집필이나 수업 보조 자료에 인성 교육과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의도도 있음.

<참고문헌>
『초 · 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별책 1], 교육부, 2015.
『한문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별책 17], 교육부, 2015.
『도덕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별책 6], 교육부, 2015.
장호성 외(2015a), 「2015 개정 교과 교육과정 시안 개발 연구 | 한문과 교육과정」,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서(CRC 2015-13).
장호성 외(2015b), 「2015 개정 교과 교육과정 시안 개발 연구 II 한문과 교육과정」,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서(CRC 2015-25-15).

<한문교육>
김미선(2012), 「한문 교육을 통한 인성교육의 일방향-애일시를 중심으로」, 『청소년과효문화』 20, 한국청소년효문화학회.
김미선(2014), 「한시 교육을 통한 인성교육의 접근」, 『한국사상과문화』73, 한국사상문화학회.
김미선(2015), 「漢詩敎育을 通한 人性敎育 方案-<人性敎育振興法> 목표한 孝를 중심으로-」, 『한자한문교육』 39,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김병철(2013), 「한문과 창의 · 인성 교수 · 학습 방법」, 『한문교육연구』 40, 41~84면.
김왕규(2013), 「한문과 창의 · 인성 학습 내용 선정 및 조직」, 『한문교육연구』 40, 139~154면.
김왕규(2016), 「 '한문의 활용--한문과 인성, 한문과 문화' 영역의 내용 요소와 성취기준 분석」, 『한문교육연구』 46, 147~161면.
김은경(2016), 「한문과 인성교수 학습방법 및 평가 사례」, 『한문교육연구』 46.
김은정(2014), 「한문고전을 활용한 인성교육 방안」, 『한문교육연구』 43.
박세진(2016), 「한문고전을 통한 대학에서의 인성교육 방안-『明心寶鑑』을 활용한 수업 모형-」, 『한문교육연구』 46.
백광호(2013), 「한문교육을 통한 인성교육의 가능성과 방향」, 『청람어문교육』 47.
이동환 외(1997), 『신명심보감』,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정재철(2013), 「한문교육과 창의 · 인성교육」, 『한문교육연구』 40.
한은수(2013), 「초등교육에서 창의 · 인성교육을 위한 한자 · 한자어 교육」, 『한문교육연구』 40, 41~84면.

<교육학>
강선보 외(2008), 「21세기 인성교육의 방향설정을 위한 이론적 기초 연구」, 『교육문제연구』 30, 고려대 교육문제연구소.
김영래 외(2015), 「인성 교육을 위한 핵심가치 덕목과 핵심역량의 연구모형에 관한 고찰」, 『교육의 이론과 실천』 20권2호, 한국교육학회.
김희경 외(2013), 「창의 · 인성교육의 실현을 위한 평가 방법 개선 종합 방안」,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서(RRE 2013-20).
박주현 외(2016), 「인문 소양 강화를 통한 인성 교육 방안」,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서(RRC 2016-6).
안범희(2005), 「미국 학교에서의 인성교육 내용 및 특성 연구」, 『강원인문논총』 13, 강원대 인문과학연구소, 133~169면.
양정실 외(2013), 「교과 교육을 통한 인성교육 구현 방안」,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서(RRC 2013-6).

이명준 외(2011),「교과교육과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한 인성 교육 활성화 방안』,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서(RRC 2011-7-1)
최준환 외(2009),「인성교육의 문제점 및 창의 · 인성교육의 이론적 고찰」,『창의력교육연구』9, 한국창의력교육학회.
현주(2012),「학교 인성 교육의 의의와 과제」, 한국교육개발원 현안보고서(OR 2012-05-2).
현주 외(2014),「KEDI 인성검사 실시요강」, 한국교육개발원.

<윤리교육>
금교영(2014),「인격 교양을 위한 誠 · 敬 · 信의 실천과 인성 교육」,『철학논총』77, 새한철학회.
금교영(2014),「인격 전형과 인성 교육 연구」,『동서철학연구』72, 한국동서철학회.
김성기(2004),「인성교육 특성화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전통유학교육관의 반성적 고찰」,『동양철학연구』39.
김용환(2015),「조선의 인성 교육 범례 연구」,『윤리교육연구』37, 한국윤리교육학회.
박지혜(2015),「성리학에 기반한 인성교육의 가능성 탐색」,『도덕윤리과교육』49,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
손경원 외(2014),「초 · 중 · 고 학생들의 인성 실태 분석 및 인성 교육 개선 방안 연구」,『윤리교육연구』33, 한국윤리교육학회.
손경원(2016),「인성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 제고 방향」,『윤리교육연구』40, 한국윤리교육학회.
손경원(2016),「인성 교육의 연구 동향과 과제」,『윤리교육연구』39, 한국윤리교육학회.
윤영돈(2009),「효과적인 학교 인성교육의 방향-범교과 학습과 도덕과 학습의 관계를 중심으로」,『도덕과윤리과교육』29, 한국도덕육리과교육학회.
이은영(2015),「인성교육을 위한 도덕치료와 인격주의」,『2015 도덕교육 공동체 연합 학술대회 자료집』(2015년 8월), 한국윤리교육학회.
이인재(2016),「학교 인성 교육의 체계적 접근과 교사의 역량」,『윤리교육연구』39, 한국윤리교육학회.
장승희(2015),「인성교육진흥법에서 추구해야 할 인성의 본질과 인성 교육의 방향」,『윤리교육연구』37, 한국윤리교육학회.
정창우 외(2016),「인성 발달을 위한 상호 작용 기반 인성 교육 실천 방안 탐색」,『윤리교육연구』40, 한국윤리교육학회.
정탁준(2014),「인성 교육의 핵심 활동으로서 윤리 상담에 대한 연구」,『윤리교육연구』34, 한국윤리교육학회.
조난심(2015),「인성교육 강화와 도덕과의 역할」,『2015 도덕교육 공동체 연합 학술대회 자료집』(2015년 8월), 한국윤리교육학회.

<기타>
김재욱(2009),「牧隱 李穡의 詠物詩 硏究」, 고려대 대학원 박사논문, 1·30면.
백진우(2011),「朝鮮後期 史論 散文 硏究」, 고려대 대학원 박사논문, 160~174면.
안세현(2012),「한문 산문 교육의 방향과 교수 · 학습 모형-고등학교 한문을 대상으로」,『한문교육연구』39.
안세현(2014),「한문 산문을 활용한 글쓰기 교육-自薦書·自傳類 산문과 자기소개서를 중심으로-」,『우리어문연구』48.
안세현(2015),『누정기를 통해 본 한국한문산문사』,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윤채근(2012),「한국의 중등교육 환경과 한자문화에 대한 새로운 이해」,『한문교육연구』39.

‘한문 교육에서의 인성 교육
-인성 요소의 설정과 교수·학습 방법을 중심으로-’ 토론문

류준경(성신여자대학교)

요즘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가 많이 언급됩니다. 이러다 보니 외국인들이 출현하는 TV프로그램에서 자기 나라의 헌법 제1조를 소개하기도 하였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우리와 비슷하리라고 생각하였는데, 독일, 미국, 프랑스의 헌법을 들어보니 우리와 달랐습니다. 예컨대 독일은 “인간 존엄성은 불가침이다. 이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이 국가권력의 책무이다”였습니다. 국가보다 인간의 존엄성, 인권을 중시하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여전히 ‘전체주의’, ‘국가주의’, ‘공동체주의’가 힘을 발휘하는 지금 우리의 현실이기에 더욱 더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국가 교육제도에서 시행되는 도덕교육은 기본적으로 국가주의, 공동체주의가 이면에 도사리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도덕” “윤리”가 교과로서 자리 잡은 것도 분명 권위주의 시대의 유산입니다. 선택형 교육과정이 실시되어서도 국민기본공통과목, 곧 필수교과목으로 도덕, 윤리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도덕교과 내부에서 새로운 논의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국가이데올로기의 창구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세계에서 유래 없는” ‘인성교육진흥법’이 제정된 것도 이러한 맥락일 것입니다. 국가가 개인의 ‘인성’, ‘도덕’에 대해 법률로 개입한다면 그것은 결국 개인의 자유로운 신념이나 가치를 제한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인성교육진흥을 법제화한 것은 대단히 시대착오적인 일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국가 정책의 일환으로 급박하게 진행되는 교육과정의 개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정부의 교육과정 총론에서 제시하는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 ‘핵심역량’ 등도 기본적으로 민주적인 시민의 양성(?)보다는 국가이데올로기가 스며들어있습니다. 도대체 ‘바른 인성’이 무엇이겠습니까? 교육정책에서 피교육자에게 “바르게 살라”고 말하는 것은 기성세대 혹은 기성권력집단이 암묵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질서를 따르라는 말이 되고 맙니다. 지난 권위주의적 군사 정부가 그렇게 도덕을 강조한 것이 바로 그것이지요. 핵심역량에서 강조하는 공동체 역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국가·세계 공동체의 <u>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가치와 태도</u>를 가지고 공동체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체 역량”에서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가치와 태도”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구성원의 자발적인 동의와 참여가 보장되지 않고 그냥 “요구되는 가치와 태도”는 권력이 제시하는 가치와 태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공동체 역량”이 언급되려면 반드시 개인의 자유가 짝으로 제시되어야만 합니다. 나아가 개인에 대한 공동체의 책임까지 언급되어야 마땅합니다.

2015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 역시 교육당국의 급박한 요구에 따라 급하게 그에 맞도록 작

성된 것이기에 한문교육계의 문제의식이 제대로 스미지 못했습니다. 한문과에서 '인성 역량'이 설정된 것도 지금 정부의 교육정책에 의해 암묵적으로 유도된 것이라 생각됩니다. "건전한 가치관과 바람직한 인성을 형성"하도록 한다는 언급은 권위주의 시대의 유산입니다. "건전한 가치관"과 "바람직한 인성"을 형성해야 한다는 주장은 표면적인 내용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피교육자에게 "건전한" 가치관을 지녀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순간, 그것은 기존 가치의 강요가 되고 개인의 자유에 대한 제약이 됩니다. 자유롭게 스스로의 가치관을 형성하려는 주체 형성에 방해가 됩니다. 주체적인 민주시민 교육이 아닌 것이지요.(이런 맥락에서 다음 교육과정에 대한 논의를 한문교육학계에서 자발적으로 먼저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의 문제점은 교육학계와 윤리교육학계의 인성교육 관련 연구에서도 확인되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제시한 두 학계의 주장을 보면 '자기 존중', '성실', '배려·소통' '책임' '예의' '자기조절' '지혜' 정의' ' 시민성'(교육학계)/성실, 배려, 정의, 책임(윤리교육학계) 등이 주요한 인성교육의 덕목으로 제시되는데, 이것들은 결국 국가나 사회 발전의 도구적 존재로서 개인이 지녀야 덕목으로 이해됩니다. 개인의 윤리성은 가치에 대한 비판적 인식과 실천이 핵심일 터인데, 여기서는 규범 그 자체를 문제적으로 인식하고 재설정할 수 있는 주체의 덕목을 제시한 것이라기보다는 개개인의 책임 아래 열심히 노력해야만 하는 도구적인 주체의 자질을 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교육학계와 윤리교육학계의 논의를 참고하기보다는 이를 넘어서는 모색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인성요소'를 설정하는 것은 그 자체로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인성의 내용적 요소를 규정하는 순간, 그것은 억압적 규율로 작동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중학교 도덕의 내용체계에서 '자신과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 '사회·공동체와의 관계', '자연·초월과의 관계'로 영역 설정한 것을 이용하여 기본범주(자신/타인/공동체/타인과의 관계) 4가지를 설정하고 自尊, 自省, 正直, 配慮, 包容, 信義, 正義, 公正, 責任, 生命尊重 등의 덕목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역시 인성교육에서 양성해야할 자질이 나열되고, 그 자질이 개인이 갖추어야할 도덕성의 맥락에서 제시되고 있기에 여전히 국가주의적 통제 윤리로 작동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 수업 시간에 正直, 信義, 責任 등을 한문과에서 주요하게 익혀야할 도덕관념으로 제시된다면 피교육자인 학생은 주요한 가치라기보다는 자신의 삶을 조이는 족쇄로 의식/무의식적으로 느낄 것입니다.

이러한 가치들은 개인의 자발적 이해나 동의 과정 없이 제시될 수는 없습니다. 실제 교육에서 강조되어야 할 '인성'은 개인의 존엄성, 주체성, 자유 등의 범주일 것입니다. 자발적인 신념체계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자신의 선택에 따라 스스로 실천하는 주체가 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배려, 포용, 책임은 이러한 자유를 최대한 누리기 위한 맥락에서 요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성'은 어떤 요소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존엄하며 자유로운 것입니다. 인성의 실현은 자유와 존엄의 실현이기에 무엇보다도 주체적, 비판적 사유가 필요합니다. 나아가 '인성'이라는 용어 자체의 문제성에 대해서도 비판적으로 사유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

다. ‘인성’이라는 본질주의적 개념은 ‘보편성’의 폭력으로 구체적 현실에서 소수자(LGBT/장애인 등)를 ‘인성’ 밖의 존재로 인식할 가능성이 큽니다. 구체적인 현실 관계 속에서 구현될 때의 문제점까지도 아울러 고려할 수 있는 사유를 담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 학교교육, 제도권 교육에서 개인의 도덕성을 중시하는 교육은 결국 개인의 존엄을 억압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개인의 도덕성이 강화되더라도 사회의 도덕성이 나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의 도덕성 교육은 사회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억압만 강화합니다. 지금 더욱 중요한 것은 사회의 도덕성입니다.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삶조차도 영위하기 힘든 현실에서 비인간화가 더욱 심해질 때, 개개인에게 보다 나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것은 올바른 처방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도덕적인 인간의 전제는 도덕적인 사회입니다. 지금 시대의 인성은 비도덕적 사회의 문제를 주체적으로 인식하고, 그 속에서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고 그를 실현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따라서 “인성교육”은 반드시 사회의 도덕성과 함께 이야기되어야만 합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한문교과가 인성교육을 주요하게 담당해야 할 교과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문교과에서 적절히 ‘인성교육’적 관점을 도입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가 다 할 수 있다는 것은 위험합니다. 특히 전통윤리, 전통가치를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면 결국 기존질서를 유지하려는 교과가 되고 맙니다. 전통윤리는 철저히 구체적인 맥락에서 재인식되어야지 그것 자체로 의미를 지니기 어렵습니다. 전통적 윤리의식의 한계를 분명히 인식한 상태에서 현실의 구체적 맥락을 고려하여 활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한문교과 교육에서 인성교육은 구체적인 교육의 과정에서 그 의미가 구현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 속에서 ‘인성교육’이 이루어지고, 학생과 학생의 관계, 수업 내용의 자기화 등의 과정에서 인성-자신의 개성-이 형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선생님께서 몇 가지 사례를 제시한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구체적인 교육의 과정에서 ‘인성’을 생각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각 사례들에 대해 조금의 이견이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견들이 조정되는 과정이 바로 ‘인성교육’이 구현되는 과정일 것입니다.

<만덕전>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만덕이 제주도의 기근을 해결한 점에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한 것”을 읽어내는 것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만덕에게는 기근을 해결해야할 “책임”이 없습니다. 만덕의 행위가 의미 있는 것은 책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선행을 베푼 점이고, 동시에 여성인 한 개인이 할 수 있는 기근해소를 관직자와 책임 있는 남성사대부도 하지 않은 현실에 대한 비판을 드러내고 있는 점입니다. 인성교육의 맥락에서는 개인의 도덕성과 함께 도덕적이지 못한 사회가 동시적으로 사유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리학적 자연관을 생태학적 자연관으로 이해하고 있는 사례4의 경우도 교육적으로 그리 설득력을 지니기 어려울 듯합니다. 자연과 나가 모두 동일한 가치(理)의 구현이기에 자연을 통해 가치를 확인하고 스스로 가치를 구현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사유가 과연 설득력이 있을까요? 모든 존재의 본질이 가치(理)에 있다는 사유가 현대에도 통용될 수 있을까요? 성리학적 자연관은 지금 세상에서 설득력을 지니기 어려울 것입니다. 세상은 세상 그 자체의 법칙에 따라 움직일 뿐이지, 어떻게 그 이면에 더 근원적인 가치가 존재하고 있다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종교에서나 가능한 사유이지요. 그러한 성리학적 세계관의 비합리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치'가 더 이상 세상의 핵심이 아닌 현대 사회에서 '가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절대화하기 위해 존재의 근원을 가치라고 이해한 점을 주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치'에 대해 비판적으로 음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漢文文體 ‘箴’의 敎材化 方案

장재익(수완고등학교)

【목차】

1. 序論
2. ‘箴’의 特性
3. ‘箴’의 敎育的 價値
4. ‘箴’의 敎材化 方案
5. 結論

1. 序論

한국한문학의 5개 영역(漢詩, 散文, 辭賦, 小說, 批評)의 연구사에서 그 연구는 비록 비교적 늦게 시작되었지만, 현재 연구자의 주목을 가장 많이 받으며 그 연구 성과물이 집적되고 있는 분야는 산문일 것이다.[1] 특히 산문이론 자체에 대한 이론서나 번역서가 출판됨으로써 산문연구에 대한 기초를 제공하기도 하였고, 혹은 작품과 작가에 대한 연구서가 출판되어 산문연구의 수준을 심화 제고시키기도 하였다.[2] 이와 같은 한문학의 연구사 속에서도 여전히 주목을 받지 못하는 분야는 여전히 존재한다. 한문 산문의 여러 문체 가운데 장르적 규명뿐만 아니라 심지어 작품들의 번역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많은 실정이다.[3] 그 중 ‘箴’이 여기에 해당된다. 특히 ‘箴’은 여타 한문 산문에 비해 연구 성과가 매우 미미하여 대다수의 작품이 번역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箴’에 대한 연구는 문체에 관련한 이론서와 개론서 및 번역서[4], ‘箴’의 문체적 특징 및 내용 갈래[5],

1) 김혈조(2003),「漢文散文 硏究의 回顧와 展望」,『대동한문학』19, 대동한문학회, 132면.
2) 박영호(2004),「韓國에서의 漢文學 硏究 動向」,『퇴계학과 한국문화』35,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19면.
3) 김성훈(2011),「한국 ‘箴’ 문학 연구」, 숭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면. 참조.
4) 陳必祥 著·심경호 譯(1998),『漢文文體論』, 이회문화사.
심경호(1998),『漢文散文의 美學』, 고려대학교출판부.
徐復觀 著·윤호진 譯(2000),「한문 문체론 연구」, 태학사.
박완식(2002),『한문 문체의 이해』, 전주대학교 출판부.
김종철(2003),『漢文 韻文文體의 理解와 分析』, 淸文閣.
劉勰 著·성기옥 譯(2012),『文心雕龍』, 지만지.
전병철(2015),『마음의 전쟁에서 이겨라』, 경인문화사.

그리고 한국한문학에서의 ‘箴’을 시대별, 작가별로 특징적 국면 제시[6], ‘箴’을 다양한 양상으로 분류하고 한국의 ‘箴’작품을 풍부하게 제시하여 ‘箴’의 문학사적 의의를 규명[7] 또, ‘箴’의 의미와 기원, 역사적 전개과정을 기술하고 ‘箴’과 ‘銘’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밝힌 논의[8], ‘箴’의 작가론 및 작품론[9] 등 간혹 보고되었다.

지금까지의 ‘箴’에 대한 연구는 타 장르 혹은 작가 조명을 위한 도구적인 역할에 불과했다. 이로 인해 ‘箴’이 지니는 다양한 특성을 통해 교육적 관점에서 재해석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하였고, 나아가 ‘다양한 유형의 한문자료’라는 ‘2009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 교육목표’ 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다양한 한문문체 중에 하나인 ‘箴’을 교재화하기 위해 ‘箴’의 다양한 특성을 규명하여 교육적 가치를 도출하고, 고등학교 한문교과서에 적합한 ‘箴’작품의 선정[10]을 통해 ‘箴’의 교재화 방안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여기서는 1개의 ‘箴’작품을 選取하고 분석하여 이를 통해 소단원을 구성 할 것이다.

2. ‘箴’의 特姓

첫째, ‘箴’은 警戒하는 글.

‘箴’은 ‘警戒’라는 어휘로 창작목적을 요약할 수 있다. 각종 문자학서와 문학창작의 지침서에 등장하는 ‘箴’에 대한 설명을 검토해 보면 ‘箴’의 특성 중에 하나인 ‘警戒’가 그 연원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중에서도『文心雕龍』,『文章辨體』,『文體明

이성호 편역(2002),『내 마음을 찾아가는 길』, 온누리.
이성호 편역(2007),『求放心』, 문자향.

5) 김종철(1995),「漢文文類 ‘箴’의 淵源과 文體特性」,『동방한문학』11, 동방한문학회.
6) 강민구(2006),「한국한문학 잠명(箴銘)의 특징과 전개양상」,『동방한문학』31, 동방한문학회.
7) 김성훈(2011),「한국 ‘箴’ 문학 연구」, 숭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8) 김민나(2009),「先秦兩漢六朝의 가르치고 경계하는 글에 대한 논의」-《문심조룡,명잠(文心雕龍,銘箴)》,『中國語文學誌』31, 중국어문학회.
9) 김형효(1979),「晦齋 李彦迪의 형이상학-그의 箴과 書를 중심으로-」,『韓國學報』16, 일지사.
정경주(2003),「西溪 朴泰茂의 修養論에 대하여」,『南冥學硏究』15, 경상대학교 남명학 연구소.
김진수(1991),「이규보의 산문문학 연구 -箴銘, 說·記·傳을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종철(1998),「이규보 箴銘의 갈래적 성격과 수사특성에 대하여」,『한문교육연구』12, 한국한문교육학회.
이영휘(1995),「尤庵先生의 箴銘類 硏究」,『송자학논통』2, 충남대학교 송자학 연구소.
윤희정(2003),「『東文選』所載 箴·銘 硏究」,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성훈(2007),「『東文選』所載 箴銘類 硏究」,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정경주·조창규(2003),「性齋 許傳의 箴銘 硏究」,『文化傳統論集』11, 경성대학교 한국학연구소.
김인철(2005),「퇴계학파(退溪學派) 문집소재(文集所載) 잠명류(箴銘類)의 수기지향적(修己指向的) 성격(性格)」,『퇴계학과 유교문화』37,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김종철(2007),「다산(茶山) 잠명(箴銘) 문류(文類)의 문체특성」,『동방한문학』33, 동방한문학회.
이성우(2009),「麗末鮮初 箴銘 硏究-牧隱 이색 그룹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전병철(2011),「南冥學派의 箴 창작과 修養의 시대별 요청」,『남도문화연구』21, 순천대학교 남도문화연구소.
전병철(2013),「호남지역 유학자의 箴 창작에 관한 통시적 고찰」,『남명학연구』37,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10) 韓國文集叢刊所載 552개의 ‘箴’자료 가운데, 기번역 자료 137개와 필자가 번역한 작품 150개를 연구대상으로 설정하였다. 모든 작품을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하는 것이 좋으나 ‘箴’의 다양한 특성을 도출해 내기에는 양적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辨』을 살펴보자.

㈎ 잠(箴)이란, 침(針)이라는 뜻과 같다. 잘못을 바로 잡고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어서 돌 침을 놓아서 치료하는 방법에 비유한 것이다.[11] (箴者, 針也. 所以攻疾防患, 喩鍼石也.)

『文心雕龍』

㈏ 許氏說文을 살펴보건대, 箴은 誡이다. 상서 반경편에 이르기를 "어느 누구도 감히 서민들의 경계하고자 하는 바를 숨기지 말라"했으니 무릇 箴이라는 것은 規戒하는 말이다. 마치 針으로 병을 치료하는 것과 같으니, (그 箴이라는 말을)이름으로 삼는다.[12] (按許氏說文, 箴, 誡也. 尙書盤庚曰: 無或敢伏小人之攸箴, 蓋箴者規誡之辭. 若箴之療疾, 故以爲名.)

『文章辨體』

㈐ 『설문』에 이르기를 "잠이란 경계함이다."하였다. 이는 의원(醫員)이 침(箴石:鍼)으로 병든 곳을 찌른 까닭에 풍자하여 그 잘못을 구제해 주는 것을 잠이라 말한다. 침석에 비유한 것이다.[13] (按說文云, '箴者, 戒也.' 蓋醫者以箴石刺疾. 故有所諷刺而求其失者謂之箴. 喩箴石也.)

『文體明辨』

㈑ '잠'에 대한 문장은 하, 상, 주시대에 흥성했다. 하와 상 대의 '잠문'에는 후세에 전해진 몇 구가 남아 있다. 주나라 무왕의 신하인 신갑(辛甲)에 이르러서는, 여러 관리들에게 자신의 직무에 따라 왕의 과실을 경계하는 '잠문'을 짓게 했다. 그러나 수렵에 관한 직무를 담당하던 우인(虞人)이 지은 '잠문'만이 '잠'의 체제에 대한 본래의 의미를 갖추고 있다.[14] (斯文之興, 盛於三代. 夏商二箴, 餘句頗存. 及周之辛甲. 百官箴闕, 唯虞箴一篇, 體義備焉.)

『文心雕龍』

㈎, ㈏, ㈐, ㈑ 각각의 문헌은 '箴'의 명칭, '箴'의 명칭과 효용성, '箴'의 발생 시기를 서술하고 있는데, 큰 틀에서 '箴'은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警戒의 목적을 지닌 글임을 드러내고 있다. 즉 병에 걸리면 침석을 놓아 치료를 하듯이, 잘못된 행위를 하게 되면 이를 고치기 위해 침석 대신 '箴'이라는 문학적 장치를 하여 잘못된 행위에 대해 警戒를 한다. 침이 병을 고치는 중요한 도구인 것처럼 '箴'은 자신과 타인의 잘못을 警戒하는데 있어 핵심 도구가 된다.

11) 劉勰 著, 성기옥 譯(2012), 『문심조룡』, 지만지, 76~77면.
12) 김성훈(2011), 『바늘(箴)로 마음을 치료하다!』, 학고방, 15면.
13) 박완식 편역(2002), 『한문 문체의 이해』, 전주대학교출판부, 119면.
14) 劉勰 著, 성기옥 譯(2012), 『문심조룡』, 지만지, 77면.

둘째, '箴'은 儒家經典 典故의 활용

'箴'은 儒家經典의 典故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典故란, 수사법상의 한 종류로 문학 창작에 있어서 외부에서 사실을 끌어와 그 개념을 유형화하고 옛것을 빌어서 현실을 설명하는 기법을 가리키는 용어이다.[15] 典故를 활용하여 글을 쓴다는 것은 경전이나 과거 중국의 위대한 문인들이 쓴 글을 닮고자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며, 마련된 전범에 따라 글을 쓰고자 하는 것이다. 이것은 유교적 글쓰기와 맥락을 같이 한다.[16] 그러나 한문원전을 이해하려면 한자의 표면적인 뜻을 넘어서서 그 한자나 어휘가 성립된 배경을 알아야 한다. 특히 시문에는 典故라고 하여 고전의 시문에 근거를 둔 표현을 인용한 경우가 많으므로 한자의 본의만 알아서는 그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17] 특히 유교문학의 대표적 장르인 '箴'과 같은 경우 典故의 출전이 대부분 儒家經傳이며 인용 횟수 또한 많다. 儒家經傳 典故 인용의 경향은 시대적 상황에 기인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성리학이 수입되면서 육경과 삼사가 더욱 부각되었고 게다가 四書가 추가되어 중시되었기 때문이다.[18] 아울러 儒家思想은 '修己治人'의 사상으로 집약할 수 있다. 달리 말하면 사대부의 본분은 개인의 인격 완성을 통한 국가 경영에 있다고 보는 것이 儒家思想의 핵심이다. 개인의 인격 수양과 나라를 다스리는 일, 이 둘은 분리되지 않는다. 유교의 이념과 요구를 관철하는 장르들은 '修己治人'의 사상과 직접 간접으로 연관되어 있는데[19] 그 가운데 '箴'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음은 자명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箴'이 儒家經傳 典故의 활용에 있어 典故의 인용 경향이 儒家經傳에 경도되어 있음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예를 들어 成近默의 「天君箴」과 같은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표 Ⅱ-1> 성근묵 「天君箴」의 典故 및 出典

作家 및 作品名	原文	典故	出典
성근묵 「天君箴」	書稱降衷	降衷	『書經』
	易贊成性	成性	『周易』
	各一太極	各一太極	『朱子語類』
	小則生順死安	生順死安	『西銘』
	罔非安其危而利其災	安其危而利其災	『孟子』
	外攘如薄伐太原	薄伐太原	『詩經』
	是謂一正君而國正	一正君而國正	『孟子』
	三無私爲王道	三無私	『禮記』

위 <표 Ⅱ-1>을 보면 모두 儒敎思想을 대표하고 있는 經傳에서 典故 8개가 인용되었다. 이와 같은 배경에는 '箴'은 삼언, 사언, 오언, 육언 등 일정한 형식적 틀 안에 警戒내용 또

15) 김정규(1986), 「中國古典修辭가 韓國詩歌文學에 受容된 樣相」, 『중어중문학』 8, 한국중어중문학회, 61면.
16) 박희병(2008), 『유교와 한국문학의 장르』, 돌베개, 167면.
17) 심경호(2004), 「원전연구와 고전 텍스트의 현대적 변용」, 『동양한문학연구』 제20집, 동양한문학회, 59면.
18) 김성훈(2011), 「한국 '箴' 문학 연구」, 숭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8면.
19) 박희병(2008), 『유교와 한국문학의 장르』, 돌베개, 168면.

는 주제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모두 담아내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典故의 사용이 많아졌고, 이를 통해 警戒의 효과 또한 더욱 극대화 될 수 있었다.

한편 儒家經典에서도 유사한 성격을 지닌 글이 다수 존재하지만 '警戒'의 내용을 쉽고 정확하게 전달한다는 측면에서는 다소 회의적이다. 반면에 '箴'은 교훈과 警戒가 될 만한 내용들을 효용성의 원리에 입각해서 문학적으로 승화시킨 장르[20]이기 때문에 잘못과 허물에 대한 警戒를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이는 '箴' 문체에서 절대로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큰 특징으로 자리매김 하였다.

셋째, 제목을 통해 드러나는 警戒내용

제목은 작품의 내용을 파악하는 여러 요소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제목이란, 작품의 중심 내용을 대표하기 위하여 붙이는 이름으로 작품의 중심 내용, 주제, 핵심어 등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때문에 제목이 작품의 주제와 근접할수록 작품의 내용 파악에 대한 경우의 수를 줄일 수 있다. 특히 '箴'은 여타 한문문체에 비해 작품 제목을 통해서 警戒하려는 내용이 효과적으로 전달되는 장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箴'의 제목이 곧 警戒가 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하며, 아울러 '箴'의 제목을 통해 警戒내용이 드러나는 경우가 상당수다. 다음과 같은 사례[21]를 보면 알 수 있다.

<표 Ⅱ-2> 제목을 통해 드러나는 警戒 내용의 사례

「제목」	경계내용	작가,『출전』
「愼獨箴」	홀로일 때 삼가라	張維,『谿谷集』
「不動心箴」	안정되지 않으면 위태로워진다	韓章錫,『眉山集』
「操心箴」	하나로 마음 모아 휘둘리지 않게 하라	李玄逸,『葛庵集』
「質疑箴」	의심나면 어찌 묻지 않을 수 있나	金樂行,『九思堂集』
「先難後獲箴」	어려운 일부터 먼저 하리	金允植,『雲養集』
「酒箴」	왜 항상 술 때문에 덕을 잃는가	南孝溫,『秋江集』
「友愛箴」	형제는 부모의 골육이라네	崔晛,『訒齋集』
「去習箴」	서슬 퍼런 칼날로 못된 습관의 뿌리를 자르리	鄭宗魯,『立齋集』

위 <표Ⅱ-2>의 내용을 살펴보면 제목과 警戒내용이 일치되거나, 제목이 警戒내용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사례가 보인다. 이는 '箴'의 제목이 警戒내용을 오롯이 담아내어 상대방에게 명료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 김성훈(2011),「箴장르의 효용성 연구」,『동양문화연구』11,영산대학교동양문화연구원, 163면.
21) 하승현 옮김·정태현 감수(2016),『箴, 마음에 놓는 침』, 한국고전번역원.

3. ‘箴’의 敎育的 價値

古典은 단순히 현재와 대비되는 옛 것을 말한다. 옛 작품이라면 모두 고전이 된다. 또 하나의 고전 개념은 오랫동안 널리 읽히고 모범이 되는 것이다. 과거의 유산이라고 해서 무조건 고전이 되지 않는다. 현재적 의미를 따져보아 가치 있는 작품이어야 한다. 교육적 입장에서의 ‘고전’은 후자에 해당할 것이다. 그러나 고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교육적 가치가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한문 산문 가운데는 오늘날 교육의 입장에서 효용성을 상실한 작품들도 많다. 그때는 현실적 필요에 의해 활발하게 창작되었지만 지금엔 거의 활용 가치가 낮아진 것이다.

한편 교육적 가치라는 것은 작품 안에 이미 존재한다기보다 현실의 요구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다. 작품이 본래 가치가 있어서 활용 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찾아냄으로써 교육적으로 가치 있는 작품이 된다. 교육은 고전 작품에 ‘가치가 담겨 있다’고 말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며 고전에서 ‘가치를 이끌어 내야’ 한다.[22]

마찬가지로 ‘箴’이라는 고전도 옛 것이라고 하나 그것이 곧 교육적 가치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箴’이라는 고전을 통해 교육적 가치를 이끌어내야 한다. 그래야만 과거에 잠자던 箴 작품이 오늘을 지내는 사람들, 정확히 말하면 학습자에게 의미 있는 고전, 곧 교육적 가치가 있는 고전으로 되살아나는 것이다. 이에 구체적으로 ‘箴’이 지니는 교육적 가치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우리는 학생들의 현실 경험과 동떨어져 있는 고전을 가르치는 이유가 선인들의 정서와 지혜를 익히는 한 과정으로 설명한다. 이와 같은 고전 학습의 당위성에 대한 설명은 학생들이 고전을 통하여 흥미 있고 박진감 있는 고전 학습으로 인도할 수 없다. 여전히 딱딱하고 지루한 그리고 다소 생경한 공간으로 학생들을 이끌어 가는 것이다. 그것은 일종의 고통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 고통은 언젠가는 학생들의 삶 속에서 잘 발효되어 의미 있는 정서나 인식으로 그들의 인성을 빛내 줄 것이다.[23] 비록 시간과 공간의 격차가 생소한 문학경험을 초래할지라도 고전 교육의 초점은 선인들의 정서와 지혜에 두어야 한다. 마찬가지로『한문과교육과정』의 학습내용 성취기준에서 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1) 선인들의 지혜를 내면화하고, 전통문화의 가치를 파악하여, 긍지와 주체 의식을 가지고 새로운 문화 창조의 원동력으로 삼으려는 태도를 지닐 수 있다.

한문 기록 속에는 현대 한국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인간 소외, 물질 만능 주의, 극단적 이기주의, 환경 문제 등)에서 초래된 가치관의 혼란 및 인간성의 상실을 치유할 수 있는 자료들이 많이 있다. 따라서 한문을 학습할 때에는 학습자의 감각에 맞으면서도 실천 가능한 내용을 정선하여 건전한 가치관과 바람직한 인성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한문 학습을 통하여 전통문화의 가치를 바르게 파악하여, 전통문화에 대한 긍지와 주체 의식을 가지고 새로운 문화 창조의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해야 한

22) 박수밀(2009),「한문산문의 교육에의 활용 가능성 고찰」,『온지논총』22, 온지학회, 168~169면.
23) 노명완 외(2009), [제2증보판]『국어교육학개론』, 삼지원, 458면.

다.[24]

오늘날의 현대 사회에서 야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가치관 혼란 및 인간성 상실을 치유할 수 있는 자료로는 다양한 장르가 존재할 것이다. 그 중 '箴'은 문체적 특성상 警戒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현대 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적합한 제재이며 더 나아가 타인 그리고 사회 속 나의 인격적 성장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 이다. 이에 '箴'은 警戒를 통해 人格陶冶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재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내면화란, 가치관이 암기된 지식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고 감동되어 행동의 변화까지를 기대하는 상태를 말한다.[25] 더욱이 문학 작품의 내면화는 감동의 한 과정이면서 동시에 감동 이후에 독자에게서 일어날 수 있는 정신작용이다. 즉, 감동의 내용과 가치적 요소를 오랜 시간을 통하여 독자의 인격에 내면적으로 용해시키는 과정이다. 이런 과정에서 창작적 욕구의 분출은 '세계 재구성'의 능동적 정신활동의 한 극점을 이룬다.[26] 특히 '箴'과 같은 경우 학습자에게 자신의 삶에 대한 성찰을 통해 경계 의지를 심어주기 때문에 제재의 특성상 내면화에 유리하다. 이와 관련하여『한문과 교육과정』의 학습내용 성취기준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6) 실용문을 읽고 글의 내용을 글의 목적과 관련지어 파악할 수 있다.
'잠명류(箴銘類)'는 경계(警戒)를 드러내거나 공덕을 기록하는 문체로서, '잠(箴)', '명(銘)' 등이 있다. 사자구(四字句)의 운문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산문으로 이루어진 것도 있다. (中略) 이들 실용문(實用文)을 읽을 때에는, 글에 담긴 내용을 글의 목적과 관련지어 파악해 보고, 자신의 관점에서 그 내용과 가치를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27]

실용문에 속하는 '箴'은 글의 목적을 파악함과 동시에 자신의 관점으로 글의 내용과 가치를 논할 수 있어야 한다. 즉 학습자는 '箴' 작품의 독해활동을 통하여 자신만의 시선으로 '箴'작품을 내면화하고 현대적인 변용을 꾀해야 한다. 여기에서 '箴'의 현대적 변용은 문체의 형식적 특징에 제한된 창작물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창작물의 완성도를 아주 무시할 수야 없겠지만 내면화의 척도로서 갖는 기능이 교육적으로 그 가치가 더욱 소중한 것이다.

4. '箴'의 敎材化 方案

1) 제재선정 기준

24)『한문과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1-361호[별책 17], 교육과학기술부, 28면.
25) 박영목 외(2007),『국어교육학원론』, 박이정, 429면.
26) 노명완 외(2009), [제2증보판]『국어교육학개론』, 삼지원, 438면.
27)『한문과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1-361호[별책 17], 교육과학기술부, 25~26면.

『한문』교과서에서 어떤 제재를 수록하고, 수록 작품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관한 논의는 한문과 교육의 중핵적인 연구 과제 중의 하나이다.[28] 이를 볼 때 교과서 구성의 핵심적 요소는 어떠한 장치를 통해 제재를 선정하느냐의 문제가 핵심일 터이다. 이를 위해 필자는 한문교과서에 실린 산문 제재의 유형을 분류하고, 아울러 제재의 난이도 설정 기준을 '일차적 풀이'와 '내용 이해'로 양분하여, 점수 부여 기준을 설정한 연구[29]에 착안하였다. 이에 따라 작품의 난이도라는 큰 틀 안에서 題材分量, 典故引用의 횟수, 警戒意味의 명확성, 제재의 친숙도를 세부기준으로 설정[30]하였다.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Ⅳ-1>과 같다.

<표 Ⅳ-1> 箴 제재 선정 기준과 점수부여

선정 기준	세부 기준	점수 부여				
作品難易度	題材分量	16~32字	36~52	56~88	92~124	128字이상
		1점	2점	3점	4점	5점
	典故引用	1개 이내	2개	3개	4개	5개 이상
		1점	2점	3점	4점	5점
	警戒意味 明瞭性	제목의 경계 의미가 명확함		경계 의미가 명확하지 않음		
		0점		5점		
	親熟度	학습자의 생활경험과 친숙		학습자의 생활경험과 생소		
		0점		5점		

제재의 분량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밝혀진 바가 없다. 그러나 제재 분량이 많을수록 학습자가 어려워하는 이유는 한문에서 한 문장을 이루고 있는 한자의 수가 많을수록 그 반대의 문장보다 각 한자의 의미를 보충해주고 서술해주며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고 어기 등을 나타내주는 문법적 요소들이 문장에 개입될 여지가 높아지게 되며, 이로 인해 학습자들이 이해해야 할 정보가 더욱 많아지고 복잡[31]해지 때문이다.

또한 '箴'은 유교문학의 장르 중 하나로 典故 仁用의 횟수가 여타 한문문체에 비해 높다. 특히 典故는 字義로 풀이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典故가 발생하게 된 역사적 배경 지식을 먼저 알고 있어야 典故의 含意를 이해할 수 있다. 때문에 '箴'을 학습하는데 있어 典故

28) 백광호(2008), 「제7차 중·고등학교 『한문』 교과서 散文제재의 유형과 위계에 관한 시론」, 『우리어문연구』 34, 우리어문학회, 260면.
29) 백광호(2008), 「제7차 중·고등학교 『한문』 교과서 散文제재의 유형과 위계에 관한 시론」, 『우리어문연구』 34, 우리어문학회.
30) 제재 선정의 절대적 기준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해당 제재와 학습자와의 교감을 통한 접점을 탐색하는 작업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학습난이도영역 안에서 세부기준 따른 점수 부여는 해당 제재와 학습자와의 접점을 찾는 과정이므로 이 또한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음을 밝혀 둔다.
31) 김왕규, 박상우(2014), 「한문텍스트 이독성요인분석을 통한 이독성공식개발연구」, 『한문교육연구』 43, 한국한문교육학회, 271~272면.

引用의 횟수는 학습난이도에 주요인으로 작용한다.

아울러 '箴'의 특성 가운데 하나는 제목을 통해 드러나는 警戒내용이다. '箴'은 警戒내용이 제목에서 확연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와 같은 특성은 제목에서 警戒내용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학습자에게 '箴' 작품에서 警戒하는 바를 미리 유추할 수 있어 학습자의 배경지식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재의 친숙도는 학습자가 생활 경험에서 느끼게 되는 각종 이미지, 감정, 상황 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때문에 '箴'의 특성 중에 하나인 '제목을 통해 드러나는 警戒내용'을 통해 친숙도의 높고 낮음을 판단하여 제재에 대한 학습자의 집중도를 높일 수 있고, 거부감도 줄일 수 있다.

이와 같은 제재선정기준 절차를 거쳐 제재 분량이 적고, 학습자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경험이기 때문에 친숙도가 높다고 할 수 있으며 , 제목 자체에서 말을 간략하게 하라는 경계 의미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李玄逸(1627∼1704)의 「簡言箴」을 선정하였다.

2) 제재 분석

李玄逸(1627∼1704)의「簡言箴」은 私箴으로 유가사상의 실천덕목 가운데 하나인 '言[말]'과 관련하여 광산(光山) 이태여(李泰汝)를 위하여 지은 작품이다. 李玄逸의「簡言箴」을 번역[32] 하고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多言害道。沈默惟好。庸言必愼。勿妄勿躁。
大言不慙。爲之也難。旣謹且訒。其中卽專。
言從作乂。箕範是訓。修辭立誠。大易攸贊。
程亦有箴。易誕煩支。丹靑炳烺。式遵勿違。

말이 많으면 道를 해치니, 침묵이 오직 좋은 것.
평소의 말을 반드시 조심하여, 함부로 하지 말고 躁急하지 말아라.
큰소리로 말하고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말을)하기가 어려운 것.
이미 말을 삼가고 참았다면, 그 마음이 전일해 진다.
말을 따라서 다스리게 된 것은, 기자(箕子)의 가르침.[33]
말을 진실하게 함은, 《周易》에서 기리는 바라네.[34]
정자(程子)도 箴이 있었으니, 경솔하면 허탄하고 번거로우면 지리 하다.[35]
단청처럼 분명하니, 법처럼 준수하여 어기지 말라.

---

32) 한국고전DB 검색일자 (2017. 1. 26.)

33) 『서경(書經)』「홍범(洪範)」에 "두 번째는 오사(五事)이니, 첫째는 모(貌), 둘째는 언(言), 셋째는 시(視), 넷째는 청(聽), 다섯째는 사(思)이다. 용모는 경건해야 하고, 말은 따를 만해야 하고, 보기는 분명해야 하고, 듣기는 총명해야 하고, 생각하기는 지혜로워야 한다.……말이 따를 만하면 다스림을 이룬다."라고 하였다.

34) 『주역(周易』 건괘(乾卦) 구삼효(九三爻) 문언(文言)에 "군자가 종일토록 부지런히 힘쓰고 저녁까지도 두려워하면 위태로우나 허물이 없다.〔君子終日乾乾夕惕若 厲 無咎〕"라고 한 것에 대해 공자가 풀이하기를, "군자

道를 해치는 원인은 多言[말이 많음]으로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침묵으로써 道를 온전히 해야 함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일상생활을 침묵으로 영위할 수 없다. 또한 말을 조급하게 하면 허황되어 제대로 살피지 못하게 되고, 망령되이 말을 하게 되면 번거롭게 되어 실상에서 멀어진다. 대안으로 마음에 대한 '삼감' 과 행동에 대한 '망령', '조급'의 금지를 제시하여 警戒하고 있다. 직접적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말하기 전 마음에서 심사숙고하여 겉으로 표현 할 때 조급하게 하거나, 망령되게 하지 않는다는 簡言을 설명한 것이다. 자기 수양을 통한 말하기가 곧 자연스러운 '簡言'이 되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조급하고 망령되이 말하면 아무리 큰 소리로 떠들어대더라도 그 말을 실천할 수가 없다고 警戒하고 있다.

이제 簡言의 效用에 대해 언급한다. 밖으로는 삼가고 안으로는 참아서 마음을 한곳으로 모이게 한다. 다시 말하면 自己 修養⇒勿妄·躁⇒簡言⇒謹·訒⇒專一로 이어진다. 결국 자기 수양을 통한 簡言은 단순히 말을 삼가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바로 마음까지 한 곳으로 모이게 하는 효용을 이끌어 내는 것이다. 이어 『書經』·『周易』에 말과 관련 있는 구절과 정자의「言箴」을 인용하여 각각 정사할 때의 말하기, 진실한 말하기, 그리고 교훈이 있는 말을 법칙처럼 준수하라고 강조하며 이 글을 마무리 하고 있다.

3) 단원구성의 실제

교과서는 교실 수업에서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을 매개하는 주요 매개체로 교사에게 구체적인 교수 자료를 제공하고 평가를 안내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교육공동체의 가치와 신념을 반영하는 교육과정을 구체화하며, 그것을 개발하는 주체의 가치와 신념도 반영한다. 아울러 교육 내용을 표준화하고, 교육의 질적 수준을 균등화하는 데에 기여한다.[36] 이와 같은 교과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교사와 학생에게 각각 교육 내용과 학습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고, 교수-학습 내용을 개별 단원 간에 유기적으로 묶고, 배열해야 한다. 단, 여기서는 제재로 선정된 李玄逸의「簡言箴」을 소단원으로 구성하고자 한다.

단원 구성 체제는 단원을 구성하는 요소와 그 요소들의 배열 순서로, 교수-학습 활동을 전개하는 구조를 의미한다. 동일한 내용을 다루더라도 교과서 단원 구성 체제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에 따라 학습 방법이 달라지고 학습 효과가 달라진다.[37] 또한 소단원 구성 체제에 대한 일차적 고민은 소단원 구성 요소를 무엇으로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이다.[38] 특히 한문과 같은 경우 한문 학습에 대한 동기와 흥미를 높이면서, 한문 학습자의 자기 주도적 학습 활동을 유도할 수 있는 교수-학습 과정 중심 소단원 구성 체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39]하였다.

는 덕을 진전시키고 업을 닦나니, 충신(忠信)이 덕을 진전시키는 것이요 말을 할 때에 진실되게 함〔修辭立其誠〕이 업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35) 「언잠(言箴)」에 "너무 경솔하면 허탄하고 너무 번거롭게 하면 지루하다.〔傷易則誕 傷煩則支〕"라고 하였다.『二程文集 卷9』

36) 정혜승 외(2014),『국어교육의 이해』, 사회평론아카데미, 54∼55면. 참조.

37) 정혜승(2003),「국어 교과서 연구의 현황과 반성」,『국어교육학연구』16, 국어교육학회, 438면. 참조.

38) 김왕규(2012),「고사성어 교수-학습 활동 및 단원 구성 방안」,『한문교육연구』38, 한국한문교육학회, 65면.

<표 Ⅳ-1> 교수-학습 과정 중심 소단원 구성 체제 예시

소단원 구성 체제			
구성 요소와 기능		교수 학습 과정 및 단계	
학습 목표	교육과정 내용 제시 및 상세화 소단원 학습 주안점, 지향점 제시	도입	원리학습
도입 제시문	학습자의 동기・흥미 유발 학습 목표와 관련된 주요 개념, 용어 설명 목표 달성 및 내용 이해를 위한 방법, 전략, 원리 소개 학습자 배경 지식 인출 및 활성화		
제재	주제, 목표에 적합한 제재 학습자의 발달 단계를 고려한 제재 학습자의 동기와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제재 전통문화나 한자문화권의 고전적 가치를 내재한, 문화적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제재	전개 (적용・발전)	내용학습 목표학습 적용학습
교수-학습 활동	제재의 특성과 연계된 교육과정의 영역 및 내용 요소 도입과 활용 제재에 대한 교수-학습 방법 안내 과정이나 단계를 고려한 학습 활동 제공 학습자의 자기주도적 학습을 위한 비계 제공		
평가	자기 점검 학습 목표 도달 판단 기능이나 전략의 장착	정리	정리・ 확인학습

위 예시에 착안하여 소단원을 2차시로 나누고 교수-학습 단계를 도입-전개-정리로 설정하였다. '箴'에 대한 학습목표 달성을 위하여 구성요소에 따른 학습활동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이를 바탕으로 '箴'의 교수-학습 과정에 맞는 소단원 구성 체제를 구안하면 다음과 같다.

<표 Ⅳ-2> 교수-학습 과정 중심 箴 단원 구성 체제

교수-학습 과정 중심 箴 단원 구성 체제- 1차시			
차시	구성 요소	학습활동	교수・ 학습단계
1	소단원명 및 삽화	해당 제재의 제목과 관련하여 단원명을 설	도입

39) 김왕규(2008),「한문 교과서 단원구성의 원리와 방안」,『한문교육연구』31, 한국한문교육학회, 61면.

차시		정 및 제시	
	단원길잡이 및 디딤 활동 (들어가기 전에)	[활동1] '箴'의 의미 알기 [활동2] 제재의 제목을 풀이하여 내용 유추 [활동3] 제재의 내용과 관련지어 글쓰기	
	작자 및 출전 소개	작자와 출전 소개	
	소단원 학습목표	1차시:「 」를 읽고 풀이 할 수 있다. 2차시:「 」를 읽고 警戒내용을 파악 할 수 있다.	
	학습목표	「 」를 읽고 풀이 할 수 있다.	전개
	교수・학습 활동	[활동4] 본문을 소리 내어 읽은 뒤, 스스로 풀이해 봅시다. ① 한자의 뜻과 음 ② 어휘	
	평가	[확인학습] 이번 차시에 학습한 내용을 점검해 봅시다. * 문항 유형 ① 밑줄 친 구절의 독음과 풀이를 쓰시오 ② 지시사 넣기	정리

교수-학습 과정 중심 箴 단원 구성 체제- 2차시

차시	구성 요소	학습활동	교수・ 학습단계
2차시	디딤 활동 (들어가기 전에)	[활동1] 지난 차시에 배운「 」을 읽고 풀이해봅시다.	도입
	학습목표	「 」를 읽고 警戒내용을 파악 할 수 있다.	전개
	교수・학습 활동	[활동2] 警戒내용 제목으로 파악하기 [활동3] 작품이해하기 [활동4] 警戒내용 정리하기 [주제심화학습] 비판적 글쓰기	
	평가	[확인학습] 비판적 글쓰기	정리

앞에서 마련한 소단원 구성 체제를 토대로 제재의 분석을 마친「간언잠(簡言箴)」을 구체적으로 교재화하기로 한다. 이에 소단원 전개 방식을 바탕으로 소단원 도입부-소단원 전개부-소단원 정리부 순으로 제시한다.

［단원길잡이］ ※ 잠(箴)이란 무엇일까요?

- 원래 잠(箴)은 바늘이라는 뜻으로, 침(針)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때문에 잠(箴)은 의원(醫員)이 침(針)으로 병을 치료하듯 잠(箴)이라는 형식의 글로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잘못을 경계(警戒)하기 위해 창작된 문학 장르이다.

도구	대상	목적
침(針)		치료
	잘못, 결점	警戒(경계)

※ 잠(箴)의 경계(警戒)양상

- 잠(箴)은 경계(警戒)하는 대상에 따라 관잠(官箴)과 사잠(私箴), 그리고 표현방법에 따라 경계 양상이 다르게 나타난다. 관잠(官箴)은 신하가 임금이 잘못된 정치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쓴 글로, 덕치(德治)와 애민(愛民)사상이 토대가 되어 警戒를 드러내고, 사잠(私箴)은 자신과 타인의 결점과 과실을 警戒하기 위해 지은 글로, 자기수양에 대한 토대가 警戒의 기본이 된다. 마지막으로 추상적인 개념을 사람의 생명과 속성을 부여하여 警戒를 나타내며, 사물(事物)과 동물(動物)의 일반적 특징을 상징적으로 부각시켜 警戒를 드러내는 경우도 있다.

<그림 Ⅳ-1> 소단원 도입부_1차시 1면

1. 簡言箴(간언잠)

〔학습목표〕

·본문을 읽고 풀이할 수 있다.

·본문을 읽고 警戒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디딤 활동］

1. 이 글의 제목을 풀이한 뒤, 경계(警戒)하려는 내용을 유추해 봅시다.

모양	簡	言	무엇을 경계(警戒)하려는 것일까?
소리	간	언	
뜻		말씀	
풀이			

2. 나의 좋지 않은 언어습관을 적어 봅시다.

<작가소개> 이현일(李玄逸, 1627~1704)

조선 중기의 문신. 학자. 호는 갈암(葛庵). 이황(李滉)의 학풍을 계승한 대표적인 학자로 꼽힌다. 1646년, 1648년에 걸쳐 두 차례 초시에 합격했지만 벼슬에 뜻이 없어 향리에 칩거했다. 1677년 공조좌랑을 제수받아 비로소 중앙정계에 나아갔고, 1699년 방귀전리(放歸田里)되었다. 시문집에 『갈암집』과 『홍범연의』가 있다.

<그림 Ⅳ-2> 소단원 도입부_1차시 2면

소단원 도입단계로 단원의 길잡이를 통해 학습자의 사전 지식을 활성화하여 소단원의 학습 동기 및 흥미를 유발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箴'의 개념 및 특성을 서술하여 제시하였다. 아울러 작품명을 단원명으로 설정하여 학습자가 어떤 작품을 학습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고, 해당 단원에서 성취해야 할 학습목표를 안내하였다. 이어 '디딤 활동'을 두어 학습자에게 해당 소단원에 대한 학습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품 제목을 풀이하여 내용을 유추하고 제재의 내용과 관련지어 글을 쓸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작가정보를 제시하여 작가의 시대상황, 학문적 경향, 저서 등을 제시하였다.

1. 簡 言 箴 (간언잠)

〔학습목표〕 簡言箴 을 읽고 풀이할 수 있다.

多言害道, 沈默惟好. 이현일(李玄逸, 1627~1704)
庸言必愼, 勿妄勿躁.
大言不慙, 爲之也難.
旣謹且訒, 其中卽專.

음		多 다	言 언	害 해	道 도	沈 침	默 묵	惟 유	好 호	沈默(침묵):조용히 하다
뜻			말씀		도리	잠기다	고요하다		좋다	
풀이	나	말이 (　　)면 道를 (　　)니, 침묵이 (　　) 좋은 것								
	교사									
음		庸 용	言 언	必 필	愼 신	勿 물	妄 망	勿 물	躁 조	용언(庸言):일상에서 쓰는 말 조(躁): 조급하다
뜻		평소		반드시		말다		말다		
풀이	나	(　　)을 반드시 (　　)하여, (　　) 말고 (　　) 말아라								
	교사									
음		大 대	言 언	不 불	慙 참	爲 위	之 지	也 야	難 난	지(之): 이것
뜻		크다		아니다		하다		어조사		
풀이	나	(　　)하고도 (　　) 않으면, (말을 실천) 하기가 (　　).								
	교사									
음		旣 기	謹 근	且 차	訒 인	其 기	中 중	卽 즉	專 전	인(訒): 참다 중(中): 마음
뜻		이미		또한		그		곧	오로지	
풀이	나	이미 (말을) (　　) 또한 (　　)면, 그 (　　) 곧 (　　).								
	교사									

<그림Ⅳ-3> 소단원 전개부_1차시 3면

교수-학습 과정 중심 '箴' 단원 구성 체제에서 소단원의 전개단계는 1차시를 '독해활동', 2차시를 '箴의 경계(警戒) 내용 파악'으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 1차시는 학습목표를 제시와 작품의 원문 및 작가를 제시하고 학습자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비계를 제시하였다. 한자는 하나의 뜻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뜻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고, 문장 내의 어휘가 존재하기도 한다. 이에 해당 제재 내 한자의 여러 가지 뜻과 어휘의 의미를 제시하였다. 또한 학습자 스스로 학습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교사의 지도를 통한 풀이를 두

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 多言害道, 沈默惟好.
庸言必愼, 勿妄勿躁.
大言不慙, 爲㉠之也難.
旣謹且訒, 其㉡中卽專.

1번. 다음 (　　)에 알맞은 한자를 써 넣으시오.

(㉠)은 원래 바늘이라는 뜻으로, 침(針)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때문에 (㉠)은 의원(醫員)이 침(針)으로 병을 치료하듯 (㉠)이라는 형식의 글로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잘못을 (㉡)하기 위해 창작된 문학 장르이다.

(㉠:　　), (㉡:　　)

2번. ㈎ 독음 :
풀이 :

3번. ㉠ '之'가 가리키는 것을 한자로 쓰시오. (　　)

4번. ㉡ '中'의 구체적인 의미를 한글로 쓰시오. (　　)

<그림Ⅳ-4> 소단원 정리부_1차시 4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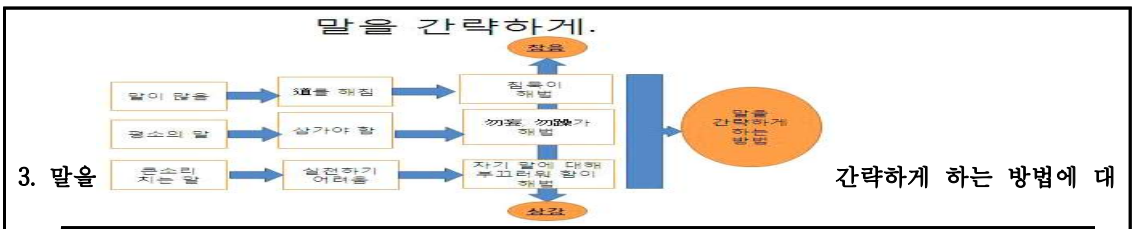
교수-학습 과정 중심 '箴' 단원 구성 체제에서 소단원 정리단계는 평가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학습목표에 따른 문항 유형을 구안하였다. 먼저 1차시의 학습목표는 해당 제재의 '독해활동'에 있다. 때문에 확인학습 또한 해당 제재의 독음 및 풀이, 지시사에 관련한 문항을 통해 학습자가 해당 단원의 작품을 정확하게 독해 할 수 있는 지에 초점을 두고 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다. 2차시 '경계 내용 파악하기'를 위해 학습자는 반드시 해당 작품의 독해활동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독해활동에 대한 확인학습은 반드시 필요하다.

[학습목표]「簡言箴」의 警戒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디딤학습:「簡言箴」독해활동)

1. 警戒내용 제목으로 파악하기

제목으로 파악하기	簡	言	箴
			경계하다.
	警戒내용:		

2. 작품 이해하기



3. 말을 간략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 '작품 이해하기'를 참고하여 본문에서 찾아 적어 봅시다.

문제 제기	警戒해야 하는 이유	簡言의 해법
말이 많음(□言)		沈默
평소의 말(□言)	必愼	
큰소리 치는 말(□言)	爲之也難	慙

<그림Ⅳ-5> 소단원 전개부_2차시 5면

이어 2차시는 1차시의 '독해활동'을 기반으로 해당단원 두 번째 학습목표에 해당하는 '경계 내용 파악하기'에 대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먼저 경계 내용을 경계의 미의 명료성에 착안하여 제목의 풀이를 통해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고, 텍스트로 제공되던 해당 작품을 학습자에게 警戒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작품을 정확하게 이해 할 수 있도록 도형화하여 제공하였다. 마지막으로 작품이해를 통해 학습자 스스로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였다.

[주제심화학습]

1. 내가 말할 때의 단점을 스스로 생각해 보고 적어 봅시다.

✔
✔
✔

2. 내가 말할 때의 단점을 친구에게 물어보고 적어 봅시다.

✔
✔
✔

3. 위 1, 2번 내용을 참고하여 말하기와 관련하여 스스로에게 '箴'을 지어 봅시다.

<그림Ⅳ-6> 소단원 정리부_2차시 6면

주제심화학습은 '비판적 글쓰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簡言箴'이라는 글을 통해 자기 자신을 돌아 볼 수 있으며, 아울러 타인의 관점으로 나를 되돌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것은 '말하기'라는 범주 안에서의 인격도야가 학습자의 내면화 과정에서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5. 結論

본 연구의 목적은 다양한 한문문체 중에 하나인 '箴'의 교재화에 있다. 한문문체 가운데 '箴'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잘못을 '警戒'하기 위해 창작된 문학 장르로 한문교과서에 다룰 수 있는 더 없이 좋은 제재 이다. 이처럼 교훈적 성격이 농후한 글임에도 불구하고 2009 개정 고등학교 한문교과서에는 '箴'을 수록한 교과서가 전무하다. 아울러 '箴'은 교육적 가치가 분명 존재함에도 한문 교과서에 전무하다는 특수한 상황에 적실한 연구라 생각한다. 이에 한문문체의 다양한 유형을 소개함으로써 한문교과서 내 제재의 폭을 넓혔다는 데 있어 조심스럽게 그 의의를 내다본다.

'箴'의 특성과 警戒의미를 교과서에 구현해 내기 위해 제재의 선정 및 분석 과정을 거쳐 학습자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교재화를 시도하였다. 수많은 한문 자료는 언제나 한문교육연구자, 한문교사 주변에 산재해 있다. 그러나 이 자료를 학습자에게 안착시켜 줄 사람은 누구인가를 고민해 볼 때, 연구자, 교사의 역할은 실로 막중하다. 이에 앞으로 학습자에게 더욱 유의미하고 다양한 제재가 교재화되어 나오길 기대한다.

<참고문헌>

<단행본>
『한문과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1-361호[별책 17], 교육과학기술부
김성훈(2011),『바늘(箴)로 마음을 치료하다!』, 학고방.
김종철(2003),『漢文 韻文文體의 理解와 分析』, 淸文閣.
노명완 외(2009), [제2증보판]『국어교육학개론』, 삼지원.
박영목 외(2007),『국어교육학원론』, 박이정.
박완식(2002),『한문 문체의 이해』, 전주대학교 출판부.
박희병(2008),『유교와 한국문학의 장르』, 돌베개.
徐復觀 著·윤호진 譯(2000),『한문 문체론 연구』, 태학사.
심경호(1998),『漢文散文의 美學』, 고려대학교출판부.
劉勰 著·성기옥 譯(2012),『文心雕龍』, 지만지.
이성호 편역(2002),『내 마음을 찾아가는 길』, 온누리.
이성호 편역(2007),『求放心』, 문자향.
전병철(2015),『마음의 전쟁에서 이겨라』, 경인문화사.
정혜승 외(2014),『국어교육의 이해』, 사회평론아카데미.
陳必祥 著·심경호 譯(1998),『漢文文體論』, 이회문화사.
하승현 옮김·정태현 감수(2016),『箴, 마음에 놓는 침』, 한국고전번역원.

<학술논문>
강민구(2006),「한국한문학 잠명(箴銘)의 특징과 전개양상」,『동방한문학』31, 동방한문학회.
김민나(2009),「先秦兩漢六朝의 가르치고 경계하는 글에 대한 논의」-《문심조룡,명잠(文心雕龍,銘箴)》, 『中國語文學誌』31, 중국어문학회.
김성훈(2007),「『東文選』所載 箴銘類 硏究」,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성훈(2011),「箴장르의 효용성 연구」,『동양문화연구』11,영산대학교동양문화연구원.
김성훈(2011),「한국 '箴' 문학 연구」, 숭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김왕규(2008),「한문 교과서 단원구성의 원리와 방안」,『한문교육연구』31, 한국한문교육학회.
김왕규(2012),「고사성어 교수-학습 활동 및 단원 구성 방안」,『한문교육연구』38, 한국한문교육학회.
김왕규, 박상우(2014),「한문텍스트 이독성요인분석을 통한 이독성공식개발연구」,『한문교육연구』43, 한국한문교육학회.
김인철(2005),「퇴계학파(退溪學派) 문집소재(文集所載) 잠명류(箴銘類)의 수기지향적(修己指向的) 성격(性格)」,『퇴계학과 유교문화』37,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김정규(1986),「中國古典修辭가 韓國詩歌文學에 受容된 樣相」,『중어중문학』8, 한국중어중문학회.
김종철(1995),「漢文文類 '箴'의 淵源과 文體特性」,『동방한문학』11, 동방한문학회.
김종철(1998),「이규보 箴銘의 갈래적 성격과 수사특성에 대하여」,『한문교육연구』12, 한국한문교육학회.
김종철(2007),「다산(茶山) 잠명(箴銘) 문류(文類)의 문체특성」,『동방한문학』33, 동방한문학회.
김진수(1991),「이규보의 산문문학 연구 -箴銘, 說·記·傳을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혈조(2003),「漢文散文 硏究의 回顧와 展望」,『대동한문학』19, 대동한문학회
김형효(1979),「晦齋 李彦迪의 형이상학-그의 箴과 書를 중심으로-」,『韓國學報』16, 일지사.
박수밀(2009),「한문산문의 교육에의 활용 가능성 고찰」,『온지논총』22, 온지학회.

박영호(2004),「韓國에서의 漢文學 硏究 動向」,『퇴계학과 한국문화』 35,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백광호(2008),「제7차 중·고등학교 『한문』 교과서 散文제재의 유형과 위계에 관한 시론」, 『우리어문연구』 34, 우리어문학회.
심경호(2004),「원전연구와 고전 텍스트의 현대적 변용」,『동양한문학연구』 제20집, 동양한문학회.
윤희정(2003),「『東文選』所載 箴·銘 硏究」,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성우(2009),「麗末鮮初 箴銘 硏究-牧隱 이색 그룹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영휘(1995),「尤庵先生의 箴銘類 硏究」, 『송자학논통』 2, 충남대학교 송자학 연구소.
전병철(2011),「南冥學派의 箴 창작과 修養의 시대별 요청」,『남도문화연구』 21, 순천대학교 남도문화연구소.
전병철(2013),「호남지역 유학자의 箴 창작에 관한 통시적 고찰」,『남명학연구』 37,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정경주(2003),「西溪 朴泰茂의 修養論에 대하여」,『南冥學硏究』 15, 경상대학교 남명학 연구소.
정경주·조창규(2003),「性齋 許傳의 箴銘 硏究」, 『文化傳統論集』 11, 경성대학교 한국학연구소.
정혜승(2003),「국어 교과서 연구의 현황과 반성」, 『국어교육학연구』 16, 국어교육학회.

〈전자자료〉
한국고전DB 고전번역서, 『葛庵集』, 「簡言箴」(검색일자 2017. 01. 26)
http://db.itkc.or.kr/index.jsp?bizName=MK&url=/itkcdb/text/nodeViewIframe.jsp?bizName=MK&seojiId=kc_mk_a027&gunchaId=av022&muncheId=02&finId=023&NodeId=&setid=1518822&Pos=0&TotalCount=1&searchUrl=ok

‘漢文文體 ‘箴’의 敎材化 方案’ 토론문

김종민(성균관대학교)

‘箴’은 한문산문의 문체 중 箴銘類散文으로 운위되며, 文集을 보면 한 문인의 문집에서 두어 편 이상 실려 있는 경우를 흔히 보게 되므로 한문학 연구자들에게는 낯익은 문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연구자들에게는 상식적인 것이라도 대중들에게는 생소한 경우가 많은데, ‘箴’의 경우는 현대인에게 ‘箴言’이라는 말이 워낙 친숙하게 쓰이므로 독서대중이나 중고등학생들에게 거부감 없이 읽혀질 가능성이 큰 장르라고 기대됩니다. 물론 한문문체 중의 箴과 현재 통용되는 ‘잠언’이 동일하다고 간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箴은 다른 산문 문체에 비해 ‘여전히 주목을 받지 못하는 분야’ 중 하나이며, ‘교훈적 성격이 농후한 글임에도 불구하고 2009 개정 고등학교 한문교과서에는 ‘箴’을 수록한 교과서가 전무하다’는 문제에 당면해 있는 장르이기도 합니다. 장재익 선생님의 발표문은 바로 이러한 지점에서 문제의식을 갖고, 箴을 교과서에 실어야 할 당위를 역설하고 수업시에 효과적으로 교수하는 방안을 강구하신 결과로 이해됩니다. 선생님의 문제제기에 저도 공감하는 바가 크며 발표문에서 주장하신 말씀에도 대체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추후 논의를 보완하시는 데 미약하게나마 도움 되실 수 있는 내용을 거칠게 말씀 드림으로써 토론자로서의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발표문에서 ‘箴의 특성’으로 ‘警戒하는 글’, ‘儒家經典 典故의 활용’, ‘제목을 통해 드러나는 경계 내용’ 이렇게 세 가지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箴의 특성이 전고를 활용하는 데 있다면, 전고를 얼마나 적재적소에 잘 활용하였는가가 작품완성도로서의 관건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전고인용 개수를 ‘1개 이내 / 2개 / 3개 / 4개 / 5개 이상’으로 구분하여 작품난이도를 선정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p.8 <표 Ⅳ-1> 箴 제재 선정 기준과 점수 부여) 가령 ‘전고를 3개 인용한 작품이 전고를 1개 인용한 작품보다 난이도가 높다, 즉 난해하다’라고 주장한다면, 이러한 주장이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논자나 독자에 따라서는 명쾌한 전고를 여러 개 인용하더라도 이해하기 쉽다고 받아들일 수 있으며, 반대로 궁벽한 전고를 1개만 사용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 글을 艱澀하다고 느낄 소지도 있으리라 보입니다.

또한 발표문에서 말씀하신 바 ‘典故는 (중략) 대부분 典故가 발생하게 된 역사적 배경 지식을 먼저 알고 있어야 典故의 含意를 이해할 수 있다’는 언술에 동의합니다만, 발표문에서 주논의대상으로 삼은 題材인 「簡言箴」을 통해서는 ‘역사적 배경 지식’을 운운할 만한 전고를 찾기가 어려운 듯합니다. 이 점은 언술의 취지에 부합하는 작품을 따로 간략하게라도 제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箴이 典故 引用의 횟수가 여타 한문문체에 비해 높다’는 주장도 근거 제시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유가는 물론 제자백가를 두루 통섭했던 옛날 선비들에게 전고를 쓴다는 것은 그들의 내면에 체득·체화된 지식이나 문장, 자구를 때로는 부지불식간에 표출하는 관습이었을 것이며 때로는 고도로 정제된 표현을 쓰기 위해 고심 끝에 체현해낸 修辭였을 듯합니다. 각 문체별 표본을 어떻게 삼느냐에 따라 전고 인용의 횟수 고하를 판이하게 도출해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같은 주장을 하려면 보다 더 신중하고 객관적인 서술방식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箴이라는 문체의 특성이 제목을 통해 경계 내용이 드러나는 데 있다면 -그것이 箴의 전반적인 특성이라는 의미인데- '경계 의미의 명료성이 떨어지는 작품도 있는가' 하는 의문도 들었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작품이 있다면 주석에서라도 그러한 실례를 들어주면 논문의 독자로서 이해가 수월해지리라 생각됩니다.

작품에 구사된 典故의 出典을 밝히는 일은 작품을 번역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의 발표문 4면에서 성근묵 作「天君箴」의 典故 및 出典을 명시하신 표를 살펴본 뒤, 이 같은 연구방식에 저도 힘을 얻고 계발 받게 되어, 이 문제에 천착해보게 되었습니다.

葛庵 李玄逸의「簡言箴」의 첫 구 '多言害道'는 '簡言'과 반대의미의 '多言'을 놓고 그것이 道를 해친다고 말함으로써 '簡言'의 중요성을 명징하게 설파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害道'라는 말에서 儒者로서의 정체성을 선연히 느끼게 되기도 하고 특히, 程頤의 유명한 '作文害道'論이 연상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별 의심없이 갈암이 한 말로 인식되었던 이 말은, 한국고전종합DB에서 25건 정도의 용례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중 아래에 예시한 두 건의 글에서는 이것을 朱子의 발언으로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① 詩固本於性情, 聖賢之所未嘗廢, 而若一向耽著, 則必不免反爲所累. 故程子以玩物喪志戒之, 朱子以**'多言害道'**止之. (金學培,「贈族姪金昌文序」,『錦翁集』卷3)

② 朱夫子雖以**'多言害道'**爲自警, 而亦未嘗不作詩. (金樑,「上季父」,『儉齋集』卷12)

실제로 朱子는 '多言害道' 4字를 그의 詩 제목 상에 썼었습니다. 바로「頃以'多言害道', 絶不作詩, 兩日讀『大學』「誠意章」有感. 至日之朝起, 書此以自箴, 盖不得已而有言云.」이라는 제목의 시였습니다.(朱熹,『晦庵集』卷2) 조금 긴 편인 제목의 내용을 곱씹어보니, 앞서 예시한 두 문인이 이 말을 '作詩'와 연관하여 쓴 이유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자가 말한 '多言害道' 역시도 어떤 전고가 있을 법하다는 인상을 받아서 더 찾아보니,『朱子語類』卷97의 다음과 같은 기사에서 그 원류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問:「伊川語龜山:'勿好著書, 著書則多言, **多言則害道**.' 如何?」曰:「怕分卻心, 自是於道有害.」大雅

朱子의 제자 余大雅가 기록한 내용으로, 여대아의 질문에서 보듯이 '多言害道'라는 발언을 한 사람은 다름 아닌 程頤였습니다. '多言害道'의 出典을 제시하자면『朱子語類』가 되

어야 할 터입니다만, 문헌적으로 확인되는 최초의 발언 주체는 朱熹가 아닌 程頤임이 분명합니다. 갈암이 이미 그의 「簡言箴」에서 '程亦有箴, 易誕煩支'라 하여 程頤의 「言箴」을 의식하고서 그것에 쓰인 문장을 압축하여 인용하고 있기도 하거니와, 작품의 冒頭에서 程頤의 발언, '多言害道'를 선언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 또한 의미심장하다고 하겠습니다.

갈암이 쓴 '勿妄勿躁'와 '其中卽專'의 글자 운용 또한 程頤의 「言箴」에 출전을 두고 있다고 보입니다. 程頤의 「言箴」 중 제3구와 제4구가 '發禁躁妄, 內斯靜專.'입니다. '勿妄勿躁'가 '發禁躁妄'을 달리 쓴 것임은 쉽게 알 수 있고, 갈암이 '專'자를 쓴 것 또한 程頤의 작품으로부터 받은 영향이 감지됩니다. 정이의 「언잠」은 주자의 『논어집주』에 인용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이 작품이 『논어』 대문 못지않게 당대지식인의 뇌리에 박혀있었던 글이었으리라는 것은 충분히 그려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까지 밝힌 出典을 상기하면서 다시 작품의 제목에 쓰인 '簡言'은 어떤 유래가 없는 말인지 고민해보게 됩니다. 사실 '말을 간명하게 하라'는 선언을 할 때, '簡'자보다 더 적실한 글자는 없을 듯합니다. 그런데 이 말 역시도 단순하게 즉흥적으로 쓴 것이 아니라 程頤의 "言貴簡. 言愈多, 於道未必明." (『二程遺書』 卷18)에 출전을 둔 것인 듯합니다. 다른 문인들의 「戒言箴」·「愼言箴」·「謹言箴」과 같은 제목의 작품도 찾아지는데, 유사한 주제의식을 담으면서 갈암이 '簡'자를 特記한 의식의 기저에는 程頤가 놓여있다고 추론하게 된 것입니다.

「간언잠」의 제5·6구 '大言不慙, 爲之也難.'은 『論語』의 大文과 그에 대한 朱子의 集註에 나오는 말을 각각 따온 것입니다. 즉, 『論語』 「憲問」에 "其言之不怍, 則爲之也難."이라 하였고, 朱子의 集注에 "大言不慙, 則無必爲之志, 而不自度其能否矣."라고 풀이하였는바 갈암이 각각에서 4자씩을 그대로 취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갈암은 程朱의 저술에 깊이 침잠한 결과, 머릿속에서 程子·朱子의 발언을 막힘없이 떠올리며 활용하였던 듯합니다. 말하자면 정주의 학문에 무젖어서 자유자재로 그들의 字句까지 활용하는 학적 수준이었으며, 이 「간언잠」은 바로 그러한 수준에서 배태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서없이 말씀 드린 데다 그중에 선생님의 서술취지를 제가 잘못 이해하고서 드린 말씀은 없었는지 송구스럽습니다. 선생님의 발표를 계기로 우수한 箴 문학이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리게 되고, 나아가서 현대인들에게 '잠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선현들도 정문일침의 격조 있는 '箴'을 많이 남기셨다는 사실이 알려지기를 기대합니다.

기타

(1) p.3 주석 13번

㈐『설문』에 이르기를 "잠이란 경계함이다." 하였다. 이는 의원(醫員)이 침(箴石:鍼)으로 병든 곳을 찌른 까닭에 풍자하여 그 잘못을 구제해 주는 것을 잠이라 말한다. 침석에 비유한 것이다.

按『說文』云: '箴者, 戒也.' 蓋醫者以箴石刺疾. 故有所諷刺而求其失者謂之箴. 喩箴石也.

밑줄 친 '求'를 '구제하다'로 옮기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2) p.4 '성리학이 수입되면서 육경과 삼사가 더욱 부각되었'다는 서술이 있습니다. '육경과 삼사'가 무엇인지 설명이 있거나 한자로 표기하면 좋을 듯합니다.

(3) 「簡言箴」의 제3구 '庸言必愼'은 『中庸』의 "庸德之行, 庸言之謹, 有所不足, 不敢不勉."에 출전을 둔 표현인 듯합니다.

18~19세기 散文에 나타난 '月' 담론과 인식의 일국면

김 경(전남대학교)

【목차】

1. 들어가며
2. 月에 대한 일반적 담론과 인식양상
3. 18~19세기 散文에서 月의 담론과 인식양상
4. 18~19세기 散文에서 月의 의미

1. 들어가며

밤은 어둡다. 때문에 인류의 행동반경을 제약한다. 그러나 어둠의 제약은 인류를 자기 내면으로 침잠하게 하였다.[1] 또한 어둠은 모든 사물들을 은폐시키므로 사람들의 상상력을 동원하게 한다. 따라서 인류는 해가 떠 있는 낮에는 생존을 위해 수렵활동을 하다가 어두워지는 밤에는 그 활동을 멈춤으로써 형이상학적 사고를 하게 되었다. 더구나 밤을 상징하는 달은 어두움 속에서 發光하는 천체의 사물이자, 고정된 형상이 아닌 주기적으로 변화하는 자연물이기 때문에 인류에게 호기심을 자극하며 다양한 영역에서 담론의 대상이 되어왔다.

조선후기에는 서양의 과학이론 및 다양한 사유들이 외부로부터 유입되면서 이전시기보다 사유의 기반이 다원화되었다. 특히 서양의 과학이론은 선교사들과 그들의 저서들이 조선에 전래됨으로써 당대 자연관 및 우주관에 변화를 가져오는 주요 계기가 되었다. 이에 따라 달의 담론도 이전시기와는 다른 양상이 확인된다. 또한 이 시기에는 상공업의 발달로 인해 도시를 중심으로 興趣 문화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서 산문은 공적인 성격에서 사적인 성격으로 변모하며 기존의 공용문으로서의 역할 이외에 개인의 감정과 일상생활 등을 작품에 입론화하며 그 영역을 확대하였다. 특히 18~19세기의 遊記, 筆記, 小品 등에서는 달과 같은 자연물을 통해 개인적 정서를 피력하는 양상이 두드러진다. 따라서 이 시기 산문의 달에 대한 담론과 인식에서 당대 자연관의 변화와 사고의 다원화를 파악할 수 있고, 아울러 산

1) 크리스토퍼 듀드니 지음, 연진희·채세진 옮김, 『밤으로의 여행』, 예원미디어, 2008, 32~33면 참조.

문의 문예취향적 성향들을 고구하기에 유용한 하나의 소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산문에서 달에 대한 연구는 당대 규범화된 가치관을 살피기 위한 방안에 하나로 月蝕에 집중하였다. 또한 문학영역에서는 주로 한시에 국한되어 있는 상황이기에,[2] 당대 가치관과 이를 반영한 작품과 연계한 연구는 아직까지 산문영역에서 미진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조선후기 사유의 다원화가 반영된 작품을 선정하되, 달을 통해 당대인들의 자연관 및 가치관이 문학에 반영되는 양상에 국한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18~19세기 이전까지 달에 대한 일반적 담론과 인식을 설명하고, 이후의 산문에서 달의 담론과 인식을 비교함으로써, 이 시기 산문에서 달이 갖는 의미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조선후기의 자연관 및 밤의 활동을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

2. 月에 대한 일반적 담론과 인식양상

달은 물리적으로 다가갈 수 없는 천체의 자연물이기에, 인간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대상물이었다. 또한 달은 태양과 지구의 위치에 따라 인류에게 변화된 형태로 인식되었다. 그 변화 과정에서 달의 크기나 면 등은 곡선과 원형의 형태이며, 이에 따라 빛의 강도도 변화한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무한한 다름이 아니라 동일한 변화와 반복이기에, 달은 개방성 및 역동성을 내포하는 자연물로도 인식되었다. 때문에 달은 自然觀 및 宇宙觀 등 다양한 영역에서 담론의 대상이 되어왔으며, 특히 문학에서는 작품의 주된 소재로 위치하며 시공간을 초월하여 애창되어왔다.

이렇듯 달이 다양한 영역에서 담론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일차적으로 그 신비로운 모습에서 기인하지만, 무엇보다 이를 관찰할 만한 기술력의 부재가 주된 원인이었다. 때문에 경험적 인식의 공백은 주로 상상력을 바탕으로 수많은 설화들을 생산하게 하였다. 설화의 주된 내용은 달 속에 어떤 물체가 존재한다는 것이다.[3] 이러한 내용의 원인은 달의 주기적인 변화와 달 표면의 明暗 때문이다. 특히 달 표면의 아른거리는 그림자에 대한 설화들은 토끼와 계수나무[4], 姮娥와 두꺼비[5], 신선과 도술을 부리 자[6]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토

2) 한시 영역에서는 주로 意象과 이미지란 방법론을 통해 달에 주목하였다. 대표적 연구는 다음과 같다. 陳植鍔, 『詩歌意象論』,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0; 천즈어 지음·임준철 옮김, 『중국시가의 이미지』, 한길사, 2013; 임준철, 『조선중기 漢詩 意象 연구』, 일지사, 2010.

3) 물론 이른 시기부터 이 설화들을 허구로 규정하는 주장도 있다. 王充, 『論衡』, 「說日」 : "儒者曰, 日中有三足烏, 月中有兎蟾蜍. 夫日者, 天之火也, 與地之火無以異也. 地火之中無生物, 天火之中何故有烏? 火中無生物, 生物入火中, 燋爛而死焉, 烏安得立?"

4) 대표적으로 李白의 「把酒問月」에 "옥토끼는 봄이고 가을이고 불사약만 찧는다니, 항아는 외로이 지내며 누구와 이웃을 할까(玉兎擣藥秋復春, 姮娥孤棲與誰鄰.)" 하였다. 또한 『酉陽雜俎』에 吳剛이라는 사람이 벌을 받아 달 속의 계수나무를 옥도끼로 계속 찍게 되었다는 "吳生玉斧"의 전설도 전해 온다.

5) 『後漢書』, 「天文」에 이르면 羿가 서왕모에게 不死藥을 얻어 오자, 예의 처인 항아가 이를 훔쳐 먹고 달 속으로 들어가서 몸을 숨겼는데, 이가 바로 두꺼비가 되었다는 전설이 전한다. 이 때문에 달을 두꺼비라고 한다. 이에 대한 설은 『淮南子』, 「精神篇」에 "日中有踆烏, 而月中有蟾蜍"라는 부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韓愈의 「毛穎傳)」에서도 고대 전설을 인용하여 "세상에 전하는 말에 의하면, 中山의 토끼가 神仙術을 얻어서 姮娥를 훔쳐 가지고 두꺼비[蟾蜍]를 타고 달 속으로 들어갔다"고 하였다.

6) 李淳風, 『觀象玩占』 : "月中有人, 披簑帶鋤, 主大水之災. 又曰, 月中有人, 帶甲持戟, 主兵." 張貴勝, 『遣愁集』권9, 「奇異」 : "周生有道術, 夜與客飮, 月色方瑩, 謂衆曰, "君輩欲以月爲戲乎! 我能梯而取之, 置懷袂之間." 衆不

끼 및 두꺼비에 대한 설화는 달에 대한 이분된 인식을 보여주는데, 달에 대한 두려움을 내포하는 敬畏感과 아름다움을 내포하는 驚異感으로 나누어진다.

먼저 경외감을 바탕으로 한 담론은 주로 月蝕에 관한 것이다.[7] 이는 인간의 길흉화복과 자연재해를 살피기 위한 것의 하나로 당대인들의 자연관 및 우주관이 긴밀히 반영되어있다. 무엇보다 제정일치의 시대에서부터 국가의 정치가 체계화되는 시대에 이르기까지 천문학에서의 월식은 일식과 함께 災異論과 밀접한 관계를 보이며 정치적으로 규범화되었다.[8] 이러한 양상은 조선전기까지도 지속되었기 때문에 경외감이 바탕이 된 담론에서는 주로 월식에 주목하였고 유교적・불교적・신화적 재이론이 병존하고 있다.[9] 이러한 일반적 흐름 속에서 고려후기부터는 유교적 재이론이 심화되었고 여기에 朱子學的 재이론이 사상적 기반이 되었다.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는 월식에 대한 재이관은 더욱 철저해졌으며, 주자의 견해는 더욱 확고해졌다. 또한 월식이 일정한 도수에 의해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자연 현상임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왕을 견제하는 정치적 수단으로도 강화되었다.[10] 그러나 월식에 대한 경험이 만성화되고 서양 천문학이 유입되면서 달의 담론에서 재이관은 쇠퇴하게 된다.[11]

다음으로는 경이감을 한 바탕으로 담론이다. 주로 달의 신비로움을 아름다움으로 인식하는 경우이다. 고대에는 달과 달을 바라보는 인간 사이에 거리를 두고 달을 화자가 지향하고자 하는 이상세계나 화자의 염원이 반영된 공간으로 구현하였다. 또한 토속신앙과 연결된 祭儀的 성격에서 숭고미를 지니기도 한다. 이후 숭고미가 해체되면서 怨望과 戀主의 대상으로 자리하며 개인적 심상을 반영하는 양상으로 전개되었다.[12]

그 양상은 달을 개인의 내면세계나 정신적 지향과 긴밀하게 연계하는 것이었고, 특히 그리움, 자연과의 조화, 불교의 無欲 등으로 상징화하며 개인적 정서를 술회하였다. 이 중에서도 달은 그리움의 매개자로서의 역할이 강조되어왔다. 달을 통해 그리움의 정서를 표출한 것은 『詩經』의 「月出」에서 등장한다.[13] 여기에서 달은 그리움을 유발하는 촉매제이자, 시공간의 단절로 인해 설정된 거리감을 제거하는 도구이기도 하다. 또한 달의 형상은 다양한데, 보름달은 임에 대한 그리움이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와 자주 연관되며, 片月은 차가움이나 외로움과 슬픔, 소외의 은유로 사용되기도 한다. 나아가 자연과 융화하거나 지상을 초월하고자 하는 의미로 현실에서의 고통을 달에 투사하여 신화적 존재로 주관화하거나, 현실세계를 투철히 반영하며 인간화된 달로 주관화하였다.[14]

信. 因出繩數百丈, 駕之而上. 俄以手擧懷袖中, 出月寸許, 寒光逼人, 廻視銀漢, 爲之掩色."

7) 두꺼비를 월식으로 인식한 것은 『史記』권128, 「龜策列傳」에 "태양은 덕이 되어 천하에 군림하지만 삼족오에게 곤욕을 당하고, 달은 형벌이 되어 태양을 보좌하지만 두꺼비에게 먹힘을 당한다(日爲德而君於天下, 辱於三足之烏, 月爲刑而相佐, 見食於蝦蟆.)"라는 부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8) 이문규, 『고대 중국인이 바라본 하늘의 세계』, 문학과 지성사, 2000, 110~122면 참조.

9) 구만옥, 「朝鮮後期 日月蝕論의 變化」, 『한국사상사학』19, 한국사상사학회, 2002, 188면 참조.

10) 송혁기, 「災異 관련 應旨上疏文의 관습과 수사」, 『동아시아고대학』33, 동아시아고대학회, 2006, 266~271면 참조.

11) 이국진, 「일식과 월식을 소재로 한 한국 한시의 양상과 의미」, 『고전과 해석』20, 고전문학한문학연구학회, 2016, 75면 참조.

12) 허왕욱, 「고전시가에 표출된 '달' 이미지 읽기」, 『청람어문교육』36, 청람어교육학회, 2003, 326~329면 참조.

13) 『詩經』, 「陳風·月出」: "月出皎兮, 佼人僚兮. 舒窈糾兮, 勞心悄兮.……"

14) 달을 신화적 존재로 주관화한 것은 李白이 대표적이고, 인간적 존재로 주관화한 것은 杜甫를 꼽을 수 있다. 이용재, 「王維詩에 나타난 月 이미지 考」, 『중국어문학론집』26, 중국어문연구회, 2004, 431~440면 참조.

또한 달은 다양한 설화들로 인해 七襄, 素魄, 圓蟾, 蟾蜍, 夜輪, 金波, 玉鉤, 霜輪, 瓊輪, 蟾滴, 桂魄, 桂輪 등과 같은 수많은 용어로 이미지화 되었다.[15] 이 같은 양상은 주로 한시에서 확인되며, 개인의 다양한 정서나 감회들을 달에 투영하였다. 그럼에도 개인의 정서는 유가든 불가든 도가든 모두 당대 이념의 자장 내에서 표출되고 해석되었다. 특히 유가적 미의식은 절제와 조화를 강조하였기에 개인적 정서를 자유롭게 표출하는 것을 지양해 왔으며, 달을 통해 인간을 우주질서 및 자연에 순응하는 존재로 인식하였기 때문에 私的 정서보다는 公的 정서로 표출된 것이 주된 양상이었다.

지금까지 조선후기 이전까지의 보편적인 달에 대한 담론과 인식을 살펴보았다. 달은 인간이 다가갈 수 없는 물리적 거리와 달의 순환적 변화 때문에 그 신비로움에 대해 아름다움으로 인식하기도 하고, 반면 알 수 없는 신이함으로 인해 두려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또한 달의 실체에 대해 확인할 수 없었던 만큼 다양한 설화들이 등장하며 달에 대한 담론은 다양한 장에서 거론되었다. 공적영역에서는 재이관이 국가의 정치적 도구와 연계됨으로써 달에 대한 경외감이 강조되어왔다. 사적영역에서는 주로 문학에서 경이감을 바탕으로 그리움의 매개체로서 역할을 하며 화자의 개인적 정서를 반영하여 다양하게 이미지화되었다. 그럼에도 달은 공적이든 사적이든 당대 지배이념과 가치관의 자장 내에 있으며, 특히 월식의 경우는 정치적 수단으로써까지 이용되어 왔음을 볼 수 있었다. 또한 달을 통해 화자들은 개인적 감회나 정서를 투영하였지만, 그 서술의 주된 양상은 당대 자연관과 가치관이 반영된 사회적 통념에 의해 형성되고 있음을 살펴볼 수가 있었다.

3. 18~19세기 散文에서 月의 담론과 인식양상

1) 事實과 虛構의 거리

달 중에서도 월식은 인간의 길흉화복과 自然災禍에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였기 때문에 시대를 불문하고 담론의 대상으로 자리하였다. 그러나 서양과학이 조선에 소개되는 후기부터는 서양의 과학적 이론에 근거한 담론들이 이전 시기에 비해 부각되는 양상을 보인다. 중국에서는 마테오리치(利瑪竇, 1552~1610)를 비롯한 선교사들이 西敎의 전파의 수단으로 서양과학을 적극적으로 소개하였고, 천문학은 짧은 기간에 중국학자들의 깊은 관심을 이끌어내었다. 그러나 조선의 경우, 서양 과학의 수용 시기뿐만이 아니라 西法 전파의 주체와 서양과학 도입의 범위가 상당히 한정적이었다.[16]

> 나는 머물 곳을 傾易閣에다 정하였다. 부모를 떠나온 지 한 해가 지난지라 달 아래를 거닐며 고향생각을 하였다. 노기인 萬梅는 才慧가 있고 익살스러운 말을 잘하였는데, 마침 鈴閣에서 와 갑자기 달을 가리키며 나에게 물었다. “옛사람은 달을 거울에 비유하였는데 어찌 사람들이 보고자하는 모습

15) 천즈어 지음·임준철 옮김, 앞의 책, 824~825면 참조.
16) 韓永浩, 「서양 기하학의 조선 전래와 홍대용의 주해수용」, 『歷史學報』170, 역사학회, 2001, 63면 참조.

을 비춰주지 않습니까?" 내가 농담조로 답하였다. "달 속에 물체 중 아른거리는 것이 있는데 佛家에서는 산과 내의 그림자라고 한다. 大千世界가 그 속에 담겨져 있으니 네가 보고자 하는 모습도 응당 태극의 울타리 안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너는 이별의 회한에 넋이 나가고 情業에 눈이 가리어져 분명하게 구별하지 못할 뿐이다. 그런데 네가 보고자하는 것은 어떤 모습이냐?" 만매가 웃으며 답하였다. "저 달이 만약 참[眞]이 비춰진 모습이라면 아른거리는 것은 산과 내가 아니라 모두 내가 보고자하는 모습의 그림자일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달을 거울이라 여기니 이것은 그림자가 아닌 것에서 그림자를 구하는 것이고 저는 달을 하나의 모습[面]이라 여기니 이것은 참[眞]으로써 참[眞]을 형상하는 것입니다."[17]

인용한 글은 李箕元(1745~?)과 老妓인 萬梅와 주고받는 대화로 구성된 것으로, 달에 대한 조선후기 일반인들의 인식을 엿볼 수가 있다. 이 글에서 만매는 옛사람들이 달을 거울에 비유한 이유를 이기원에게 묻는데, 그 물음은 지극히 상식적인 것에서 출발한다. 거울은 사물을 비추는 것이기 때문에 만매는 만약 달이 거울이라 한다면 자신이 보고자하는 사물의 모습을 비춰주어야 한다고 말한다. 여기에 대한 이기원의 답변은 戱答이라 하였지만 佛家의 설에 근거하여 말하고 있다. 불가에서의 달은 불법이나 진리의 의미로 사용된다.[18] 婆娑影에 대해 지구의 산과 내의 그림자이고 삼라만상이 달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보고자 하는 것을 다 볼 수가 있지만, 인간의 魂魄과 情業이 진실을 보는데 장애가 되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고 답변한다. 이와 같은 이기원의 답변은 달에 대한 불가의 설이 이 시기에도 여전히 민가에 적용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만매는 이와 같은 불가의 설에 부정적인 태도를 취한다. 달이 거울이라고 한다면 산과 내의 그림자가 아니라 자신의 보고자 하는 모습을 비춰주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즉 달이 모습을 반사하는 중간 도구인 거울이 아니라 달 자체가 하나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 글에서 보듯이 이 시기의 달에 대한 담론은 달 자체를 확인하고자 하는 성격이 강하다. 그 중에서도 달 표면에 아른거리는 그림자[婆娑影]가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이 강조되어 있다. 아른거리는 그림자에 대해서는 18세기뿐만이 아니라 이전시기부터 주요 담론의 대상이었다. 다만 이를 月蝕으로 인식하는 것이 주된 양상이었다.

서양 사람이 천리경을 만들었는데 다르게는 視遠鏡이라고도 부른다. 이 천리경으로 천체의 모양을 보면 해와 달·별들의 모습을 뚜렷하게 분별할 수 있다. 오성(금성·목성·수성·화성·토성)의 모양도 각

17) 李箕元, 『洪厓自編』권1, 「四年庚子, 余三十六歲」, 30~32면 : "余定舍館於傾易閣, 離親經歲, 步月思歸. 老妓萬梅才慧, 語多滑稽, 適自鈴軒而來, 忽指月而問余曰, "古人, 以月喩鏡, 何不照人所欲見之面?" 余戱答曰, "月中有物婆娑, 佛家所謂山河影也. 大千世界都涵其中, 爾之所欲見之面, 亦應在太極圈套之中, 而爾魄死於離恨, 眼晦於情業, 特迷離不辨耳. 然爾之所欲見者, 凡幾面?" 萬梅笑答曰, "彼月, 若眞箇照面, 則婆娑者, 不是山河, 皆吾所欲見之影子. 然世人認月爲鏡, 是求影於非影也, 吾則認月爲面, 是以眞而象眞也.""

18) 대표적으로 月印千江은 부처의 자비가 모든 중생에게 다 같이 베풀어진다는 것으로 여기에서 달은 禪理를 말한다. 또한 指端은 진리의 의미로 사용된다. 이는 부처가 중생에게 불법을 교도하는 데 비유한 것인데, 『楞嚴經』권2에 "가령 어떤 사람이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켜 다른 사람에게 보이거든 저 사람은 이 사람의 손가락을 인해서 응당 달을 보아야 한다. 그런데 만일 이 사람의 손가락만 보고서 그것을 달의 본체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이 어찌 달 바퀴만 잃어버릴 뿐이겠는가. 아까 본 손가락까지도 잃어버리게 된다(如人以手指月示人, 彼人因指, 當應看月. 若復觀指, 以爲月體, 此人豈唯亡失月輪, 亦亡其指)"고 하였다.

기 다르게 보인다. 이 월영도에서 보면 달 속에 아른거리는 그림자가 있는데, 옛날부터 중국사람 중에 그 모양을 이와 같이 상세히 살핀 자는 없었다. 그 그림자가 옥황상제의 궁인 광한궁이라는 설, 계수나무 그림자라는 설, 토끼와 두꺼비가 약을 찧는 모습이라는 설은 애초부터 분별할 것이 못된다. 오직 대지와 산하의 그림자라는 설은 지금까지 믿어졌지만 또한 황당한 것이니 대개 놔두고 논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서양 사람인 戴進賢이 「天象圖」를 그렸는데 달그림자 그린 것이 이와 같았다. 庶子 信이 이것을 모사하였다.[19]

인용문은 姜世晃(1713～1791)의 「書西洋人所畵月影圖摸本後」이다. 강세황은 서양인이 그린 月影의 그림을 아들인 信에게 모사하게 하고 그 작품에 이 글을 부기하였다. 모사한 작품은 Kogler(戴進賢, 1680~1722)의 「天象圖」이다. 이 글에서도 달의 婆娑影이 등장하는데, 강세황은 아른거리는 그림자가 무엇인지에 주목하였다. 이전까지 아른거리는 그림자는 주로 옥황상제의 궁궐, 계수나무 그림자, 토끼와 두꺼비가 약을 찧은 모습 등으로 상상력이 가미된 설이었다. 강세황은 이에 대해 분별할 것도 못된다고 말하며 허무한 설로 규정한다. 또한 지구의 산과 내의 그림자라는 설이 당대 일반적인 사실로 믿어져왔다고 말하는 부분에서는 앞서 이기원의 글에서도 확인되듯이 불가의 설이 보편적 인식으로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강세황은 이 모든 설을 부정한다.

그런데 지구의 그림자라는 설은 불가뿐만 아니라 儒家的 自然觀도 반영된 것이다. 조선전기는 통치이념인 유교적 자연관에 입각하여 달을 바라보았다. 특히 이념적 자양분이었던 朱熹의 설을 따르는 분위기였다. 주희는 아른거리는 그림자를 暗虛說[20]이라 하였는데, 지구의 형체가 태양 빛을 막는다는 月蝕으로 인식하였다.[21] 즉 보름달의 경우 일직선상의 태양과 달 사이에 지구가 위치했을 때 지구의 그림자가 달의 표면에 투영되어 어두운 부분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다.[22] 이러한 인식은 월식에만 국한된 것이며, 달에 대한 인식의 한계를 드러내는 부분이다.[23]

과학적 기술로써 입증되기 전까지 달 속의 아른거리는 그림자는 사람들에게 호기심의 대상이었고, 동시에 입증할 수 없는 사실에 대해 당대 및 이전시기의 사람들은 상상력을 동원하여 그 틈을 메워왔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서양과학에 근거하여 달의 婆娑影을 고증하고

---

19) 姜世晃, 『豹菴遺稿』권5, 「書西洋人所畵月影圖摸本後」,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79, 297면 : "西洋人造千里鏡, 一名視遠鏡. 以此鏡視天象, 則日月星辰體狀, 歷歷可辨. 五星之狀亦各不同. 此圖乃月中婆娑影, 自古中國人所未曾詳察其狀之如此者也. 廣寒宮之說, 桂影之說, 兎蟾搗藥之說, 初不足多辨. 惟大地山河影之說, 至今信之, 亦屬誕妄, 盖存而不論可也. 西洋人戴進賢, 作天象圖, 所畵月影如此. 庶子信移摸云爾."

20) 暗虛는 漢나라 張衡이 제창한 이후의 월식을 대표하는 논리로 儒者들에게 사용되었다. 張衡의 『靈憲』의 "當日之衡, 光常不合者, 蔽於地也, 是謂暗虛, 在星星微, 月過則食."이라 하였다.

21) 朱熹, 『朱子語類』권2, 「理氣下, 天地下」: 或問, "月中黑影是地影否?" 曰, "前輩有此說, 看來理或有之. 然非地影, 乃是地形倒去遮了他光耳."

22) 구만옥, 앞의 논문, 195면 참조.

23) 이에 대한 비판은 조선의 경우 李瀷에게서 비롯되었다. 특히 주희의 暗虛說을 비판하였다. 그는 불의 내부가 어둡지만 그것이 사물을 비출 때에는 사물의 어두운 부분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사실을 통해 주희를 비판하였다. 『星湖全集』권43, 「日月蝕辨」: "朱子語類, 出於門人之雜記, 未必皆得其實, 而或一時偶言未及照管者, 學者不可不勘以正之. 朱子曰, 月掩日內則爲日蝕, 日掩月內則爲月蝕. 夫日蝕於朔, 月蝕於望, 望者相對也, 豈有日掩月而蝕哉? 又曰, 日在內月在外則不蝕, 如秉燭者在內, 執扇者在外, 扇不能掩燭, 此指日之當蝕不蝕, 而日輪本高, 月輪本下, 豈有月在外時節耶? 又曰火日外影, 其中實暗, 到望時恰撞著其中暗處, 故月蝕也, 此古來曆家所遵用, 而謂之暗虛者是也. 火雖內暗, 光之被物, 未見有撞著黑暗處, 則何獨月之受日爲然哉?"

있다. '月影如此'라고 한데서 볼 수 있듯이 강세황은 달 體의 특성이 그림자로 표출된 것으로 인식하였다. 16세기 후반 서양 선교사인 마테오리치 등이 중국에 들어오게 되는데, 이들은 선교의 일환으로 천주교 및 서양의 자연과학 서적들을 漢譯하여 다수 간행하였다. 망원경 또한 이때 중국에 도입되었고 이를 통해 달 뿐만 아니라 천체의 별들을 관측할 수 있게 되었다. 조선에서는 사신단 일행들이 서양의 자연과학 서적을 구입하여 이 책들을 내국에 소개하기 시작하였다. 즉 일부 지식인들은 달 속의 아른거리는 실체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있었고, 강세황의 인용문도 이러한 사실을 접했음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그럼에도 일반인들의 달에 대한 인식은 변화하지 않았기에 이러한 인식은 당대 보편적인 것은 아니었다.[24] 이와 같은 양상은 다음 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예로부터 전해오기를 달에는 계수나무가 있는데 흰 토끼가 그 아래에서 불사약을 찧는다고 한다. 杜甫의 시에 '하늘가 가을이 다가오니, 인간세상 달빛이 맑기도 하네. 은하수에 들어간 두꺼비는 빠지지 않고, 약을 찧는 토끼는 불로장생하네.'라 하였다. 요즘 사람들은 달 속에 아른거리는 그림자를 계수나무라 여기는데, 옛날 휘집 등 여러 책에도 桂魄과 桂輪등의 글이 있다. 불전에서는 수미산 남쪽 閻浮提에 나무가 있는데 나무 그림자가 달 속으로 들어가 吳剛이 계수나무를 찍게 되었다는 고사도 계수나무의 이야기로 문인들의 음풍농월에 회자되었다. 그러나 달 속에 아른거리는 것을 지구의 산과 내의 그림자로 여기는 것은 그래도 현실과 조금 비슷한 점이 있다. 湯如望의 『遠鏡說』에 의하면 달 속에 흐릿한 그림자는 달이 햇빛을 받아 튀어나오고 들어가고 앞에 있고 뒤에 있는 것들이 비춰진 것들이라고 한다. 이는 단박에 오류를 깨트리는 말이나 사람들은 湯如望의 설에 반대하고 터무니없는 말이라 여기며 계수나무 그림자라고 맹신하는 자들은 사람으로 하여금 답답한 탄식을 못 이기게 한다.[25]

여기에서도 고증하고자 하는 것은 婆娑影이다. 李圭景(1788~1856)은 우선 아른거리는 그림자의 주체를 계수나무라 여기는 설들을 소개하고 있다. 먼저 달에 계수나무가 있고 그 계수나무에 아래에서 토끼가 불사의 약을 찧는다는 설은 인용문에서도 보듯이 杜甫의 「月」이라는 시가 회자될 만큼 지금까지도 익숙한 설이다. 이러한 이야기는 이규경이 살았던 당대까지 사실로 믿어져왔다고 하였다. 또한 桂魄이나 桂輪이라는 별칭으로 사용하는 것도 달에 계수나무가 있다는 설에서 차용한 것임을 말하고 있다. 이 이야기는 불가의 설화가 바탕이 된 것이다. 불가에서는 수미산 남쪽의 閻浮提에 나무가 있는데 나무 그림자가 달 속에 들어갔다고 하였다. 염부제는 贍部洲라고도 하는데, 원래는 인도 지역을 가리키는 말이었으나 이후 인간

---

24) 이시기에도 마테오리치의 의견을 신봉하여 주자의 의견을 배척하는 분위기에 우려를 표명한 인물들이 다수였다. 대표적으로 李獻慶은 서양 천문학을 부정하였다. 『艮翁集』권21, 「日食辨」: "先儒謂日月之食, 皆有常度, 然人事得於下則或當食不食, 人事不得於下則當食必食. 惟西洋國利瑪竇之說, 以爲食有常度, 雖堯舜在上, 不能使當食不食, 所謂當食不食云者, 盖推步者誤, 不知其本不當食."

25) 李圭景, 『五洲衍文長箋散稿』, 「天地篇·天文類·日月星辰·月中桂子辨證說」: "自昔相傳, 月中有桂樹, 白兎擣藥於其下. 杜甫詩, '天上秋期近, 人間月影淸. 入河蟾不沒, 搗藥兎長生.' 今人指月中婆娑影爲桂樹, 故類聚諸書有桂魄桂輪等文. 佛典, 須彌山南, 有閻扶樹, 樹影入月中, 吳剛斫桂故事, 更有桂子之說, 騷人墨客吟哢膾炙. 然月裏婆娑, 以爲山河影者, 稍有彷彿, 而見湯如望遠鏡說, 則月中朦朧影者, 卽月體受日光, 有坳凸先後之照等語. 大破謬說, 而世人反以湯氏之說, 爲無稽之語, 而酷信桂影者, 令人自不勝泄泄之歎矣."

세상의 총칭으로 쓰이게 되었다. 또한 오강이란 사람이 벌을 받아 달 속의 계수나무를 옥도끼 찍게 되었다는 吳生玉斧의 고사도 언급하고 있다. 즉 이 시기 달에 대한 주된 인식은 상상력이 동원된 설화들을 근거로 형성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규경은 이러한 설화에 대해서는 고증할 필요도 없다고 할 만큼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시킨다. 다만 아른거리는 그림자를 지구의 산과 내의 그림자라 하는 설은 그나마 사실에 근거한 것이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규경이 사실에 가깝다고 여기는 설은 湯如望의 『遠鏡說』이다. 탕여망은 Adam, Schall(湯若望, 1591~1666)로 독일 쾰른 출신의 예수회 선교사이다. 그가 『원경설』에서 말하는 婆娑影이란 달도 지구처럼 산과 내가 있어서 그 표면이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들어간 부분과 튀어나온 부분이 있고, 이러한 표면에 태양이 비추게 되어 생겨난 그림자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아른거리는 그림자는 달에 있는 산과 내의 그림자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규경은 탕여망의 설이 지당하다고 말하며 당대 사람들의 편견을 깨트리는 탁견이라 여기고 있다. 그런데도 당대 사람들은 탕여망의 설에 반대하며 계수나무의 설을 지당한 것으로만 인정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양상에서 역법을 통해 달의 실체를 알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과학적 지식보다는 신화적 전설을 맹신하는 당대의 분위기를 살펴볼 수 있다.

> 허자가 말하였다. “달 속에 밝고 어두운 부분을 물과 흙이라고도 하고 지구의 그림자라 하는데, 이에 대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실옹이 말하였다. “내가 사실을 말한다면 당신은 나의 입만 믿을 것이니 당신의 소견에 따라 당신의 實見을 열어 주는 것이 낫겠다. 속설에서 ‘계수나무와 토끼’라 하는 것은 달이 동쪽으로 떠오를 때 바라보는 형체다. 만약에 그것이 물과 흙이라고 한다면 달이 중천에 왔을 때는 그 형체가 반드시 기울어질 것이고 달이 서쪽으로 떨어질 때는 그 형체가 반드시 거꾸로 될 것이다. 지금도 가는 것에 따라 그 형체가 변하되 기울어지지도 않고 거꾸로도 되지 않고서 각각의 형태로 이루어지니, 세 번 멈춰지는 형태는 옛 부터 한결같은 것이다. 또 초승달이나 그믐달일 때는 당연히 그 반절만 나타나야하는데 전체의 모양이 갖춰져 있고 쭈그러지고 좁을 뿐이다. 물과 흙이라는 설은 옳은 듯하나 실은 잘못된 것이다. 대개 달의 체는 거울과 같은데 지구의 半面이 밝음을 따라 그림자 짓는다. 동쪽으로 떠오를 때의 그림자는 지구 동쪽의 반면이고 중천에 있을 때의 그림자는 지구 중간의 반면이며 서쪽으로 떨어질 때의 그림자는 지구 서쪽의 반면이니 지구의 그림자라 하는 것이 또한 옳지 않겠느냐?”[26]

이 글은 洪大容(1731~1783)의 「의산문답」에 등장하는 것으로, 가상인물인 허자와 자신을 실옹이라는 인물로 설정하고 이들 간의 문답으로 구성한 것이다. 여기에서 등장하는 허자는 유가적 입장을 고수하는 인물인데, 달에 대해 허구적인 상상으로만 인식하기보다는 다소 현실적인 인식을 보이는 이로 설정되어 있다. 허자가 의문을 보인 부분은 달의 明暗으로 앞서 등장한 婆娑影과 동일한 부분이다. 허자는 달 속의 밝고 어두운 것을 물과 흙, 지구의 그림

26) 洪大容, 『湛軒書』권4, 「毉山問答」: “虛子曰, “月中明暗, 或謂水土, 或爲地影, 願聞其說.” 實翁曰, “吾語其實, 爾信吾口, 不若據爾所見, 開爾實見. 夫鄙諺所謂桂兎, 東昇之望形也. 苟其水土也, 月之中天, 其形必橫, 月之西落, 其形必倒. 今乃隨行而隨變, 不橫不倒, 化成各形, 三停之形, 終古如一. 且觀弦月, 宜見其半而全形備焉, 特其蹙而狹爾. 水土之說, 似是而實非. 盖月體如鏡, 地界半面, 隨明透影, 東昇之影, 東界之半面也, 中天之影, 中界之半面也, 西落之影, 西界之半面也, 謂之地影, 不亦可乎?”” 번역은 고전번역 DB(http://db.itkc.or.kr)를 참조하였다.

자라 하는데 어느 것이 사실인지를 실옹에게 묻고 있다. 여기에서 지구의 그림자라는 부분은 주희의 해석과 동일하다. 이에 대해 홍대용은 달에 대한 속설을 과학적 사실에 기반하여 자신의 견해를 드러내고 있다. 달은 하늘에 고정된 것이 아니라 이동하기 때문에 밝고 어두운 부분이 물과 흙이라 한다면 그 모양은 변화해야 한다. 때문에 홍대용은 이를 근거로 물과 흙이 아니라 주장하였다. 또한 달의 본체는 거울과 같다고 하였다. 홍대용은 달이 동쪽, 중천, 서쪽에 위치함에 따라 지구 반면을 반영하기 때문에 그 속성에 근거하여 달을 거울이라 말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앞서 이기원의 글에서 만매가 달을 거울로 부정했던 양상과 다르다. 만매는 과학적 이론에 근거하여 사실적으로 설명하기 보다는 감성적이고 정서적인 부분에 주목하여 달을 인식하였다. 그러나 홍대용은 상상력을 배제하고 과학적 이론에 근거하여 담론한 것이다. 즉 불가적, 유가적 자연관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며 무엇보다 명암을 월식으로 인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달에 관한 담론 중에서도 婆娑影이 무엇인지와 달을 거울에 비유한 것에 대해 주목하였다. 먼저 아른거리는 그림자는 고정된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설화들이 난무하였고, 특히 계수나무나 토끼의 그림자와 같은 상상력이 동원된 전설은 18~19세기까지도 보편적 인식으로 자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그런데 강세황과 이규경의 담론에서는 당대 통념과 다른 양상을 엿볼 수가 있었는데, 모두 선교자의 설을 근거로 하여 월식으로만 인식하지 않았다. 또한 달을 거울로 비유한 것은 달이 지구의 산과 내의 그림자를 반영하기 때문에 그 속성을 거울에 빗대어 인식해 왔음을 살펴보았다. 홍대용의 경우는 서양과학에 근거하여 달이 거울로 비유되는 것을 인정하였다. 반면 이기원의 기록에서 나타난 만매의 경우 달이 거울에 비유되는 것을 반대하며, 무엇보다 달의 변화하는 모습을 인간의 외면, 내면을 반영하여 자신의 심상을 곡진하게 표현하였다.[27] 즉 강세황, 이규경, 홍대용의 달에 대한 담론과 인식은 당시 보편적인 양상이라 하기 어렵다. 이들은 비교적 이국의 문물을 수용하는데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자들이거나, 학문에서 고증적 태도를 견지한 인물들이기 때문에 전설에 대한 맹신보다는 진위를 구별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이들의 담론을 통해 당대 自然觀 및 宇宙觀에 대한 변화를 엿볼 수 있었다. 즉 달에 대한 두려움을 내포한 경외감이 쇠퇴하였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 시기는 달에 대한 주된 담론과 인식은 설화들이 유효한 근거로 자리하고 있으며, 달을 통해 자신의 심상을 반영하고자하는 태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때문에 이 시기의 고증적인 담론을 통해 달에 대한 사실과 허구간의 거리는 이전 시기보다 좁혀졌다고 할 수 있으나, 그럼에도 그 거리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2) 興趣와 共感의 촉매제

27) 李箕元, 앞과 동일. "萬梅以指尖爬空而言曰 "圓時, 象其正面, 虧時, 象其仄面, 纖處象眉, 穹處象鼻, 合上下弦而象口吻分, 左右輪而象耳朶. 如顴如輔如額頤如鬚顋者, 象其形之不同也, 如喜如悲如慰懃如怊悵者, 象其色之不齊也. 在山象僧佛, 入雲象仙道. 花籌錦筵, 象醉客之面, 柳笛邨溪, 象騷人之面. 畵閣高照, 非富翁則貴人, 郵店隱映, 非旅人則商客. 出自東方, 欣然有逢迎之懽, 窺簾入戶, 藹然有親近之意. 及夫鸞帷乍捲, 鴛枕欲圓, 摩光弄輝, 有抱臥長終之樂. 而遐心未回, 冷踪莫攀, 一出門前, 滄海浩渺, 今日送一面, 明日迎一面. 彼月之一往一來, 吾腸已灰, 吾髮已霜. 坡翁之說, 揭是已, 從玆以往, 緣何而更接所欲見之面乎? 彼月匪餠不可茹恨, 彼月匪鑑不可照心, 庶幾象眞於虛景之中, 以寫我憂耳." 仍泫然流涕. 余憐其情而韻其語, 將爲錄事巷佳話."

밤은 양면성이 존재한다. ‘즐김의 밤’과 ‘견딤의 밤’으로 전자는 달, 술과 어우러져 밤을 풍류의 시간으로 인식하는 것이라면, 후자는 관직에서 물러나거나 님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하며 밤을 슬픔의 시간으로 인식한 것이다.[28] 조선후기에도 밤에 대한 인식은 양면성이 존재한다. 다만 조선후기 산문의 경우에는 즐김의 밤으로 인식하는 양상이 부각되며 風流的 측면[29]이 더욱 강조된다. 더욱이 이 시기 문인들은 도성을 중심으로 詩會와 같은 夜宴을 통해 교유의 장을 마련하였고, 이 과정에서 知己를 희구하며 개인적 정서를 공유하려는 의도가 보인다. 아울러 이러한 모임에서 달은 흥취를 자극하는 촉매제로서 역할을 하며 그 흥을 자신에 국한하지 않고 무리와 자연의 영역으로 확장하려는 양상을 보인다. 때문에 그리움을 대변하는 달의 이미지는 이 시기에도 여전히 유효하지만, 이미지화하려는 대상은 벗과 지기에 집중되어있다.

兪晩柱(1755~1788)는 “마음이 맞는 사람과 함께 맑은 대화를 나누기에는 눈 속이 적당하고, 빗속이 적당하며, 달빛 속이 적당한데, 비가 눈보다 낫고, 달이 비보다 낫다[共會心人淸話, 宜雪中, 宜雨中, 宜月中, 雨勝雪, 月勝雨.]” 고 하였다.[30] 그는 마음이 맞는 벗과 맑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촉매제로 자연물 가운데 눈・비・달을 거론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달이 이러한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으뜸이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달은 자연물 가운데에서도 지기와 함께 정서적 공유를 가능케 하는 촉매제인 것이다. 그렇다면 왜 유독 달이 이러한 상황을 구현케 하는 촉매제로 작용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 (前略) 일 년 삼백육십 일에 밤마다 달이 있다고 해서 기이한 것이 아니고, 일 년 삼백육십 일에 밤마다 달이 없다고 해서 운치 없는 것도 아니다. 한 달 중에 달이 뜬 날은 수십일 뿐이고, 이 수십일 밤중에 둥근 달이 뜰 때는 겨우 몇 밤에 불과하다. 일 년 삼백육십 일에 밤마다 꽃이 있다고 해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일 년 삼백육십 일에 밤마다 꽃이 없다고 해서 정이 없는 것도 아니다. 일 년 가운데 꽃이 핀 날은 수십 일 밤뿐이고, 이 수십 일 중에 달과 만나는 날은 또 겨우 며칠 밤에 불과하다. 며칠 밤이라곤 하지만 비바람과 짙은 안개가 없어서 화창하게 만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 경우는 대체로 하루 이틀 밤에 불과하다. 이런 밤에 헛되이 하루 이틀을 보내는 것도 불가하고, 이런 밤이 하루 이틀도 없는 것 역시 불가하다. 泊翁(李明五)과 향해의 만남이 이와 같다. 달과 꽃이 만나는 것이 하루 이틀 밤에 불과하나 그래도 이 하루 이틀 밤은 해마다 있을 수 있다. 박옹이 늙기는 했지만 기력이 여전히 강건하고 술을 마시고 시를 짓는 것이 조금도 쇠하지 않았다. 지금부터 항해와 만날 수 있는 것 역시 몇 십번이 될지 알 수 없다.[31]

---

28) 김상진, 「사대부시조에 나타난 밤의 성격 : 16·17세기 작품을 중심으로」, 『時調學論叢』29, 한국시조학회, 2008.

29) 풍류는 호방한 풍토, 시서화의 예술적 취향, 은거와 자연친화적, 禪의 세계, 자유분방한 남녀의 애정, 문학의 風雅한 취향 등을 의미한다. 특히 조선에 이르러서는 놀이적·예술적 요소보다는 宴樂的 개념으로 일반화된다. 본고에서 풍류는 안락적인 의미에서 자연만물과 교유하는 태도와 관련된 것이라 하겠다. 특히 자연을 배경을 자연 속에서 외관만을 감상하는 것과, 나아가 자연과 함께 호흡하고 체감하면서 자기 내부에 자연을 일치하고자 하는 태도도 포함된다. 신은경, 『風流-동아시아 美學의 근원』, 보고사, 1999, 51면~77면 참조.

30) 번역과 원문은 안대회의 『고전산문산책』(휴머니스트, 2008, 327면)을 참조하였다.

31) 洪吉周, 『縹礱乙懺』권5, 「偶書綠畵樓詩卷後」: “一歲三百六十夕, 皆有月不奇, 一歲三百六十夕, 皆無月不韻. 一月之中, 有月者, 十數夕而已, 此十數夕之中, 圓者, 厪數夕. 一歲三百六十夕, 皆有花不鮮, 一歲三百六十夕, 皆無

인용문은 洪吉周(1786~1841)의 「偶書綠畵樓詩卷後」이다. 이 글의 주지는 달 자체라이기보다는 知己와 만남이다. 이를 千載一遇한 시간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다. 이 가운데 다시 찾아오기 어려운 기회나 시간을 조성하는데 작용하는 자연물로 달과 꽃을 거론하고 있다. 홍길주의 서술에 의하면 1년 365일 가운데 달이 뜨는 밤만이 운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바꾸어 말하면 365번의 밤 가운데 운치가 있는 밤은 반드시 달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달이 뜬 밤이 대부분 운치가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보름달이 뜨는 밤은 365번 중에 10번에 불과하며, 이 10일조차도 비바람과 짙은 안개 때문에 하루 이틀에 불과하다. 즉 李明五(1750~1836)와 자신의 교유가 좀처럼 만나기 어려운 기회인 것처럼 그 소중한 인연을 강조하기 위해서 달이 뜨는 밤을 차용하고 있는 것이다.[32]

이 서술에 의한다면, 흔치 않은 기회가 바로 달이 뜨는 밤이라 하겠다. 또한 지기와의 만남도 자주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이처럼 달과 벗은 千載一遇한 시간과 대상의 유사성을 지니기에 달이 벗으로 이미지화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달은 마음이 맞는 사람과의 대화에 있어 분위기 형성의 촉매제가 되며 정서적 공감을 형성케 하는 자연물이다. 따라서 달이 뜬 밤이면 벗이나 지기를 찾아가게 된다.

聖彦(朴齊道)이 꾸짖으며 말했다. "달이 밝아서 어른이 그대 집에 찾아왔는데 술을 마련하여 환대는 안해 주고, 유독 귀한 사람만 붙들고 이야기하면서 어이하여 어른을 오래도록 밖에 서 있게 하는가?" 내가 아둔함을 사과하자, 성언이 주머니에서 50전을 꺼내어 술을 사오게 하였다. 조금 취하자, 雲從街로 나가 달빛을 밟으며 鐘閣 아래를 거닐었다. 이때 밤 종소리는 이미 三更에서도 四點이 지나 달은 더욱 밝았다. 사람 그림자는 길이가 모두 열 길이나 되니 자신들이 돌아봐도 흠칫 두려워할 만하였다. 거리에는 개들이 아무렇게나 짖어 대는데, 獒犬 한 마리가 동쪽에서 다가왔는데 희고 비쩍 말라 있었다. 사람들이 둘러싸 쓰다듬어 주자, 좋아서 꼬리를 흔들며 고개를 숙이고 오랫동안 서 있었다. 예전에 들으니 이 큰 맹견은 몽골에서 난다는데 말처럼 크고 성질이 사나워서 다루기가 어렵다고 한다. 중국에 들어간 것은 그중에 매우 작은 종자라 길들이기가 쉽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은 더욱더 작은 종자이지만 토종개에 비하면 훨씬 크다. 이 개는 이상한 것을 보고도 짖지 않지만, 한번 성을 내면 으르렁거리며 위엄을 과시하니 세간에서는 胡白이라 부른다. 그중에 가장 작은 것을 발발이라 부르는데, 그 종자는 雲南에서 나왔는데 모두 고깃덩이를 즐기며 아무리 배가 고파도 깨끗하지 않으면 먹지 않는다. 일을 시키면 사람의 뜻을 잘 알아차려서 목에다 편지 쪽지를 매어 주면 먼 곳이라도 반드시 전달하였고, 간혹 주인을 만나지 못하면 반드시 그 주인집 물건을 물고 와 신표로 삼는다고 한다. 해마다 늘 使行을 따라 우리나라에 들어오지만 대부분 굶어 죽으며, 늘 홀로 다니고 기를 펴지 못한다. 懋官(李德懋)이 술에 취해 '豪伯'이라는 字를 지어 주었다. 조금 뒤에 그 개가 어디론지 가 버리고 보이지 않자, 무관이 섭섭해 하며 동쪽을 향해 서서 '호백아' 하고 오랜

花不情. 一歲之中有花者, 數十夕而已, 此十數夕之中, 與月遇又厪數夕. 數夕而無風雨陰霧, 朗然相會而莫爲之障, 蓋止一二夕耳. 使此夕而過一二不可, 使此夕而無一二亦不可. 翁之於沆瀣, 蓋猶是也. 月之遇花, 雖止乎一二夕, 然此一二夕者, 歲歲而有也. 翁雖老, 氣力猶强健, 飮酒賦詩不少衰. 自今以往, 其與沆瀣遇, 又不知有幾十度也."

32) 홍길주와 이명오의 만남은 그의 나이 46세인 1831년에 綠畵樓에서 만난다. 이 글은 이때 만들어진 시집에 부친 글이다. 최식, 『조선의 기이한 문장-항애 홍길주 산문 연구』, 글항아리, 2009, 71면 참조.

친구처럼 세 번이나 부르니, 사람들이 모두 크게 웃었다. 그러자 거리에 있던 개들이 내달리면서 더욱 짖어댔다. 마침내 玄玄의 집에 들러 술을 더 마시고 크게 취하여, 운종교를 거닐고 난간에 기대어 서서 옛 이야기를 했다. 지난 정월 보름밤에 蓮玉(柳璉)이 이 다리 위에서 춤을 추었고 白石(李弘儒)의 집에서 차를 마셨으며 惠風(柳得恭)이 장난삼아 거위의 목을 끌고 와 여러 번 돌리면서 종에게 분부하는 시늉을 하여 웃고 즐거워하였다. 지금은 6년이 지나서 혜풍은 남으로 錦江에 유람을 갔고 연옥은 서쪽 關西에 가있으니 모두 무고들 한지? 다시 水標橋에 이르러 다리 위에 줄지어 앉으니, 달이 마침 서쪽으로 기울어 덩달아 한창 붉고 별빛은 더욱 흔들흔들하며 둥글고 커져 마치 얼굴 위로 떨어질 듯하였다. 이슬은 짙게 내려 옷과 갓이 다 젖었고 흰 구름이 동쪽에서 일어나 옆으로 뻗어가다 조금씩 북쪽으로 옮겨가니 성 동편은 짙푸른 빛이 더욱 짙어졌다. 개구리 소리는 눈어둡고 귀먹은 원님 앞에 亂民들이 몰려와서 訟事하는 것 같고, 매미 소리는 일과를 엄하게 지키는 서당에서 강송하는 날이 다가온 것 같으며, 닭 울음소리는 한 선비가 바로서서 간쟁하는 것을 자기 소임으로 삼는 것 같았다.[33]

이 글에서는 달밤의 흥취를 공유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벗과 지기를 방문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34] 朴趾源은 달밤에 朴齊道, 李德懋, 柳璉, 柳得恭 등과 종로거리를 배회하였다. 이들이 달빛을 밟으며 종각으로 나아간 때는 자정을 넘었고, 달빛만이 고요히 이들을 비추었다. 달이 서쪽으로 기울 때까지 이 모임은 지속되고 있다.

여기에서 달은 이 모임의 동기를 형성하는데 주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달은 시간의 경과를 알려주는 자연물이자, 향유할 수 있는 대상물로 자리하며 이 모임의 자유로운 분위기를 북돋우고 있다. 특히 이덕무, 유련과 유득공의 유희적인 행위들은 이들의 격의 없는 친분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며, 그 중에서도 이덕무와 獒犬의 일화에는 이 모임의 지향점이 내재되어 있다. 이덕무는 이 개에게 豪伯이라는 字를 붙여 주었고, 그 개가 사라지자 마치 친구가 사라진 것처럼 구슬프게 부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달밤의 유희적 행위로 나타나 있지만, 그 이면에는 달밤에 지기와 함께하고 싶은 내적욕망을 담아내고 있다. 동시에 공감의 영역이 순간적으로 확장한 때를 기록한 것이다.

---

33) 朴趾源, 『燕巖集』권10, 「醉踏雲從橋記」: "聖彦罵曰, 月明, 長者臨門, 不置酒爲懽, 獨留貴人語, 奈何令長者久露立? 余謝不敏, 聖彦囊出五十錢沽酒. 少醉, 因出雲從衢, 步月鍾閣下. 時夜鼓已下三更四點, 月益明, 人影長皆十丈, 自顧凜然可怖. 街上群狗亂嗥, 有獒東來, 白色而瘦, 衆環而撫之, 喜搖其尾, 俛首久立. 嘗聞獒出蒙古, 大如馬, 桀悍難制. 入中國者, 特其小者易馴. 出東方者, 尤其小者, 而比國犬絶大, 見恠不吠, 然一怒則狺狺示威, 俗號胡白. 其絶小者, 俗號友友, 種出雲南, 皆嗜赧, 雖甚飢, 不食不潔. 嗾能曉人意, 項繫赫蹄書, 雖遠必傳, 或不逢主人, 必啣主家物而還, 以爲信云. 歲常隨使者至國, 然率多餓死, 常獨行不得意. 懋官醉而字之曰, '豪伯.' 須臾失其所在, 懋官悵然東向立, 字呼豪伯, 如知舊者三, 衆皆大笑. 鬨街群狗, 亂走益吠. 遂歷叩玄玄, 益飮大醉, 踏雲從橋, 倚闌干語曩時. 上元夜蓮玉舞此橋上, 飮茗白石家, 惠風戲曳鵝頸數匝, 分付如僕隷狀, 以爲笑樂. 今已六年, 惠風南遊錦江, 蓮玉西出關西, 俱能無恙否? 又至水標橋, 列坐橋上, 月方西隨正紅, 星光益搖搖圓大. 當面欲滴露重, 衣笠盡濕, 白雲東起橫曳, 冉冉北去, 城東蒼翠益重. 蛙聲如明府昏瞶, 亂民聚訟, 蟬聲如黌堂嚴課, 及日講誦, 鷄聲如一士矯矯, 以諍論爲己任.)" 번역은 고전번역원 DB(http://db.itkc.or.kr)를 참조하였다.

34) 이와 같은 양상은 이들의 同人의 글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다. 李書九, 「夏夜訪友記」. 이글은 『燕巖集』에 「酬素玩亭夏夜訪友記」의 작품에 수록되어 있다. "季夏之弦, 步自東鄰, 訪燕岩丈人. 時微雲在天, 林月蒼翳. 鍾聲初起, 其始也殷殷, 其終也泛泛, 若水漚之方散. 意以爲丈人在家否, 入其巷, 先覘其牖燈照焉. 入其門, 人不食已三朝矣. 方跣足解巾, 加股房櫳, 與廊曲賤隷相問答, 見余至遂整衣坐, 劇談古今治亂及當世文章名論之派別同異, 余聞而甚奇之也."

즉 달밤의 흥취는 놀이적인 요소와 자연과의 교감 등을 통해 고조되고 있으며, 이러한 분위기에서 너와 나보다는 우리라는 무리의식을 형성하기가 쉽다. 여기에서의 달은 恨보다는 興의 정취로, 갈등과 긴장이 없는 편안함과 넉넉함을 통해 유희적 성격을 지닌다. 또한 유독 달이 뜨는 밤에 혼자만이 아닌 무리들과 더불어 흥취를 즐기고자 하는 것은 정서의 공감을 통해 형성되는 어울림과도 연관된다. 이러한 정서의 공감은 자연물을 대상으로 형성되는 것인데, 특히 달은 정서적 공감을 가능케 하는 자연물이며, 달이 갖는 안온한 이미지 때문에 彼我의 구분이나 이욕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한다.

> 때마침 밤은 고요한데 음악을 연주하자 嘐嘐齋(金用謙)가 달밤에 약속도 없이 찾아오셨다가 笙簧과 鐵絃琴이 번갈아 연주되는 것을 듣고 몹시 즐거워 하셨다. 그래서 덩달아 책상의 구리 소반을 두드리며 절조를 맞추고 『詩經』의 「伐木」장을 외우니 그 흥취가 일렁일렁하였다. 연주가 끝난 뒤 이윽고 교교재가 일어나 문을 나가시더니 오래도록 돌아오지 않았다. 나가서 찾아보아도 공은 보이지 않았다. 담헌이 선군께 "우리가 아마도 실례를 해서 어른께서 돌아가셨나 봅니다."하고, 마침내 다 함께 달빛을 타고 걸어서 효효재의 집을 향해 가다가 수표교에 이르렀다. 이때 큰 눈이 갓 개이자 달빛은 더욱더 밝았다. 그런데 공이 무릎에 거문고를 빗겨 놓고 갓을 벗은 채 다리에 앉아 달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일행은 모두 놀랍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여 술상과 악기를 옮겨가서 공을 모시고 놀다가 그 즐거움을 다하고 마쳤다.[35]

이 글 또한 달밤의 흥취를 느낄 수 있다. 여기에서도 흥의 촉매제로서 달의 역할이 확인된다. 인용문의 저자인 박종채는 어버지인 박지원과 홍대용의 관련된 일화를 기술하고 있다. 주된 내용은 음악과 관련된 것이나, 그 배경에 달이 자리하고 있다. 박지원은 음률에, 홍대용은 악률에 정밀하였는데 홍대용의 집에 歐羅鐵絃琴이 있는 것을 보고 박지원이 이를 연주하고 홍대용이 가야금으로 곡조를 맞추는데서 이 글은 시작된다.

철현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홍대용의 집에 모이자 고요한 밤에 음악이 연주되고 하늘에는 달이 환하게 떠 있다. 이때 약속이 없었던 金用謙(1702~1789)이 찾아오게 된다. 이 모임에서 김용겸에게 달은 자발적 모임의 계기로 작용하는데, 앞서 박제도와 같은 양상이다. 더욱이 김용겸을 통해 이 모임은 실내에서 야외의 공간으로 이동하게 되고[36], 음악에서 달로 대표되는 자연으로 그 향유의 대상이 변모하여, 달을 통해 그 흥취가 고조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夜宴에서의 흥취는 자연, 특히 달과 교감하며 그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데 『시경』을 인용하고 있다. 인용된 부분은 「小雅・伐木」의 "나무 찍는 소리 쩡쩡 울리고, 새들은 재잘재잘 즐겁게 노래하네. 깊은 골에서 훌쩍 날아서는, 높은 나무 위로 자리를 옮겨 앉네. 재잘재잘 즐겁게 노래하는 새들이여, 서로들 벗을 구하는 소리로다.[伐木丁丁, 鳥鳴嚶嚶. 出自幽谷, 遷于喬木. 嚶其鳴矣, 求其友聲.]" 인데, 진정한 知己를 구하는 마음을 표현한 것이다. 이

35) 김윤조 역주, 『역주 과정록』, 태학사, 1997, 49~53면 참조.
36) 김동준, 「18세기 文人 夜宴의 현장과 예술적 아우라」, 『한국실학연구』28, 한국실학학회, 2014, 223~224면 참조.

글에서 「벌목」장을 노래한 것은 夜宴에 모인 인사들이 모두 진정한 벗을 만나게 되었다는 기쁨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부분이다.

이와 같은 양상은 앞선 인용문과 동일한데, 이들의 모임에 유독 벗과 지기와의 만남을 강조하고, 그리움의 대상이 벗과 지기에 집중된 양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조선후기에도 성리학적 이념은 국가의 통치이념으로써 굳건히 자리하였기 때문에 수직적 질서를 중시하였다. 이에 비하면 수평적 질서인 友道를 의미하는 朋友有信의 중요도는 상대적으로 미미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五倫 중에서 信을 강조하는 것은 마테오리치의 『교우론』이나 명대 후기 양명학파의 주장들과 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특히 박지원과 그 동인들은 양명학자들처럼 극단적으로 우도를 중시하지는 않았으나, 그럼에도 가족보다 우정을 중시한 점은 전통적인 우도에 대한 비판이 내재된 것이다.[37] 더욱이 이들은 尙友千古에 대해 비판하며 현실[今]에서의 우도를 중시하였다.[38] 때문에 달을 통한 그리움의 대상이 주로 벗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은 단순히 야연이라는 모임의 성격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과거가 아닌 현세의 벗을 중시하였기 때문에 야연과 같은 모임을 통해 현재 만날 수 있는 벗이나 지기들과 흥취를 공유하고자 한 것이다.

즉 그리움의 대상이 주로 벗과 지기에 집중되어 있고, 현세의 벗과 지기를 중시한 양상의 이면에는 서학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글에 등장하는 박지원, 이덕무 등은 우정론과 관련하여 한때 서학에 관심을 표명한 자들이고 유만주, 홍길주는 이들에게서 영향을 받은 자들이다.[39] 때문에 이들의 벗과 지기를 중요시한 것은 당시 도시문화와 서학이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달은 벗과 지기로 이미지화 되었고, 흥취가 주된 야연에서 정서의 공감과 흥취의 촉매제로 위치하고 있다.

지금까지 문학적 담론에서 달에 관련된 작품들을 살펴보았다. 이들 작품에서 일관된 양상은 먼저 달이 뜨면 지기를 찾아가거나, 지기를 희구한다는 점이다. 달이 뜨는 밤이면 사적 정서를 공유할 대상을 찾고자 한 이유는 달과 지기가 흔치 않는 기회나 대상이라는 유사한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달은 벗과 지기로 이미지화 되었다. 이들은 달밤의 정취를 혼자만이 아닌 무리를 통해 공유하고자 하였는데, 이는 과거가 아닌 현세의 벗과 지기를 중시하였기 때문에 모임에서 지기와 대면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정서를 벗과 지기로 확장하며 나아가 정서적 유대를 강화하려는 의도였다. 즉 달의 두려움을 내포한 경외감보다는 향유물의 성격이 이전시기보다 강조되는 양상이었다. 따라서 이시기 산문에서의 달은 주로 벗이

---

37) 김명호, 『연암 문학의 심층 연구』, 돌베개, 2013, 131~133면. 박지원이 友道를 중시한 것은 『燕巖集』권8, 「放璚閣外傳·自序」에서 확인할 수 있다. “友居倫季, 匪厥疎卑, 如土於行, 寄王四時, 親義別叙, 非信奚爲? 常若不常, 友廼正之, 所以居後, 廼殿統斯.”

38) 朴趾源, 『燕巖集』권3, 「繪聲園集跋」: “古之言朋友者, 或稱第二吾, 或稱周旋人, 是故造字者, 羽借爲朋, 手又爲友, 言若鳥之兩羽而人之有兩手也. 然而說者曰, 尙友千古, 鬱陶哉是言也. 千古之人, 已化爲飄塵泠風, 則其將誰爲吾第二, 誰爲吾周旋耶? ……由是觀之, 友之必求於現在之當世也明矣.” 여기에서 등장하는 第二吾는 마테오리치의 『교우론』에 등장하는 구절이다. 박지원의 초기 필사본인 『熱河避暑錄』(단국대 동양학연구원, 연암박지원작품필사본총서5, 문예원, 2012)에 “泰西人呼朋友曰第二吾”라 기술되어 있다.

39) 유만주 경우는 마테오리치의 『교우론』을 읽고 그 내용을 『欽英』에 초록한 사실이 확인된다. 己亥年 6월 28일 조에 “泰西利氏交友”라는 서술이 보인다. 홍길주는 인용된 글만으로 서학의 수용을 통해 우도의 중시하였다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1827년 출사 이후, 이명오·서유구 등과 교유하였고, 이때 『연암집』을 읽고 박지원에 경도되었으며 서학에도 관심을 표명한다. 또한 「吾老園記」에서는 상대적인 우주론 및 자연관을 주장하는데, 이를 통해 박지원과 그 일원들의 영향력을 감지할 수 있다.

나 지기로 이미지화되며, 정서적 유대를 확장하는데 촉매제로서 작용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양상에는 서학의 영향과 夜宴 형식의 도시문화가 배경으로 자리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4. 18~19세기 散文에서 月의 의미

이 글에서는 달에 대한 담론과 인식을 18~19세기 산문에 제한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달에 대한 당대의 보편적인 인식보다는 서양 천문학에 기반한 담론과, 개인적 정서를 반영하기에 비교적 제약이 덜한 유기, 필기 소품 등과 같은 산문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때문에 이 시기 산문의 전모를 구명한 것이라 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이 글에서 제시한 담론을 통해 당대 자연관 및 우주관, 가치기준 등이 변화하였고, 이러한 변화된 인식이 문학에 반영된 양상을 살펴볼 수 있었다.

조선은 성리학을 국가적 이념으로 도입하였기 때문에 도덕주의적 자연관을 가치이념으로 삼았고, 인간과 자연을 분리해서 인식하기보다는 그들을 연계하여 자연 질서를 인간에게 적용하고자 하였다.[40] 그러나 이 시기의 담론에서는 이전과 다른 양상이 확인되었다. 특히 월식을 조선후기 전에는 明暗으로 명명하며 제한된 인식을 보인 반면, 이 시기에는 월식만이 아닌 婆娑影으로 대치하여 그 실체를 파악하였다. 즉 달 표면의 아른거리는 그림자에 대해 월식이나 지구의 산과 내의 그림자라 여긴 것이 당대 및 이전시기의 보편적인 인식이었는데, 이 글에서 거론한 작가들은 달 자체의 그림자라 인식하였다.

이는 월식으로만 인식하였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재이관에 대한 변화이며, 나아가 자연관 및 우주관의 변화에까지 관련된 부분이다. 즉 자연 질서와 절대성에 대한 부정을 통해 인간과 자연을 분리한 것이다. 특히 재이 현상에 대해 인간의 생활이 반영된 사고에서 탈피하였다는 점에서 달에 대한 두려움이 내재된 경외감이 쇠감되었고 신비주의적 이해에 대한 거부감이 생겨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변화는 선험적 인식론에서 벗어난 경험주의적 인식론 등장과 관련된 것인데, 선교사들의 의해 전파된 서양 과학이론이 그 변화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물론 이 시기에도 성리학적 자연관은 주류적 위치를 점하기 때문에 이 변화가 주된 양상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이 시기의 달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유가적, 불가적, 도가적 인식에 벗어난 양상이 등장하였기에 달과 같은 자연물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통해 당대 사유가 다변화하고 있음을 살펴 볼 수 있었다.

조선후기 이전에도 달은 문인들의 흥취를 자극하며 문학에서 주된 소재로 사용되어 왔다. 때문에 달은 다양하게 이미지화 되었다. 더욱이 달은 구체적인 대상이면서도 사람의 인식 너머에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대상과 추상적인 의미 두 가지 양상으로 이미지화 되어왔다.

이 시기 산문에서도 한시의 주된 특성인 이미지화의 연속성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이미지화하려는 대상이 주로 벗과 지기에 집중되어 있었다. 즉 그리움을 상징하는 달의 주된 이

40) 이원형, 『조선서학사연구』, 일지사, 1986, 116면 참조.

미지가 이 시기에도 전승되고 있는데, 그 그리움의 대상이 주로 벗과 지기라는 것이다. 물론 이 글에서는 夜宴과 관련된 작품만을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 양상이 대표성을 지닌다 할 수는 없지만, 이전 시기보다 부각되는 면모이다. 그 이유는 주로 五倫 가운데 信을 중시하였기 때문이다. 표면적으로는 당대 도시를 중심으로 흥취문화와 관련된 것이나, 그 이면에는 당대 다양한 사유의 유입과도 관련된 부분이 있다. 특히 마테오리치의 『교우론』 및 명대 후기 양명학파의 주장들이 이 시기 문인에게 비판 없이 수용된 것은 아니지만 그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때문에 信에 대한 중시는 벗과 지기에 대한 희구로 드러났으며, 더욱이 尙友千古에 대한 비판에서 보듯이 벗과 지기는 과거가 아닌 현세의 대상이므로 달밤이 찾아오는 희소성과 연계되어 달이 그리움 중에서도 주로 벗으로 집중되었던 것이다. 때문에 야연과 같은 모임을 통해서 지기를 만나고 자신의 정서를 공유하였던 것이다. 그 과정에서 달은 공감과 흥취의 촉매제로서 작용하였다.

따라서 이 시기 달에 대한 담론과 인식의 변화는 당시 도시문화 및 다양한 사유와 학문의 유입에 따른 것이라 하겠다. 주로 달을 두려움의 대상이기보다는 향유의 대상물로 인식하였기 때문에 유희적으로 즐김의 대상으로 바라보았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에는 서양의 과학이론이 근거로 작용하였다. 즉 달을 통해 자연에 대한 인식이 보다 현실적으로 변모함으로써 달에 대한 두려움이나 숭고미가 반영된 경외감은 다소 감소하였다. 이러한 양상은 문학적 영역에도 반영되었다. 더욱이 서학의 영역은 과학이론 뿐만 아니라 友道인 信을 강조하였는데, 이 시기 서학의 교우론에 반응한 문인들은 벗과 지기를 우선시하였고, 현세에 대면할 수 있는 대상을 희구하였기 때문에 달을 통해 벗과 함께 어울리면서 정서적 공감대를 확장하려는 태도를 보인 것이라 하겠다.

<참고문헌>

<자료>
姜世晃,『豹菴遺稿』,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79.
朴趾源,『燕巖集』, 한국문집총간 252, 민족문화추진회.
朴趾源,『熱河避暑錄』(단국대 동양학연구원, 연암박지원작품필사본총서5), 문예원, 2012.
李圭景,『五洲衍文長箋散稿』, 古典刊行會 編, 東國文化社, 1959.
李箕元,『洪厓自編』, 연세대 소장본.
李 瀷,『星湖全集』, 한국문집총간 198, 민족문화추진회.
李獻慶,『艮翁集』, 한국문집총간 234, 민족문화추진회.
兪晩柱,『欽英』, 서울대 규장각 영인본, 1997.
洪大容,『湛軒書』, 한국문집총간 248, 민족문화추진회.
洪吉周,『縹蔕乙懺』, 연세대 소장본.

『CD-ROM 文淵閣四庫全書 電子版』, 迪志文化出版有限公司, 2000.
고전번역원DB, http://db.itkc.or.kr(한국고전번역원)
한국의 지식콘텐츠, http://www.krpia.co.kr(KRpia)

<논저>
구만옥,「朝鮮後期 日月蝕論의 變化」,『한국사상사학』19, 한국사상사학회, 2002.
김동준,「18세기 文人 夜宴의 현장과 예술적 아우라」,『한국실학연구』28, 한국실학학회, 2014.
김상진,「사대부시조에 나타난 밤의 성격 : 16·17세기 작품을 중심으로」,『時調學論叢』29, 한국시조학회, 2008.
김윤조 역주,『역주 과정록』, 태학사, 1997.
김명호,『연암 문학의 심층 연구』, 돌베개, 2013.
송혁기,「災異 관련 應旨上疏文의 관습과 수사」,『동아시아고대학』33, 동아시아고대학회, 2006.
신은경,『風流-동아시아 美學의 근원』, 보고사, 1999.
안대회,『고전산문산책』, 휴머니스트, 2008.
이국진,「일식과 월식을 소재로 한 한국 한시의 양상과 의미」,『고전과 해석』20, 고전문학한문학연구학회, 2016.
이문규,『고대 중국인이 바라본 하늘의 세계』, 문학과 지성사, 2000.
이원형,『조선서학사연구』, 일지사, 1986.
이용재,「王維詩에 나타난 月 이미지 考」,『중국어문학론집』26, 중국어문연구회, 2004.
임준철,『조선중기 漢詩 意象 연구』, 일지사, 2010.
陳植鍔,『詩歌意象論』,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0.
천즈어 지음·임준철 옮김,『중국시가의 이미지』, 한길사, 2013.
최 식,『조선의 기이한 문장-항애 홍길주 산문 연구』, 글항아리, 2009.
韓永浩,「서양 기하학의 조선 전래와 홍대용의 주해수용」,『歷史學報』170, 역사학회, 2001.
허왕욱,「고전시가에 표출된 '달' 이미지 읽기」,『청람어문교육』36, 청람어교육학회, 2003.
크리스토퍼 듀드니 지음, 연진희·채세진 옮김,『밤으로의 여행』, 예원미디어, 2008.

‘18~19세기 散文에 나타난 ‘月’ 담론과 인식의 일국면’ 토론문

김홍백(성균관대학교)

본 발표논문은 18~19세기 산문에 나타난 달 담론의 의미를 그 이전의 일반적인 달 담론과의 비교 속에서 파악하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발표문은 달 담론의 변화 양상과 그 요인을 西學을 통해 초래된 자연관의 변화라는 동서교제의 사상사적 구도 안에서 논증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특히 의의가 있습니다. 이는 ‘달’이라는 소재를 활용하되 이를 조선 후기 사상사의 구도 안에서 음미하고자 했기에, 기왕의 단순한 소재주의적 접근 방식과는 또한 변별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토론자는 발표문의 문제의식과 방법론에 관해 십분 동의한다는 전제 하에, 그 논지 전개에 있어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1. 사소한 문제

2면 :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무한한 다름이 아니라 동일한 변화와 반복이기에, 달은 개방성 및 역동성을 내포하는 자연물로도 인식되었다.”

→ 달의 ‘동일한 변화와 반복’이라는 속성은 4면 각주 18번에서 서술했듯이 ‘月印千江’으로서의 禪理와 관계되기에, ‘개방성’ 내지 ‘역동성’이라는 속성과는 다른 ‘보편적 진리관’을 현시하는 양태로 이해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2. 번역과 해석의 문제

4면 : “만매가 웃으며 답하였다. “저 달이 만약 참[眞]이 비춰진 모습이라면(→진정으로 모습을 비춰준다면) 아른거리는 것은 산과 내가 아니라 모두 내가 보고자하는 모습의 그림자일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달을 거울이라 여기니 이것은 그림자가 아닌 것에서 그림자를 구하는 것이고 저는 달을 하나의 모습[面]이라 여기니 이것은 참[眞]으로써 참[眞]을 형상하는 것입니다.”

“萬梅笑答曰, 彼月, 若眞箇照面, 則婆娑者, 不是山河, 皆吾所欲見之影子. 然世人認月爲鏡, 是求影於非影也, 吾則認月爲面, 是以眞而象眞也.”

→ 위 인용문에 대해 5면에서 “그러나 만매는 이와 같은 불가의 설에 부정적인 태도를 취한다. 달이 거울이라고 한다면 산과 내의 그림자가 아니라 자신의 보고자 하는 모습을 비춰주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즉 달이 모습을 반사하는 중간 도구인 거울이 아니라 달 자체가 하나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분석했는데, 인용문의 의미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3. 西學의 영향과 '달+知己' 관의 관련 문제

발표문의 가장 중요한 논점이자 결론은 "① 이 시기 산문에서의 달은 주로 벗이나 지기로 이미지화되며, 정서적 유대를 확장하는데 촉매제로서 작용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② 또한 이러한 양상에는 서학의 영향과 夜宴 형식의 도시문화가 배경으로 자리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라는 것입니다.

①의 주장은 충분히 납득되지만, ②의 주장 중 '서학의 영향' 때문이라는 분석은 잘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김명호 선생님의 논문에서 이미 검토된 바와 같이 연암의 友道論이 마테오 리치 등의 서학과 일정한 영향관계에 있는 것은 사실이나, "정서의 공감과 흥취의 촉매제" 로서의 18세기 달 담론이 그 자체로서 서학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발표자의 서술대로 "달의 두려움을 내포한 경외감보다는 향유물의 성격이 이전시기보다 강조되는 양상이었다" 라는 것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이러한 향유 대상으로서의 달 인식이 '西學을 통해 초래된 자연관의 변화' 와 어떠한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는지 좀 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듯합니다.

발표자는 결론에서 "주로 달을 두려움의 대상이기보다는 향유의 대상물로 인식하였기 때문에 유희적으로 즐김의 대상으로 바라보았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에는 서양의 과학이론이 근거로 작용하였다" 라 서술했는데, 달에 대한 유희적 향유물로서의 인식 변화에 있어 서양에서 수용된 과학이론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련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 좀 더 구체적인 자료와 근거를 통한 논증이 필요한 대목이라 생각합니다. 단순히 "信에 대한 중시는 벗과 지기에 대한 희구로 드러났으며, 더욱이 尙友千古에 대한 비판에서 보듯이 벗과 지기는 과거가 아닌 현세의 대상이므로 달밤이 찾아오는 희소성과 연계되어 달이 그리움 중에서도 주로 벗으로 집중되었던 것이다" 라고 단정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지 않은가 합니다.

게다가 '尙友千古' 나 '두려움을 내포한 경외의 대상' 으로서만이 아니라 현세의 벗에 대한 그리움으로서의 '달' 이미지와 현세의 벗과의 夜宴을 통한 흥취를 돋우는 향유대상으로서의 '달' 이미지는, 18세기 이전의 여러 형태의 문학작품들에서도 광범위하게 발견된다는 점에서 이를 꼭 전대의 달 담론과 변별되는 18~19세기 조선의 고유한 달 담론으로 인식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가령 발표자가 "달을 신화적 존재로 주관화한" (3면, 14번 각주) 시인이라고 평가한 李白 또한 「友人會宿」에서 달 밝은 밤 벗들과의 夜宴에서의 흥취를 "좋은 밤이라 淸談 나누기 좋고, 달 밝으니 잠들지 못하네.(良宵宜淸淡, 皓月未能寢)" 라 읊은 바 있고, 王徽之는 눈 내리는 달밤에 흥에 겨워 剡溪에 있는 벗 戴安道가 생각나 작은 배를 타고 찾아갔다는 고사를 남긴 바 있습니다.(『世說新語 任誕』) 이외에도 달밤에 흥에 겨워 벗들과 夜宴을 즐기는 장면은 전대의 작품들에서 적지 않게 발견됩니다. 따라서 달을 두려움이 아닌 향유의 대상으로 인식하게 된 月觀 전환의 결정적 계기를 '서양의 자연과학' 에서 찾으려는 시도는, 흥미로운 논점이기는 하지만 좀 더 구체적인 자료적 근거를 통해 보다 신중하게 추론해야 할 사안이 아닌가 합니다.

참고 : 서학의 우도론 수용과 관련해서는 이미 16세기 말~17세기 초에 집필 · 저술된 『芝峯

類說』에서도 확인됩니다. 李睟光은 '이탈리아에 대한 항목'에서 마테오 리치가 중국에 들어와 『天主實義』를 소개하였다는 내용을 자세하게 서술했습니다. 여기서 "서양의 풍속은 友誼를 중요하게 여기고 축첩을 하지 않는다. 마테오 리치는 『重友論』(『交友論』을 가리킴-인용자)을 지었다. 焦竑이 말하기를, 서역사람 利君(利瑪竇-인용자)은 벗이란 '제 2의 나'라고 말했다. 이 말이 신기하다.(其俗重友誼, 不爲私蓄, 著重友論. 焦竑曰: 西域利君以爲'友者第二我', 此言奇甚云)"와 같이 서학을 友道의 맥락에서 소개했습니다. 아울러 이수광과 거의 동시기에 柳夢寅 또한 마테오 리치의 동일 저서를 『於于野談』에서 소개하고 비평했습니다. 16세기 말~17세기 초의 문인인 이수광과 유몽인은 이외에도 선비의 友道論·朋友論에 대한 성찰적 저술을 다양하게 남긴 바, 조선의 우도론과 서학의 관련을 연암을 필두로 한 18~19세기의 특정 시공간에만 한정시키는 것은 조금 곤란하지 않은가 합니다. 그 이전인 조선 중기의 지식장에도 이미 동일한 구도의 논의가 일정하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기조강연: 대학교육과 한문교육

진재교(성균관대학교/한국한문교육학회 회장)

【목차】

1.
2.
3.

1.

현재 대학은 기업과 마찬가지로 국내외 대학 간에 무한 경쟁을 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대학 평가에 다른 서열화와 함께 이를 부추기는 정부의 재정 지원 사업 등과 맞물려 있다. 그 근저에 신자유주의가 자리 잡고 있음은 누구나 아는 바다. 경쟁력을 추구하는 대학 정책을 추동하는 논리와 그 정책에 따른 대학 교육은 피상적 효과를 가져 오기는 하겠지만, 대학의 질적 발전과 대학의 진정한 경쟁력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한다. 특히 정부의 재정사업 등은 대학의 학문 단위를 인위적으로 재편함으로써 대학이 지닌 공공성을 도외시하고, 오직 왜곡된 신자유주의 환경의 기업 시스템처럼 재정을 매개로 정부의 하청업자로 대학을 전락시키고 말았다. 이것이야말로 대학의 경쟁력 확보의 방향과 전혀 다른 대학을 위기로 몰고 가는 주범이다.

저급한 대학 경쟁력이 가져다 준 대학의 위기 속에 가장 타격을 받은 분야는 인문학이며, 그 중에서도 인문 고전학에 속하는 한문학(한문교육 포함)은 직격탄을 맞고 있는 형국이다. 이를테면 최근 10여 년 동안 대학에서의 한문학 관련 전공은 사회적 효용성이 적다는 점과 정부의 중등교원 수급의 제도적 실패가 맞물려 위축 내지 축소되고 있다. 자연히 이를 전공하려는 진학자는 물론 대학 내에서의 위상도 점차 하락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어 최근 10 여 년 동안 대학의 한문학 전공은 폐지되거나 축소 내지 정원 감축은 물론 학과 간 통폐합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 대학 내에서 한문학 전공의 축소와 위축은 단 시간에 나아질 것 같지 않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여기에다 대학 밖의 상황도 녹녹치 않다. 예컨대 대학 입시 학령인구의 급속한 감소,[1] 또한 2018학년 고교과정에 문・이과의 통합이 한문학 관련 분야에 영향을 끼칠 것이기 때문이다. 주지하듯이 2021학년 대입부터는 문・이과 구분 없이 학생들이 대학의 전공을 선택하여 입학한다. 문・이과 통합은 국어, 영어, 수학, 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 등 6과목의 공통과목과 진로에 따른 진로 및 선택 심화 과정으로 나뉘는 것이 골자다. 문과에서의 국어・영어・사회, 이과에서의 수학・과학의 집중 이수를 분산시켜, 이를 기반으로 창의 융합인재의 양성과 지식의 편중을 극복하겠다는 방향은 긍정적인 측면이 없지 않다. 사실 학령인구의 급속한 감소와 중등학교 현장의 변화가 대학의 전공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 인문학 내지 한문학 전공의 확산으로 연결되지 않을 것임은 분명해 보인다.

이 점에서 대학 내에서 한문학 전공과 한문교육을 위한 새로운 인식과 함께 여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것은 한문학 전공자 앞에 놓인 가장 풀기 어려운 현실적 과제인 셈이다.

2.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회와 대학 내에서는 人文學을 위시하여 古典을 배우려는 熱風이 일었다. 이와 관련한 다양한 대중서도 간행되어 다양한 계층의 많은 독자들이 적지 않게 읽었다. 대학에서는 학부대학이나 교양학부(교양교육원이나 후마니타스 등)를 설치하고 교양을 강화하는 정책을 펼친 바 있다. 이를테면 교양을 강화하는 과정에 고전을 강조하거나 고전 관련 과목을 다수 개설하고, 심지어 다양한 인문학 연계전공을 개설하여 인문학 교육에 노력을 기울인 바 있다. 여기에 한문학 관련 과목이나 그 비중이 상당하고, 그 결과 한문학 관련 과목은 학부대학이나 교양교육의 한 축을 이루었다. 뿐만 아니라 일부 대학에서는 한문학 관련 과목을 인성교육과 연결시키는 등, 한문 관련 과목을 재인식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교양 교육과 인문학 교육에 한문학 분야가 기여하고 있다는 傍證이기도 하지만, 그 실효성은 물론 한문학 내지 인문고전 교육의 강화가 학습자의 눈높이를 충족시키고 당초의 교육 목표를 실현하고 있는 지 여부는 현재로서 확인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대학 밖으로 눈을 돌리면 한문학 전공의 존재는 어떨까? 정부는 2015년 1월에 '인성교육진흥법'을 제정하여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법률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국민을 육성'하자는 것이 기본 취지다. 여기서의 '인성교육'은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 공동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이며 예, 효,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을 핵심적인 가치 또는 덕목으로 삼는 것[2]을 의미한다. 이 법의 시행에 따라 중등학교에서는 물론 일부 대학에서도 인성교육과 관련한

1)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인구추계에 따르면 대입 학령인구는 2015년 66만 명에서 2020년 51만명, 2025년에는 45 만명을 거쳐 최악의 경우 2065년 22만 명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진학률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과 추후 특성화고 비중이 30%수준까지 확대될 것을 고려하면 학령인구 감소 추세는 더욱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추정된다.

2)「인성교육진흥법」(법률 제14396호, 일부개정 2016년 12월 20일) 참조.

다양한 방안은 물론, 교과목을 비롯하여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시행하고 있다.

또한 교육부와 문화관광체육부가 2017년 1월 12일에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기본계획」을 발표하여 고사되어 가는 인문학의 회생에 호흡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이라 천명한 바 있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약 2,600억 원의 재정을 투입할 것으로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인문학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그간 대중이 평생교육의 차원에서 인문학에 관심을 가진 것과도 연결이 무관하지 않다. 그렇다면 인문학과 인성교육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는 한문학 관련 전공은 어떨까?(이는 인문 고전 분야에 속할 것이다.) 또한 중등학교에서의 인성교육의 강조나, 인문학의 대중화와 그 확산 등이 대학의 인문학, 특히 한문 전공과 관련을 지닐 수 있는 '인문고전'이 새롭게 대두될 수 있을까? 아니면 한문학 관련 전공자가 늘어나거나 교양으로서의 한문이 대폭 증가하거나, 대학 제도 속에서 한문학 전공이 기사회생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역시 회의적이다. 이러한 인문고전에 속하는 한문학의 관심 증대가 대학의 인문학 내지 한문학 전공의 확산으로 연결되기란 쉽지 않다. 대학 내에서 학문 단위 간 전공 이기주의의 폐해는 이미 오랜 기간 답습되고 있고, 대학의 교육과정 구성과 실행과정에서 전공 간 이해가 상충되어 쉽게 해결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인문학 연구자들이 거시적인 시야로 인문학의 확산을 기획하여 대학의 학문 단위 지형도에서 그 파이를 넓혀나가고, 타 학문과의 융합과 활용을 통해 그 지분을 확충하는 전략적 시각의 부재가 인문학 내지 인문고전(한문학 포함)의 확산을 가로막기도 한다. 이의 해결을 위해 무엇보다 대학 내에서 타 학문 단위와 비교할 때, 인문학은 주류가 학문이 아니라 비주류인 마이너리티라는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타 학문과 협력하여 생존하려는 방안과 전략을 취하는 자세가 절실히 요구된다. 하지만 이렇게 하기에는 관련 전공자의 많은 노력과 자기 성찰이 요구되는 사정을 감안하면 이마저도 현실적인 성과를 내기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인다.

인문고전(한문학 포함)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인은 대학과 사회에서의 환경변화다. 최근 가장 뜨거운 화두로 대두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시대이다. 이는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으로 이뤄지는 것인데, 정부나 대학 역시 이에 호응하여 소프트웨어 습득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8학년부터 초·중·고에서는 소프트웨어 교육을 시행한다. 이는 정보화 시대에 웹 환경의 확산으로 사회와 기업의 요구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에 대응하여 대학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소프트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의 요구와 대학의 대응은 대학에서의 교육 환경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를테면 디지털 기술이 교육방식과 결합하여 대학의 교육 환경을 변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최근 MOOC(Massive Open Online Course)나 K-MOOC(Korea-Massive Open Online Course) 등의 출현은 4차 산업혁명시대와 밀접한 관련성을 지닌다. 더욱이 대학 내에서도 온라인 교육방식 나아가 전통적인 교육방식과 온라인 교육방식이 결합된 하이브리드 러닝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형편이다. 디지털 기술이 대학의 강의를 모두 대체하지는 않겠지만, 이의 확산은 대학의 지식 생산 방식과 교수·학습 방식 자체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한문학 전공자는 이러한 환경 변화에 다소 늦게 영향을 받겠지만, 대학 내에서 한문학 전공의 영토와 한문교육의 방향을 성찰하여 이에 대응하는 것 역시 우리의 과제다. 이에 대한 한문학 전공자의

노력 역시 당연히 필요한 것이다.

3.

한문학 전공이 되었든 인문고전이 되었든 대학의 안팎을 살펴보면, 앞서 이미 언급한 것처럼 한문학의 전망은 그다지 밝지 않다. 교육부의 코어사업이나, 프라임 사업 등은 이러한 전망에 대한 정부의 기획일 터이다. 정부의 이러한 재정사업의 공과를 논외로 하더라도 그 기획 자체가 인문학 내지 관련 전공의 위기를 보여주는 징표임은 분명하다. 여기서 인문학의 위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문제점을 정확히 짚고, 대학과 한문교육의 방향과 그 전망을 논할 필요가 있다. 수년 전 일부 언론은 대중추수적인 차원에서 인문학의 위기를 주목받은 바 있다.

> “인문학의 위기를 경고하고 지원을 호소하는 선언문이 나올 때마다 이에 대한 반론이 제기된다. 대표적인 것은 대학 안에서 인문학의 위상 저하와 대조적으로 사회에서는 인문학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점을 들어 위기에 처한 것은 인문학이 아니라 인문학자라는 주장이다. 인문학자들이 격변하는 시대 변화에 조응하며 사회적 의제 창출과 논쟁에 적극 참여하려는 치열한 지적 노력을 게을리 한 결과 초래된 自業自得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인문학자들의 뼈를 깎는 자기 혁신이 없이는 아무리 지원을 쏟아 부어도 인문학 부흥은 어렵다는 지적이다.”[3]

이러한 주장은 표면적으로 경청할 만한 듯하지만, 그 내면을 따지면 전혀 동의할 수 없다. ‘인문학의 위기=인문학자의 위기’ 라는 프레임은 두 가지 지향을 드러낸다. 자기 밥그릇이 비게 되는 인문학자들의 투덜거림이라는 논리로 인문학 전공자를 격하시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인문학의 위기는 인문학자들이 자초한 일’ 이라는 궤변이다. 단선적인 밥그릇 논쟁은 인문학의 위기를 가장 저급한 차원으로 끌어내림과 동시에 인문학과 인문학의 존재 방식에 대한 진지한 담론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인문학 위기론이 인문학자들의 ‘밥그릇 챙기기’ 가 아님은 논리적으로 설명할 필요조차 없이 단순하지 않다.

주지하듯이 인문학의 위기에 가장 쉽게 상정할 수 있는 전공 분야가 인문 고전의 하나인 한문학 분야다. 한문학 종사자들이 사회에서의 인문학 열풍 현상의 이유를 파악하여 그것에 대응하는 새로운 교육과정이나 교수·학습법 등을 새롭게 구성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다. 인문학의 위기와 인문학자의 위기는 결코 분리되어 설명할 수 없다. 사실 전통적 개념 고전 인문학의 중요한 분야가 바로 한문학 전공이다. 신자유주의 시장경제 상황에서 한문학에 종사하는 사람의 위기가 해당 전공의 위기로 연결되는 것은 당연한데 밥그릇 챙기기로 이를 매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어떤 학문 분야이든 그 분야 전공자가 그것을 점유하여 가르치는 것은 물론 아니다. 하지만 그 전공 분야에 종사하는 자가 위기에 처해 있는데, 그 학문 분야가 어떻게 활성화될 수 있겠는가?

---

3) 이선민, 「'인문학 위기 선언' 5년 주기설」, 『조선일보』, 2012년 11월 9일.

지금 대학 안팎의 상황을 감안하면, 한문학은 인문학 중에서도 보호 학문에 가깝다. 당초 한문 해독과 한문 능력을 신장하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를 전공하려는 연구자 역시 소수다. 이들이 현재의 여건에서 한문을 습득하고, 그것을 활용하여 학문적 성과와 다른 성취를 이루기란 더욱 지난한 일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한문학 전공자들은 다른 학문 단위와 달리 특별한 대접받아야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다. 당초 '한문학'은 다른 인문학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이익을 논하는 것과 가장 먼 학문 단위라는 점을 제기하려는 것이다. 이 점에서도 한문학을 비롯한 인문학은 당초 '밥그릇 챙기기'와 당초 관련이 없는 것이다.

주지하듯이 대학교육과 한문학(교육 포함)의 문제는 대학의 안과 밖의 숱한 현실적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그런 점에서 본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한계 속에서나마 어떠한 시각과 방법으로 이 문제를 헤쳐 나갈 것인지 고민하고 작은 실천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한문학 담당자의 몫이다. 어려울수록 磨斧作針의 자세로 이 난관을 극복할 수밖에 없는 것 또한 우리가 안고 가야할 현실이다. 그것이 사회 변화에 맞는 교재 연구와 시대에 호응하는 교수·학습 방법이 되었건, 아니면 인문 고전의 시각과 동아시아적 시야가 되었건 한문학 연구자는 다양한 노력과 함께 고단한 내부를 단련 할 때인 것이다.

인문고전으로서의 한문교육

-대학 교양교육의 맥락에서-

송혁기(고려대학교)

【목차】

1. 대학 교양교육의 운명과 한문
2. 각 대학의 한문고전 관련 교양과목 개설 현황
3. 변화의 틈으로 살피는 전망과 몇 가지 제언

1. 대학 교양교육의 운명과 한문

우리에게 대학은, 근대의 여러 다른 산물들과 마찬가지로, 어느 날 갑자기 주어진 무엇이었다. 저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성균, 태학, 국자감 등의 고등교육 전통을 내세우며 서유럽 중심의 시각에 반론을 제기해 본들, 오늘 우리 눈앞에 있는 대학이 바로 그 서유럽 몇 나라에서 시작된 것임을 부인할 수는 없다. 12세기 중반 이후 각기 다른 여건과 맥락 가운데 탄생한 이탈리아 볼로냐 대학, 프랑스 파리 대학, 영국 옥스퍼드 대학 등이 지금 전 세계 대학의 원형이라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 그들이 중세 교회의 그늘 아래서 혹은 길드의 형태로 혹은 왕립의 형태로 숱한 사연과 산고 가운데 그야말로 '탄생'해서 유아기를 거쳐 성장해온 과정을 여기서 길게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다만 본 발표의 주제와 관련해서 몇 가지 점을 상기하고자 한다.

대학의 출발은 교양교육이었다. 'liberal education'이라는 원어에서 알 수 있듯이 교양교육은 기본적으로 '자유'를 위한 교육이다. 멀리는 그리스에서 노예가 아닌 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에서 시작하였고, 무엇보다 중요한 특징은 애초에 '생업'을 위한 배움이 아니라는 데에 있다. 사람으로서의 품성을 배우고 문화적 소양을 익히는 것이 본디 교양교육, 바로 인문학이었다.[1] 인문학이 곧 교양이었고, 고전 교육을 중시하며 인격 형성을 이루

1) 반덕진(1999)

는 것이 대학교육의 요체였다. 오늘 우리의 대학에서 많은 학생들이 '교양'이라는 말을 '필수가 아닌 것', '자투리 시간에 들어도 될, 긴요치 않은 것', '이것저것 늘어놓은 백화점식 과목 중 무엇을 선택해도 그게 그거인 것' 정도의 의미로 인식하는 것과 비교하면, 그 동안 얼마나 멀리 와버렸는지 알 수 있다.

그러나 꽤 이른 시기부터 이미 교양교육은 전문 직업교육과 긴장 관계에 놓이게 되었다. 그 결정적인 계기는 과학혁명과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대학이 점차 직업교육장으로 변모해간 데에 있다. 고도로 전문화되어가는 학문의 세계에서 한 분야만이라도 제대로 전공하는 것이 급선무가 되다 보니 교양교육에 의한 인간 형성이라는 이상은 점차 약화되었다. 우리가 주로 받아들인 미국대학에서의 교양교육은 전통적인 자유교육을 기반으로 하되 전문 직업교육의 수요를 받아들여 대학교육을 재편하면서 이루어졌다. 애초부터 '타협의 산물'이었던 것이다. 지금 우리 대학에서 교양교육과 전문 직업교육의 대립과 갈등은 미국과 일본 대학의 제도를 기반으로 한 우리 학부교육의 구조적인 문제이지 특정한 그룹의 사고방식이나 행동에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다.[2] 대학 내에서 인문고전을 기반으로 하는 교양교육의 이상과 당위를 소리 높여 말하기 전에 이 점을 먼저 인정할 필요가 있다.

연구와 교육이라는 '당연한' 대학의 책무 역시 역사적 산물이다. 중세 대학의 주된 역할은 교육이었다. 여기에 연구가 더해진 것은 19세기 후반 독일 대학의 영향이다. 정부와 교회의 영향에서 벗어난 독일 대학들은 과학적 지식을 추구하는 보루로 거듭났다. 대학은 시민이나 지도자를 길러내는 곳이 아니라 활발한 연구를 통해서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곳이라는 인식이 커졌다.[3] 이처럼 연구를 중시하는 흐름이 오늘에 이어지고 그 연구가 시장경제에 복속되면서, 이제 기업이 대학을 좌우하는 현실이 되었다. 끊임없이 산업계의 요구에 부응해야 하는 대학에서 교양교육과 직업교육의 이상적인 조화를 말하기는 더욱 어렵게 되었다.

우리는 사실, 교양교육뿐 아니라 대학 자체의 운명을 생각해야 할 시기에 서 있다. 구미에서 근 8백 년을 이어온 대학은 20세기 후반 세계 구석구석으로 팽창하면서 서구식 근대화의 기수 역할을 하였다. 우리가 대학을 다니면서 막연하게 알고 자신 있게 외치던 대학생으로서의 책무와 특권이라는 것도 실은 몇 백 년에 걸쳐 형성되어 온 '대학'이라는 독특한 문화의 산물이었다. 그러나 제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는 21세기에도 대학이 지녀온 위상이 이제까지처럼 유지되리라 생각하는 이들은 많지 않다. 물론 중세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대학의 외연이 매우 바뀌어 온 것이 사실이지만, 의외로 '대학'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묶일 수 있는 연속적인 면이 많다. 반면에 21세기의 대학은 그 존립 자체를 근본부터 되돌아봐야 할 만큼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되리라는 것이 많은 이들의 예측이다. 스티브 잡스도 빌 게이츠도 중도에 그만두고 만 대학이 지금 시대에 무엇을 줄 수 있는가. 이는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에 직면해 있는 한국의 문제만은 아니다.

이러한 교양교육의 운명, 그리고 대학의 운명 앞에서 인문고전으로서의 한문교육을 말하는 것이 가능할까. 본 발표의 대상은 실용적인 목적의 한자·한자어 교육이나 전근대 문헌의 독해와 연구를 위한 일종의 어학으로서의 한문 교육이 아니다. 대학 교양교육의 차원에서,

---

2) 에하라 다케카즈(2012).
3) 마이클 로스(2016).

‘동아시아 인문고전 교육’이라는 정체성에 초점을 두고 한문 교육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교양교육, 그리고 무엇보다 대학의 운명으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인문학의 위기를 강조하는 목소리가 늘 그렇듯이, 인문고전으로서의 한문교육이 지금의 대학 교육에서 얼마나 필요한지 그 당위성을 외치는 데에서 그친다면 공허함만 더할 것이다. 직업과 아무 관련 없는 교육이 최고의 교육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18세기에도 이미 통하지 않았다. 더구나 청년의 미래가 산업화 이래 가장 암울한 시기로 접어든 지금 우리나라에서 다시금 인문고전으로서의 한문교육을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눈을 잠시 돌려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한문고전 관련 교양과목들의 사례를 살피는 자리에서 논의를 다시 시작한다.

2. 각 대학의 한문고전 관련 교양과목 개설 현황

각 대학에 실제 개설되어 있는 교양과목들을 대상으로 하여 한문고전과 관련된 과목들을 살피고자 한다. 전수 조사를 거치지는 못했고, 우선 논의의 대상으로 삼기 위한 목적으로 접근 가능한 선에서 작성해 보았다. 개론적, 혹은 이론적으로 다루면서 한문고전을 자료로 언급하는 데에 그치는 것은 제외하고 특정 고전 텍스트에 초점을 맞춘 경우를 위주로 하였다. 일부는 교수요목이나 강의계획서를 구하지 못해서 과목명만으로 추측한 것도 있어서 보완을 요한다.

한문고전 관련 교양과목은 한문학과나 한문교육과 이외에 철학과, 중어중문학과, 국어국문학과 등의 인근 학과에서 개설하는 경우도 있고, 교양학부/학부대학/교양교육원 등 별도의 교양교육 전담기구에서 주도하여 개설하기도 한다. 본 발표에서는 한문학과/한문교육과와의 연계성이 중요한 논의 주제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해당 학과가 있는 대학들을 주요 대상으로 삼았다. 다만 서울대학교는 인문학에 대한 다양한 과목이 개설되고 있어서 참조자료로 함께 제시하였다. 대상 대학은 다음과 같다.

경북대학교, 경성대학교, 고려대학교, 공주대학교, 단국대학교, 부산대학교, 서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영남대학교, 원광대학교, 전주대학교, 조선대학교, 청주대학교, 충남대학교.[4]

이상의 대학에 한문 고전을 중심으로 개설된 과목들은 대략 다음과 같다.

	과목명	개설 대학교	비고
논어	논어, 처음 만나는 한문고전	고려대학교	
	법철학과 유가사상	고려대학교	논어 중심
	성균논어	성균관대학교	
	논어와 사람의 길	충남대학교	

4) 한문학과, 한문교육과가 있는 대학 중 강원대학교와 안동대학교는 홈페이지 상으로 검토한 결과 해당 과목을 찾지 못했고, 경상대학교, 계명대학교, 대구한의대학교 등은 접근이 용이하지 않아서 검토하지 못했다. 향후 보완하고자 한다.

	논어와 21세기	조선대학교	
	논어의 리더십	영남대학교	
주역	주역과 현대문명	성균관대학교	
	주역의 기호학	경북대학교	
	주역과 현대사회	조선대학교	
사기	사기의 인물과 시대	고려대학교	
	사마천의 사기열전	고려대학교	고사성어 중심
노장	도가사상의 지혜	부산대학교	장자 내편
삼국지	삼국지문화기행	부산대학교	
	삼국지인간학	조선대학교	
	새롭게 읽는 삼국지와 서유기	전주대학교	
한국역사서	삼국유사의 세계	고려대학교	
	삼국유사와 고려사의 세계	고려대학교	
	조선왕조실록의 세계	고려대학교	
	역사와 철학 한문원전 읽기	서울대학교	고려사 (강사재량)
	조선왕조실록보물찾기	원광대학교	
고전 종합	동양의 지혜	고려대학교	『신명심보감』
	동양고전의 이해	고려대학교	
	한국고전의 철학적 이해	고려대학교	
	인성고전	성균관대학교	유학 관련 고전
	동양의 지혜	성균관대학교	
	동서양고전산책	부산대학교	
	우리고전과 동양고전 엮어 읽기	부산대학교	『내 손 안의 고전』
	한국의 선비문화와 고전	경북대학교	
	동양고전과 리더십	충남대학교	
	한문고전과 삶의 지혜	충남대학교	
	동양고전읽기	경성대학교	
	동양고전의 산책	성신여자대학교	
	동양고전의 이해	전주대학교	
	중국고전읽기	공주대학교	
	동양고전과 인성리더십	청주대학교	
	동양철학의 고전	서울대학교	
	소그룹고전읽기	서울대학교	강사 별 고전 선택 수강생 5인 내외
	한문명작읽기	서울대학교	
	한국한문강독	서울대학교	난중일기 박지원 정약용 여한십가문초
주제 제시	한시, 영화와 엮어 읽기	고려대학교	
	한문소설과 야담	고려대학교	
	여행과 한중일 고전문학	고려대학교	
	사대기서와 중국문화	고려대학교	
	문학으로 본 동아시아 문명	고려대학교	
	고전문학과 역사기행	고려대학교	
	동아시아의 상호소통과 한자문명	성균관대학교	
	우리 한문고전의 라이벌	부산대학교	
	전통과 프로페셔널	충남대학교	
	한국문학과 여행	서울대학교	

위의 표는 개설 주체를 구분하지 않고 과목명을 중심으로 일별해 본 것이다. 대학의 '한문교육'에 주목하는 입장에서는 한문학과, 한문교육학과에서 설계하여 개설한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이지만, 동아시아 '인문고전'을 교양과목으로 개설한다는 틀에서 본다면 일단 '한문텍스트'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는 교과목들을 두루 살필 필요가 있다. 다만, 전공과목이 아니라 교양과목이라는 점에서 한문 원문의 독해 자체가 수업의 중심에 놓이기 어렵다는 현실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한문 교육의 범주를 넓게 보아서 한문 텍스트를 중심에 둔 교양과목 전반으로 논의를 확장하고자 한다.

우선 주목할 만한 사례 가운데 하나로 성균관대에서 개설된 「성균논어」와 「인성고전」이 있다. 성균관대는 학부대학 주도로 교육과정을 '성균인성', '교양', '기초'의 세 영역으로 나누어서 운영하고 있다. 그 가운데 '성균인성'은 '인성' 세 과목과 '리더십' 두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인성'에 속한 과목 가운데 동서양의 다양한 고전을 대상으로 하는 '고전읽기'를 제외한 나머지 두 과목이 '성균논어'와 '인성고전'이다. 다음은 두 과목의 요목이다.

○ 성균논어

동아시아 가치의 핵심고전 논어를 통해, 인간·자연·우주와의 조화를 지향하는 유학적 사유를 탐색하고, 현대사회의 핵심쟁점을 분석하여 논어가 여전히 현실학문으로서 의미를 지닐 수 있는지 점검한다. 나아가 성균인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인의예지·수기치인의 현대적 의의를 제고한다.

○ 인성고전

고전을 통한 인성함양을 목표로 개인적 성찰 및 주변을 배려하고 소통하는 바람직한 인품의 변화를 모색한다. 특히 우리 문화의 중요한 기반이었던 유학과 관련된 다양한 고전과의 만남을 통해 인성함양이 주는 현대적 의미를 검토함으로써, 성균인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인성 함양을 위한 실천적 자세를 추구한다.

모든 학부생이 '인성' 영역 세 과목 중 하나 이상을 반드시 들어야 하도록 의무화하였고, 그 가운데 두 과목이 『논어』와 유학 고전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한문학과에서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한계가 있고, 교수자와 학습자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교육 성취도를 살피기 전에는 온당하게 평가하기 어렵겠다. 그러나 대학 본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정의 결정과정에 해당 혹은 유관 전공 구성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만 확보된다면 한문고전의 교양과목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근래 강조되고 있는 '인성교육'의 맥락에서 마냥 긍정적으로 볼 수는 없지만, '논어 에세이 공모전' 및 단행본 간행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 스스로의 해석과 적용을 강조하는 방향이라면 잘 활용할 만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처럼 대학 본부가 주도하는 경우, 전통적 당위로서의 '인성'을 강조하고 수강을

의무로 규정하다 보면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게 될 위험이 있다. 그 사례로서 고려대학교에서 1995년 '바른 교육, 큰사람 만들기'를 표방하며 전교생 의무 이수 과목으로 개설한 「동양의 지혜」 과목을 들 수 있다. 과목의 개설 취지는 대학생들이 한국 사회가 당면한 도덕적·문화적 혼돈을 극복하고 동아시아의 윤리적 전통 위에서 미래의 지도자적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 교재가 『신명심보감』인데, 이는 서명만 빌려왔을 뿐 이전의 『명심보감』과는 전혀 관계없이 새로 편집한 책이었다. 우리나라와 중국의 한문고전을 주제별로 뽑아서 제시한 것으로서, 일반적인 『대학한문』, 『교양한문』 등의 교재들과 비교할 때 한문교육보다는 고전이 지닌 의미와 가치를 더 강조했다는 점에서 '인문고전으로서의 한문교육'의 사례라고 할 만하다. 그러나 모든 학생들에게 선택의 여지 없이 동일한 방식으로 강요됨으로써 적지 않은 불만을 낳았다. 지금 돌이켜보면, 고전으로 하여금 말하게 하고 학생들이 주체적·비판적으로 해석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옳은 길을 제시하는 식으로 접근한 데에 가장 큰 문제가 있었다. 게다가 주 교재가 한문만으로 이루어졌던 것도 전체 교양으로서는 제약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총장의 강력한 의지로 시작된 이 과목은 결국 개설 5년 만에 선택교양과목으로 전환되면서 수강생이 급격히 줄었다. 한동안 졸업요건에 걸린 복학생들에 의해서 인원을 채워 오다가 지금은 한 학기에 두세 강좌가 열리는 것으로 명맥만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주목되는 사실은, 한때 전교생 필수 과목이었다는 사실조차 잊혀져가는 근래 들어서 오히려 이 과목을 선호하는 학생들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점이다. 교수자의 역량과 교수법에 따라 좌우되는 면도 크긴 하지만, 대체로 한문 원전이 지닌 매력과 고전으로서의 의미 확장성이 일부 학생들에게 어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려대학교에서 근래에 개설된 과목들 가운데 주목할 만한 과목들은 전임교수가 직접 설계해서 '핵심교양'이라는 명칭으로 개설되는 과목들이다. 앞의 표 가운데 「논어, 처음 만나는 한문고전」, 「사기의 인물과 시대」, 「삼국유사의 세계」, 「한시, 영화와 엮어 읽기」 등이 한문학과 교수들이 만들어서 진행하는 교양과목들이다. 대학 본부에서는 소정의 과목 개발비와 강의조교를 지원할 뿐, 교과목의 내용과 방식을 채우는 것은 온전히 교수자의 몫이다. 교양교육위원회가 있어서 강의의 개설 여부를 심의하기는 하지만 큰 문제가 없는 한 교수자의 강의 설계를 그대로 인정해 주는 편이다. 한문학과 교수들이 개설한 위의 네 과목은 대체로 수강생의 지원율과 성취도가 높다. 정보 공개의 편의상, 발표자가 개설한 「사기의 인물과 시대」를 예로 들어 본다. 다음은 학생들에게 공개되는 강의계획서의 과목 소개 부분이다.

> 본 강의는 역사를 '사실의 기록'이 아닌 '시비의 의론'으로 본 동아시아의 전통을 이해하고, 인물과 시대를 평가하는 역사논평으로서 『사기』를 읽는 과목입니다. 그 대상이 되는 인물과 시대, 그리고 저자의 역사논평과 후대의 역사논평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역사를 보는 안목을 키우고, 이를 통해서 인간과 사회를 주체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따라서 본 강의는 주로 설명과 토론, 발표의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한문 원문이나 한자에 대한 부담은 가질 필요 없습니다. 일정에 따라서 학생들은 번역서로 해당 부분을 미리 읽고 수업에 임합니다. 수업 시간

에는 해당 인물의 기사 및 배경을 설명하고 그에 대한 사마천의 논평 및 후대의 논평들을 비판적으로 함께 읽습니다. 몇 번의 조별 토론을 거쳐서 한 학기 동안 본인만의 역사논평문을 써보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단순히 『사기』라는 텍스트에 대한 지식을 추구하는 데에서 나아가, 주체적이고 창의적인 사고와 표현을 중시하는 과목입니다.

이 과목에서 중점을 두는 것은 고전에 대한 비판적 읽기이다. 진행 과정에 핵심적인 문구들을 원문과 번역을 통해 제시하기는 하지만, 한문 독해 자체를 학습자에게 요구하지는 않는다. 해당 부분을 번역서로 미리 읽어왔다는 전제 하에 인물의 기사 및 배경 설명은 가능한 한 입체적이고 문제 중심적으로 진행하며, 후대의 논평들을 제시함으로써 고전에 대한 여러 가지 관점들이 존재할 수 있음을 학생들 스스로 알게 한다.

이 과목의 진행상의 특징은 튜토리얼 수업을 병행한다는 점이다. 고려대학교는 2년 전부터 희망하는 강의에 한하여 튜토리얼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교수자 이외에 조별 지도와 토론을 맡길 수 있는 몇 명의 티칭 펠로우, 즉 튜터를 두는 제도이다. 이 과목에서는 이 제도를 활용하여 여섯 차례의 조별 토론을 시행하였다. 조별로 나뉘어서 튜터의 진행 하에 '왕도와 패도', '동서고금의 복수' 등의 주제를 주거나 관중, 맹상군, 상앙, 형가, 항우 등 특정 인물에 대한 추가 논평 자료들을 제시하여 학생들이 발표하고 상호 토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전체 강의에서는 인원이 많아서 토론이 불가능하고 질의하는 학생도 국한되지만, 소수의 조별 수업에서는 튜터의 진행에 따라 모두가 참여하는 토론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교수자는 동시에 진행되는 여러 강의실을 다니며 관찰하고, 튜터들과의 사전·사후 회의를 통해서 진행 사항을 점검, 보완하였다.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튜터들도 학생평가의 일정 부분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이 과목을 몇 학기 째 진행해 오면서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 『사기』를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기 논리를 세워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사기』의 인물을 대상으로 자신만의 역사 논평문을 써보는 마지막 과제에서는 상당히 수준 높은 글들이 제출되었고, 그 가운데 우수한 글을 뽑아서 주제별로 지정 논평자를 붙여 패널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사기』라는 텍스트가 교양교육의 목적에 넉넉히 부합하는 인문고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비슷한 방식의 수업으로, 서울대학교의 「소그룹고전읽기」를 들 수 있다. 이 과목은 아예 수강생을 5명 내외로 제한하는 과목을 많이 개설해서 강사 별로 특정 고전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설계하였다. 2017년 1학기에 개설된 예를 살펴본 결과, 한문고전에 해당하는 과목도 몇 개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고전을 대상으로 하는 교양교육으로서는 더없이 이상적인 강의라 할 수 있다. 여타의 사립대학에서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겠지만 여건이 허락하는 선에서 다양한 변용의 가능성을 지닌 방식이다.

정규 교육과정은 아니지만 이와 비슷한 사례로 단국대학교의 '단국인재아카데미인문학특강'을 들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선발을 거쳐 형성된 소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토요일 종일 수업으로 1년 동안 진행된다. 주로 해당 고전의 권위자를 초빙하여 수업을 듣고 소그룹으

로 발표와 토론, 피드백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고전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과 지식을 습득하고 교양의 폭을 넓힘으로써 미래를 준비하는 힘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대상이 동서양 고전에 걸쳐 있긴 하지만 『논어』, 『장자』, 『사기』 등의 주요 한문고전들이 포함되어 있다.

고려대학교에서 CORE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인문고전학습프로그램도 형식은 다르지만 같은 취지로 설계되었다. 이는 대학의 교무 여건 상 정규 교육과정에서는 개설하기 어려운 고전어 학습과 고전 원전 강독을 위해서 별도로 만든 프로그램으로서, 학생들의 수요를 파악해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강사로 붙여주어 진행하는 방식이다. 동서양 고전을 다 포함하지만, 한문고전이 많이 개설되었다. 『논어』, 『맹자』, 『대학』, 『중용』, 『추구・사자소학』, 『도덕경』, 『전국책』, 『삼국지연의』, 『목민심서』 등의 9개 팀이 각각 수강생 5~20명의 참여하에 원전 강독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의외로 적지 않은 학생들이 인문고전으로서의 한문 강독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외에 앞의 표에서 보이듯이 『주역』이나 『삼국지연의』 등의 특정 고전을 내세운 과목들이 진행되고 있고, 인성교육을 강조하는 추세를 따라서 인성에 방점을 찍은 과목들도 있으며, 리더십이나 여행, 문화 등의 코드로 접근함으로써 학습자의 동기부여를 기대하는 예들도 보인다. 그 가운데 「우리 한문고전의 라이벌」이나 「전통과 프로페셔널」, 「한시, 영화와 엮어 읽기」, 「동아시아의 상호소통과 한자문명」처럼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고전을 새롭게 요리한 과목들은 학습자의 반응이 기대되는 시도들인데, 아직 구체적인 진행 내용과 결과 등을 살피지 못했다.

3. 변화의 틈으로 살피는 전망과 몇 가지 제언

몇 가지 사례들을 살펴보긴 했지만 일반화할 만큼 논의를 진행하기는 어렵겠다. 다시 주변의 몇 가지 지점들에서 시사점을 끌어낸 뒤에 부분적이나마 전망과 제언을 덧붙여 본다.

먼저 주목할 것은 대학 바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고전 교육들이다. EBS를 비롯한 여러 방송에서 한문고전에 초점을 맞춘 강의들이 높은 관심 속에 진행되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최근에는 각종 케이블 방송과 인터넷 방송 등에서도 다양한 고전 강연이 이루어지고 있고, 전국의 공립도서관이나 인문서적 출판사, 서점 등에서 개최하는 강연에서도 한문고전은 중요한 축을 이룬다. 플라톤아카데미처럼 인문 대중강연을 지원하는 단체도 있고, 협동조합의 형태로 인문고전 강연회를 여는 시민들도 적지 않다. 이러한 대중강연들은 그것을 기반으로 한 저서로도 발간되어서 더 많은 이들에게 한문고전이 공유되고 있다. 하나하나 구체적인 내용들을 검토해볼 일이긴 하지만, 적어도 한문고전에 대한 사회 전반의 수요가 작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대학 내에서 시도되고 있는 다양한 변화들이다. 먼저 동영상을 비롯한 각종 매체의 발달을 활용한 교수학습 방식의 변화인데, ‘거꾸로 학습법’이라고 하는 Flipped Learning이 언급되고 실행된 지는 이미 꽤 되었고, MOOC(Massive Open Online Course)도 점

차 확대될 전망이다. 인문고전으로서의 한문교육에 있어서 이러한 변화들이 약이 될지 독이 될지를 따지는 것은 무의미하다. 이미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다면 독이라도 약으로 만들 방법을 찾는 것이 현명하다.

대학의 변화는 교수학습 방식에 그치지 않는다. 교육과정과 학제의 개편이 전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생존을 위한 불가결한 선택이라는 엄중함과 함께 오는 변화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당위에 호소하는 것으로는 수세를 면키 어렵다. 대학 교육과 다음 세대의 변화에 있어서 한문고전이 지닌 독특한 장점들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지만, 다음의 몇 가지를 어설프게 제안함으로써 토론 거리로 삼고자 한다.

첫째, 교양한문, 실용한자 등의 과목을 넘어서 한문고전에 초점을 맞춘 과목들을 적극적으로 설계하여 개설할 필요가 있다. 대학 내에서 교육과정을 결정하는 과정에 학문 영토의식과 학내 정치역학 등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고전 텍스트를 전면에 내걸고 원전의 맛을 조금이라도 나누는 방향으로 차별성을 확보하고 주변 학과나 단위들을 설득시켜 간다면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이다. 학생들과 나눌 수 있는 한문고전이 무궁무진하다는 점은 한문(교육)학과가 지닌 가장 큰 자산이다. ‘동아시아 한문학[고전학]’이라는 시각이 이를 위한 유용한 도구요 전망이 될 수 있을 것이다.[5] 이는 단순히 한문(교육)학과의 개설 교양과목을 늘리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다. 학생들에게 평생 마음에 담고 살아갈 고전 한 권을 선사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의미를 지니는 교양교육이라고 생각한다.

둘째, 글쓰기, 말하기 교육에 있어서 한문고전의 활용 가능성이다. 교양 전반의 위축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만큼은 여전히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몇 편의 선행연구들이 나와 있다. 그에 추가하여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한문고전을 글쓰기, 말하기의 자료로 활용하는 데에서 나아가 글쓰기, 말하기의 전범으로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특정 고전 자체를 중심에 둔 지속적이고 깊이 있는 해석의 과정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성균관대에서 「성균논어」 강의를 바탕으로 ‘논어 에세이 공모전’을 개최하고 우수작을 모아서 단행본으로 간행한 것이 좋은 사례가 되며, 발표자가 진행한 「사기의 인물과 시대」에 참여한 학생들이 여러 역사 논평문들을 비판적으로 읽고 자신의 역사 논평문을 작성한 것 역시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다. 비판적 사유의 근거이자 발판으로서 더할 나위 없는 것이 한문고전이다.

셋째, 융합이 화두로 떠오르는 이 시대에, 한문고전이야말로 융합적 지식의 보고이다. 하버드대학에서 2007년 개혁한 교양교육은 ‘학제성(interdisciplinarity)’과 ‘해석적 이해(interpretative understanding)’를 핵심 가치로 삼았다. 학과 중심의 교육과정 편성이 아니라 학문 주제별 교육과정을 설계하면서 심미적·해석적 이해, 문화와 신앙, 실증적·수리적 추론, 윤리적 추론, 생명과학, 자연 세계의 과학, 세계의 여러 사회 등을 하위 주제로 제시하였다.[6] 각 학문 주제에는 다양한 학문 분야의 교수진이 함께 모여 전략적으로 교과목을 구성하고 팀티칭과 토론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했다. 그런데 주지하다시피 한문고전은 그 자체로 인문학을 넘어서 사회과학, 자연과학을 넘나든다. 한문고전을 읽으며 疇人보다는 通

5) 신상필(2010); 진재교(2014); 김용태(2016).
6) Harvard University FAS(2007).

人을 추구했던 전근대 지식인들의 사유를 이해해 가는 과정은, 분과별로 파편화되기 쉬운 학생들에게 새로운 시야를 제시하는 일이기도 하다. 이 점을 부각하면서 적절한 한문고전을 선택하고 교수학습법을 개발해 갈 필요가 있다.

넷째, 풍전등화 같은 인문학과 한문교육의 현실에서, 인문고전으로서의 한문교육을 위한 연대와 협력이 필요하다. 고전이 지닌 힘을 믿고 교수자 개인의 역량에 맡기는 것으로는 더 이상 세파를 뚫고 가기 어렵다. 앞서 살핀 사례들을 좀 더 유형화하고 구체적으로 성패를 가려서 공유하는 것도 그런 면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나아가, 대학 강단과 대학 바깥의 한문고전 강연들 사이에도 상호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다. 성공적인 노하우를 나누고 서로 넘나드는 활동을 통해서 외연을 확장해가야 할 것이다.

다시, 대학 교양교육과 인문고전으로서의 한문교육의 의미를 생각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전문 직업교육의 요구로 교양교육의 입지가 위축되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1828년에 제출된 <예일 보고서Yale Report>에서 이미 대학이 산업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난에 맞서서 "우리의 목적은 어떤 한 가지 직업에 필요한 특정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직업의 바탕이 되는 토대를 만드는 것이다."라고 역설했다.[7] 산업 현장에서 써먹을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적 수양인데,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고전을 공부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들이 고전 교육을 통해서 기를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은 '비판적 사고력'이었는데, 이는 어떤 직업에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능력이다.

스티브 잡스와 빌 게이츠는 대학을 중도에 그만뒀지만, 이는 그야말로 재능이 뛰어난 소수에 해당되는 사례다. 이를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면 시장경제 논리에 의해서 교양교육이 설 자리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럴 경우 결국 극히 소수의 혁신적 재벌과 그에 종속되는 대다수의 무지한 노동자/소비자만이 남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교양교육은 단순히 직업교육의 반대 개념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비판적 사고력을 결여한 채 시장의 부속품으로 자신을 내맡기는 이들로 가득한 사회는 상상하고 싶지 않다.

고전이 지닌 힘은 그 어깨에 올라탔을 때 확보되는 전망에 있다. 다름 아닌 그것이 바로 인문고전으로서의 한문교육이 지닌 전망이다. 중요한 것은, 학습자가 한문고전을 직접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일이다. 그리고 해석의 여지와 공간을 학습자에게 넉넉히 열어주는 교수학습법의 개발이다. 고전의 권위에 가려서 오늘의 문제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도 문제지만, 미리 방향을 정해서 몰아가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한문고전을 리더십 혹은 인성과 연결하여 강조하는 일에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 한문고전은 물론 리더십과 인성교육의 보고이지만, 그에 대한 접근은 열린 시각으로, 그야말로 인문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이 자유교육 이래 대학의 교양교육이 지닌 가치이다. 이것을 포기한다면 대학은 존립할 이유가 없다.

7) 마이클 로스(2016) 재인용.

<대학 교양교육과 한문교육에 관한 선행연구>[8]
김진경(2009),「대학 한문교육의 교수학습법 개발 방안 -교양 과목으로 개설된 한문 관련 수업 사례를 통해-」,『한문고전연구』19.
신상필(2010),「대학 교양으로서의 한문교육과 동아시아 한자문화권」,『한국고전연구』22.
진재교(2014),「동아시아 고전학과 한문교육」,『한문교육연구』42.
김용태(2016),「전국 한문학과의 교육목표와 전공과목편성에 대한 일제언」,『한문학보』34.

<대학 교양교육에 관한 참고문헌>
야스퍼스(1982),『大學의 理念』, 민준기 역, 경희대학교출판국. (Karl Jaspers, The Idea of the University)
리즈만(1984),『美國의 大學革命』, 이억순 역, 三星美術文化財團. (Riesman David・Jencks Christopher, The academic revolution, 1968)
다니엘 벨(1994),『교양교육의 개혁』, 송미섭 역, 민음사.
반덕진(1999),『대학과 교양교육』, 신광출판사.
최미리(2001),『미국과 한국 대학의 교양교육 비교』, 양서원.
임정택・최재천・장영준(2003),『국외 우수 인문교육 비교연구 및 활용방안』(인문정책연구총서 2003-08), 인문사회연구회.
이영석(2005),「대학 교육의 대중화와 교양교육의 전망」,『인문연구』49, 영남대학교인문과학연구소.
Harvard University FAS(2007), Report of the Task Force on General Education.
랜달 D. 하트(2007),『흔들리지 않는 고전교육의 뿌리를 찾아서』, 황병규 역, 꿈을 이루는 사람들.
임은정(2007),「대학 교양 교육과정의 결정과정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성우・최종덕(2009),「대학 교양교육의 위기와 인문학의 미래」,『시대와 철학』20-1.
노관범(2010),『대학 교양교육 진흥을 위한 정책제언』(인문정책연구총서 2009-3), 경제·인문사회연구회.
David B. Potts(2010), Liberal Education for a Land of Colleges: Yale's Reports of 1828. New York: Palgrave Macmillan.
오종욱(2010),「하버드 대학 교양교육 개혁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손승남(2011),『인문교양교육의 원형과 변용』, 교육과학사.
강창동(2012),「한국의 대학 교양교육의 현황과 특징 분석」,『한국교육학연구』18-2.
에하라 다케카즈(2012),『21세기 일본의 대학경영』, 윤택림・정승운 역, 타임기획.
함정현・민현정(2014),「대학 교양교육에서 고전 활용에 대한 연구 -한국・일본・미국 대학의 교양 고전교육 사례 비교-」,『동방학』30.
요시미 순야(2014),『대학이란 무엇인가』, 서재길 역, 글항아리. (吉見俊哉,『大学とは何か』)
윌리엄 J. 베넷(2014),『대학은 가치가 있는가』, 이순영 역, 문예출판사. (Bennett William J.・Wilezol David, Is college worth it? : a former United States Secretary of Education and a liberal arts graduate expose the broken promise of higher education)
다니엘 R. 드나클라(2015),『배움과 행복: 교양교육의 철학적 탐색』, 손종현 외 역, 양서원. (DeNicola Daniel R., Learning to flourish : a philosophical exploration of liberal education)
마이클 로스(2016),『대학의 배신』, 최다인 역, 지식프레임, (Michael S. Roth, Beyond the University : Why Liberal Education Matters, 2014).

8) 대학의 실용한자 및 교양한문 관련 연구는 제외하였다.

‘인문고전으로서의 한문교육 -대학 교양교육의 맥락에서-’ 토론문

김우정(단국대학교)

1. 자유교육 ≒ 교양교육 ≒ 인문고전 ≒ 한문고전 : 자유교육 또는 자유7교과는 전문적 기술 또는 직업의 습득이 목표가 아닌,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는 데 필요한 교육을 목표로 함. 이것이 ‘교양’으로 재해석된 뒤 그 수준과 목표에 변화가 나타나게 됨. 본고는 탄생 배경과 목표, 성격이 다른 영역들의 교집합을 주로 논한 느낌. 교육의 패러다임과 교수학습방법의 변화가 교양교육>인문고전>한문고전의 위계성에 더 초점을 맞추도록 한 것은 아닌지?

2. 한문교육에 있어서 ‘한문’과 ‘교육’의 관계 및 방법 : 소개한 바와 같이 교양교육에서는 ‘한문’ 원전을 직접 강독하는 것보다는 주로 (보조)자료로 다룰 수밖에 없어. 발표자도 이 점을 고민하고 있음이 분명한데, 교양교육에서 얼마나 가능할지?

3. 소개한 강좌 중 일부는 시민교육, 평생교육 또는 중등교육에서 다루기 좋거나 다루어졌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중등 학교교육이 오로지 입시를 목표로 한 교육으로 변질되다보니, ‘교양’ 또는 ‘인문학적 소양’을 닦기 위한 교육은 실종되어버렸음. 이를 대학 교양교육이 일부 떠맡고 있는 것이 현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담당교수의 적잖은 노력은 물론 전문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만만찮은 공이 들뿐더러 그 결과물이 미디어,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과 유사하거나 그만 못한 경우도 심심치 않게 나타남. 즉, 자칫하다가는 ‘질 낮은’, ‘그저 그런’ 교양강좌에 그칠 우려도 있음.

대학 전공 교육으로서의 한문교육

-反省과 미래적 진행 방향에 대한 試探-

김영주(성균관대학교)

【목차】

1. 들어가며
2. 한문교육 과정은 현실의 교육 상황에 발맞춰 변화·발전하고 있는가?
3. 한문교육과의 교육과정은 학생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있는가?
4. 한문교육과는 향후 지능정보사회를 향한 교육방향에서 자리매김할 수 있을까?
5. 마무리

1. 들어가며

본 연구는 대학 전공교육으로서의 한문교육에 대한 반성과 미래적 진행 방향에 대한 시탐을 목적으로 삼는다. 이와 관련한 기존 연구로, 사범대학 평가 인정제 도입과 관련한 것이기는 하지만 한문교육과 교육과정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선행 연구[1]가 있다. 2005년 당시 연구 대상이 되었던 전국의 10개 사범대학 한문교육과는 12년 만에 9개교로 감소하였고 대학의 사정에 따라 학과의 폐지, 학과의 정원 감축, 또는 통합 모색 등 대학 내에서 한문교육과의 지위는 불안함과 위기감 속에 있다고 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불안정하고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대학 전공으로서의 한문교육은 2005년 이후 2017년 현재까지의 다양한 교육여건, 교육환경의 변화 속에서 얼마나 변화하고 발전을 모색하고 있는가? 미래 한문교육과의 존립은 안전한가? 이에 대해 앞서 언급한 선행 연구에서 제기되었던 몇 가지 제언과 각 대학 한문교육과에서 제공한 교육과정 및 강의계획서 등과 몇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그 양상을 시탐해 보고자 한다.

1) 정재철, 「대학 한문교육과 교육과정의 현황과 문제점」, 『대동한문학』 제22집, 2005. ; 위 논문에서 사용한 교과교육학 영역과 교과내용학 영역의 구분을 통한 연구 내용과 방법을 본 논문에서도 수용하여 활용하였음을 밝혀둔다.

2. 한문교육 과정은 현실의 교육 상황에 발맞춰 변화·발전하고 있는가?

사범대학은 특유의 교육 목표 즉, 유능한 중등교사 및 교육관련 전문가 양성의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교육에 관한 기초이론 수강은 물론 중등교육에 관한 전공 및 실기를 연마하여야 한다는 제약이 더해진다. 이 때문에 사범대학 학생들은 교직이론, 교직소양, 교육실습의 3개 분야 관련 강좌를 최소 22학점 이상 이수해야 하며, 교과내용학에서는 교원자격증 표시 관련 기본 이수영역 및 개설과목으로 한문교육론·한문학개론·한문소설선독·경서강독·역대산문선독·한문학사·한시선독 등의 7개 기본 이수과목(분야) 등의 각 분야에 최소 1강좌씩 21학점 이상을 수강하여야 한다. 여기에 각 대학교 한문교육과의 전공 이수 기준 학점이 2000년대 초반에 비해 대체로 하향 조정되는 추세가 더해지면서 전공교육 과정의 내실화와 충실화는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실정이다. 학번별로도 이수 기준이 상이한 상황에서 드물게 이수학점이 상향으로 조정되기도 한다. 그러한 예가 원광대학교 사범대학 한문교육과이다. 이 대학의 2010학번의 전공이수기준은 '기본전공 15학점 이상 이수+선택전공이수=66학점'의 충족이었던데 반해, 2011~2015 학번의 경우는 '기본전공 15학점 이상 이수+선택전공이수=72학점'으로 상향되어 동일 전공의 학번 간에 전공강좌의 이수에서 6학점 이상의 차이가 발생하였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확장된 두 강좌만큼 학생들의 전공교육 참여기회가 증대하였다는 측면에서 나름의 교육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전공 이수 학점이 감소인 측면을 감안하면 한문교육과 교육과정에서의 교과교육학과 전공영역인 교과내용학 과목은 더욱 충실하고 밀도 있게 구성될 필요가 있다. 그것에 대한 제언 사례는 아래의 인용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①한문교육과 교육과정에서의 교과교육학 과목은 교과의 내용을 무엇으로 설정할 것인가 하는 '내용'의 문제와 함께 교과의 내용을 무엇으로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 하는 '방법'의 문제가 종합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결합되는 방식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
> ②전공영역인 교과내용학 과목은 학생들이 교직으로 진출하기 위한 관문인 임용고사에 대비하고, 학교 교육현장에서 요구하는 지식과 방법을 효과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과목을 중심으로 개선되어야한다.[2)]

정재철의 연구에서 제기된 ①, ②항의 제언은 한문교육과정에서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사항들이다. 그러나 당시에도 각 대학별로 위의 사항들이 충실히 달성되지 못한 문제적 상황이었기에 위의 제언으로 정리되었다. 이를 토대로 현재 각 대학 한문교육과의 교과교육학 강좌들과 교과내용학 강좌들을 비교하여 제시해 본다.

<표1> 각 대학 한문교육과 교과 및 교육학 관련 개설 과목

		교과 관련 과목	교육 관련 과목
강원대	2005	한문해석법지도, 한문지도법	한문교육론, 한문교재연구

2) 정재철, 앞의 논문, 18쪽 참조.

	2016	한문해석법지도, 한문교재연구 및 지도법	한문교육론, 한문과 논리 및 논술
계명대	2005	한문문법지도, 서예지도법1, 서예지도법2, 한자지도법	전통한문교재연구, 한문교재연구1, 한문교재연구2, 수업분석실습, 한문교육사, 한문교육과교육매체
	2016	서예지도법1, 서예지도법2, 한자지도법, 한문문법지도법, 경서지도법, 산문지도법, 한시지도법, 제자서지도법, 한문국역연습지도법, 한문교재연구 및 지도법	한문교육방법론, 전통한문교재연구, 한문교재연구, 한문과평가론, **한문교육프로젝트, 한문교육인턴쉽(1)·(2), 한문교육창업현장실습(1)·(2), 한문교육학기창업현장실습**
공주대	2005	산문교육론, 한시교육방법, 경전교수법, 한자교육의이론과실제	한문과교수법, 교재연구및지도법
	2016	한문교과교육론, 한문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한자교육의 이론과실제, 경전교수법	한시교육방법, 산문교육방법, 한문교과논리및논술,
단국대	2005	한시지도법, 한문지도법	한문과교육과정, 한문교육연구, 한문과교육론, 한문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한문과교육과정, 한문과수업방법, 한문과평가방법
	2016	한문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한문교과교육론, 한문과수업방법, 한문과교육과정, 한문교과논리및논술, 한문교육실습의이론과참관실습,
성균관대	2005	서예지도법1, 서예지도법2, 한문문법교육론	한문교육론, 한문학습지도1, 한문학습지도2,
	2016	서예지도법1, 서예지도법2, 한문문법교육론, 한문교육과미디어	어문정책과한문교육, 한문교재의역사, 한문교육론, 한문학습지도1, 한문학습지도2
성신여대	2005	한문문법교육론, 한국한시교육론, 한자교육방법론, 고전해석방법론, 한문산문교육론	한문과다매체교육방법론, 한문교육사
	2016	한문문법교육론, 한시교육론, 한자교육방법론, 경전교수학습지도법, 한문교과교육론, 한문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산문교육론	한문교육세미나
영남대	2005	한시감상지도법, 한문문법교육론, 서예지도법	중등한문교육과정및교재연구, 한문교육이론과수준별지도, 한문과 교육방법 및 평가, 한문과 자율교육 실습, 정보화교육
	2016	한문교재연구 및 지도법, 서예지도법, 한문과 진로지도(폐지), **한문과21세기삶**	한문 논리 및 논술
원광대	2005	한문학습방법, 한문교육연습	한문과교육론, 한문과교재연구, 한문학습평가
	2016	한문교재연구 및 지도법, 서예지도,	한문교수법, 한문교과교육론, 한문 논리 및 논술
전주대	2005	한문학기초교육론, 한문학독해입문지도론, 서예지도법1, 서예지도법2, 한어독해전문지도론, 한문독해전문지도론, 한문문법지도론, 경학사상지도론(중용), 한문문자지도론, 경학사상지도론(논어), 동양사적독해지도론, 중국한시지도론, 한문학지도론, 경학사상지도론(맹자), 한국한시지도론, 한문문장구조지도론, 한문소설지도론, 동양고전지도법, 한국고대산문지도론,	

		한문학비평지도론, 한문학지도론, 한국근대산문지도론, 한국사상교육론, 한국시화교육론	
	2016	서예지도법, 한문고사성어이해, 한문교재연구 및 지도법, 경학사상지도론(논어), 동양고전지도법,	한문교과교육론, 한문과 교육과정 및 수업론

위의 교과 및 교육 관련 과목을 살펴보면 정재철의 제언이 있던 2005년이나 거의 차이가 없음을 발견할 수 있다.[3] 교과 관련 과목에서는 대부분의 대학에서 주로 '지도법', '지도론' '교육방법' 등의 말을 덧붙여 교과 관련 전공 영역에 관한 과목들을 개설하였고, 교육 관련 과목에서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중·고등학교 한문교육과 교육과정의 내용을 부연하거나 일반교육학에서 말하는 과목을 단순하게 적용시켰다는 사실에 변함이 없었다.[4] 굳이 2005년도와 다른 점이라면 교과와 교육 관련 과목의 편차가 비교적 줄어들었다는 것과 간혹 몇 몇 대학에서 독특한 강좌가 개설되었다는 점 외에 여전히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방법'면에서의 진전된 노력의 결과는 찾기 어려웠다. 이를 개선하고자 노력한 사례로 영남대학교의 '한문과 21세기 삶'이 주목된다. 이 강좌는 한문과의 전통생활과 21세기의 삶을 연결해 보는 과정으로써 한문교육과의 실용적 전문역량을 갖춘 Y형 인재를 양상을 목적으로 개설되었다. 언어생활, 관혼상제의 등의 예제 속에 담겨 있는 한자문화 등을 내면화하여 자신의 인성 함양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한자문화의 내재화를 통하여 21세기의 삶의 문화적 콘텐츠를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계명대학교에서 개설하고 있는 '한문교육프로젝트', '한문교육인턴쉽(1)·(2)', '한문교육창업현장실습(1)·(2)', '한문교육학기창업현장실습' 등의 강좌인데 구체적인 강좌 내용을 아직 확인하지 못하였다. 교과명으로만 판단하면 교육 관련 강좌인 듯한데 평가는 P/F인 점을 보면 어떤 영역에 배치시켜야할지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 그런 점에서 강원대학교의 전학년 전공선택 강좌인 '꿈,설계 상담' 역시 교과의 속성이 의문스럽기는 마찬가지다.

<표2> 각 대학의 한문교육과 교과내용학 기초영역 과목

	2005	2016
강원대	기초한문1, 기초한문2, 문자학개론, 한문문법, 금석서예, 한문작문, 전공세미나, 고문진보강독	기초한문1, 기초한문2, 문자학개론, 한문문법, 금석서예, 한문작문, 고문진보강독, 한문학개론
계명대	초급한문, 한문국역연습, 한국고전해제	전공기초한문, 문자학개론, 한문학개론
공주대	기초한문, 한문문장및문법론, 한문국역연습, 한문해독및작문연습, 한문전통교재입문, 고문진보, 오경선독	기초한문, 한문문법론, 한문국역연습, 한문해독및작문연습, 한문전통교재입문, 한문학개론
단국대	한자학, 한문문법, 고전국역연습, 한문습작	금석서예1, 금석서예2, 기초한문, 문자학개론, 한문학개론, 한문학사입문
성균관대	한자의역사, 한국고전개론, 기초한문1, 기초한문2	한문문법개론, 한문입문1, 한문입문2, 한자의역사, 한문학개론, 한국고전개론

3) 연구자가 교과목명과 각 대학에서 제공한 교육과정이나 일부 강의계획서에 근거하여 판단한 것이기에 교과에 대한 이해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밝혀둔다. 이에 대해 추후에 자료를 확인하여 수정·보완할 계획이다.
4) 정재철, 25쪽 참조.

성신여대	기초한문1, 기초한문2, 서예1, 서예2, 중국어, 한문습작, 한국고전강독	기초한문1, 기초한문2, 서예, 사서입문, 한문학개론
영남대	문자학개론, 한국고전해제, 한문국역연습, 한문특강	문자학개론, 한문국역연습, 한문특강, 한문학개론
원광대	기초한문, 서당1, 서당2, 서예지도, 한문문법, 문자학개론, 한문작문	기초한문, 한문문법, 문자학개론, 한문작문, 한문강해, 한문학개론
전주대	한어학개론	기초한문, 한문독해입문, 문자학개론, 한문학개론

앞의 교과·교육 관련 과목에 나타나는 개선 노력의 정도에 비해 교과내용학의 기초 영역은 2005년과 거의 차이가 없다. 다만 다른 점이라면 이전에 기초 영역 강좌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대학교가 기초강좌를 확대한 것이나 서예와 서당 관련 강좌 등이 축소되거나 또는 기존에 서예 관련 강좌가 없었던 대학에서 해당 강좌를 개설하는 등 대체로 대학들간에 강좌의 개설을 균형 맞추려는 노력이 엿보인다는 점이 특징이라면 특징이라 할 수 있겠다.

<표3> 각 대학 한문교육과 교과내용학 문학영역 과목

	2005	2016
강원대	한문산문, 한국한문소설강독, 중국문학사1, 중국문학사2, 중국문언소설강독, 서발선독, 한국한문학사1, 한국한문학사2, 한국한시강독, 중국현대문강독1, 중국현대문강독2, 중국시가선독, 한문소설론, 한시론, 한문학비평, 시화선독, 한문소설특강, 한시특강, 잡록강해	한문산문, 한국한문소설강독, 중국문학사1, 중국문학사2, 중국문언소설강독, 서발선독, 한국한문학사1, 한국한문학사2, 한국한시강독, 중국현대문강독1, 중국현대문강독2, 중국시가선독, 한문소설론, 한시론, 한문학비평, 시화선독, 한문소설특강, 한시특강, 잡록강해
계명대	한시선독, 중국고문, 한문학배경론, 한시연구, 역대산문선독, 한문학비평론, 한문소설선독, 한문학사1, 한문학사2, 한문학특강1, 한문학특강2	한시선독, 중국고문, 한문학배경론, 한시선독, 역대산문선독, 한문학비평론, 한문소설선독, 한문학사1, 한문학사2, 한문학특강1, 한문학특강2
공주대	한국한문학사1, 한국한문학사2, 중국문학사, 한국역대산문, 한문소설론, 한시의이해와감상, 시화강독, 한문학특강, 실학시대와한문학, 한문학작품론	한국한문학사1, 한국한문학사2, 중국문학사, 역대산문선독, 한중역사산문강독, 한문소품선독, 한문문체연습, 한시선독, 한문소설선독, 한시의이해와감상, 시화강독, 여한산문강독
단국대	중국역대산문선독, 한국역대산문선독, 문학의이론, 한시론, 한국한문소설선독, 한국한문학론, 한국한문학사1, 한국한문학사2, 한국한문소설론, 중국한시선독, 한국한시선독, 한국한문비평론	중국역대산문선독, 역대산문선독, 문학의이론, 한시선독, 한시론, 한문소설선독, 한문산문론, 한시특강, 한중산문특강, 한국한문소설론, 한문학사, 한국한문학론, 한문국역연습
성균관대	한문학비평, 한국한문학사1, 한국한문학사2, 한문학연습, 나려산문, 한시론, 이조산문, 한국한문학특강, 문학이론강독, 국문학사, 한문소설, 역대한시선독	한문학비평, 한문산문의미학, 한문학작가의이해, 한국한문학사1, 한국한문학사2, 한문학연습, 나려산문, 한시론, 이조산문, 한국한문학특강, 문학이론강독, 국문학사1, 한문소설, 역대한시선독, 한문학연습, 한국한시특강
성신여대	한국한문학사1, 한국한문학사2, 중국문학사, 당시선독, 한국한문소설선독, 한국시화, 시경강독	한국한문학사, 한국한문학사특강, 역대산문선독, 역대한시선독, 중국문학사, 한국한문소설강독, 시화강독, 한문고전강독, 한문산문특강, 한문학연습
영남대	한문소설강독, 나려산문선독, 백화문선독, 한문소설론, 이조산문선독, 한국한문학사1, 한	한문소설선독, 나려산문선독, 한문소설론, 이조산문선독, 한문학사한문학비평론, 한시론, 한국

	국한문학사2, 중국산문선독, 한문학비평론, 한시론, 한문학통론	한문학통사, 한시선독, 한문국역연습, 역대산문선독, 한문고전읽기, 한문학통론,
원광대	한국한시선독, 한국한문학사, 중국문학의이해, 사부강독, 역대산문선독, 중국역대산문선독, 한문소설선독, 한문문체론, 역대시화강독, 한문산문론	한시선독, 한문학사, 중국문학의이해, 역대산문선독, 중국역대산문강독, 한문소설선독, 당송고문강독, 한국한시의이해, 한문문체론, 역대시화선독, 한문산문론, 한시론, 한국한문학의이해, 한문학작가론, 이조산문선독, 한문국역연습, 한문강해, 역대시화선독
전주대	한문학총론, 한국고대한문학발달론, 한국근대한문학발달론, 중국한문학총론	한문학사, 한시선독, 백화문선독, 조선한문학사, 역대산문선독, 한문소설선독, 중국문학발달사, 중국한시선독, 한문국역연습, 한국고대산문선독, 한국근대산문선독, 한국시화, 한문학비평

교과내용학 문학 영역의 경우, 변화·발전의 양상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존 강좌와 차이라면 앞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다른 대학의 개설 강좌와 균형을 맞추고자 하는 노력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지속된다. 이전에 없던 '소품'을 위주로 강의하는 '한문소품선독' 강좌가 개설된 것이나 한문으로 쓰여진 고전 중 특히 문학사에서 중요한 고전 100권을 선정하여 자각, 내용, 출판배경, 문학사적 의의를 살펴 학생들의 한문학적 소양을 확장시키려는 의도가 엿보이는 '한문고전읽기' 강좌가 개설된 것을 특징으로 꼽을 수 있겠다.

기존 강좌를 지속적으로 보존하고 유지하는 이러한 양상은 역사영역이나 철학 영역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아래의 표4, 5 참조)

<표4> 각 대학 한문교육과 교과내용학 역사영역 과목

	2005	2016
강원대	경서강독1, 경서강독2, 한국유학사, 제자선독, 심경선독	경서강독1, 경서강독2, 한국유학사, 노장및제자선독, 심경선독
계명대	경서강독1, 경서강독2, 제자서선독, 동양사상특강, 불경강독	경서강독1, 경서강독2, 제자서선독, 동양사상특강, 불경강독
공주대	동양사상의현대적이해, 논어인간학, 맹자강의, 주역과미래사회, 제자선독, 대학·중용의세계	동양사상의현대적이해, 논어인간학, 맹자강의, 주역과미래사회, 제자및고사선독, 대학·중용의세계
단국대	사서강독1, 사서강독2, 경서특강, 제자선독	경서강독, 오경선독, 제자선독
성균관대	경전강독1, 경전강독2, 경서특강	경전강독1, 경전강독2, 경서특강
성신여대	논어강독, 맹자강독, 중국사상사, 노장사상, 제자선독, 대학·중용, 한국사상사	한국경학강의, 오경강의, 제자선독, 한국사상원전강독,
영남대	사서선독1, 사서선독2, 경서특강, 제자선독	사서선독1, 사서선독2, 경서강독, 제자선독
원광대	경전강독, 유서강독1,	경서강독, 맹자강독, 제자서선독
전주대		경서강독, 중용강독, 경전강독(맹자), 경학사상지도론(논어), 제자선독, 한국사상교육론

<표5> 각 대학 한문교육과 교과내용학 철학영역 과목

	2005	2016
강원대	한국사서강독, 중국사서강독	한국사서강독, 중국사서강독
계명대	한국역사서강독, 중국역사서강독	한국역사서강독, 중국역사서강독
공주대	중국역사산문강독, 한국역사산문강독, 사기특강	한·중역사산문강독
단국대	사적선독, 전기선독	사적선독
성균관대	중국역사서선독, 한국역사서선독, 역사산문강독	중국역사서선독, 한국역사서선독, 역사산문강독
성신여대	한국역사산문, 중국역사산문	한국역사산문, 중국역사산문
영남대	중국역사서선독, 중국역사산문	중국역사서선독, 한국역사서선독
원광대	사기통감강독, 한국역사산문선독, 사적선독	통감강독, 한국역사서선독, 중국역사선선독,
전주대		중국사적선선독, 한국사적선독

3. 한문교육과의 교육과정은 학생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있는가?

한문교육 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통계조사는 아니지만 2016년에 이루어진 최문기의 연구를 통해 학생들이 인식하고 기대하는 전공 교육에 대한 시사를 얻을 수 있다.[5] 경북 소재 모 대학의 278명의 학생[6]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전공과목 수강의 목표에 대한 우선순위와 전공과목과 교양과목의 목표에 대한 우선순위를 분석하였다.

<표6> 전공과목과 교양과목의 목표에 대한 우선순위 비교

	항목	평균순위		항목	평균순위
전공과목	태도변화와 성숙	4.96	교양과목	눈높이 강의	4.34
	재미, 정서만족	4.37		태도변화와 성숙	4.15
	상호작용	3.76		상호작용	4.06
	취업도움	2.98		교양 지식의 확대	3.07
	관심고양	2.86		재미와 감동	2.80
	전문성	**2.07**		**교양분야의 관심과 탐색**	**2.58**

위의 표를 보면 전공과목이나 교양과목 모두 학문 분야의 전문지식 습득이나 탐색에 대한 것보다는 학생 자신의 태도변화와 정서만족, 교수와의 상호작용의 비중이 전공과목 수강을 통한 학문의 전문성 획득 보다 거의 2배가 넘는 수치를 나타낸다. 특정 지역, 특정대학 학생들의 생각이라 할 수 있겠지만, 교양과목에 대한 인식에서도 그러한 경향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 분명코 참조할 만하다는 생각이든다.

이와 관련하여 한 사례를 제시한다. 얼마 전 우리 학과의 졸업생들과 우연히 두 차례의 모임을 가진 적이 있었다. 첫 번째 모임은 학부를 졸업하고 우리 대학 다른 학과 대학원 석사과정을 졸업한 A와 미취업 졸업생 B와의 모임이었다. A는 학부 때부터 다른 전공에 취미와 소질이 있어 관련 분야의 해설사로 활동하며 자신의 적성을 확인하여 타 학과 석사과정을

5) 최문기, 「학생들이 인식하는 좋은 전공수업과 교양수업의 비교연구」, 『교양교육연구』 제10권 제3호, 한국교양교육학회, 2016, 325~348쪽 참조.

6) 같은 곳, 331~332쪽. 성별로는 남학생 98명, 여학생 180명이며, 학년별로는 1학년 108명, 2학년 77명, 3학년 41명, 4학년 51명으로 구성되었다.

무사히 졸업하였다. 그러나 B는 학부 시절 계속 성적장학금을 받을 정도로 우수한 학업 성적을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몇 차례의 취업 실패 이후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였지만 그마저도 되지 않아서 현재는 집에서 조카를 돌보고 있다고 하였다. B의 수학 능력을 언급하며 대학원 진학을 권해 보았지만 자신감 부족과 불확실한 미래를 이유로 거절하였다. 뿐만 아니라 다른 직종에 대한 취업 준비도 자신이 없다는 무기력한 반응이었다.

둘째 모임은 학부 1학년 때의 평점이 1.0~1.5였던 C와 D, 그 외 E 등과의 모임이었다. C와 D의 공통점은 학부 1학년 때 학사 경고자로 대면하여 예상 밖으로 상대의 평점이 낮은 것에 놀랐다고 할 정도로 평점을 받았던 학생들이다. C는 학부 1학년 때의 평점이 1.3 가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뜻밖에도 현재 국내 유수의 대기업에 입사하여 보람과 성취감을 즐기고 있었다. 물론 C가 우리 전공으로 입사한 것이 아니라 복수학위 과정으로 이수한 경영학으로 취업한 것이기는 하다. D는 처음에 일반 취업을 모색하여 종교계의 문화센터에서 1년 여간 근무하기도 하고 고민과 방황을 거듭하다가 상담을 통해 임용시험을 준비하여 1차례의 낙방 이후에 임용시험에 합격하여 현재는 지방 고등학교의 교사로서 열성적으로 근무하고 있다. E는 성적 우수 졸업자로 졸업식 때 여러 상을 수상한 이후에 1차례의 임용시험의 낙방 후에 합격하여 현재 지방 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고 있다.

예시한 A~E 졸업생의 사례는 대학 전공으로서의 한문교육이 학생들의 전공에 대한 몰입도와 진학, 그리고 취업에 어떤 실효성과 지향성을 가져야 할지 고민을 안겨주었다. 다른 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연구자 개인의 경험 사례를 연결하여 이러한 추론에 도달하는 것이 무모한 것임을 잘 안다. 향후 각 대학 한문교육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위의 내용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면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한문교육과가 직면한 상황들이나 대다수 재학생들의 복수전공으로의 진출, 우리 전공으로의 대학원 진학과 임용시험 준비를 주저하는 현실은 위의 설문 대상 학생들과 우리 학생들의 대답이 전혀 다르리라는 대답을 조심스럽도록 만든다.

4. 한문교육과는 향후 지능정보사회를 향한 교육방향에서 자리매김할 수 있을까?

2004년에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원양성체제 개편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대와 우수 교원 확보를 위한 교원 양성의 전문화·특성화의 필요를 이유로 「교원양성체제 개편 종합방안 시안」[7]을 제시하며 개편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시안에서 말하는 이상적인 교사는 '전문적 지식과 사명감을 겸비한 교사'이다. 지식이 기술정보에 관한 창조적인 지식 생산의 바탕이며, 도덕이 사회 질서의 근간을 형성한다는 21세기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전문지식인으로서의 교사 양성이 목표인 셈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도 방만한 중등교원 양성 체제의 방치와 교원수급의 불균형으로 이미 효력을 잃었음은 확인한 바이다.

그런데 다시 교육부는 2016년 12월에 제4차 산업혁명의 도래에 대응하여 대한민국 교육이

7)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양성체제 개편 종합방안 시안」, 교원양성체제개편추진단, 2004년 11월 25일.

중장기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과 그에 따른 추진전략을 제시한 '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한 중장기 교육정책의 방향과 전략(시안)'[8]을 발표하였다. 보고서에 의하면, 지능정보기술의 발달에 따른 미래 교육의 전망과 우리 교육이 처한 현실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2030년까지 우리나라 교육이 나아가야 할 다섯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지능정보사회를 선도하는 인재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필요한 전략을 수립한다고 하였다. 또 교육 전문가, 현장 교원, 교육 수요자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세부 정책과제들을 2017년까지 확정하고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시행되는 2018년에 학교 현장에서 적용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였다.

내용은 학생의 수업 선택권 확대와 교사 경쟁력 촉진이라는 효과를 기대하며 고등학교도 대학처럼 학점제로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다. 교육부가 제시한 중장기 교육방향과 전략은 '①[유연화] 흥미·적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교육, ②[자율화]사고력·문제해결력·창의력을 키우는 교육, ③[개별화]개인의 학습능력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④[전문화]지식정보기술 분야 핵심인재를 기르는 교육, ⑤[인간화]사람을 중시하고 사회통합을 이루는 교육' 이다. 이를 통해 아래 <표6>과 같은 변화를 기대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이 정책의 목적은 '④[전문화]지식정보기술 분야 핵심인재를 기르는 교육' 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보고서 내용에 의하면, 지능정보기술을 선점하는 기업이 시장을 독점하는 승자독식 구조가 강해지고, 지능정보기술의 경제적 파급력이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기에 지능정보기술 분야 인력양성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해당 분야의 우수인재 유인체계가 미흡하여 인력유출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지능정보기술의 핵심인 SW전문인력은 공급부족에 직면해 있다는 문제를 강조한다. 그리고 다가올 4차 산업혁명의 최대 부작용으로 지적되는 양극화의 심화(61.7%)와 대량 실업(14.7%)으로 인한 인간소외 문제와 제4차 산업혁명 속에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 인간만이 가지는 감성·사회성·윤리성 등을 키우는 교육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다.[9]

8) 교육부, 「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한 중장기 교육정책의 방향과 전략(시안)」, 2016.12.22.
9) 같은 곳, 4~6쪽.

<표6> 영역별 변화되는 모습

구분	현 재	지능정보사회
유연화	학년제 학교 내 교육활동 중심 오프라인 수업 중심 경직적인 2~4학기제	학점제 학교 안팎 교육활동 포함 온·오프라인 수업 병행 다학기제, 유연학기제, 집중이수제 등
자율화	교사 중심 획일적 강의식 수업 국가 중심 교육과정 운영 국가·교육청·학교 단위 총괄 평가 상대평가 중심 신임교원의 실무능력 부족 강의식 대학교육	학생 참여 중심 다양한 수업 모형 학교·교사 중심 교육과정 운영 교사 단위 수시·상시 평가 절대평가 중심 전문성과 실무능력을 갖춘 교원 자기주도 학습 기반의 대학교육
개별화	누적된 학습부진 학급단위 집합식 교육 학생부 중심 학생활동 기록 관 중심의 학습자료 제공 유선망, 데스크탑 중심 표준화된 학교모형	최소 학업성취 수준 보장 지능형 학습플랫폼 활용 개별화 교육 온라인 기반 종합 학습 포트폴리오 민·관 통합 교육콘텐츠 오픈마켓 무선망, 태블릿 PC 중심 다양한 미래학교 모형
전문화	초·중학교 SW교육 의무화 우수인재 양성 부족 우수인재 인력유출 현상 심각	모든 학교급 대상 SW 교육 활성화 지능정보기술 분야 우수인재 배출 우수인재를 유인하는 연구환경 조성
인간화	인간소외 문제 심화 우려 교육격차 확대 정보소외계층 정보 활용 미흡 성인의 학습기회 부족	인성교육을 통한 인간성 구현 교육격차 완화 정보소외계층 정보 활용 증진 성인의 학습기회 다양화

보고서 내용의 전체를 검토해 보아도 한문교육이 자리할 곳은 좀처럼 찾기 어렵다. 그나마 인성교육에 기여하리라는 기대를 걸어보았지만 그마저도 2015년 1월에 제정된 인성교육진흥법을 준거로 하는 학교예술·체육교육 활성화를 통한 전인교육 강화 중심임을 확인할 뿐이었다.[10)]

5. 마무리

10) 같은 곳, 6쪽.

<참고문헌>

홍병선, 「대학교육의 현실과 사회적 요구」, 『교양교육연구』 제6호(2), 한국교양교육학회, 2012.

정은이, 「대학에서의 좋은 수업에 대한 교수자와 학습자의 인식」, 『교육방법연구』 제22호(3), 한국교육방법연구학회.

장상호, 「교육의 재개념화에 따른 10가지 새로운 탐구 영역」, 『교육원리연구』 제2호(1), 한국요규원리학회.

유기웅·신원석, 「대학 교육과정 만족도 및 강의선택 관련 요인 분석」, 『교육문제연구』 제45호, 고려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2012.

윤소정·이유나·이상수, 「대학에서의 좋은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에세이 분석」, 『한국교육』 제36호(4), 한국교육개발원, 2009.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양성체제 개편 종합방안 시안」, 교원양성체제개편추진단, 2004년 11월 25일.

교육부, 「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한 중장기 교육정책의 방향과 전략(시안)」, 2016.12.22.

정재철, 「대학 한문교육과 교육과정의 현황과 문제점」, 『대동한문학

‘대학 전공 교육으로서의 한문교육 -反省과 미래적 진행 방향에 대한 試探-’ 토론문

김창호(원광대학교)

발표 잘 들었습니다. 발표의 취지는 ‘대학 전공교육으로서의 한문교육’의 반성과 개선 방향의 모색이라 생각됩니다. 발표문에는 각 대학 교육과정 등의 자료가 충실히 제시되고 있는 반면, 문제의식에 상응하는 ‘견해’는 구체적으로 서술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용과 관련한 몇 가지 질문을 통해 발표자가 진행해 온 ‘試探’의 핵심을 듣고 싶습니다.

1. 발표문에는 부제에서 언급한 ‘미래적 진행 방향’에 대한 내용이 명료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향후 추가할 결론 부분에서 서술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내용에 대해 개략적으로라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4면의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방법’면에서의 개선 노력 사례로 제시한 ‘한문과 21세기 삶’이나 ‘한문교육프로젝트’, ‘한문교육인턴쉽’ 등은 대학 차원의 교육이념, 인재상, 역량강화 등과의 관련선상에서 개설된 과목이 아닐까요? ‘반성과 미래적 진행 방향’의 적실한 예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3. “4. 한문교육과는 향후 지능정보사회를 향한 교육방향에서 자리매김 할 수 있을까?”는 본 발표문의 핵심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는 교육부의 案이 주로 제시되어 있고, 한문교육 관련 내용은 보이지 않습니다. 발표자 역시 한문교육이 자리할 곳은 좀처럼 찾기 어렵다(10면)고 적고 있습니다. 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한 정책 방향과 전략이 한문교육과 관련이 없는 것이라면, 한문교육은 무용론에 직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9면에 제시된 교육부 안의 “4차 산업혁명의 부작용으로 예상되는 양극화의 심화, 대량 실업으로 인한 인간소외 문제라든지, 제4차 산업혁명 속에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 인간만이 가지는 감성, 사회성, 윤리성 교육 교육의 강화 등”의 내용을 볼 때, 한문교육이 설 자리가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인성이나 윤리성을 한문교육의 텃밭처럼 생각하는 사고도 문제지만, 수천 년 동안 경험 단위의 축적이 이루어져 왔고 본질상 인간학이라는 한문학의 특성을 생각할 때, 계발 여하에 따라 미래의 사회에서 일정한 역할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능정보사회’에서의 한문교육의 역할 가능성, 전공교육으로서의 한문교육의 변화 방향에 대한 생각을 개략적으로라도 말씀해주셨으면 합니다.

4. 전공학습은 직업을 예비합니다. 현재 사범대 한문교육과 학생들의 진로는 교사 이외에

는 뚜렷한 대안이 없습니다. 번역가의 길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한문학습의 소요 기간, 난해성 등을 생각할 때 쉽게 권할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당장은 교사를 포함한 한문 관련 수요가 증가하리라는 희망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문교육 종사자의 입장에서 시대 변화의 어느 지점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수요 발생의 계기를 예측하거나, 수요의 창출을 위한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요의 예측과 계기 마련, 수요의 창출이라는 측면에서, 대학 전공교육으로서의 한문교육의 변화 방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표준화된 ‘대학한문입문’(가제) 교재 편찬 방향과 구성

김성중(계명대학교)

【목차】

1. 서론
2. ‘한문입문’ 편찬의 필요성
3. ‘한문입문’의 체제 및 구성
4. 여론

1. 서론

‘대학한문입문’(가제)(이하 ‘한문입문’으로 간칭) 교재 편찬에 대한 발표는 연구와 교학 경력이 일천한 필자가 감당하기에는 버거운 주제이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부족하나마 그동안의 고민을 말씀드림으로써 여러 선생님들의 질정을 구하고자 한다.

발표자가 구상하는 ‘한문입문’ 교재의 성격을 간단히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전문가들이 집필하고 규범성을 갖추며, 한문교육과 강의 및 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이 가능한 교재로, 그 구성은 ‘이론’과 ‘詩文選’의 유기적인 체재를 지닌다.”[1] ‘한문학과’를 함께 언급하지 않은 것은 교재의 성격을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편찬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위함이다. 아래에서는 이처럼 규정된 ‘한문입문’에 대해 필요성과 체제 및 구성에 대해 간략히 서술하고자 한다.

2. ‘한문입문’ 편찬의 필요성

교재를 편찬한다면 ‘무엇을’ ‘어떻게’ ‘얼마만큼’ 이라는 질문을 던지겠지만 본 발

1) 역시 거칠지만 ‘한문입문’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서술할 수도 있을 듯하다. ①일반성-특정 대학이 아닌 전국의 한문교육과에서 일반적으로 쓰일 수 있는 것. ②시대성-현재의 시점에서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 ③개론성-전문가가 집필하되 논문처럼 새로운 견해를 내기보다 기존의 연구 성과를 종합적으로 체계화시켜 제시. ④自學성-교수자 중심이 아닌 학습자 중심. ⑤체계성-‘이론’과 ‘詩文選’의 유기적 관련성 ⑥확장성-관련 작품, 사상 및 참고문헌 등 제시 ⑦연계성-중고등학교 한문 교과 및 임용시험과 연계

표에서 말하는 '한문입문' 교재에 대해서는 '왜'라는 질문을 함께 던져야 할 듯하다. 그리고 그 '왜'라는 질문은 '한문입문'이 지니는 기존 편찬서와의 차별성 및 그와 관련한 '한문입문' 편찬의 필요성에 대한 답을 요구한다. 여기에서 언급하는 차별성은 결국 필요성에 다름 아닌데, 서술의 편의를 위해 의도적으로 구분하였다.

첫째, '〜강독'[2] 등으로 명명된 한문학 작품 선집류와의 차별성이다. '~강독'류 편찬서는 '한문입문'의 '詩文選 '부분과 유사한 면이 있다. 강독 교재의 경우, 일반적인 편찬 목적은 한국한문학이든 중국문학이든 精髓라 일컬어질 수 있는 작품을 선정하여 강독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일 듯하다. 따라서 선정한 작품에 대해 작가 등에 대한 간략한 안내, 난해한 어휘 및 전고 등에 대한 풀이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체재, 구성은 교수자 중심의 강독 교재로서의 성격이 강하므로 학습자 중심의 自學 교재의 편찬이 요구된다.

둘째,『한학입문』[3]류의 편찬서와의 차별성이다.『한학입문』의 서술은 '한문입문'의 '이론' 부분과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다. 그러나『한학입문』은 한문학·동양학 전반을 광범위하게 포괄한다.『한학입문』의 서문에서 밝혔듯이 그 내용은 "전통시대의 학문인 漢學의 주요 내용과 방법을 소개"한 강의안의 정리이다. 漢學의 지식에 대한 방대한 내용은 '예학과 춘추학', '불교 한문'까지 포섭하고 있는데 이는 한문교육과 학생들의 목적성 있는 학습 범위를 다소 벗어난다고 할 수 있다. 특수 목적 대학인 사범대학 한문교육과의 교육과정은 개별 대학, 학과의 특성보다 국가수준의 교육과정(현재는 2015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 그리고 '교사자격종별 및 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이하 기본이수과목으로 간칭)과 긴밀한 관련이 있다. 전국의 9개 한문교육과에 개설된 과목 대부분이 10개 기본이수과목 "한문교육론, 한문학개론, 한문문법, 한문학사, 경서강독, 한문국역연습, 한시선독, 한문소설선독, 역대산문선독, 문자학개론"을 약간 확장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한문입문'은 기본이수과목에 관계된 이론들을 충실히 담아낼 수 있도록 편찬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셋째, 이론과 실제의 유기적인 관계를 이룬 '한문입문' 편찬의 필요성이다. 이론은 이론을 위한 이론이 아닌 실제 작품의 분석과 감상에서 확인되고 환류되어야 한다. 漢詩의 경우를 예로 들면, 한시의 갈래 및 형식, 압운, 대구 등 수사, 유파 및 그에 따른 詩體 등의 이론 지식과 감상 방법은 실제 작품의 독해에서 총체적으로 확인되고 적용되어야 한다. 개별적인 이론 지식의 교수는 전형적인 시구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지만, 실제를 통한 학습은 각 이론 지식의 총합에 의해서 그 목표를 충실히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상에서 언급한 차별성과 필요성 외에, "강의 시간에 강독, 이론 학습, 실제 작품 분석 및 감상이 모두 이루어질 수 있는데 굳이 왜 교재가 필요한가?"라는 질문에도 답을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교재의 필요성은 교수자의 불완전성에 근거한 관점(deficiency view)과 역할의 차별성에 근거한 관점(difference view)에서 파악된다. 전자는 교수자가 교수 요목을 모두 이해하여 적절한 양의 연습을 고안해 내는 데는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교재가 있어야 한다는 관점이고 후자는 교재를 교수자 이외의 전문가가 내린 최선의 결정을 전

2) 이러한 성격의 편찬서가 적지 않은데, 한국한문학 분야에서 대형서점에서 쉽게 찾아지는 것으로는 이혜순(1998),『한국한문학강독』, 집문당; 정대림(1997),『한국한문학강독』, 태학사 등이 있다.
3) 심경호(2007), 황소자리.

달하는 매체라고 보는 관점이다.[4] 그러나 한문교육과에서 '한문입문'의 필요성은 이 두 가지 관점과는 다소 다르고, 현재 한문교육의 상황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한문교육과 학부생들은 불확실한 미래를 걱정하며 전공 이외에 복수전공, 부전공을 이수하고, 또 영어, 중국어 등을 학습하기도 한다. 이처럼 다른 일(?)로 바쁜 학생들은 '한문 원전'이 곧 '교재'인 상황에서 사전 하나로 승부해야 하니, 엄청난 시간과 공력을 들이거나 아니면 번역본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교재는 '흥미와 관심'을 끌거나 '스스로 학습하고 이해할 수 있는' 교육 매체여야 하지만 한문 원전은 '압박과 공포'의 대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한문 원전'만이 제시된 교재는 학습자 중심의 교재가 되기 어렵다.

'한문입문'의 필요성은 학부 수업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한문교육과는 기본적으로 교원 양성기관이고, 학생들은 임용시험을 통해 교사의 길을 선택한 이들이다.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기본 이론의 정리와 주요 작품의 분석·감상이 담긴, 규범성을 갖춘 '그 서적'이 당연히 있을 법한데 한문교육에는 이러한 서적이 없다. 중고등학교 교과서 집필자와 중고등학교 한문 교사들이 느끼는 필요성도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사료된다.

3. '한문입문' 의 체재 및 구성

필요성과 차별성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은 '무엇을'[내용] '어떻게'[방법] '얼마만큼'[수준과 범위]에 담아야 한다. 이 논의는 여러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으는 작업이 수반되어야 할 부분이다. 필자가 만든 목차의 시안은 다음과 같다.

〈표 1〉 '한문입문'의 목차

이론	한자(문자학, 자원 등) ‖ 어휘(언어생활 한자 어휘, 한문 어휘) ‖ 漢詩 ‖ 文體 ‖ 문법 ‖ 修辭 ‖ 표점, 현토 ‖ 工具書(자전, 사전 등) ‖ 한문교육 관련 지식(정책, 교육과정 등)
詩文選	성어 ‖ 속담, 격언, 단문 ‖ 故事, 일화, 인물 ‖ 漢詩 ‖ 散文 ‖ 소설 ‖ 역사 ‖ 유가 경전 ‖ 제자백가

상기 목차는 현행 중고등학교 한문 교과서, 2015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 전국의 한문교육과의 교과목, 기본이수과목 등을 고려해서 만든 것이다. 구체적인 구성과 내용의 시안을 '이론-문법' 부문 중 '도치'를 통해 제시해 본다.

〈표 2〉 '본문'

※도치 한문 문장 구조의 기본 어순은 주어가 서술어 앞, 서술어가 목적어 앞, 수식어가 피수식

4) 배두본(1999/2014), 『영어 교재론 개관』, 한국문화사, 8~9면.

어 앞에 위치한다. 그러나 특정한 환경 아래에서 어순이 도치되는 경우가 있는데 목적어가 서술어 앞에 위치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1) 의문대명사가 목적어로 쓰일 때 거의 예외 없이 도치한다.
①子疾病, 子路使門人爲臣. 病間, 曰, "久矣哉, 由之行詐也! 無臣而爲有臣. 吾誰欺? 欺天乎! [← 吾欺誰] (『論語 · 子罕』)
②昔齊景公田, 招虞人以旌, 不至, 將殺之. 志士不忘在溝壑, 勇士不忘喪其元. 孔子奚取焉? 取非其招不往也. [← 孔子取奚焉] (『孟子 · 滕文公下』)

①에서 '誰', '天'은 모두 술어 '欺'의 목적어인데, 전자는 의문대명사이기 때문에 도치되었고, 후자는 명사이기 때문에 도치되지 않았다. 따라서 '吾誰欺'를 '내가 누구를 속이겠는가'라고 번역해야 한다. ②'孔子奚取'도 "공자가 무엇을 취했는가"라고 번역해야 한다.

2) 부정문에서 대명사가 목적어로 쓰일 때 일반적으로 도치한다.
①予三宿而出晝, 於予心猶以爲速, 王庶幾改之! 王如改諸, 則必反予. 夫出晝, 而王不予追也, 予然後浩然有歸志. [← 不追予] (『孟子 · 公孫丑下』)
②孟子曰, "事, 孰爲大? 事親爲大, 守, 孰爲大? 守身爲大. 不失其身而能事其親者, *吾聞之矣*, 失其身而能事其親者, 吾未之聞也. [← 未聞之] (『孟子 · 離婁上』)
③不患人之不己知, 患*不知人*也. [← 不知己] (『論語 · 學而』)

이 경우, ①의 '不予追', ②'未之聞' ③'不己知'처럼 부정문이라는 조건, 대명사가 목적어라는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도치가 일어난다. 둘 중 하나만 충족하지 못해도 목적어 도치가 일어나지 않는다. ②의 '*吾聞之*'는 대명사 '之'가 목적어이지만 긍정문이기 때문에 도치가 안 되었다. ③의 '*不知人*'은 부정문이지만 목적어 '人'이 명사이기 때문에 도치가 안 되었다.

〈표 3〉 '한걸음 더'

*목적어가 도치되는 또 다른 환경은?
☞ 어조사 '是', '之'를 사용하여 도치를 하는 경우도 있다.
徐子曰, "仲尼亟稱於水, 曰, '水哉, 水哉!' 何取於水也?" 孟子曰, "原泉混混, 不舍晝夜, 盈科而後進, 放乎四海. 有本者如是, 是之取爾. [← 取是爾] (『孟子 · 離婁下』)
'是之取爾'는 어조사 '之'를 사용하여 목적어 '是'를 도치한 것이다. 따라서 "이것을 취한 것이다"라고 해석해야지, "이것이 취했다" "이것이 그것을 취했다" "이

것의 취함" 등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그 외 다른 유형의 도치는 없는가? ☞ 어기의 강조 등을 위해 서술어가 주어 앞으로 도치되는 경우도 있다. 盆成括仕於齊, 孟子曰, "死矣 盆成括!" [← 盆成括 死矣] (『孟子 · 盡心下』) 이러한 도치를 특정한 환경에 의해서 일어나는 어법적 도치와 구분하여 수사적 도치라고도 한다. *특정한 환경 아래서 목적어가 도치 안 되는 경우도 있는가? ☞의문대명사가 목적어로 쓰일 때는 거의 예외 없이 도치하지만, 부정문에서 대명사가 목적어로 쓰일 때는 도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君子不重, 則不威, 學則不固. 主忠信. 無友不如己者. 過則勿憚改. (『論語 · 學而』)

〈표 4〉 '더 읽을거리'

참고 문헌

'본문'에서 목적어 도치를 두 경우만 제시한 것은 2015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을 따랐기 때문인데 '한걸음 더'에 있는, 어조사를 사용하는 도치를 '본문'에 추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문입문'의 내용 선정 및 기술 방법은 집필자에 의해 결정될 부분이나, 연구논저가 아니므로 집필자의 개인적인 생각보다는 학계 주류의 견해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할 듯하다. 또한 과도한 이론의 기술은 지양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의문대명사 목적어 도치의 예외를 거론하지 않은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본문'에서 도치가 일어나는 예만을 제시하지 않고, 특정한 환경에 맞지 않아 도치가 일어나지 않는 예[2)-③의 '不知人 등]를 통해 비교 설명한 것은, 이론 지식의 記述에 그치지 않고 所以然을 명확하게 사고하도록 도모하기 위해서이다. '한걸음 더'는 학생들의 탐구를 이끌 목적이었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본문'의 보충이 될 수도 있을 듯하다. '더 읽을거리'는 참고 문헌인데 서명만 제시하기보다 해당 문헌에서 어떤 내용을 구체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지 2,3줄 써 주는 것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참고가 될 듯하다. 예문의 인용 범위[1)-①에서 '吾誰欺? 欺天乎!'만 제시], 전체 번역문의 제시 등은 편찬의 과정에서 논의될 문제라고 생각된다.

'詩文選' 부문에서 '본문'은 작품 원문과 그에 대한 주석인데, 작가 및 작품에 대한 안내를 간략히 제시해주는 것도 필요할 듯하다. 해당 작품을 이해, 감상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정보는 가급적 교재 안에서 해결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작품에 대한 전체 번역은 필요 없겠지만 주석은 가급적 자세히 제시하여 학생들이 주석을 통해 작품을 충분히 번역, 이해, 분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듯하다.

주석의 구체적인 내용은 편찬 회의를 통해 결정되겠지만, 교수자의 강의 중심 아닌 학습자의 自學 중심, '이론'[예: 한자학, 문법, 수사 등] 부분과의 유기적 연계를 다시 한 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 '詩文選' 부문에서 '한걸음 더'는 본문에서 다룬 작품과 관련있는 작

품, 사상 등을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이 탐구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듯하다. 작품을 제시할 경우, 그 주석은 '본문'의 주석처럼 상세할 필요는 없다고 사료된다.

4. 여론

여러 부문의 총합체인 교재적 성격의 '한문입문'의 편찬은 1, 2인의 작업으로는 지속적인 수정을 담보하기 어려울 듯하다. '한문입문'이 편찬된 후, 새로운 연구 성과의 반영, 현장에서의 환류를 통해 수정 증보된 '한문입문'이 거듭 나오게 된다면 이는 우리 학계의 기쁨일 것이다. 아래는 기획 주제를 제안하면서 거칠게 작성했던, '한문입문' 교재 편찬의 이유와 활용이다. 거친 생각이 본고에서 정치하게 서술되지 않았음을 반성하며 그 거친 생각을 부언하면서 여러 선생님들의 고견을 구한다.

- 전공 과목 이수학점 감소. 이론 및 원전 독해 시수의 절대적 부족
- 독서백편의자현의 감성적 접근 외에 이성적 접근을 통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한문교육 정립 필요
- 해당 부문에 연구, 교학 경력이 풍부한 학자들이, 소속 학교를 넘어 전국적인 후속세대 양성 필요
- 한문교사 자격 연수, 직무 연수, 임용시험 등에 활용
- 중고등학교 한문 교과서로 파급 효과. 매번 바뀌는 교육과정에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한문교육 체계 확보.
- 교재 편찬 과정을 통해 현재의 교학, 연구 상황의 반성 및 향후 방향 모색
- 초ㆍ중고등학교의 한자ㆍ한문교과 교수자의 체계적 양성 도모

'표준화된 '대학한문입문' (가제) 교재 편찬 방향과 구성' 토론문

이동재(공주대학교)

김성중교수님의 「표준화된 '대학한문입문' (가제) 교재 편찬 방향과 구성」에 대한 발표 잘 들었습니다. 至難한 발표 주제임에도 귀중한 옥고를 발표해 주신 김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 의문과 소견을 밝히는 것으로 토론자의 소임을 다할까 합니다.

첫째, '대학한문입문' 교재 편찬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 대한 질문입니다. 김교수님은 발표는 '대학한문입문' 교재를 학습해야할 대상이 한문교육과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읽힙니다. 그리고 학습방법으로 학생 스스로 自學의 방법, 내용은 이론과 실제의 유기적 연관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오늘날 학생들은 학과의 선택은 물론, 수강 신청에 있어서도 자신의 현재적 필요성에 매우 민감합니다. '대학한문입문' 교재는 이러한 학생들에게 눈높이에 맞고, 흥미를 끌며 이들을 만족시켜야할 만한 무엇인가를 담고 있어야 합니다. 적어도 '대학한문입문'을 배운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대학한문입문'을 배우면 한문의 심화 학습에 많은 도움이 된다라는 정도의 필요성 담보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김교수님의 발표에는 대상과 방법, 내용을 '한자에서 한문관련 지식(정책), 성어에서 제자백가'를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기존의 한문학개론, 교양한문, 기초한문 등과 별다른 차별성이 없어 보입니다. 현재의 한문교육과 재학생들은 한문으로 기록된 문화(가칭 한문문화), 즉 농경문화에 경험이 거의 없습니다. 이는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과 거리가 먼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한문에 흥미와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현재 생활과 관련된 전통생활과 문화를 교재의 내용으로 하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이에 대한 김교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둘째, '대학한문입문'의 체재 및 구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래의 〈표 1〉 은 김교수님이 제한 체재 및 구성의 예시입니다.

이론	한자(문자학, 자원 등) ‖ 어휘(언어생활 한자 어휘, 한문 어휘) ‖ 漢詩 ‖ 文體 ‖ 문법 ‖ 修辭 ‖ 표점, 현토 ‖ 工具書(자전, 사전 등) ‖ 한문교육 관련 지식(정책, 교육과정 등)
詩文選	성어 ‖ 속담, 격언, 단문 ‖ 故事, 일화, 인물 ‖ 漢詩 ‖ 散文 ‖ 소설 ‖ 역사 ‖ 유가 경전 ‖ 제자백가

이는 한문교육 관련 지식(정책, 교육과정 등)을 제외하고, 현행 중등학교 한문교과서와의 차별성이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도치

한문 문장 구조의 기본 어순은 주어가 서술어 앞, 서술어가 목적어 앞, 수식어가 피수식어 앞에 위치한다. 그러나 특정한 환경 아래에서 어순이 도치되는 경우가 있는데 목적어가 서술어 앞에 위치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1) 의문대명사가 목적어로 쓰일 때 거의 예외 없이 도치한다.

①子疾病, 子路使門人爲臣. 病間, 曰, "久矣哉, 由之行詐也! 無臣而爲有臣. 吾誰欺? 欺天乎! [← 吾欺誰] (『論語 · 子罕』)

그리고 <표2>의 본문의 예시는 한문문법의 심화 학습으로 보입니다. 이는 '대학한문입문' 교재로서 그 내용의 적절한지 의문이 듭니다.

기존의 '대학 한문입문서' 교재에는 김교수님의 발표처럼 '한문의 정수' 라는 명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는 한문이 무엇인가? 한문을 어떻게 읽고 풀이할 수 있을까?, 한문의 범위와 내용? 한문의 역사적 전개 등에 대한 이해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제는 김교수님의 발표처럼 '독서백편의자현' 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한문입문서라면 적어도 한자의 기원과 발전, 한문이 무엇인가?, 한문은 어떻게 읽고 풀이하는가?, 한문의 내용은 무엇으로 구성되었는가?, 한문문화(가칭)는 무엇인가? 등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으로 이를 활용하여 한문 심화학습의 기초가 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김교수님의 견해는 무엇인지요?

두서없는 우문의 토론문을 들어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C-STAR’! 디지털 시대의 古典 敎育 方法

-大學의 漢文 講座를 중심으로-

백광호(전주대학교)

【목차】

1. 序論
2. 硏究 範圍 및 方法
3. 硏究 活動 實踐
4. 새로운 고전 읽기 프로그램 “C-STAR” 구안
5. 結論

1. 序論

요즘 사회에서나 대학가에서는 人文學 古典 讀書 熱風이 불고 있다. 거의 모든 대학에서 신입생이나 재학생을 위한 인문학 고전 독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고전 교육이 현대사회에서도 필수적이라는 것을 傍證한다. 하지만 그 실효성은 검증되지 못하였고, 고전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의 요구를 채우고 있는지 알 수 없다. 이에 대해 한양대학교 정민 교수의 다음과 같은 지적은 매우 적절하다.

> 떠먹여주기 식의 고전 교육은 치명적이다. 학생들에게 고전을 읽고 싶은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고전은 역시 지겹다’라는 역효과로 나타날 수 있다.[1)]

이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고전 읽기 교육에 대하여 가질 수 있는 부정적인 생각을 최대한 줄이면서 학생들이 고전을 진정으로 즐길 수 있는 방법을 구안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는 ‘고전’ 교육은 국문학 작품을 위주로 해석을 하고 감상하는 고전 문학 교육이 아니다. 이 연구에서 ‘고전’은 ‘시공을 초월하여 그 가치를 인정받은 작품’이며, 특

1) 교수신문. 2010년 11월 1일자.

히 그 중에서도 東洋 古典을 대상으로 한다.

古典은 시간적·공간적으로 현시대와 동떨어져 있을 뿐 아니라, 탄생과 전승에 복잡한 맥락이 개입되어 있다. 따라서 아직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고전의 필요성을 절감하더라도 선뜻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므로 고전을 읽고 거기에서 비롯된 문제들을 생각해보고, 생각한 바를 다른 사람들과 토론하며, 그 과정과 결과를 글로 써보는 과정 등과 같은 실제적인 활동이 필요하다. 또한, 고전 교육에 대한 이해가 충분한 교수자들이 학생들에게 적극적인 고전 읽기의 동기를 부여하여, 학생들이 나름대로 이해에 도달할 수 있도록 격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古典 敎育의 必要性은 누구나 인정하지만, 현장에서의 고전 교육은 그야말로 '苦戰'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저 책 목록을 주며 읽으라고 권장하거나 에세이 공모대회 등의 소극적 차원에 머물러 있어서 목록 중심, 독본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2] 또한 고전 읽기 교육 목적에 적합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실제적인 교수학습 방법은 개별 교수자의 능력에 맡겨 두고 있는 실정이다. 고전 강의를 시행해온 교수들은 대학에서 고전을 가르치는 건 간단치 않은 일이라고 선을 긋는다.[3] 고전 읽기는 텍스트 이해를 전제로 하는데, 텍스트를 읽어내는 것조차 학생들에겐 버거운 과제이고, 결국 학기 중반을 넘어서면 교수가 읽고 해석하는 식으로 수업 진도를 맞추기 일쑤라는 것이다.

따라서 인문학 고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대학의 실태 분석을 통해 고전 교육의 현재를 분석하고, 고전 교육의 새로운 의의를 현대적인 관점에서 다시 바라보고 이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고전 교육의 새로운 의의를 교수학습 방법에 초점을 두고 진행된다. 이 연구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부분의 대학에서 실시하는 고전 읽기 교육은 구체적인 교육목표나 방향을 제시하지 못한 채 학생들에게 '독서'라는 수동적인 행위를 요구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 제시가 필요하다.

둘째, 인문학 고전 읽기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확대되고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도 전에 강압적인 고전 독서 교육이 이루어지다 보니, 학생들은 스펙을 위해 그저 따라가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고전 독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수학습 방법 모색이 필요하며, 이것이 학생 개개인의 어떤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지 구체적인 탐색이 필요하다.

셋째, 고전 읽기 교육은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협동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데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대학에서의 고전 읽기 교육을 통해 평생 고전 독서를 실천하는 습관을 형성하는 밑바탕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고전 읽기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실행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학생 중심 교육과정의 확대는 대학까지 그 연장선이 유지된다. 자율적 배움을 실천

---

2) 심경호(2000),「한국 고전문학교육의 현황과 과제」,『문학교육학』제6권, 한국문학교육학회, p.317.
"제한된 독본 중심의 교육이 창의적 독서활동을 방해"

3) 박구용 전남대학교 교무부처장(철학과)은 "참고서나 개론서 등 2차 문헌 중심의 교육체계에 익숙한 학생들에게 고전을 가르친다는 건 어쩌면 불가능한 일인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고전읽기는 텍스트 이해를 전제로 하는데 텍스트를 읽어내는 것조차 학생들에겐 버거운 과제이고, 결국 학기 중반을 넘어서면 교수가 읽고 해석하는 식으로 수업진도를 맞추기 일쑤라는 것이다. (교수신문, 2010년 11월 1일자)

해야할 대학생들에게 위에서 아래로의 일방적인 고전 읽기 교육을 하는 것은 아이러니한 현상이다. 따라서 고전 교육 역시 학생 중심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현행 고전 교육의 문제점과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고전을 읽히는 것이 아니라, 고전을 통해 깨닫고 실천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상호작용적 고전 읽기 방법론'을 제안하고자 한다. 상호작용적 독서 전략을 활용한 인문학 고전 읽기 교수·학습 방법론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문학 고전 독서를 실시한 독자가 다양한 방식의 상호작용적 독서 모델을 통해 고전 읽기 혁신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학습자들의 상호협력 활동을 통해 창의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기르고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통해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학생 중심의 능동적 참여가 가능한 상호작용적 독서 전략을 시행할 수 있는 새로운 고전 읽기 프로그램을 구안한다.

2. 硏究 範圍 및 方法

이 연구에서 언급하는 '고전'이란 '시공을 초월하여 그 가치를 인정받은 작품'을 의미한다. 물론 고전의 범주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출입이 있다. 이 연구의 대상은 한국의 주요 대학들에서 고전으로 선정한 텍스트들 가운데 東洋 古典에 해당하는 문헌이다. 본 연구의 수행 방법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는 자료 및 문헌에 대한 검토 연구로, 각 대학의 고전 교육 방법론에 관한 자료들을 수합하고 이를 검토 분석하여, 이와 함께 고전 교육의 전문가들이 만든 고전 교육에 관련된 논문이나 출판물 등을 분석한다.

둘째는 설문이나 인터뷰 방식의 현지 조사 연구로, 중·고교 교사나 대학의 고전 교육 담당자 인터뷰 등을 통해 본 연구에 최적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확립해 간다.

셋째는 전문가 토론회 및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 연구로, 전문가들이 진단하는 현 고전교육의 문제점을 올바로 직시하고, 살아있는 고전교육을 위한 방법론을 세워 나간다.

3. 硏究 活動 實踐

1) 중·고교 교사 인터뷰 및 전문가 자문

중·고교에 재직 중인 교사 인터뷰를 실시하여 중등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고전 교육 정도를 파악하고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수준을 파악하여 본 연구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방법들이 학생들에게 적절한지 사전 조사를 실시하였다. 교사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고, 대학에서의 고전 교육에 바라는 점을 개진하였다.

중·고교 교사 인터뷰는 주로 중·고교 학생의 고전교육 실태, 대학에서의 고전교육을 통해

달성하면 좋을 요소, 여섯 가지 실행 방안에 대한 각각의 타당성 등을 물었다.

먼저, 중고교 학생들의 고전교육 실태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았다. 현행 우리의 교육과정에서 고전 교육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교사들은 고전이 학생들에게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인간 공동체 생활 속에서의 각자의 역할에 대한 통찰과 깨달음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일부 상위권 학생들의 대입 논술을 대비하기 위한 '방과후수업' 특별반, 일부 학교의 특색활동 프로그램 등의 정도로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많은 교사들이 '대부분의 학생들은 수능 시험과 혹은 내신 시험과 관계없는 책은 전혀 읽지 않는다. 그리고 실제 중·고등학교 현장에서는 고전 교육의 의미를 제대로 살린 수업을 할 수 없는 구조이다,' 라고 하였다.

교사들은 고전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건전한 가치관과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하고, 고전 독서에 자발적인 관심과 흥미를 가지며, 인문, 사회, 과학, 예술, 문학 분야의 고전을 두루 접해 수준 높은 교양을 형성하게 할 수 있기를 기대하였다.

다음으로, 이 연구에서 구안한 여섯 가지 실행방안에 대한 타당성을 살펴보았다. 교사 인터뷰를 통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논의는 다음과 같다.

논의 1. 각각의 활동이 개별 활동인지 연계된 활동인지?

이 연구에서 제안한 실행방안들은 고전에 바탕을 둔 창의적인 언어활동의 중요성에서 출발한 것이다. 고전은 그 자체가 典範으로 인식되고 학습의 대상이 된다. 인류는 고전을 학습하면서 고차원적인 사고 활동과 그에 상응하는 언어 표현력을 길러 왔고, 고전을 재해석하거나 비판하는 창의적인 언어활동을 통해 새로운 지혜를 얻고 지식을 확장할 수 있으므로, 고전에 바탕을 둔 창의적인 활동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Korea Great Books Program(이하 KGBP)나 하브루타 러닝과 같은 독서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자기 주도적으로 고전 독서 습관을 기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독서 활동 후, 학생들은 고전 창의적 글쓰기 콘텐츠 저작 활동, PT 페스티벌, 스피치 활동 등의 표현 활동 중 하나 혹은 여러 개를 선택하여 참여하는 것이다. 한 편의 고전을 읽고 이해하며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과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함으로써 고전 수용, 소통, 비평과 평가 등의 여러 활동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다.

논의 2. 대학 교양 교육으로서 상호작용적 독서 프로그램인데, 독서 프로그램에 대한 피드백이 충실하게 진행될 수 있는지?

학생들이 고전 독서를 하고 그와 관련한 과제나 대회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고전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태도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학생들이 평생 동안 여러 분야의 고전을 스스로 찾아 읽으려면 긴 호흡으로 깊이 있는 성찰이 수반되며 고전을 읽는 경험 자체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학생들에게 독서 프로그램을 제공해주고 관련한 과제나 대회 등을 개최하는 것이 학생들이 고전 독서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능동적인 독자가 되어 고전을 즐겨 읽는 태도를 형성하도록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이다.

논의 3. 전주대학교만의 특화 프로그램인지?
이 프로젝트에서 구안한 독서 프로그램은 전주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도하지만, 특정 대학의 학생들만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대학에서의 기초 고전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고전을 통해 알게 된 사실과 깨닫게 된 점을 바탕으로 세계를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교양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어려서부터 지속적인 고전 교육이 이루어져야하고, 개개인마다 고전 학습 준비도, 성취 도달 정도 등의 개인차가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고전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해야한다.

교사 인터뷰를 바탕으로 대학에 투입할 고전 교육 방법을 보완하고, 보완한 자료를 다시 대학 고전 교육 담당자들에게 보이고 자문을 받았다.
먼저, 대학생들의 고전 교육 실태를 정리한 결과이다.

▷ 주로 교양 교과과정에 "고전" 관련 과목을 편성하여 학생들의 고전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고전 교육 과목으로는 <인문학 고전 강독>, <현대생활과 고전 읽기>, <한국 고전문학과 사랑>, <서양 고전문학과 현재>, <현대 사회 속의 서양 고전> 등을 매학기 개설하고 있으나, 교과과정으로 진행하는 고전 교육은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자유로운 상상력을 배양하는 데에 제약이 많다. 교과과정을 이수하는 학생들이 추구하는 목적은 대체로 학점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학생들의 요구와 고전 교육의 목적이 서로 충돌하는 상황이다. 결국 교과과정을 통한 고전 교육은 "고전에 관한 지식의 습득"에 머물게 될 뿐이다.
▷'인문고전읽기' 과목을 매학기 전체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대학의 인문 고전읽기 교육은 대부분 1개 학기에 마무리되고, 또한 주어진 책에 대한 통독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지를 확인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고전의 통독과 다독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
▷ 대학에서 시행하고 있는 고전 교육 프로그램에 학생들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참여가 중요한데, 학생들은 고전 교육 프로그램을 졸업을 하기 위한 혹은 학점을 취득하기 위한 방편으로 여기고 있다.
▷ 임용 시험이나 공무원 시험, 혹은 취업 대비 독서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고전 교육이 중등 교육에서 제대로 실행된 적이 없는 탓에 고전 교육을 위한 최소한의 교육 지침 또한 없다. 따라서 고전 독서를 한 후 기본적으로 살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 중등 뿐 아니라 대학 기초 교양 교육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읽고 쓰고 말하고 듣는 네 가지 요소를 아우를 수 있는 종합적인 고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학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어떻게 하면 학생들에게 자발적으로 고전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억지로 독서를 시킬 수도 없고, 지금과 같은 입시, 취업 구조 속에서 억지로 고전 독서를 하라고 할 수는 없는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고전 독서는 반드시 해야 하므로 학교 실정에 맞는 독서 프로그램이 개발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대학에서 고전 교육을 통해 달성하면 좋은 요소를 물었는데, 대체로 문제 해결 능력 함양, 미래 사회 대비 대응 능력 함양, 자기 정체성 확립, 공동체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인성 함양 능력 배양 등이 이야기되었다. 고전 교육은 "고전에 대한 교육"이나 "고전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고전을 통한 교육"이다. 그러므로 고전을 통하여 개개인이 "스스로 사유하고 판단하여 표현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고전 교육의 가장 핵심적 요소라는 의견이 다수였다.

오늘날은 지식기반사회로 다양한 지식을 단순히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게 적절한 정보를 찾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능력을 키워야 한다. 이러한 시대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인재가 되려면, 성숙한 자아의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기능을 익혀 진로를 개척하고 새로운 이해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창의적인 사고력과 태도를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 따라서 현재를 성찰하고 나아가 비판적,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을 키우기 위한 토대가 바로 고전 독서라 할 수 있다.

이어서 실행방안들에 대한 타당성을 물었는데, 이에 대한 의견 정리는 추후 논문을 투고할 때 소개하도록 하겠다. 현재 대학마다 대부분 1개 학기에 고전 독서 과정을 개설하고 있는데 한 학기 동안의 고전 읽기는 실질적으로 수박 겉핥기식에 불과하다. 한 학기에 고전 읽기를 끝낸다는 방식이 아니라 고전 읽기 습관을 형성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이기는 하지만, 대학 8학기 동안 고전 읽기 과목을 개설하여 예를 들면 첫 학기 고전 10권 읽기, 두 번째 학기 15권 읽기 등으로 독서량을 늘려가는 것이 실질적으로 고전 교육을 통한 잠재능력과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지 몇 권의 고전을 심도 있게 읽은 것으로 고전 교육의 힘을 기대하는 것은 緣木求魚에 가깝다. 따라서 어떻게 하면 고전을 재미있게 많이 읽게 할 수 있을 것인가가 고전 교육 성패의 관건이라 할 수 있다. 독서량이 많아질수록 읽는 속도는 더욱 빨라지게 되고, 독서량 확대로 인한 이해력, 인지력 상승 작용으로 분석력, 통찰력 등이 확보되어 고전 읽기의 효과 역시 배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당 연구를 통해 대학에서 장기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 이러한 실행 방안에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매개체로서 고전 창의적 글쓰기, 하브루타 러닝, 고전콘텐츠 저작활동, 고전PT 페스티벌, 고전스피치 활동 등을 선택적으로 또는 유기적으로 접목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화하여, 효과적이고 실행 가능한 고전 교육 방법론이 도출되기를 바란다는 대학 고전 교육 담당자들의 자문 의견을 토대로 프로그램을 보완하였다.

2) 영역별 자료 및 교수·학습방법 개발

기초 교양 교육은 학생들의 장래 직업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시대를 살아가면서 가져야 할 삶의 혜안을 위한 것이다. 급변하는 미래 사회에 합리적이고도 창의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람을 길러내는 것을 목표로 하여 고전 읽기 교육을 선택해 운용하는 대학들이 많이 있다. 하지만 고전 읽기 교육을 시도하고는 있지만, 뚜렷한 교육목표나 방향이 확립되지 않

아 단순히 '독서' 활동에만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자신의 삶과 세계와 관련한 다양한 과제를 지적으로 해결하는 능력과 타인을 배려하고 타인과 공존하는 태도를 갖추도록 하는 실질적인 고전 읽기 교육 방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과거에 '읽기'는 독자가 그저 수동적으로 글 속의 정보를 '재생산'하는 것으로 여겼는데, 최근에는 능동적으로 '의미'를 구성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이 상호작용적 관점인데, 이에 따르면, 읽는 행위는 독자, 글의 특성, 학습 맥락, 읽기 전략의 상호작용에 의해 이루어진다. 즉 읽는 행위는 독자, 글, 맥락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효율적인 독자는 이 상호작용을 의미 있게 이끌어내기 위한 방법을 익힐 필요가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상호작용적 읽기 교수·학습 방법을 개발하고자 한다. 이 방법들은 학생들을 고전 읽기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하고, 학생들의 사고를 자극하여 유목적적인 고전 읽기, 독립적인 학습자로 나아가게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실시하는 고전 읽기 교육 방법은 말로 하는 읽기라고 할 수 있는 '하브루타 러닝', 자율적 독서 활동인 'Korea Great books program', 창의적 고전 글쓰기인 '패러디 글쓰기', 자신이 이해한 고전을 영상물이나 자신의 언어로 재구성하는 '고전 콘텐츠 저작활동'이나 '고전 PT 페스티벌' 등이다. 각각의 방법들의 절차와 과정은 추후 투고 논문에서 상세히 소개하겠다.

3) 적용 및 실천

두 개의 교양 강좌에 이러한 고전 교육 방법을 도입한다. 이 방법은 새로운 고전 읽기 프로그램으로써 상호작용적인 고전 읽기 교육을 모토로 한다. 두 강좌에서 실천한 결과를 교수·학습 투입 과정, 교수·학습 투입 결과인 학생 자료, 실행 후 학생과 교수자가 느낀 소감 등으로 분석·정리할 예정이다.

전주대학교 교양 강좌인 <중급한문>에서 『맹자』를 읽으며 이 프로그램을 투입한다. 이 강좌는 전국시대 사상가인 맹자의 저서 『맹자』 강독을 통해 당대의 사상, 정치, 교육, 등을 알아보는 과정으로, 정확한 어순에 따른 한문 번역과 동양 고전에 담긴 사상과 정신세계를 이해하는 데 목표를 둔다. 주요 교재는 『맹자』(강동석 역주, 이담, 2015)이고, 부교재는 『맹자집주』(성백효 저, 전통문화연구원, 2010)와 『맹자 사람의 길』(김영옥 저, 통나무 2012)이다.

강의 중에 'C-STAR 프로그램'을 공지하고 활동 안내를 한다. 패러디 글쓰기 활동으로 예를 들자면, 우선 학생들에게 『춘향전』을 패러디한 이광수의 『일설 춘향전』, 안수길의 『이런 춘향』, 최인훈의 『춘향뎐』 등을 소개해 준다. 또한 영화 '광해'가 『조선왕조실록』의 일부 결락된 부분에서 창의력을 발휘한 창작물이며, 드라마 '대장금'이나 '여인천하' 등이 실록에서 모티브를 뽑아 창작된 결과임을 실제 문헌을 통해 확인시켜 준다. 이를 바탕으로 『맹자』를 통해 새로운 영화나 연극, 음악, 게임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생산해 낼 수 있는지에 관한 창의적 글쓰기인 패러디 글쓰기를 제시한다. 강의자와 학습자의 활동 후 소감은 추후 투고문에서 소개하겠다.

또 하나의 강좌는 <이야기로 배우는 중국역사>이다. 이 강좌에서는 司馬遷의 『史記列傳』을 읽으며 이 프로그램을 투입한다. 이 강좌는 자칫 딱딱하거나 장황할 수 있는 중국의 역사를

대학생들의 교양 수준에 맞게 알기 쉬운 이야기로 각색하여 강의하는 것으로, 이 가운데 사마천의 『사기열전』을 특화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현대적인 다시 읽기와 다시 쓰기를 통해 고전의 의미를 현대화시켜 보도록 한다.

이 연구에서 제안한 프로그램을 한 개의 강좌에 모두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이러한 활동을 통해 단순한 교수자 중심의 강의식 교양 수업이 아니라 학생 활동이 중심이 되는 고전 강좌를 진행할 수 있다. 대표적인 고전인 『孟子』를 테마로 하여 패러디 글쓰기, PT 발표, 고전 스피치 활동을 함으로써, 학생들은 『孟子』를 다각도로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그 안에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각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양 강의 중 고전 교육과 관련한 것이 있는 강좌에 교수자 중심이 아닌 학생 활동 중심의 고전 교육을 실천하고자 한다면,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프로그램 가운데 적절한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본래 강의 취지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4. 새로운 고전 읽기 프로그램 “C-STAR” 구안

인간의 삶과 세계에 대한 본질적 물음을 이끌어내고 매우 실천적인 고전 기초 교양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활동과 과제 수행 과정에 초점을 두고, 다각도로 관찰·분석·비교·논의 등을 통해 고전에서 오늘날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요인들과 관련 주제를 이끌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해야 한다. 기초 교양 교육에 부합하면서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상호작용적인 고전 읽기에 적절한 프로그램으로 가칭 “C-STAR”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이는 학교 차원에서 혹은 교수자가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들이 동료들과 토론하며 함께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하면서 논리적 사고, 비판적 사고 등의 고차적 사고력을 발휘한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대학에서 실시했던 것처럼 고전 도서 읽기 목록만 제시하고 권장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학생들에게 더 많은 지식을 획득·기억하게 하고, 학생 중심의 문제 발견·인식·해결이라는 일련의 과정이 일어나는 상호작용적 고전 읽기 방법을 재구성하여 “C-STAR”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가칭 “C-STAR” 프로그램은 “Chinese classics Education-Solving problem, Teamwork, Active Participation, Reading Innovation” 의 머리글자를 딴 것으로, 문제 해결 능력과 협업 능력을 길러주고, 독서자의 능동적 참여를 통해 읽기 혁신을 이루자는 새로운 고전 교육의 목표이다. 이 프로그램에서 특히 주력하는 부분은 학생들이 고전 읽기를 통해 깨달음을 얻는 즐거움을 체험하고, 이러한 체험이 단발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 생애에 걸쳐 반복적으로 향유하도록 밑바탕을 형성하는 것이다.

또한, 학습자 중심 강의에서 강조하는 학습자의 참여, 상호작용 등을 강조한다. 이는 구성주의 이론처럼 학습자의 능동적 역할을 강조하고 학습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다. 고전을 읽은 후 어떠한 배움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어떻게 재구성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평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등에 대한 모든 과정을 학교 구성원의 활발한 소통과 토론을 통해

논의하고 나아가야할 방안을 모색한다.

5. 결론

고전 교양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고전 독서에 기초한 쓰기, 말하기, 토론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프로그램이 적용·운영되어져야 한다. 읽기와 쓰기는 분리될 수 없고 여기에 말하기와 토론을 더해야 소통과 설득 능력이 함께 함양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고전 독서가 중심이기 때문에 인성 교육과도 직결될 수 있다.

'C-STAR'는 독서만 하면 되는 단순한 것이 아니다.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가 연동되는 디지털 시대의 고전 교양 교육 프로그램이다. 학생 활동형 교육 방법으로 학생들에게 문제 해결 능력과 협업 능력을 길러주고, 독서자의 능동적 참여를 통해 읽기 혁신을 이루는데 초점을 두었다. 또한, 학생들은 고전 읽기 활동을 통해 깨달음을 얻는 즐거움을 알게 되고 이를 계기로 스스로 찾아 읽는 고전 독서가가 되는 것이다.

다른 것보다도 이것 하나만은 잊지 말고 고전 교양 교육에서 반드시 실천해야한다. 바로 '자신감 있고 즐거운 독서'이다. 'C-STAR'는 고전을 읽은 경험을 통해 학생 스스로 자신감을 찾고 나름의 즐거움을 찾아 스스로 읽게끔 만들 수 있는 방법에 초점을 두고 기획되었다. 'C-STAR' 프로그램을 통해 기대되는 교육적 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 자아 존중감 증대이다. 고전 독서를 한 후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 느낌과 감정 등을 결부시키는 과정과 이를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산출물을 제작해내면서 자신의 몫에 최선을 다하였다는 뿌듯함을 느끼게 되어 스스로를 칭찬하고 이를 통해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

둘째, 고전에 대한 이해력 신장이다. 다양한 활동은 학생 스스로 내용을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효과적이다. 일방적인 교수자의 강의 때에 오히려 쉽게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동영상 제작, 패러디 글쓰기 등의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이해력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활동들을 반복 수행하게 되면 점차 고전 텍스트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고 깊어질 것이다.

셋째, 단순한 지식 전달 위주의 강의보다 학생 활동 프로그램 중심의 고전 수업은 이미지나 동작을 기반으로 하는 의사소통에 보다 더 익숙한 디지털 기반 멀티미디어 세대로 하여금 고전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높일 것이다. 강독을 기반으로 하는 고전 교육이 외면되고 있는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Doug Beuhl, 노명완·정혜승 옮김,『협동적 학습을 위한 45가지 교실수업전략』, 박이정, 2004, p.15.

김성희,「철학과 문학의 만남을 통한 토론 교육: 서강대 팀티칭 사례 연구」,『교양교육연구』제6권 제1호, 한국교양교육학회, 2012, pp.71 ~ 97.

심경호,「한국 고전문학교육의 현황과 과제」,『문학교육학』제6권, 한국문학교육학회, 2000, p.317.

이은숙,「교양 교육의 전문성을 위한 문학 강의 사례-계명대학교 교양세미나를 중심으로」,『교양교육연구』제1권 제2호, 한국교양교육학회, 2007, pp.81 ~ 99.

이황직,「고전읽기를 통한 교양 교육의 혁신-숙명여대의 인문학 독서와 토론 강좌를 중심으로」,『독서연구』제26권, 한국독서학회, 2011, pp.517 ~ 548.

전성수,『질문하는 공부법 하브루타』, 라이온북스, 2014.

정인모,「고전읽기를 활용한 수업모형」,『교양교육연구』제7권 제1호, 한국교양교육학회, 2013, pp.41 ~ 74.

최윤정,「『논어』·『맹자』를 활용한 대학 인문고전 교양교육 사례 연구」,『동양문화연구』제22집, 영산대학교 동양문화연구원, 2015, pp.197 ~ 231.

최혜진,「고전문학 교육과 문화콘텐츠 창작 교육」,『인문학연구』제24호, 경희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3, p.245.

' 'C-STAR' ! 디지털 시대의 古典 敎育 方法 -大學의 漢文 講座를 중심으로-' 토론문

허 철(교원대학교)

백광호 선생님의 옥고 잘 읽어보았습니다.

고전교육은 인문교육의 중요한 요소이며, 인문교육은 다가오는 제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주목 받고 있습니다. 인간과 기계, 그 중에서도 고도의 지능을 가진 기계와 인간의 차별성을 인문학에서 찾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인문학적 상상력은 물론이요, 인문고전을 통해 불확실한 미래를 예측해서 주도할 무언가를 상상하고 실현하는 인간형을 양성하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정부는 2015개정 교육과정을 통해 이에 대비한 인간형을 제시한 바도 있으며, 국어교과 안에서 인문 고전 읽기 교육을 강화하기도 하였습니다.

한문은 고전언어이며, 동양 한자문화권 공동의 문어입니다. 문제는 이 고전문어로 작성된 고전을 "苦戰"하게 할 것인가, 고전을 스스로 해석하며 스스로의 자유 의지에 따라 사고할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인가에 있는 듯합니다. 苦戰하게 만든다는 것은 한문 문장의 해석에만 치중하여 작품을 감상하지 못하게 되는 우를 말하며, 스스로 해석하면 스스로의 자유의지에 따라 사고할 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은 한문 문어에 담긴 다양한 의미를 찾아낼 수 있음을 말합니다.

이는 곧 동양고전을 原語로 학습해야 하는가, 번역문으로 학습해야 하는가의 의미입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동양 고전의 학습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될 것이며, 특히 漢文을 전공하였던 연구자들이나 동양어학 관련 연구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선생님께서 구안하신 두 개 교과의 경우, 무엇을 목표 혹은 중심에 두고 계신 것인지요?

한문을 원어로 학습해야 할 대상과 번역문으로 고전을 학습해야 할 대상을 구분하고 계신 것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그렇다면 이 고전읽기가 한문과에 적합한, 혹은 한문과만의 고유한 정체성을 보일 수 있는 교육 영역인가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을 여쭙고 싶어서입니다.

주지하듯이 고전 읽기는 이미 다양한 학문 단위에서 시도되었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상호작용적 고전 읽기 방법론"의 대상 텍스트가 동양고전이라는 이유만으로 한문과의 전유물이 되지는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 것은, 선생님께서 구안하신 두 강좌의 기본 프로파일을 소개해 주실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대학교양한문과 인성교육

-서울대 독서세미나 『논어』 강좌의 예를 중심으로-

안순태(서울대학교)

【목차】

1. 서론
2. 대학에서의 한문교육과 인성교육
3. 독서세미나 수업 과정
4. 독서세미나 수업의 효용성과 의의
5. 결론

1. 서론

본 발표는 서울대 독서세미나 논어 수업의 예를 중심으로 대학 교양 한문 수업에서 인성 교육을 어떠한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는가에 대해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대에서는 '선한 인재 양성'이라는 교육 목표 실현을 위해 2015년 하계 계절학기부터 10개 내외의 독서세미나 강좌를 개설해온바, 2016년 겨울학기까지 총17종의 고전에 관한 28개 강좌를 개설, 운영해 오고 있다. 4개 학기에 걸쳐 연속으로 개설, 운영한 논어 강좌는 기존 한문 수업에서 이루어지던 교수자 중심의 강의 및 강독 형태의 수업을 지양하고 학생의 강독과 교수자의 강의, 그리고 세미나 형식을 결합한 방식으로 진행해왔다. 서울대 독서세미나 강좌들의 공통 교육 목표가 '인성의 탐구'에 있고 논어 강좌 또한 표면적으로 인성 교육, 가치관의 탐색 등을 표방하고 있으면서도 원문 강독을 통한 한문 독해 능력 배양도 부차적으로 의도하였기에 이 수업을 새로운 형태의 한문 수업 모형으로 소개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근래 대학에서는 영역을 가리지 않고 수요자, 즉 학생의 요구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2000년대 중반부터 대부분의 대학에서 학생들의 강의평가가 전면적으로 실시되고 그것이 교수자 평가로 직결되면서 교수자 또한 학생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교육 현장에서 진작부터 수요자의 요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었음은 인정해

야 한다. 학생들의 학습 의욕을 고취시키고 교수자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그러나 수요자의 요구에 전적으로 부응할 것인지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 근본적으로는 사회 구조의 탓이고 대학 내 분위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수의 학생들이 부담이 적은 수업, 좋은 성적을 받기 용이한 수업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한자 및 한문 수업도 예외는 아니다. 한자 수업은 한자자격시험 등에 대한 필요성 때문에 그나마 각광을 받고 있는 편이지만 한문 수업은 외면당하고 있는 추세다.[1] 동시에 인성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며 한문 고전을 통한 인성교육의 실현 방안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기도 하다.[2] 중등교육과정 한문 교과 내용을 토대로 구체적인 학습 활동이나 평가 방안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들 또한 충분히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대학 교양 교육으로서의 한문교육에서 인성교육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3] 본 발표에서는『論語』세미나 수업의 예를 들어 대학에서 한문고전을 통한 인성교육 과정에서 필자가 겪은 몇 가지 문제의식을 논의하도록 하겠다.

2. 대학에서의 한문교육과 인성교육

1) 한문 고전을 통한 인성교육에 대한 반성적 검토

2015년 1월, “인성교육진흥법”이 제정되고 당해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국민을 육성’하자는 것이 이 법률의 기본 취지다. 이 법률에서 지칭하는 ‘인성교육’이란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 공동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이며 예, 효,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을 핵심적인 가치 또는 덕목으로 삼고 있다.[4]

기본 취지나 목적만 보면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 인성교육진흥법에 대해, 그러나 비판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인성 문제에 대해, 현대 한국의 학생들을 포함한 국민들의 인성이 문제가 있어 이를 국가적 차원에서 문제 삼고 학생들과 국민들을 계도 내지 계몽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인권을 중시하는 미국에서도 인성교육(character education)을 강조하는 법이 있다고 하지만 미국에서의 인성교육

---

1) 여러 사례를 통해 이를 시대적 추세로 파악한 것으로 김우정,「대학 교양 한자 교육의 현황과 과제」,『한자한문교육』20,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2008을 들 수 있다.

2) 김설화,「21세기 한문교육을 통한 인성교육의 방안 연구」,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2010; 김은정,「한문고전을 활용한 인성교육방안」,『한문교육연구』43, 한국한문교육학회, 2014; 김은경,「한문과 인성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 사례」,『한문교육연구』46, 한국한문교육학회, 2016 등.

3) 박세진,「한문고전을 통한 대학에서의 인성교육 방안」,『한문교육연구』46, 한국한문교육학회, 2016에서『명심보감』을 중심으로 대학 교양 한문의 인성교육 방안에 논의하고 있으며 주입식 이론수업과는 달리 학생들로 하여금 실천할 수 있는 인성교육 모형을 제시한 바 있다.

4)「인성교육진흥법」(법률 제14396호, 일부개정 2016.12.20.),『로앤비』(www.lawnb.com), 2017.1.25.

은 “인성교육진흥법”이 지향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미국에서의 인성교육은 학생들이 비판적 사고를 배양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상식적인 사고로 대처하도록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것이 핵심이다.[5]

근래 우리나라 대학에서도 인성교육이 강조되고 동덕여대(동덕인성), 성균관대(성균논어), 성신여대(성신인)에서는 정규 필수 교과목으로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서울여대, 백석대 등에서는 ‘인성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다.[6] 이 밖에도 영산대는 1997년 개교 당시부터 현재까지 논어를 교양필수과목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는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를 중시하고 인성교육의 측면에서 그렇게 한 것으로 전통적인 방식으로 논어를 통독하고 있다.[7]

중등교육과정에서 한문을 통해 인성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은 한문 교과서에 정서교육이나 가치교육, 도덕교육적 측면에서 활용할 자료들을 선별하여 이 한문 교과서에 다수 수록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핵심 가치를 학습 목표로 삼아 다양한 학습 활동을 통해 그 목표를 실현하고자 한다.[8]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핵심가치를 익히는 것은 중등교육과정에서 꼭 필요한 일이기도 하여 이러한 목표와 활동에는 동의를 한다. 그러나 대학에서 한문을 통한 인성교육은 이와는 다르게 실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학에서 인성교육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어떤 가치의 일방적 주입이 아니라 다양한 가치에 대한 성찰 내지 탐구의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서울대 독서세미나 강좌 현황

서울대는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선한 인재 양성’을 교육 목표로 삼고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대학운영계획을 설정해 운영하고 있다. 독서세미나 교과목 또한 휴먼튜브 콘테스트, 토론대회와 더불어 ‘선한 인재 양성’이라는 교육 목표 실현 방안의 일환으로 개설된 것이다. 독서세미나 강좌가 ‘선한 인재 양성’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의 하나로 기획된 것이고 이것이 일견 “인성교육진흥법”의 취지를 따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독서세미나 교과목은 고전에 나타난 정의, 공동체, 선과 덕 등의 다양한 가치들에 대해 학생들 중심으로 비판적으로 성찰하게 한다는 점에서 기존 가치의 일방적 주입과는 거리가 먼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서울대에서 ‘독서세미나’ 강좌는 기초교육원이 주축이 되어 2015년도 상반기에 과목 개발이 이루어져 당해 여름학기부터 현재까지 계절학기를 통해 운영해 오고 있다. 세미나식 강좌이기 때문에 첫 학기에는 강좌당 정원을 20명으로 제한하였으나 수강 취소 인원이 많은

5) 윤근혁, <학생들에게 인성 교육? 미국에선 상상도 못해>, 《오마이뉴스》, 2015.7.27.
6) 박세진, 앞의 논문, 429면.
7) 부남철, 「대학 교양교육과 논어, 『동양문화연구』 12, 영산대 동양문화연구원, 2012, 44-45면. 영산대에서는 시간의 제한 때문에 『논어』 전체를 다 읽지는 않고 중요 문장 중심으로 읽으면서 자기 수양, 타인에 대한 예절과 배려, 가족에 대한 책임, 공동체에 대한 사랑과 헌신 등 논어에서 강조하고 있는 가치를 설명해준다고 한다. 수강생이 50명 이상이기 때문에 토론식 수업을 진행하지 않고 강의 위주로 진행한다.
8) 정찬문, 「한문교육을 통한 인성교육 방안 연구」, 『국어교과교육연구』 10, 국어교과교육학회, 2005, 228면. 가령 ‘兄弟投金’이라는 글을 학습할 때 ‘우애’가 ‘황금’보다 중요함을 인식하게 한다는 것을 목표로 하여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도록 학습 활동을 유도하고 있다.

계절학기의 특성을 고려하여 2015년 겨울학기부터는 정원을 25명으로 늘려 2016년 겨울학기 현재 강좌당 평균 수강인원은 14명이다. 그동안 개설, 운영된 독서세미나 강좌들에서 다룬 도서 목록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2015 - 여름	2015 - 겨울	2016 - 여름	2016 - 겨울
『논어』	『논어』	『논어』	『논어』
『정치학』(아리스토텔레스) 『자서전』(간디)	『정치학』(아리스토텔레스) 『자서전』(간디)	『정치학』(아리스토텔레스) 『자서전』(간디)	『정치학』(아리스토텔레스) 『자서전』(간디)
『자유론』	『자유론』	『자유론』	『자유론』
『일리아스』, 『오디세이아』	『일리아스』, 『오디세이아』	『일리아스』, 『오디세이아』	『파우스트』
『사기(열전)』	『사기(열전)』	『안나 카레니나』	『윤리형이상학 정초』
『안나 카레니나』		『고백록』(루소)	『햄릿』
『춘향전』		『맹자』	『무정』
『월든』(소로)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8개	5개	7개	8개

[서울대 독서세미나 개설강좌 도서 목록]

네 개 학기에 걸쳐 연속 개설된 강좌는 『논어』, 『정치학』과 『자서전』, 『자유론』의 세 강좌다. 그 가운데 필자는 논어 강좌를 네 학기째 운영해왔다. 『논어』는 동양 문화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가치들을 다양하게 함유하고 있어 인성교육 교재로서 손색이 없다. 실제로 수강생들은 수강 신청 이유와 수강 후 유익했던 점을 묻는 설문조사 문항에서 공히 '삶의 다양한 가치 탐색' 에 가장 많은 답을 하고 있었다.[부록5 참조]

그러나 한편으로는 『논어』 역시 한때 유행했던 자기계발서와 다를 바 없는, 또 하나의 자기계발서로 인식하는 대중들도 적지 않다. 일반적으로 자기계발서는 신자유주의 체제의 약육강식적 경쟁을 정당화하고 그 경쟁에서 승리하라고 종용하는가 하면 성공적인 삶과 실패한 삶으로 양분하여 그 실패를 개인의 책임으로 돌린다. 또 끊임없이 불안감을 조성하여 독자를 근본적 요소가 결여된 존재로 치부한다.[9] 『논어』는, 한계가 분명한 인간의 삶에서 適正과 調和의 추구를 목표로 삼을 것을 제언하고 있는바, 무한의 욕망을 추동하거나 경쟁 논리를 전제하는 일반적 자기계발서의 성격과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다.

3. 독서세미나 수업 과정

9) 송현·안관수, 「자기계발서 전성시대와 힐링 인문학」, 『디지털융복합연구』 11,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013, 786면.

서울대 독서세미나 논어 강좌의 전체 수업 방식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 수업은 3시간, 15주 단위로 편성되어 있으며 계절학기에 3시간씩 주3회, 총15회로 강의를 진행한다. 학기 초반에는 오리엔테이션, 동양과 서양, 춘추전국 시대와 공자 등에 대한 강의를 교수자가 진행하며 4회차부터 본격적인 세미나가 시작되어 학기말까지 진행된다. 세미나 수업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활동 내용	시간
예습 과제 및 소감문 제출	수업 전
지문 강독(학생, 교수자)	60분
보충 자료 해설(교수자)	15분
휴식	15분
조별 주제 발표(학생)	15분
주제 토의(학생)	30분
토의 내용 발표(학생)	15분
성독(학생, 교수자)	5분
정리(교수자)	10분

매 수업 시간은 차례로 욕망의 문제, 언행의 문제, 仁과 勇, 군자와 소인, 효도와 우애, 처세, 리더의 덕목 등 아홉 가지 주제에 대해 공부한다. 교재는 각각의 주제에 대한 8개~10개의 『논어』 지문, 해당 주제와 관련된 읽을거리, 성독 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성독 자료는 1922년 儒敎經典講究所에서 간행한 『論語』(共四冊) 가운데서 해당 지문을 뽑아 편집한 것이다.[부록4 참조] 이 자료의 가장 큰 장점은 원문 위에 독음을 표기하고 있다는 점이며 전통시대 방식으로 懸吐하여 성독을 할 때 여러 모로 편리하다. 이렇게 주제별 논어 지문, 참고자료, 성독자료로 구성된 교재를 제본하여 수업 시간에 주교재로 활용하고 있으며, 부교재로는 성백효 역주, 『(현토완역)논어집주』(전통문화연구회, 2015)를 추천하고 있다.

필자는 학기 초에 수업을 시작하면서 다음 몇 가지 사항을 강조한다. 첫째, 『논어』의 내용이 절대적으로 옳은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논어』가 오늘날까지 고전으로 칭송받는 것은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공자의 시대와 오늘날은 시간적으로도 거리가 멀고 공자 당시의 중국 상황과 오늘날 우리나라 상황에도 적지 않은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둘째, 『논어』 지문을 공부하면서 도덕적 자괴감에 빠질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공자의 가르침이 훌륭한 것이고 전면적으로 동의하지는 못하더라도 지침으로 삼을 만한 점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자신은 그렇게 하지 못함을 자책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한다. 강의 중반에 이르면 학생들이 점차 『논어』 구절에 압도되어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필자는 수시로 이 점을 환기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부담감을 덜어주려 한다. 배울 만한 훌륭한 말, 지

향하고 싶은 가치가 현재 자신의 모습과 거리가 멀다고 해서 주눅들 필요가 없다고 격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논어』 지문은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학생들은 처음에 이 점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 반드시 정답을 찾아야만 하는 그간의 익숙했던 교육시스템 때문이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논어』는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문장이 상당히 많다. 그 말이 이루어진 구체적인 맥락이 실전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것은 『논어』의 흠결이라기보다 오히려 장점으로 볼 수 있다. 물론 맥락을 통해 타당한 해석을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문장을 두고 가능한 다양한 해석을 시도하는 것은 고전으로서의 『논어』를 더욱 풍부한 텍스트로 만들어준다고 생각한다.

1) 예습과 자기성찰(소감문, 에세이)

본 강좌에서는 매 시간 두 가지 개인 과제를 부과한다. 하나는 배울 지문을 예습해 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날 배운 주제에 대한 소감문을 쓰는 것이다. 예습은 수업 시간에 배울 해당 지문 원문(8개 내지 10개 문장)을 쓰고 모르는 한자를 찾아오는 것이 전부여서 학생들의 부담이 크지 않은 데 비해 효과는 상당하다. 논어 수업에서 한자, 한문 학습에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하는 요소를 묻는 설문에서 교수자의 강의(56.8%)에 이어 예습(29%)을 꼽았다. 예습은, 한자와 한문에 익숙지 않은 수강생들이 무리 없이 지문 강독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한편 교수자로 하여금 모든 한자의 음과 뜻을 낱낱이 설명해주는 수고를 덜어주기도 한다.

매 수업에 부과되는 또 다른 과제는 소감문이다. 그날 공부한 과제와 관련한 자신의 생각을 A4 한 장 내외 분량으로 자필로 자유롭게 써서 다음 시간에 제출하게 한다. 소감문은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을 적는 다소 사적인 글이라는 점 때문에 수강생들이 조별 토의 과정에서 미처 말하지 못했던 내용을 적기도 하고, 수업 후 얼마간의 시간을 두고 해당 주제에 대해 사색의 과정을 거쳐 작성하다 보니 주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나름대로 정리하는 글로서의 의미도 갖는다.

또 학기당 두 차례 A4 2-3페이지 분량의 에세이를 작성하게 한다. 에세이는 그동안 배운 논어 내용과 관련하여 자신의 생활을 성찰하는 내용으로 작성하도록 한다. 이렇게 작성한 에세이는 조원끼리 회람하고 한 조원이 자신의 조원들의 에세이를 요약, 정리하여 발표한다.

2) 학생 중심의 강독과 교수자의 강의

주제별 지문은 우선 학생들이 주도하여 강독한다. 매 수업 시간에 발표를 맡은 조는 지문 강독과 주제 발표의 두 가지 과제를 수행한다. 수업 시작 전에 강독할 지문을 판서하고 개인별로 2개 내지 3개 문장을 발표하는데 가급적이면 逐字譯을 하도록 하고, 발표자가 이해한 문장의 의미에 대해 해설한다.

그런데 발표를 맡은 학생들 가운데는 부교재를 활용하거나 여러 관련 도서를 찾아 발표 준비를 하는 학생도 있으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 번역문과 해설을 참고하여 발표 준비를 하는 학생도 적지 않다. 그러다 보니 교수자의 보충 설명이 필요하다. 교수자는 해당 지문의

다양한 해석에 대해 소개하고 그 가운데 가장 타당한 해석이 어떤 이유 때문에 타당한지 설명한다. 또 해당 지문과 관련한 고사가 있으면 그것을 소개해주기도 한다.

3) 토의를 통한 가치의 반성적 검토

독서세미나 논어 수업에서는 대개 4인 1조로 모두 4개 조가 편성된다. 일반적으로 조당 두 차례의 조별 발표를 하게 된다. 조별 발표는 해당 주제와 관련이 있는 책 내용이나 영화, 신문 기사 등을 소개하고 해당 주제와 관련해 함께 논의해볼 만한 화두 두세 가지를 제시하는 것으로 수행한다. 주제와 관련된 내용 소개는 발표 조원들에게 일임하되 화두 선정은 교수자가 개입할 필요가 있다. 화두가 구체적이고 명료하며 논의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4) 성독

조별 발표 이후 성독을 진행한다. 성독은 전통적인 독서 방식으로서 오늘날의 학생들에게는 상당히 낯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수강생들이 성독에 대해 거부감을 갖고 있지는 않았다. 상당수의 수강생들은 조선시대 서당에 와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고 하거나, 한문 문장을 소리 내어 읽는 과정에서 내용 독해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험을 매우 신선하게 받아들였다.[부록6 참조]

5) 평가

논어 강좌의 평가 항목은 예습(10%), 소감문(10%), 조별발표(10%), 에세이(20%), 출석(15%), 기말시험(35%)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타 독서세미나 강좌들에서는 수업 중 학생들의 활동(발표, 토론, 보고서 등) 이외에 별도의 시험을 보지 않는다. 그러나 논어 강좌에서는 기말시험을 평가 항목으로 비중 있게 편성하였다. 기말시험은 두 가지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는 각 주제별로 자신의 마음에 드는 논어 지문을 두 문장씩 외워서 쓰는 유형이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對策 유형이다. 모든 학생들은 필수적으로 두 가지 유형의 시험을 치른다.

논어 지문을 암기하여 쓰게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다. 첫째, 각 주제별로 수강생 자신이 마음에 드는 문장을 고르는 과정을 거치게 한다는 점이다. 그 과정에서 스스로 주제별 내용을 일별하며 정리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혹시 암기에 용이한 짧은 문장을 주로 고르지 않을까 염려했으나 결과적으로는 그렇지 않음을 확인했다. 둘째, 전통적인 한문 학습 방법인 '암기'는 여전히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문장을 통째로 암기하는 것은 개개의 한자뿐만 아니라 한문 문장의 구조, 문장의 의미까지 한꺼번에 익힐 수 있어서 학생들이 크게 부담스러워하지 않는다면 지문 암기를 평가 요소로 두는 것도 효과적이라 생각한다. 셋째, 논어는 평생을 두고 읽을 만한 책이라는 점을 상기하면 수업을 통해 암기했던 문장이 일상의 어느 순간 문득 떠올라 다시 음미해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대책은 2개 내지 4개 문항으로 출제하는데 구체적 상황을 제시해 주고 그 상황에서 공자

라면 어떻게 했을지, 자신은 어떻게 할지를 논어 구절을 인용하여 서술하는 것이다. 대책 문항은 암기 서술 시험을 마친 후 오픈북으로 진행된다. 이때 수강생들은 노트북과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은 제한되며 그 밖의 모든 자료(교재, 부교재, 노트 등)를 참고하여 답안을 작성할 수 있다. 대책 문제는 욕망의 문제로부터 리더의 덕목에 이르기까지 여러 주제를 두루 언급할 수 있도록 출제하며 대학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일상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도 질문한다. 가령 소로가 『월든』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한 超絶主義에 대한 자신의 견해, 서로 사이가 틀어진 절친한 친구 두 명 사이에서 자신이 어떻게 처신할지의 문제, 조별 활동에서 조장을 맡고 있는 자신이 조별활동에 비협조적인 조원을 어떻게 대할지의 문제, 한국어가 서툴러 본의 아니게 별 도움이 안 되는 외국인 조원에 대한 처신 문제, 시험 보러 등교하다가 도와줄 이 없이 길을 잃어 울고 있는 아이를 보면 어떻게 할지 묻는 문제 등을 출제한 바 있다.

이와 같은 방식의 수업에 대해 학생들은 대체로 만족감을 드러내었다. 매 수업마다 그날 공부할 지문을 예습한 노트와 이전 시간 주제에 대한 소감문을 제출해야 하고, 학기당 총2회의 조별 발표를 해야 하는 등 수업 부담이 적지는 않지만, 한자와 한문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되었다거나 다방면으로 자신을 되돌아보고 자신의 진로 결정에 적지 않은 시사를 받았다는 수강생도 있었다. 실제 강의평가 결과 또한 학생들이 본 수업에 상당히 만족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10]

4. 독서세미나 수업의 효용성과 의의

1) 세미나 수업을 표방한 잠재적 한문 교육

세미나 수업은 교수자의 지도 아래 학생들의 발표와 토론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수업이다. 교수자는 전반적인 수업 진행만 할 뿐 수업을 실제 주도하는 것은 학생들이다. 여전히 대학 강의에서 교수자 중심의 강의형 수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만 세미나형 수업 또한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이며 강의와 세미나를 혼합한 형태의 수업도 적지 않다.

교양한문, 실용한문, 생활한문 등 교과목 이름에 '한문'이 포함되면 한자나 한문에 익숙지 않은 (대부분의) 학생들은 처음부터 큰 부담을 안고 수강하게 된다. 그들에게 한문은 외국어나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표면적으로 고전을 읽고 여러 주제에 대해 토의하는 세미나형 강의를 표방하게 되면 학생들은 우선 한문에 대한 부담을 훨씬 덜게 된다. 수업의 핵심이 한자를 많이 익히고 한문 공부를 위주로 하지 않는 것에 대해 안도하게 된다. 사실 표면적으로는 세미나 방식을 표방하지만 실제 수업 시간에는 논어 원문에 대한 세세한 강독(字解와 逐字譯 등)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그 단계에 이르면 학생들은 『논어』를 원문으로 읽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어 한자 및 한문 학습에 대한 부담을 외면하지 않는다. 필자는

10) 2015년 여름학기부터 2016년 여름학기까지의 강의평가 결과에 의하면 ① 강의에 대한 전체적 만족도 평균 4.9(4.32), ② 강의 내용에 대한 만족도 평균 5(4.35), ③ 교육방법에 대한 만족도 평균 4.9(4.24)(5점 만점. 괄호 안은 전체 평균)로 나타났다.

그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역설한다.

우선 한문 원문이 지니는 심미성 내지 함축성을 들 수 있다. 한문 원문의 심미성과 함축성은 특히 한시를 읽을 때 두드러지는데, 한시의 번역문만으로 전달이 되지 않는 언어의 미감을 원문을 통해 접하게 된다. 『논어』는 한시만큼은 아니어도 그에 버금가는 함축성 있는 말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한자의 표의문자로서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이기도 하다. 본격적인 『논어』 지문 강독에 들어가서 지문(원문)을 공부하고 조별 토의를 통해 해당 주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한 후 다시 聲讀으로 지문을 정리하게 되면 학생들은 한문이 얼마나 함축적인지 깨닫게 된다. 실제로 수강 소감 가운데에는 '우리말로 풀이하면 긴데 한문으로 읽으니 짧고 오히려 명료하게 이해된다.' 는 소감도 있었다.

원문을 버리고 번역문으로 공부하면 포기해야 할 것들 가운데 더 중요한 문제는 바로 '열린 해석의 가능성' 이 차단된다는 점이다. 가령 "學而時習之, 不亦說乎" 는 대개 "배우고 때때로 그것을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혹은 "배우고 때에 맞게 그것을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의 두 가지 중 하나로 번역하게 된다. 필요에 따라 두 번역을 모두 소개할 수도 있지만 대체로 번역자에 따라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한 가지 번역만을 제시하고 있으며, 여러 번역을 소개하는 경우에는 왜 그렇게 여러 가지로 번역되는지를 간곡하게 소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대신 원문으로 익히게 되면 '時' 가 '때때로' 혹은 '때에 맞게' 로 번역될 수 있다는 사실만 소개하면 된다. 논어에는 "賢賢易色" (學而), "擧直錯諸枉" (爲政) 등의 예처럼 이와 같은 문제에 필연적으로 봉착하는 문장이 무수히 많다.

비록 세미나 형식을 표방하고 있지만, 독서세미나 논어 수업에서는 『논어』를 원문으로 강독한다. 이를 통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교육 목표는 '주제에 대한 성찰' 이지만 결과적으로 학생들의 한자 및 한문 독해 능력 향상도 기대할 수 있었다. 설문 결과 대부분의 수강생들이 『논어』를 번역문이 아닌 원문으로 읽는 데에서 오는 이점이 크다고 답했고, 대다수가 원문이 주는 고유한 느낌이나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원문 강독의 이점으로 꼽았다.[부록6 참조] 모든 학생들이 독서세미나-논어 수업을 통해 한자 및 한문 독해 능력 향상을 경험했다고 답하여[부록6 참조] 교육과정 표면에는 드러나지 않았으나 내재적으로 학생들은 한문 독해 능력 향상을 체감하였다고 할 수 있다.

교수자가 의도하지 않았으나 학생들이 은연중에 갖게 되는 경험을 잠재적 교육과정이라고도 하며 '잠재적' 이라는 말은 학생들에게 나타나는 모종의 교육 효과를 교수자가 사전에 의식하고 있었는가의 여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11] 가령 수학 교사가 수학문제를 푸는 법을 주로 가르치면서 수학적 사고방식이나 수학을 공부하는 기쁨까지 가르치려 의식하고 있었고, 결과적으로 학생들이 수학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수학적 사고방식이나 수학을 공부하는 기쁨을 체득하였다면 이는 잠재적 교육과정이 아니라 공식적 교육과정에 속한다는 것이다.[12] 그러나 교수자가 어떤 교육 효과를 의식하고 있었는가의 여부를 기준으로 잠재적 교육과정이냐 공식적 교육과정이냐를 판가름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교수자가 의도했는가 의도하지 않았는가보다, 학생들이 표면적으로 '가치의 탐구' 라는 핵심 교육목표를 의식하

11) 김종서, 『잠재적 교육과정의 이론과 실제』, 교육과학사, 1987.
12) 김학준, 「잠재적 교육과정의 재개념화를 위한 시도」, 『교육과정연구』 29권 3호, 한국교육과정학회, 2011, 131면.

는 가운데 수행한 다양한 과제(예습, 강독, 성독, 기말고사를 위한 암기)를 통해 결과적으로 표면적으로는 표방하지 않았던 효과(한자, 한문 독해 능력 제고)를 얻게 되었다는 점에서 독서세미나 강좌 또한 잠재적 교육과정의 효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논어』에 대한 동조와 거부 확인

학생들은 『논어』를 '공부할 만한 가치가 있지만 선뜻 몰두하기 어려운' 텍스트로 인식한다. 『논어』가 잠언 형식의 한문으로 되어 있다는 점도 학생들이 다가서는 데 장애가 되지만 그보다 더 큰 장애물은 『논어』가 진부한 내용으로 되어 있을 것이라는 선입견이다. 수업 과정에서 필자는 학생들의 피드백(조별 토의내용 발표, 소감문, 에세이 등)을 통해 『논어』에 대한 학생들의 선입견과 『논어』에 대한 수강생 개개인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논어 지문 가운데 유독 학생들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구절들이 있다. 공자에 대한 선입견이 깨지는 순간, 혹은 선입견이 공고해지는 순간이다. 전자를 '동조', 후자를 '거부'라 일컬을 수 있다면 다음과 같은 지문들에서 학생들의 동조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① 욕망의 문제: "子曰: '富與貴, 是人之所欲也, 不以其道得之, 不處也. 貧與賤, 是人之所惡也, 不以其道得之, 不去也.'"(里仁)

② 효도와 우애: 孟懿子問孝. 子曰: "無違." 樊遲御, 子告之曰: "孟孫問孝於我, 我對曰: 無違." 樊遲曰: "何謂也?" 子曰: "生事之以禮, 死葬之以禮, 祭之以禮."(爲政)

③ 처세: 或曰: "以德報怨, 何如?" 子曰: "何以報德? 以直報怨, 以德報德."(憲問)

④ 처세: 子曰: "唯仁者能好人, 能惡人."(里仁)

공자라면 욕망을 절제하라고만 했을 것 같은데 인간의 욕망을 긍정하고 있다는 점, 다만 욕망을 좇다 보면 그 크기가 무한정 커질 수 있으므로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한 점을 상당히 신선하게 인식했다. 또 효도와 관련하여 공자가 '어기지 말라'고 한 것이 부모의 말에 대한 무조건적 복종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도 예에 맞게 하는 것을 어기지 말라는 뜻이며 필요에 따라서는 부모의 잘못에 대해 간언해야 한다는 지문을 읽고는 공자에 대한 편견을 거둘 수 있었다는 반응이 많았다. 한편 예수가 '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였듯이 성인으로 추앙받는 공자 또한 모두를 사랑하라고 했을 것 같았는데 공자는 원수를 直으로 갚으라고 말한 데 이르러서도 참신하다는 반응이 많았고, 인한 사람이라야 사람을 제대로 좋아하고 미워할 수 있다는 말에 대해서는 남을 좋아하고 미워함에 앞서 자신의 인을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는 반응과, 누군가가 자신의 좋아하고 미워하는 것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의 기준을 마련했다는 반응이 있었다. 이 밖에도 "子曰: '富而可求也, 雖執鞭之士, 吾亦爲之. 如不可求, 從吾所好.'"(述而) 등의 지문을 통해 자신의 진로에 대한 고민 해결에 크게 시사받았다는 수강생도 있었다.

동조한 지문이 대체로 많았던 데 반해 거부 반응을 보인 지문은 많지 않았다. 그러나 "危邦不入, 亂邦不居. 天下有道則見, 無道則隱."(泰伯) 등과 같이 進退의 문제를 두고 언급한 공

자의 말에 대해서는 거부 반응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춘추시대와 오늘날 중국과 우리나라의 상황이 많이 다르니 잘못된 현실은 방치하고 외면하기보다는 바로잡아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진퇴 문제와 관련하여 공자는 일견 모순적인 언술을 하고 있는데,[13] 처한 위치에서의 책임의 유무와 언급 대상 인물의 특성을 고려한 발화라는 점을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5. 결론

대학에서의 인성교육은 가치의 일방적 전수가 아니라 가치에 대한 학생들의 주도적 탐구 과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본 발표에서는 강독 형태와 세미나 형태를 조합한 수업 모형을 통해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여러 가치를 반성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동양 고전에 대한 심층적 이해와 한문 독해력 증진은 물론 한문의 묘미까지 체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논어』는 동양 문화의 근간이 집약되어 있는 책이라 할 수 있고 서양에서도 이 책을 주목하여 왔다. 학생들은 모두 『논어』가 중요한 책임을 알고는 있지만 선뜻 읽을 엄두를 내지 못한다. 공자와 그 자제들과 관련한 흩어져 떠돌던 구절을 한데 모은 것이 『論語』이기에 잠언적 성격이 강하기도 하거니와 번역본을 읽는다 해도 그 의미를 깊이 있게 음미하기가 용이치 않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필자는 주제별로 논어 구절들을 편집하여 多讀보다는 精讀의 방법으로 강독을 하고 구절 하나하나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 방법으로 수업을 진행했다. 또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해당 주제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논어 구절을 자유롭게 논평할 수 있도록 토의의 장을 마련하였다. 그뿐 아니라 매 주제에 대한 논의가 끝난 후 학생들 개개인의 체험과 결부하여 해당 주제를 음미하는 경험을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논어의 주요 메시지뿐만 아니라 한문 학습의 즐거움에 대해 체득하기도 하였음을 확인하였다.

향후 『孟子』나 『史記』, 『韓非子』, 『道德經』, 『莊子』 등 여러 한문고전에 대해서도 본 수업 모형을 활용하여 강의를 진행하는 것도 대학에서의 교양한문 교육의 활로의 하나가 되지 않을까 한다.

13) 가령 도가 없는 곳에는 나아가지 말라고 했다가, 다른 구절에서 무도한 세상에서 나라를 위해 헌신한 영무자를 칭송하거나 나라에 도가 있든 없든 곧았던 사어를 칭송한 대목은 일견 모순적인 것처럼 보인다.

<참고문헌>

「인성교육진흥법」(법률 제14396호, 일부개정 2016.12.20.),『로앤비』(www.lawnb.com), 2017.1.25.
김설화,「21세기 한문교육을 통한 인성교육의 방안 연구」,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2010.
김우정,「대학 교양 한자 교육의 현황과 과제」,『한자한문교육』20,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2008.
김은경,「한문과 인성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 사례」,『한문교육연구』46, 한국한문교육학회, 2016.
김은정,「한문고전을 활용한 인성교육방안」,『한문교육연구』43, 한국한문교육학회, 2014.
김종서,『잠재적 교육과정의 이론과 실제』, 교육과학사, 1987.
김학준,「잠재적 교육과정의 재개념화를 위한 시도」,『교육과정연구』29권 3호, 한국교육과정학회, 2011.
박세진,「한문고전을 통한 대학에서의 인성교육 방안」,『한문교육연구』46, 한국한문교육학회, 2016.
박영기,「포트폴리오를 활용한 독서 세미나와 글쓰기 연계 수업 사례 연구」,『대학작문』13, 대학작문학회, 2015.
부남철,「대학 교양교육과 논어」,『동양문화연구』12, 영산대 동양문화연구원, 2012.
송현·안관수,「자기계발서 전성시대와 힐링 인문학」,『디지털융복합연구』11,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013.
윤근혁, <학생들에게 인성 교육? 미국에선 상상도 못해>, 《오마이뉴스》, 2015.7.27.
정찬문,「한문교육을 통한 인성교육 방안 연구」,『국어교과교육연구』10, 국어교과교육학회, 2005.

[부록 1] 독서세미나『논어』강의계획서 개요

<table>
<tr><th rowspan="2">교과목 번호</th><th rowspan="2">교과목명</th><th rowspan="2">강좌 번호</th><th rowspan="2">강좌명</th><th rowspan="2">학점</th><th rowspan="2">개설학과</th><th colspan="2">담당교수</th></tr>
<tr><th>직명
(전공)</th><th>성명</th></tr>
<tr><td>L0655.0
00300</td><td>독서세미나
: 고전에 길을 묻다</td><td>001</td><td>『논어』
:공자에게 길을 묻다</td><td>3</td><td>기초교육원</td><td></td><td></td></tr>
<tr><td rowspan="4">강좌
개요</td><td colspan="7">1. 교재
1) 주교재: 안순태 편,『논어 - 공자에게 길을 묻다』(제본 교재)
2) 부교재: 성백효 역주,『(현토완역)논어집주』, 전통문화연구회, 2015.</td></tr>
<tr><td colspan="7">2. 도서 선정배경: 『논어』는 동양의 대표적인 고전이다. 기원전 중국 성현의 언행을 기록한 이 책은 중세뿐 아니라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중국뿐 아니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한문문명권 전체에, 생활방식과 사고방식 등 폭넓은 영역에서 지대한 영향을 미쳐왔다. 이 책은 특히 인간으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가에 대한 실천적 메시지로 가득하여 삶의 지침으로서 음미해 볼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 경쟁을 부추기는 현대 사회에서 자신의 삶을 설계하는 단계의 대학생이라면 이 책이 시사하는 삶의 지침과 지혜가 가치관과 인격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td></tr>
<tr><td colspan="7">3. 강좌의 주제 및 내용: 본 강좌는 고전으로서의『논어』의 지혜를 음미하고 자신의 삶의 문제에 적용해 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방법으로 강의를 진행한다.
1)『논어』를 기반으로 동양 고전의 독서 영역 확장 방안을 모색해 보고 국제화 시대에 ‘동양적인 것’의 특징과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본다.
2) 개인의 수양 문제에서 출발하여 타인과의 관계, 집단에서의 리더의 덕목에 이르기까지 범위를 확장하면서 각각의 주제에 대한 공자의 메시지를 음미하고 논의해 본다.
3) 각 주제에 관한 수강생 개인의 구체적인 경험이나 사례를 통해 현대 사회의 우리들에게도 공자의 메시지가 얼마나 유효한지 논의한다.
4) 동양고전 텍스트를 소리 내어 읽어봄으로써[聲讀]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독서 방법을 체험해 보고 독서 행위 자체에 대해 성찰해 본다.</td></tr>
<tr><td>성적
산출</td><td colspan="7">1. 성적은 절대평가로 산출한다.
2. 성적 구성: 출석15, 예습(노트)10, 조별발표10, 소감문10, 에세이20, 기말고사35
3. 조별로 주제를 분담하여 해당 지문 발표 및 주제 발표(ppt)를 준비한다.
4. 발표를 하지 않는 수강생은 각자 해당 지문을 예습한다.
5. 매 시간 예습한 노트를 제출하고, 해당 시간의 내용에 대한 소감문을 작성하여 그 다음 시간에 제출한다.
6. 매 수업은 소감문, 예습노트 제출→독서법소개→조별발표(논어 해당주제 지문)→지문보충설명(교수)→휴식(15분)→조별발표(뉴스나 책 등 관련내용, 화두 제시)→토의→성독→총정리(교수)의 순서로 진행한다.</td></tr>
</table>

[부록 2] 독서세미나『논어』강의계획서 - 주차별 강의계획

주차		강의주제	수업내용	학습 내용
1	1	오리엔테이션	강의 소개	강의 소개, 자기 소개, 자기계발서와 논어, 조 편성
	2	동양과 서양	동양과 서양	동양과 서양, 동양인의 사유구조의 특성
	3	인간 공자	인간 공자	공자의 시대와 인간 공자
2	1	몸가짐과 마음가짐 1	욕망의 문제	주요 지문
	2	몸가짐과 마음가짐 2	말과 행동의 문제	주요 지문
	3	인(仁)과 용(勇)	사람다움과 용기	주요 지문
3	1	군자와 소인	큰사람, 작은 사람	주요 지문
	2	효도와 우애	인간의 도리, 벗 사귐의 방법	주요 지문
	3	論語와 나 1	에세이 발표 및 논의	에세이 발표
4	1	처세 1	처해야 할 곳, 피해야 할 곳	주요 지문
	2	처세 2	세상을 알맞게 살아가는 방법	주요 지문
	3	리더의 덕목 1	윗사람이 바르지 않으면	주요 지문
5	1	리더의 덕목 2	사람을 쓰는 법	주요 지문
	2	論語와 나 2	에세이 발표 및 논의	에세이 발표
	3	기말고사	지문 암송 및 책문 작성	

[부록 3]『논어』 주제별 주요 강독 지문

주제	주요 지문
몸가짐과 마음가짐 1 - 욕망	“士志於道, 而恥惡衣惡食者, 未足與議也.”(里仁) 子曰: “富與貴, 是人之所欲也, 不以其道得之, 不處也. 貧與賤, 是人之所惡也, 不以其道得之, 不去也.”(里仁) 등
몸가짐과 마음가짐 2 - 언행	子曰: “君子恥其言而過其行.”(憲問) 或曰: “雍也仁而不佞.” 子曰: “焉用佞? 禦人以口給, 屢憎於人. 不知其仁, 焉用佞?”(公冶長) 등
인(仁)과 용(勇)	子貢問曰: “有一言而可以終身行之者乎?” 子曰: “其恕乎! 己所不欲, 勿施於人.”(衛靈公) 子謂顔淵曰: “用之則行, 舍之則藏, 唯我與爾有是夫!” 子路曰: “子行三軍, 則誰與?” 子曰: “暴虎馮河, 死而無悔者, 吾不與也. 必也臨事而懼, 好謀而成者也.”(述而)
군자와 소인	子曰: “君子周而不比, 小人比而不周.”(爲政) 子曰: “君子和而不同, 小人同而不和.”(子路)
효도와 우애	孟懿子問孝. 子曰: “無違.” 樊遲御, 子告之曰: “孟孫問孝於我, 我對曰: 無違.” 樊遲曰: “何謂也?” 子曰: “生事之以禮, 死葬之以禮, 祭之以禮.”(爲政) 子曰: “晏平仲善與人交, 久而敬之.”(公冶長)
처세 1	子曰: “篤信好學, 守死善道. 危邦不入, 亂邦不居. 天下有道則見, 無道則隱. 邦有道, 貧且賤焉, 恥也, 邦無道, 富且貴焉, 恥也.”(泰伯) 子入太廟, 每事問. 或曰: “孰謂鄹人之子知禮乎? 入太廟, 每事問.” 子聞之曰: “是禮也.”(八佾)
처세 2	子曰: “飯疏食飮水, 曲肱而枕之, 樂亦在其中矣. 不義而富且貴, 於我如浮雲.”(述而) 或曰: “以德報怨, 何如?” 子曰: “何以報德? 以直報怨, 以德報德.”(憲問)
리더의 덕목 1	子曰: “爲政以德, 譬如北辰, 居其所而衆星共之.”(爲政) 子曰: “其身正, 不令而行, 其身不正, 雖令不從.”(子路)
리더의 덕목 2	哀公問曰: “何爲則民服?” 孔子對曰: “擧直錯諸枉, 則民服, 擧枉錯諸直, 則民不服.”(爲政) 樊遲問仁. 子曰: “愛人.” 問知. 子曰: “知人.” 樊遲未達. 子曰: “擧直錯諸枉, 能使枉者直.” 樊遲退, 見子夏曰: “鄕也吾見於夫子而問知, 子曰: ‘擧直錯諸枉, 能使枉者直’, 何謂也?” 子夏曰: “富哉言乎! 舜有天下, 選於衆, 擧皐陶, 不仁者遠矣. 湯有天下, 選於衆, 擧伊尹, 不仁者遠矣.”(顔淵)

[부록4] 『論語』(儒敎經典講究所 編, 1922) 聲獨 자료 편집의 예

一

子ㅣ曰富與貴ㅣ是人之所欲也ㅣ나 不以其道로 得之어든 不處也ㅎ며 貧與賤이 是人之所惡也ㅣ나 不以其道로 得之라도 不去也ㅣ니라

二

子ㅣ曰君子ㅣ食無求飽ㅎ며 居無求安ㅎ며 敏於事而愼於言이오 就有道而正焉이면 可謂好學也已니라

三

子ㅣ曰奢則不孫ㅎ고 儉則固ㅣ니 與其不孫也론 寧固ㅣ니라

四

子ㅣ曰士ㅣ志於道而耻惡衣惡食者는 未足與議也ㅣ니라

[부록5] 독서세미나 강좌(논어) 수강 후 설문지 및 설문조사 결과

1. 이 강좌를 통해 기대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① 고전도서의 정독을 통한 깊은 이해(29.4%) ② 교재에 대한 일반적이고 폭넓은 정보와 지식 (13.7%) ③ 주제(강좌 부제)와 삶의 가치에 대한 탐색과 발전(39.2%) ④ 읽기, 토론과 발표, 글쓰기 능력의 발전(11.8%) ⑤ 다층적이고 개방적이며 창의적인 사고(5.9%) ⑥ 인성의 함양 (0%)

2. 이 강의는 어떤 점에서 도움이 되었습니까?
① 고전도서의 정독을 통한 깊은 이해(23.5%) ② 교재에 대한 일반적이고 폭넓은 정보와 지식(11.8%) ③ 주제(강좌 부제)와 삶의 가치에 대한 탐색과 발전(43.1%) ④ 읽기, 토론과 발표 능력의 발전(11.8%) ⑤ 다층적이고 개방적이며 창의적인 사고(2%) ⑥ 인성의 개발 (7.8%)

3. 선정된 고전 도서는 어떤 점에서 흥미로웠습니까?
① 도서 자체의 특성(29.4%) ② 주제 관련한 교양과 지식 제공(11.8%) ③ 자아 성찰과 삶의 가치 탐색을 통한 인성 함양의 계기(58.8%) ④ 기타(0%)

4. 수강 강좌에서 좋았던 수업 방식은 무엇입니까?
① 교수자의 강의(56.8%) ② 학생 발표와 토론(41.2%) ③ 특별 활동 ④ 기타 (2%, 예습)

5. 수강한 강좌의 수업 방식에 만족합니까?
① 매우 그렇다(52.9%) ② 그렇다(47.1%)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6. 해당 강좌에서 부여한 과제 유형 중 유익했던 과제는 무엇입니까?
① 글쓰기(37.3%) ② 논평(댓글 달기)쓰기(17.6%) ③ 연극준비(2%) ④ 체험과 경험(5.9%) ⑤ PPT 혹은 동영상(17.6%) ⑥ 기타(19.6%-모두 ‘예습’)

7. 과제는 강의의 목적에 비추어 도움이 되었습니까?
① 매우 도움이 되었다(41.2%) ② 도움이 되었다(58.8%) ③ 보통이다 ④ 도움이 되지 않았다 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8. 이 강좌에서 가장 좋았던 점이나 인상 깊었던 활동 및 내용이 있다면 그 이유와 함께 구체적으로 적어주십시오.
한자에 대한 불안 해소, 조별 토의 시간, 자신의 문제와 연관 지은 에세이 작성, 논어를 원문으로 읽을 수 있었던 점 등.

※ 표본 수: 69
※ 조사 대상 학기(2015-여름, 2015-겨울, 2016-여름, 2016-겨울)

[부록6] 한자 및 한문 학습 성취도 관련 설문지 및 설문조사 결과

1. 한자나 한문을 공부했던 것은 최근 언제입니까? (　　)
　① 중학교 수업(3명, 17.6%)　② 고등학교 수업(6명, 35.4%)
　③ 대학 진학 이후(8, 47%)　④ 기억나지 않음
(* 한자는 글자 하나하나를 가리키는 것이고, 한문은 한자로 이루어진 문장을 가리킵니다.)

2. 논어를 공부하기 전 자신의 한자, 한문 실력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　　)
① 기초적인 한자 외에는 한자 자체를 별로 알지 못했다.(23.5%)
② 한자를 조금 알기는 했지만 문장 해석을 해본 적은 거의 없다. (41.2%)
③ 한자를 제법 알기는 했지만 문장 해석을 해본 적은 거의 없다. (11.8%)
④ 한자를 많이 알았고 간단한 문장은 해석할 수 있었다. (23.5%)

3. 논어를 공부하면서 한자, 한문 실력이 얼마나 향상되었다고 생각합니까? (　　)
① 별로 향상되지 않았다.(0%)
② 조금 향상되었다.(76.5%)
③ 많이 향상되었다.(23.5%)
④ 매우 향상되었다.(0%)

4. 논어를 원문으로 공부하는 이점이 얼마나 크다고 생각합니까? (　　)
① 매우 크다.(47%) ② 어느 정도 크다.(53%) ③ 별로 크지 않다. ④ 전혀 이점이 없다.

5. 논어를 원문으로 공부하는 이점은 무엇이었습니까?
① 다양하고 깊이 있는 해석을 할 수 있다는 점(29.8%)
② 원문이 주는 고유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점(53.2%)
③ 한자와 한문 실력에 도움이 된다는 점(17%)
④ 기타(　　)

6. 논어 수업에서 한자, 한문 학습에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하는 것의 번호를 순서대로 써주세요.
① 예습(29%) ② 교수의 설명(31.1%) ③ 암기(23.5%) ④ 성독(16.4%)

7. 한자와 한문을 공부한다면 다음 중 어떤 방법이 효과적일 것 같습니까? (　　)
① 기본 한자를 먼저 익히고 간단한 한문 문장을 공부한다.(29.4%)
② 한문 문장을 공부하면서 한자를 익힌다. (64.7%)
③ 한자와 한문 공부를 병행한다. (5.9%)
④ 한문은 별 필요가 없으므로 한자만 익힌다. (0%)

8. 소리 내어 읽는 성독(聲讀)에 대해서는 어떤 느낌을 받았습니까?
조선시대 서당에 온 듯한 분위기가 좋았다(35.3%), 한문을 읽으면서 동시에 문장을 해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희열을 느꼈다(35.3%), 수업 내용이 잘 정리되는 느낌이 들었다(17.7%), 잘 모르겠다(11.7%)

※ 표본 수: 17
※ 조사 대상: 2016-겨울학기 수강생

‘대학교양한문과 인성교육
-서울대 독서세미나『논어』강좌의 예를 중심으로-’ 토론문

백승호(한남대학교)

안순태 선생님의 본 발표는 서울대학교 독서세미나 『논어』 강좌 사례를 중심으로 대학에서 교양한문을 통해 인성을 함양하는 사례를 소개한 글입니다. 학생들이 논어의 가치를 이해하고 내면화할 수 있도록 수업을 구성하고 지도한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글을 읽고 질문 드립니다.

1.
발표문에서 대학에서의 인성 교육이 “어떤 가치의 일방적 주입이 아니라 다양한 가치에 대한 성찰 내지 탐구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만, 교육자로서 수강자에게 명시적으로 제시하지는 않겠지만, 강의의 핵심이라고 할 만한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현 시점에서 강의의 주 교재였던 『논어』를 통해 가장 강조하고 싶은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多讀보다는 精讀의 방법”으로 학생들에게 한문을 교육시키는 한자, 한문에 친숙하지 않은 요즈음 학습자에게 적절한 교육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적은 학습량에도 불구하고 수강자의 학습 능력이 현격하게 부족한 상황에서 한문 학습의 흥미와 의욕을 제고할 만한 효과적인 교육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
발표에서 소개한 사례는 강의 규모가 크지 않고 학생과 교수, 학생 상호간에 소통이 양호한 수업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세미나와 글쓰기에 대한 피드백이 학생들에게 한문 텍스트에 대한 흥미를 고양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양 과목은 보통 40명에서 60명 수준의 규모로 강의가 진행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활용할만한 수업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4.
현재 사회는 인공지능과 나노 기술을 선두로 하여 4차 산업 혁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글의 기술 부분 임원은 가까운 시일 안에 특이점이 온다고 이야기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는 현재와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현격하게 다른 세상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세계의 본질은 결국 0과 1로 세상을 파악하고, 모든 경우의 수를 검토하여 利害에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저는 바로 이러한 시점이야말로 사회 구성원이 仁과 義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것을 내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성 교육의 측면에서 대학 교양 한문 교육을 검토할 때에도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네트워크 미디어 환경에서 성장한 후속 세대에게 공감을 얻게끔 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 이 점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대학교 교양한문강의에 대한 소고

-홍익대학교 교양한문(초급) 강의를 중심으로-

조혁상(홍익대학교)

【목차】

1. 序論
2. 講義 敎材 및 敎補材
3. 授業進行 · 試驗 및 成績算出方式
4. 結論

1. 序論

본고는 현재 대한민국의 각 대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교양한문 및 기초한문 과목의 효과적인 교육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서 작성되었다. 본고에서는 2013년 제1학기부터 2016년 동계계절학기까지 총 4년간 홍익대학교에서 본 연구자(교양교육원 겸임교수)에 의해 교수된 '교양한문(초급)' 과목의 교육과정에 대해 소개함과 동시에, 2학점에서 3학점으로 이수학점이 변경되면서 아울러 이루어진 교육내용의 변화양상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기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해당 강의 교재 및 교보재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수업진행방식과 시험방식·성적산출방식에 대해서도 차례대로 논하도록 하겠다.

2. 講義 敎材 및 敎補材

본 연구자가 홍익대학교에서 강의를 시작한 이래, 2013년 제1학기부터 제2학기까지는 '교양한문(초급)' 강의 시 본교재인 『새로운 대학한문』(유영봉·이관성 저, 범한서적, 2008)과 부교재 『부수따라 익히는 1800한자』(유영봉·하정원 저, 문진출판사, 2011)를 활용하여 수업을 진행하였다. 2014년에는 『새로운 대학한문』개정판(유영봉·조혁상, 범한서적, 2014)과 동일 부교재를 사용해서 수업을 하였으며, 수업시간이 2시수에서 3시수로 바뀌게 된 2015년 제

2학기부터는 부교재를 『에듀윌 한자능력검정시험 2급』(에듀윌교육출판연구소, 에듀윌, 2013)으로 교체하여 가르치고 있다.[1] 교보재는 빔프로젝터로 컴퓨터 화면을 교탁 옆 스크린에 투영시켜, 수업관련 자료를 시청할 수 있도록 활용하고 있다.

(1) 本教材

홍익대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양한문(초급) 본교재는 『새로운 대학한문』이다. 홍익대학교 교양한문 과목의 지정교재이며, 제1판의 저자는 유영봉, 이관성이며, 개정판의 저자는 유영봉, 조혁상이다. 개정판의 경우 제11강의 '단어의 유래(나이를 가리키는 한자어)' 표가 대폭 개편되고, 오탈자 수정이 이루어진 것 외에는 교재 내용구성 상 큰 변화는 없다. 교재의 기본 구성은 한자의 짜임(六書: 象形·指事·會意·形聲·轉注·假借)과, 제1강-제26강, 부록01. '모양이 비슷한 한자', 부록02. '잘못읽기 쉬운 한자', 부록03. '고사와 성어'로 되어 있다. 제1강부터 제26까지의 각 강좌는 한자어의 이해, 한자어의 활용, 단어의 유래, 속담, 격언 및 단문, 고사성어 2개, 한시감상으로 이루어져 있다. 타학교 교양한문 교재에 비해 수준이 다소 평이하기 때문에, 한자와 한문에 대한 기초가 전혀 없는 대학생이라도 수업을 학습하는데 있어서 큰 무리가 없는 편이다. 홍익대학교 교양한문(초급) 과목의 경우 제1-12강까지, 교양한문(중급) 과목의 경우 제13-26강까지를 한 학기의 수업 범위로 정하였다.

일단, 각 강좌별 구성내용을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자.

① 한자어의 이해

1-18강은 한자구조(대등·수식·술목·술보·상대·유사 등), 19-20강: 사자성어(각 6개), 21강: 자연(原始林·楊柳·松柏·英特·枯葉·金銀), 22강: 마음(性格·喜悲·哀傷·愛憎·念慮·想像), 23강: 동작(落選·往復·迎接·開講·休息·勤務), 24강: 변화(增減·變故·復權·消費·因緣·進退), 25강: 형용(禍福·險難·崇尙·奇異·煩雜·優秀), 26강: 수량(度數·降雨量·群衆·政黨·單位·算定)으로 이루어져 있다. 강의 중 크게 비중을 두지 않으며, 시험에도 출제하지 않는다.

② 한자어의 활용

제1강은 一이 들어간 숙어 9개, 제2강은 二 숙어 9개, 제3강은 三 숙어 7개, 제4강은 四 숙어 9개, 제5강은 五 숙어 7개, 제6강은 六 숙어 5개, 제7강은 七 숙어 6개, 제8강은 八 숙어 7개, 제9강은 九 숙어 7개, 제10강은 十 숙어 8개, 제11강은 百 숙어 8개, 제12강은 千 숙어 9개, 제13강은 萬 숙어 9개, 제14강은 億 숙어 4개·兆 숙어 3개, 제15강 시간관련 숙어 9개, 제16강 공간관련 숙어 9개, 제17강 天文관련 숙어 8개, 제18강 정치관련 숙어 9개, 제19강 경제관련 숙어 7개, 제20강 생활관련 숙어 7개, 제21강 학문1관련 숙어 9개, 제22강 학문2관련 숙어 9개, 제23강 예술관련 숙어 7개, 제24강 동물1관련 숙어 9개, 제25강 동물2관련 숙어 7개, 제26강 신체관련 숙어 7개로 이루어져 있다. 강의 중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편이며, 시험 출제빈도도 높다.

---

1) 2015년 제2학기에는 홍익대학교에서 교양한문(초급) 강의로 인하여 우수교원으로 선정되었다.

③ 단어의 유래

제1강 강산과 산하, 제2강 협동, 제3강 노고, 제4강 국가, 제6강 불우, 제7강 범례, 제8강 좌우명, 제9강 秋霜과 秋毫, 제10강 은하수, 제11강 나이를 가리키는 한자어, 제12강 旣視感, 제13강 경제, 제14강 長安의 話題와 洛陽의 紙價, 제15강 瓦解, 제16강 斷腸, 제17강 약육강식 제18강 점심, 제19강 이판사판, 제20강 예의염치, 제21강 경국지색·절세가인·단순호치·침어낙안·폐월수화, 제22강 섭씨와 화씨, 제23강 북망산, 제24강 삼수갑산, 제25강 寒食, 제26강 망라로 이루어져 있다. 강의 중에 별로 비중을 두지 않는 부분이며, 제11강의 '나이를 가리키는 한자어'를 제외하면 시험 출제빈도도 낮다.

④ 속담

제1강 見金如石, 제2강 談虎虎至 談人人至, 제3강 鳥足之血, 제4강 言中有骨, 제5강 烏飛梨落, 제6강 鷄口牛後, 제7강 無足之言 飛于千里, 제8강 燈下不明, 제9강 吾鼻三尺, 제10강 追友江南, 제11강 上濁下不淨, 제12강 堂狗風月, 제13강 於異阿異, 제14강 一日之狗 不知畏虎, 제15강 覆水不收, 제16강 一魚混全川, 제17강 晩食當肉, 제18강 難上之木 不可仰, 제19강 亡羊補牢, 제20강 識字憂患, 제21강 畵中之餠, 제22강 西瓜皮舐, 제23강 泣兒授乳, 제24강 囊中取物, 제25강 見蚊拔劍, 제26강 待曉月坐黃昏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 획수가 많은 한자를 포함한 속담만 시험에 출제하는 편이다.

⑤ 격언 및 단문

제1강 玉不琢 不成器 人不學 不知道
少年易老學難成 一寸光陰不可輕

제2강 勿謂今日不學而有來日 勿謂今年不學而有來年
國將興 聽於民 將亡 聽於神

제3강 一年之計 莫如樹穀 十年之計 莫如樹木 終身之計 莫如樹人
冬溫而夏淸 昏定而晨省

제4강 爲人子之禮 恒言不稱老
樹欲靜而風不止 子欲養而親不待

제5강 無道人之短 無說己之長
忍一時之忿 免百日之憂

제6강 禍福無門 唯人所召
積善之家必有餘慶 積不善之家必有餘殃

제7강 勿以惡小而爲之 勿以善小而不爲
終身行善 善猶不足 一日行惡 惡自有餘

제8강 太上有立德 其次有立功 其次有立言
作事必謀始 出言必顧行

제9강 道吾善者 是吾賊 道吾惡者 是吾師

破山中賊易 破心中賊難

제10강 水至淸則無魚 人至察則無徒

士爲知己者死 女爲悅己者容

제11강 不曰如之何如之何者 吾末如之何也已矣

제12강 誠者 物之終始 不誠 無物

제13강 知彼知己 百戰不殆

不知彼而知己 一勝一負

不知彼而不知己 每戰必殆

제14강 春來梨花白 夏至樹葉靑 秋凉黃菊發 冬寒白雪來

제15강 家貧則思良妻 國亂則思賢相

月滿則缺 物盛則衰

제16강 日月逝矣 歲不我延 嗚呼老矣 是誰之愆

제17강 三人行必有我師焉 擇其善者而從之 其不善者而改之

제18강 君子有三戒 少之時 血氣未定 戒之在色

及其長也 血氣方剛 戒之在鬪

及其老也 血氣旣衰 戒之在得

제19강 盛年不重來 一日難再晨 及時當勉勵 歲月不待人

제20강 耳不聞人之非 目不視人之短 口不言人之過 庶幾君子

제21강 登山則思學其高 臨水則思學其淸 坐石則思學其堅 看松則思學其貞

對月則思學其明

제22강 伯兪有過 其母笞之 泣. 其母曰 他日笞 子未嘗泣 今泣何也

對曰 兪得罪 笞常痛 今母之力 不能使痛. 是以泣.

제23강 人生斯世 非學問 無以爲人. 所謂學問者 亦非異常別件物事也.

只是爲父當慈 爲子當孝 爲臣當忠 爲夫婦當別 爲兄弟當友

爲少者當敬長 爲朋友當有信 皆於日用動靜之間 隨事各得其當而已.

제24강 崔北字七七 字亦奇矣 遊金剛.

至九龍淵 忽大叫曰 天下名士 死於天下名山 足矣. 墜淵幾至不救.

一貴人 要畵於北 而不能致. 將脅之.

北怒曰 人不負吾 吾目負吾 乃刺一目而眇. 年四十九而卒.

제25강 李廣 出獵 見草中石 以爲虎而射之. 中石沒矢 視之 石也.

他日射 終不能入.

제26강 夫讀書 如遊山. 有登山未半而止者. 有歷遍而未知其趣者.

必也知其山水之趣 方可謂遊山.

제1강부터 제26강까지, 각 강좌마다 단문 1-2 문장이 수록되어 있다. 해당 범위에서는 주로 해석 문제가 시험에 출제된다.

⑥ 고사성어

제1강 登龍門·多多益善, 제2강 三人成虎·五十步百步, 제3강 白眉·白眼視, 제4강 尾生之信·東家食西家宿, 제5강 助長·破鏡, 제6강 朝三暮四·漁父之利, 제7강 矛盾·蛇足, 제8강 結草報恩·百年河淸, 제9강 背水陣·完璧, 제10강 刻舟求劍·移木之信, 제11강 梁上君子·四面楚歌, 제12강 三顧草廬·孟母三遷, 제13강 守株待兎·指鹿爲馬, 제14강 騎虎之勢·杞憂, 제15강 螢雪之功· 塞翁之馬, 제16강 狐假虎威·兎死狗烹, 제17강 吳越同舟·脣亡齒寒, 제18강 愚公移山·西施瞯目, 제19강 畵龍點睛·多岐亡羊, 제20강 南柯一夢·胡蝶夢, 제21강 刎頸之交·管鮑之交, 제22강 刮目相對·臥薪嘗膽, 제23강 和氏之璧·毛遂自薦, 제24강 濫觴·苛政猛於虎, 제25강 寒食·宋襄之仁, 제26강 推敲·膠柱鼓瑟로 구성되어 있다. 시험 출제 빈도는 높은 편이다.

⑦ 한시감상

제1강 崔致遠의 〈秋夜雨中〉, 제2강 李白의 〈靜夜思〉, 제3강 王維의 〈雜詩〉, 제4강 孟浩然의 〈春曉〉, 제5강 賈島의 〈尋隱者不遇〉, 제6강 薛濤의 〈春望詞〉, 제7강 林悌의 〈無語別〉, 제8강 鄭知常의 〈送人〉, 제9강 李白의 〈山中與幽人對酌〉, 제10강 薛瑤의 〈返俗謠〉, 제11강 李齊賢의 〈濟危寶〉,

제12강 魚玄機의 〈迎李近仁員外〉, 제13강 許初姬의 〈采蓮曲〉, 제14강 乙支文德의 〈贈隋右翊衛大將軍于仲文〉, 제15강 李奎報의 〈山夕詠井中月〉, 제16강 曺植의 〈題德山溪亭柱〉, 제17강 黃眞伊의 〈冬至永夜〉, 제18강 金炳淵의 〈數字詩〉, 제19강 黃玹의 〈絶命詩〉, 제20강 金克己의 〈漁翁〉, 제21강 慧超의 〈無題〉, 제22강 徐令壽閤의 〈長兒失期不來〉, 제23강 杜甫의 〈春望〉, 제24강 魚無迹의 〈流民嘆〉, 제25강 金宗直의 〈鴟述嶺〉, 제26강 朴趾源의 〈田家〉로 이루어져 있다. 시험에 100% 전부 출제된다.

이상과 같이, 제1강부터 제26강까지의 강좌는 '① 한자어의 이해 ② 한자어의 활용 ③ 단어의 유래 ④ 속담 ⑤ 격언 및 단문 ⑥ 고사성어 ⑦ 한시감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부록01. '모양이 비슷한 한자', 부록02. '잘못읽기 쉬운 한자', 부록03. '고사와 성어'에서 보통 부록01과 02는 생략하고, 부록03에 수록된 고사성어를 학기말에 전반적으로 일람한다.

(2) 副敎材

①『부수따라 익히는 1800한자』

해당 교재의 경우, 교육과학부 지정 중고등학교 학습용 1800한자들이 부수의 획수 별 순서대로 수록되어 있다. 부수에 대한 간략한 설명만 있을 뿐, 각각의 글자에 대한 세부 설명은 없다. 펜글씨칸이 붙어있는 교재이나, 펜글씨 과제를 낼 때에는 교재가 아닌 펜글씨 노트를 따로 구매하여 쓰도록 하고 있다.[2] 2015년 제1학기까지는 해당 교재도 본교재와 마찬가지로

2) 펜글씨 과제를 수합할 때 이미 칸이 다 채워진 중고책을 구입했던 학생들이 이를 다시 제출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홍익대학교 지정교재였다.

② 『에듀윌 한자능력검정시험 2급』

2015년 제2학기에 홍익대학교의 교양과목 개편에 따라 교양한문(초급)의 시수가 2시수에서 3시수로 변경되면서, 교육내용의 확충을 위해 『에듀윌 한자능력검정시험 2급』 책으로 교재를 교체하게 되었다. 이 교재의 경우에는 한자능력검정시험 2급 수준의 범주에 포함되는 각각의 한자에 대한 破字 설명과 필순, 응용단어 등이 상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강의 중 개별적인 한자를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있어서는 『부수따라 익히는 1800한자』 교재보다 참고하기가 더 편리하다. 하지만, 부수별로 한자들이 정리된 것이 아니라 무작위로 나열되어 있다시피 하기 때문에, 한자에 대한 배경지식이 전혀 없는 학생의 입장에서는 수학을 할 때 다소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다. 목차는 기초다지기(육서, 부수), 2급 배정한자(2급 신출한자, 2급 쓰기한자, 성명·지명자), 부록(유의자, 유의어, 반대자, 반대어, 사자성어, 동음이의어, 일자다음어, 장단음, 약자), 기출·예상문제 및 정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실제 강의 시 성명·지명자와 부록 대부분(사자성어 제외), 기출·예상문제 및 정답에 대한 설명은 생략한다.

(3) 敎補材

수업 중 교보재는 교탁의 컴퓨터와 빔프로젝터, 스크린을 사용한다. 본 연구자가 『새로운 대학한문』 개정판의 제2저자이기에, 출판사로부터 교재 pdf 파일을 제공받아서 수업 중에 교보재들을 활용하여 스크린 화면에 파일을 띄우고 설명한다. 그리고, 수업관련 영상을 해당 화면으로 학생들에게 보여주기도 한다. 가령, 고사성어 四面楚歌의 경우, 홍콩 영화 '서초패왕' (1994)의 해당 장면을 스크린으로 관람하게 하고 부연설명을 덧붙인다. 또, 학기 중 개설하는 각 분반별 네이버카페(세부 성적공지용)를 수업 중에 즉석에서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주소를 공지하기도 한다.

3. 授業進行 · 試驗 및 成績算出方式

(1) 授業進行方式

본 연구자는 홍익대학교에서 매 학기마다 교양한문(초급) 과목 4개 분반을 가르치고 있다. 서울캠퍼스 수업의 경우 3개 분반을 담당하는데, 3교시 수업을 둘로 나누어, 화요일 3-4, 5-6, 7-8교시와 금요일 2, 3, 4교시에 각각 강의를 한다. 세종캠퍼스 수업의 경우 1개 분반을 담당하며, 목요일 8-9-10교시에 강의를 실시했었다.

수업진행방식은, 서울캠퍼스에서는 화요일에는 본교재 1강좌와 부교재 일부를, 금요일에는 부교재 일부를 강의하며, 세종캠퍼스에서는 1회 수업당 본교재 1강좌와 부교재 일부를 강의한다.

강의는 한 학기 동안 총 15주간 실시하며, 첫 번째 강의 때의 수업 INTRO, 중간고사, 기말

고사를 제외하면 12주 동안 교과 과정을 교수한다. 교양한문(초급)의 경우, 본교재는 제1강부터 제12강까지, 부교재는 거의 전체 부분을 강의한다.

제1강 수업 INTRO 때에는 먼저 본교재와 부교재에 대해서 설명하고, 수업진행방식을 알려준다. 그리고, 1800자 펜글씨노트과제(총 18400자)에 대해 공지한다. 세종캠퍼스 수업의 경우에는 2016년 제2학기부터 시행된 독서프로그램 '행복한 책읽기'에 대해서도 부연설명을 한다.

제2강을 강의할 때에는 본 강좌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선 본교재와 부교재를 이용하여 육서와 부수의 개념에 대해 설명한다. 학생들의 한자 수준이 천차만별이고, 외국 생활을 오래하여 아예 한자를 모르는 학생들도 간혹 섞여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본개념 강의는 강좌를 개시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다.

제3강부터 제12강까지는, 본교재의 경우 각 강좌 별로 ① 한자어의 이해 ② 한자어의 활용 ③ 단어의 유래 ④ 속담 ⑤ 격언 및 단문 ⑥ 고사성어 ⑦ 한시감상을 순서대로 가르치고, 바로 쉬는 시간 없이 부교재를 강의한다. 부교재를 강의할 때에는 한자능력검정시험 2급 배정한자(2급 신출한자, 쓰기한자) 위주로 진도를 나간다.

본교재를 강의할 때에는, 책에 수록되어 있는 한자에 대한 단편적인 지식만을 전달하지 않고, 그와 관계된 배경지식들을 아울러 복합적으로 설명하는 편이다. 가령, 제3강 P.25의 刎頸之交를 설명할 때에는, 이와 관계된 和氏之璧과 完璧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를 해주고, 여기에 나오는 璧玉의 모양이 한국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볼링공 형태가 아닌 머리부분이 달린 디스크 형태라는 사실도 부연적으로 설명한다. 또, 제8강 결초보은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는, 당시 횡행했던 야만적인 殉葬 풍습에 대해 부가적으로 교육하고, 인본을 중시하던 원시 유가의 대표적 인물인 공자가 순장과 인신공양에 대해서 어떻게 배격했는가를 부연한 다음, 땅의 풀을 묶어놓아 적군의 말이 쓰러지는 대목에서는 장비의 아들 장포도 말 위에서 떨어져 부상으로 사망했음을 상기시키면서, 자연물을 이용한 부비트랩 및 함정 설치 방법에 대해서도 예전 장교생활 당시 지뢰 및 BT 교관을 했던 경험을 되살려서 생생하게 이야기를 해주곤 한다.

부교재를 강의할 때에도 복합적인 설명은 더 나은 교육 효과를 발휘한다. 부교재의 경우 한자의 계속적인 나열로 구성되어 있기에, 본교재를 강의할 때보다 설명이 더 무료해질 수 있는 위험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다. 그러하기 때문에, 앞서와 같은 복합적인 설명 방식을 사용하여 학생들의 흥미를 이끌어내는 교수법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예를 들자면, 戈의 경우 矛와 戟의 도해도 함께 그리면서 과와 모를 합친 무기가 극임을 설명한다. 그리고 과의 자루와 칼날의 각도가 100 일 경우 사람의 목이 가장 잘 잘려진다는 병기학적인 지식도 아울러 이야기하고, 병사들이 휴대한 과의 경우 칼날이 자루에 하나만 붙어 있었으나, 4마리 말이 끄는 고대 전차의 무사가 휴대한 과는 자루를 훨씬 더 길게 하고 칼날을 두 개나 세 개를 붙여서 만들었으며, 전차가 달릴 때 과의 자루를 눕힌 채로 꽉 잡고 적 병사들의 목을 풀처럼 베었음을 묘사한다. 또, 刑의 경우 사람을 형틀에 묶어놓고 칼로 토막내는 白刻刑에서 글자의 형태가 유래되었음을 설명하고, 프랑스의 사상가 조르쥬 바타이유(George Bataille)의 저서 『에로스의 눈물』에서 그가 백각형을 당하는 살인범의 사진을 책 속에 수록하고 그 형

벌 중 황홀경에 빠진 듯한 살인범의 표정을 보고 극도의 고통이 극도의 에로티즘과 연결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사실은 백각형 중 죄인이 빨리 사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다량의 아편을 먹였기 때문에 죄인이 그러한 표정을 지었음을 말해주고 이 때문에 바타이유의 주장이 엉터리임이 입증된다는 점을 학생들에게 이해시킨다. 한편 征의 경우에는, 그 의미가 『書經』에서 최초로 정립되었듯이 정의의 아군 군대로 부덕한 적군 군대를 물리친다는 개념임을 설명하면서, 19세기 말 일본 사쓰마 志士들의 '征韓論'이 일본 제국주의의 조선 침략에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사상적 역할을 은연중에 하게 되었다는 점을 알려주고, 이러한 견강부회식 정당성 부여가 현재 일본의 역사교육에 끼치는 영향까지도 부연하면서, 일본제국이 대한제국을 병합한 이래로 행해온 잔악한 만행들을 되짚어볼 때 일제가 추구했던 征韓의 정당성이 얼마나 허구적인 망상이었는지를 쉽게 깨달을 수 있다는 점을 교육시키곤 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강의를 진행하면, 그나마 학생들이 한자를 배우면서 느끼는 무료함과 지겨움을 조금이나마 해소시킬 수 있으며, 강의 종료 후 실시되는 강의평가에서도 이러한 점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었음이 누차 명백히 증명되곤 하였다.

(2) 試驗方式

서울캠퍼스와 세종캠퍼스 수업 모두 중간고사는 8주차, 기말고사는 15주차 수업시간에 실시한다. 각 강좌 중 ① 한자어의 이해를 제외한 ② 한자어의 활용 ③ 단어의 유래 ④ 속담 ⑤ 격언 및 단문 ⑥ 고사성어 ⑦ 한시감상에서 문제가 골고루 출제된다. 문제유형은 100% 주관식이며, 각 문제당 부분점수가 존재한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의 배점은 각 30점씩이며, 각각의 시험에서 문제 수는 큰 번호로 15개 내외이다. ② 한자어의 활용 ③ 단어의 유래 ④ 속담 ⑤ 격언 및 단문 ⑥ 고사성어의 경우 한 문제 당 배점을 각 1점씩, ⑦ 한시감상의 경우에는 한 문제 당 배점을 각 2점씩 부여하곤 한다. 시험범위는 수업 중간에 계속적으로 알려주며, 출제 문제들의 범위를 수업시간마다 한정시켜주기 때문에 학생들이 미리 효율적으로 시험을 준비할 수 있다.

단어의 유래

• 나이를 가리키는 한자어

孩提(해제)	2세 아이	沖年(충년)	10세 안팎
志學(지학)	15세	笄年(계년)	15세 여자
六尺之孤(육척지고)	14, 15세의 고아	瓜年(과년)	16세 여자
弱冠(약관):	20세	加冠(가관), 元服(원복)	남자 20세
妙齡(묘령), 芳年(방년)	20세 전후의 여자	壯年(장년)	30세
而立(이립)	30세	强仕(강사)	40세
不惑(불혹)	40세	望五(망오)	41세
知天命(지천명)	50세	艾年(애년)	50세
耳順(이순)	60세	還甲(환갑), 回甲(회갑), 還曆(환력), 華甲(화갑)	61세
進甲(진갑)	62세		
美壽(미수)	66세		
從心(종심)	70세	古稀(고희)	70세
喜壽(희수)	77세	八旬(팔순)	80세
傘壽(산수)	80세	半壽(반수)	81세

望九(망구)	81세	米壽(미수)	88세
卒壽(졸수)	90세	望百(망백)	91세
白壽(백수)	99세	百壽(백수)	100세
鶴壽(학수)	100세	上壽(상수)	100세, 120세

– 『새로운 대학한문』 개정판의 '나이를 가리키는 한자어' –

그런데, 기말고사 범위인 제11강에 포함된 '나이를 가리키는 한자어' 의 경우에는 학생들이 제11강을 배우고 나서 바로 2주 뒤에 시험을 봐야하기 때문에 암기할 시간이 별로 없으므로, 학기 초에 미리 자습하며 암기를 해놓으라고 여러 번 강조하곤 한다.[3)]

고사성어의 경우, 만약 四面楚歌가 배점이 1점인 문제의 답이라고 한다면, 한 글자를 틀릴 경우에는 -0.25점씩 감점을 한다. 한시의 경우에는 각 문제당 배점이 2점이기에, 5언 절구의 경우 한 글자를 틀릴 때마다 점수를 -0.1점 씩 감점한다. 7언 절구의 경우에는, 7글자를 틀릴 경우에는 -0.5점으로 환산하며, 그보다 적게 틀린 경우에는 한 글자당 -0.1점씩 감점을 한다.

3) '나이를 가리키는 한자어'의 경우에는 큰 번호 한 개 아래에 작은 번호 10개로 문제를 출제한다. 각 작은 번호당 점수 배점은 1점이며, 이 때문에 큰 번호가 10점이 된다. 부분점수도 부여하는데, 가령 卒壽의 졸자나 수자 중 한 글자를 틀린 경우에는 0.5점을 감점한다.

이처럼 부분점수를 소숫점 둘째자리까지 부여하는 이유는, 학생들의 학구열로 인해 학기를 거듭할수록 고득점자와 동점자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기 때문이다.[4)]

답안에 쓰는 한자의 경우 번체자가 아닌 간체자로 표기를 하면 무조건 틀리게 한다. 이 점에 대해서는 수업 초기부터 매우 강하게 강조를 하는데, 간혹 중국인 학생들이 이를 무시하고 간체자만으로 답을 쓰다가 낮은 점수를 받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리고, 외국인 학생들의 경우 문장해석 문제를 풀 때 한글 문장구사능력의 수준이 떨어져서 답안을 작성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차라리 영어로 답을 쓸 수 있게끔 배려하고 있다.

부가적으로, 세종캠퍼스에서 실시하는 '행복한 책읽기'의 경우에는 학기 중 수업시간에 지정도서에 대한 독후감을 제출하고 퀴즈를 풀도록 되어있는데, 따로 퀴즈에 5점을 부여하여 성적을 평가한다.[5)] 세종캠퍼스의 교양한문(초급) 강의에서는 '행복한 책읽기' 도서로 『논어강의』(이민홍 저, 문자향, 2005)를 선정하여 학생들에게 읽도록 권하고 있다.

(3) 成績算出方式

교양한문(초급) 수업의 성적 배점은, 중간고사 30점, 기말고사 30점, 과제 20점, 출석 10점, 태도점수 10점으로 이루어져 있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0점을 맞은 학생의 경우에도, 점수가 30점을 넘는다면 교칙 상 F를 면할 수 있기 때문에, 과제와 출석 및 태도점수의 합계가 최소 31점을 넘기는 경우에는 C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를 준다. 서울캠퍼스의 경우 수업 인원 중 A+~A: 30%, B+~B: 40%, C+~F: 30%로 성적을 부여하는데, 학수번호가 같은 과목의 경우에는 수업시간이 달라도 동일 과목으로 처리되기에, 본 연구자의 강의를 듣는 홍익대학교 서울캠퍼스 학생 전원의 성적을 수합하여 3분반 통합 성적을 산출한다. 세종캠퍼스의 경우에는 세종캠퍼스 교양과의 지침으로 인해 A+~A: 30%, B+~B: 30%, C+~F: 40%로 성적을 부여하는데, 학수번호가 서울과 같더라도 서울캠퍼스와 성적을 통합하지 않고 따로 성적을 산출한다.[6)]

과제 20점의 경우에는, 예전 『부수따라 익히는 1800한자』교재의 한자를 펜글씨 노트에 옮겨서 각 글자마다 10번씩 전부 다 쓸 경우 18400자가 나왔었는데, 『에듀윌 한자능력검정시험 2급』으로 교재를 교체하면서 한자의 양이 더욱 늘어나게 되어 학생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감이 있었다. 이같은 이유로 예전 과제 기준으로 18400자만 교재 안에서 자유롭게 선택하여 써서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 과제는 제출을 안하면 무조건 F이기 때문에, 반강제적으로

---

4) 서울캠퍼스의 경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과제가산점, 지각결석점수만을 더했을 때 학생이 취득할 수 있는 최대점수가 63점인데, A+ 커트라인이 2015년 제2학기에는 59.25점, 2016년 제1학기 60.4, 제2학기 61.4까지 점점 높아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추후 강의 때에는 시험문제를 개편하여 변별력을 더욱 향상시킬 계획이다.

5) 이 5점은 태도점수 10점 중 5점을 분리하여 부여하고 있다.

6) 본 연구자가 강의를 실시했던 2013년도 제1학기 당시에는, 원칙적으로 서울캠퍼스와 세종캠퍼스 학생들의 성적을 전부 통합하여 산출하도록 되어있었으나, 기존 강사들이 변칙적으로 세종캠퍼스 성적을 분리해서 산출하였었다. 일단은 학교의 지침을 따르기 위해 해당 학기에는 두 캠퍼스 학생들의 교양한문(초급) 성적을 통합하여 산출했으나 그 때문에 세종캠퍼스 학생들의 학점이 대거 낮아지게 되었고,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같은 학수번호라도 성적을 따로 산출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정식으로 학교에 건의를 하여 그 이후부터는 두 캠퍼스의 성적을 분리하여 산출하게 되었다.

수행을 해야 한다. 어차피 모든 어학의 기본적 요건은 암기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매 학기마다 과제를 철저히 수합하고 있으며, 학습능률을 높이기 위해서 중간고사 전에 제출하면 가산점 3점, 중간고사 이후 지정날짜 이전에 제출하면 가산점 2점, 기말고사 이전 지정날짜에 제출하면 가산점 0점, 그 이후 제출은 -2점으로 점수를 부여하고 있다. 가산점은 태도점수 10점 중 5점을 비워놓고, 그 안에서 과제수행 정도를 보아서 부여한다. 출석은 10점인데, 교칙상 4번 결석하면 F이며, 2번 지각은 1번 결석에 해당한다. 지각은 -0.5점, 결석은 -1점으로 처리한다. 과제노트 가산점과 출석점수가 학점 취득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학생들의 출석률은 매우 높은 편이다.[7)]

부정행위자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무조건 F를 부여한다. 학생들에게 학기 초부터 항상 강조하면서 하는 말이, '여러분들이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백지로 내도 출석만 다 하고 과제만 제대로 제출하면 C+는 준다. 절대로 컨닝은 하지 마라.' 이다. 이렇게까지 학생들을 배려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가끔씩 시험 중 부정행위를 저지르다가 적발되는 학생들이 있다.[8)] 그런 경우에는 현장에서 시험지를 찢어버리고 시험장에서 퇴장시키는데, 만약 학생이 부정행위의 죄를 뉘우치고 백배 사죄하는 경우에는 사정을 감안하여 F대신 D를 부여한다.[9)]

4. 結論

이상으로, 홍익대학교의 교양한문(초급) 과목의 강의에 대한 소소한 고찰을 실시하였다. 본고에서 논한 홍익대학교의 교양한문(초급) 교육과정은, 본 연구자의 과목에만 해당하는 것이며 타 강사와 교수들의 경우에는 다른 방식으로 강의를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자의 강의방식이 일부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분명 학습에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가끔은 강의평가의 불평사항들을 참고해보면 본 연구자의 강의가 책을 줄줄 읽는 듯한 느낌이라든지, 혹은 부교재 강의가 너무 지겹다는 평이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후 개선점을 계속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며, 그 일환으로 수업 중 멀티미디어 자료 활용을 대폭 확대할 것이다.

끝으로, 홍익대학교 교양한문(초급) 수업의 본교재와 부교재에 대해서 간단하게 평을 해보도록 하겠다. 본교재는 한자와 한문에 대한 배경지식이 전무한 학생들도 쉽게 따라올 수 있는 레벨에 맞추어 편찬되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조금만 학습에 대한 열의를 보이면 좋은 점수를 취득하는데 매우 도움이 된다. 개인적인 평으로는, 수준높은 한문으로 구성된 타학교의 기초한문이나 교양한문 교재들이 일부 학생들을 한자·한문포기자로 만드는 반면, 홍대 교재는 그러한 위험성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보여진다. 부교재의 경우, 출판사에

---

7) 본 과목의 경우 교수 재량으로 성적을 A+. B+, C+만 부여한다(출석미달이나 시험 중 부정행위를 행한 경우는 제외). 그래서, 0.05점 차이로 A+과 B+, B+과 C+의 운명이 결정되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 그 때문에 지각과 결석에 따른 감점과 과제로 인한 가산점에 대해 학생들이 느끼는 체감효과가 큰 편이다.

8) 홍대 강의시 본 연구자가 직접 적발한 컨닝의 유형은 컨닝페이퍼, 시험지 바꿔치기가 있었고, 시험감독 중 제보받은 컨닝의 유형은 컨닝페이퍼, 필통 밑 책상에 한자적기, 손바닥에 한자적기 등이 있었다. 적발된 학생들은 처벌하였으며, 부정행위를 제보한 학생들에게는 가산점을 부여하였다. 여담으로, 본 연구자의 타 학교 강의시에는 다리 사이에 스마트폰을 놓고 화면을 보면서 컨닝하는 경우도 있었다.

9) 백지를 내도 C+인데 부정행위를 하다가 용서를 받아도 D를 받게 되기 때문에, 시험공부를 성실하게 하지 않은 학생들은 이성적·합리적인 판단에 근거하여 차라리 백지를 내는 편이다.

서 최근 수정 제의가 들어와서 일부 오탈자만을 지적해주었다. 그런데, 부수 순으로 한자들을 새롭게 구성해서 출판해줄 수 있는지를 문의하였는데, 너무 공력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무리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한자들이 뒤죽박죽으로 섞여있어서 강의할 때 다소 불편한 점은 에듀윌 교재의 단점이지만, 한자 하나하나의 필순을 제대로 익힐 수 있고 또 파자로 인해 해당 한자의 근본적인 성격을 파악할 수 있게끔 해준다는 점에서는 분명 강점이 있는 교재이다.

상기 두 교재를 이용한 홍익대학교 교양한문(초급) 과목의 강의에 대한 본고의 정리가, 추후 우수한 연구자들에 의해 실시될 대학교 교양한문 강의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희망하며 글을 마친다.

<참고문헌>

1. 著書

유영봉·이관성,『새로운 대학한문』, 범한서적, 2008.
유영봉·조혁상『새로운 대학한문』개정판, 범한서적, 2014.
유영봉·하정원,『부수따라 익히는 1800한자』, 문진출판사, 2011.
에듀윌교육출판연구소,『에듀윌 한자능력검정시험 2급』, 에듀윌, 2013.
이민홍,『논어강의』, 문자향, 2005.

‘대학교 교양한문강의에 대한 소고

-홍익대학교 교양한문(초급) 강의를 중심으로-’ 토론문

임미정(연세대학교)

대학 간의 치열한 경쟁으로, 교과목의 세부적인 운영 방식 공개를 꺼리는 현 시점에서 조혁상 선생님의 글은 크게는 대학 교양한문 교육의 현장, 작게는 홍익대학교 교양한문의 세부적인 진행 상황을 알려주는 미덕을 지닌 발표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선생님께서 밝히셨듯이 이 글은 ‘수업 진행 과정과 방식에 대한 소개’여서, 질의자로서는 내용에 대해 사소한 궁금증을 질문하는 수준으로 질의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질의문도 이러한 점을 위주로 작성해 보았다.

1. 교재 부분: 발표자는 교재를 본교재, 부교재, 교보재(敎補材)로 나누어, 실제 수업에서 활용되는 서적과 보조 자료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소개하였다. 질의자가 소속된 연세대학교의 경우는 주교재 한 권을 지정하여 수업하고 있지만, 구입을 강제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복수의 교재를 사용하면 수업 현장에서는 학습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지만,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책 구입에 대한 거부감이 없지 않을 것이다.

또한 홍익대학교는 교양한문의 강의시수를 늘리면서 부교재를 3급에서 2급 수준으로 상향시켰다. 연세대학교는 외국인 유학생, 재외국민, 한자를 거의 모르는 학생들이 다수라는 현실을 감안하여 한문 ‘문법’과 장문의 ‘한문’을 수록했던 기존 교재에서, 최근 한자능력검정시험 3급 수준의 ‘한자’ 학습을 위한 교재를 만들어 수업의 난이도를 낮춘 상황이다.

두 권의 교재 구입과 학습 한자의 난이도 상승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 이에 대해 홍익대학교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2. 수업진행 부분: 발표자가 글에서도 밝혔지만 교양한문을 담당하는 교수자간의 수업 방식은 상이할 수밖에 없고, 실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 또한 학기 마다 심지어 강의실 간에도 편차가 있다. 대학에서는 대개 학기마다 회의나 워크숍을 통해서 실천 가능한 방안을 고민하고 강의 내용과 방식을 공유하고 있는데, 홍익대학교의 경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나가고 있는지 질의 드린다.

3. 학생들의 관심과 요구: 교양한문을 수강하는 학생들은 한자/한문 학습의 필요성에 대해서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질의자의 경험에 비추어보면, 학생들은 기초 한자 암기나 한자어와 고사성어 학습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지만, 한시 공부나 장문의

문장 학습은 부담으로 느끼는 것은 물론 그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비율이 낮았다.

발표자도 밝혔듯이 의외로 한자의 자원(字源)이나 한자를 둘러싼 이야기들을 설명하는 방식이 암기의 수월성도 높일 수 있고, 교과의 흥미 유발에도 효과가 있음에 동의한다. 이러한 학생들의 반응을 고려할 때 발표자는 추후 강의 내용과 방식에 대해 어떠한 전망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하다.

한국한문교육학회
2016년 동계학술대회

대학교육과 한문교육

발행일: 2017년 02월 4일
발행처: 한국한문교육학회

http://www.hanmunedu.or.kr